

#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 사사기

JDG · 역사서 · 히브리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21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 사사기 1장

JDG-001 · 역사서 ·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1:1)라는 지도자 없는 시대의 첫 물음으로 열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1:2)의 응답과 아도니 베섹의 인과 고백(1:7), 악사와 샘의 기억(1:12-15)을 지나 —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가 한 절에 놓이는 1:19의 긴장이 일곱 지파의 미완 연쇄(1:27-36)로 번지고, 마지막 단 지파는 오히려 산지로 밀려나는 사사기의 개막.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한 도시가 아니라 지도 전체 — 남쪽 네겟·유다 산지에서 중앙의 베넬을 지나 북쪽 해안·산악까지, 남에서 북으로 훑는 파노라마.
- 무대의 부재: 여호수아 — 죽음 다음에 호명되는 후계자가 없음. 빈 지휘소 아래에서 백성 전체가 직접 여호와께 묻는 개막.
- 소품: 잘린 엄지들(behonot, 6절), 칠십 왕이 부스러기를 줬던 상(7절), 윗샘과 아랫샘(gulot mayim, 15절), 나귀(14절), 철 병거(19절), 베넬 성문 입구(24-25절).
- 소품의 짝: 절단의 손(6절)과 수여의 손(15절 — 갈렙이 샘을 줌), 철의 무게(19절)와 문의 틈(25절).
- 소재의 기울기: 앞쪽 절반은 상승 어휘(올라가다·치다·점령하다·넘겨 주시다), 뒤쪽 절반은 하강 어휘(쫓아내지 못하다·거주하다·노역·몰아넣다).
- 형식 소재: 1절의 신탁 문의 형식("누가 먼저 올라가서"), 2절의 완료형 수여(natatti — 수 1:3과 같은 시제), 그리고 lo horish 아홉 번의 미완 보고.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부분은 여호수아서의 연장 같은 공기 — 묻고, 응답받고, 올라가고, 이김. 19절에서 처음 공기가 식고 장 끝까지 데워지지 않음.
- "쫓아내지 못하였으며"가 어둡게 쌓이는 후렴 — 처음에는 이유(철 병거)라도 있으나 뒤로 갈수록 이유 없이 보고만 남음.
- 32절에서 문장의 주어가 역전 —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누가 주인인지 바뀐 문장.
- 남쪽 장면들은 빛(동행·샘·협력), 북쪽으로 갈수록 보고가 짧아지고 어두워짐 — 남에서 북으로 해가 지는 파노라마.
- 보고서의 문체 속 네 단의 하강: 못함(27) → 안 함(28) → 쉬임(32) → 밀려남(34).
- 여호와의 발화는 2절 단 한 번 — 수 1장의 아홉 절 위임 발화와 대비되는 발화 분포. 배경.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 36절: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쪽이었더라."
- 이스라엘의 물음으로 열려 아모리의 경계선으로 닫힘 — 첫 절의 주어는 이스라엘 자손, 마지막 절의 주어는 아모리 족속.
- 어미의 이동: 물음의 종결("싸우리이까")에서 측량 보고의 종결("위쪽이었더라")로 — 대화가 사라지고 지형만 남는 닫힘.
- 2절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 34절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 명령받은 상승과 떠밀린 상승이 머리와 꼬리에서 마주 봄.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2절 발화, 19·22절의 '함께 계신' 분), 유다·시므온(상호 계약의 형제 지파), 아도니 베섹(가장 긴 대사를 가진 적장), 갈렙·약사·웃니엘, 겐 사람(모세의 장인의 자손), 요셉 가문·정탐꾼·루스 사람, 베냐민·므낫세·에브라임·스불론·아셀·납달리·단, 가나안·아모리 족속.
- 중심 사상: 동행과 미완의 공존 — "함께 계셨으므로"(19절)·"함께 하시니라"(22절) 끝에 매번 한계가 붙음. 본문은 둘을 나란히 두고 설명하지 않음.
- 위임 양식의 부재: 죽음 통지 다음에 후계자 호명·격려가 없고, 사람 대신 지파가 지명됨("유다가 올라갈지니라").
- 상호 계약(3절): "나와 함께 올라가면 나도 너와 함께 가리라" — 지도자의 명령이 아니라 형제 사이의 합의로 시작되는 전쟁. 지도자 없는 시대의 첫 작동 방식.
- 적장의 입의 신학(7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자기가 행한 일의 거울로 읽는 인과 고백 — 그 절단을 행한 손은 이스라엘이며, 본문은 그 행위를 평가하지 않음.
- 샘의 청원(15절): 마른 땅을 받은 약사가 그 땅을 살 만하게 하는 것을 마저 구함. / 노역(mas)의 선택: 쫓아내는 대신 부리는 쪽 — 28·30·33·35절에 네 번 기록됨.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물음과 출정 — 부고·신탁 문의(1), 유다 지명과 완료형 수여(2), 시므온과의 계약(3), 베섹 전투와 절단(4~6), 적장의 고백과 죽음(7).
- 컷 2 (8~21절): 남부 종주 — 예루살렘(8), 헤브론·드빌(9~11), 약사와 샘(12~15), 겐 사람(16), 호르마(17), 블레셋 세 성(18), 그리고 두 그늘 — 철 병거의 골짜기(19)와 여부스(21).
- 컷 3 (22~26절): 요셉 가문과 베엘 — 정탐꾼과 루스 사람의 협력, 성문 입구, 함락과 방면, 헛 땅의 새 루스.
- 컷 4 (27~36절): 미완의 연쇄 — 므낫세·에브라임·스불론·아셀·납달리·단의 일곱 보고와 아모리의 경계선.
- 컷 4 내부의 하강 사다리: 못함(27, 가나안의 결심) → 안 함(28, 강성한 후에야 노역) → 섞임(32, 주어 역전) → 밀려남(34, 주도권 상실). 수 15~17장의 미완 세 건이 일곱 지파로 불어난 확산.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shaal*(שָׁאַל) — 묻다·구하다(1절). 같은 물음 형식이 20:18에서 내전의 문맥으로 반복 — 형태 관찰만.
- *mi yaaleh*(מִי יָאֵלֶה) — 누가 올라가리이까(1절). / *alah*(אָלַח) — 올라가다. 34절에서 방향이 역전됨.

- *natatti*(נָתַתִּי) — 내가 넘겨 주었다(2절). 완료형 수여 — 수 1:3과 같은 시제의 발화.
- *goral*(גֹּרָל) — 제비·할당된 몫(3절). / *Adoni-vezeq*(אֲדֹנֵי־וְזֶזֶק) — '베섹의 주'라는 호칭형 이름(5절).
- *behonot*(בְּהֹנוֹת) — 엄지들(6절). / *shillam*(שִׁלָּם) — 되갚다·온전히 치르다(7절). 레 24장의 어휘권.
- *berakhah*(בִּרְכָּה) — 복(15절). / *gulot mayim*(גִּלּוֹת מַיִם) — 물의 샘들, 윗샘·아랫샘의 쌍. / *negev*(נֶגֶב) — 남방의 마른 땅.
- *Chormah*(חֹרְמָה) — 호르마(17절). 진멸하다(*charam*)와 같은 어근의 지명 언어유희.
- *rekhev barzel*(רֶכֶב בַּרְזֶל) — 철 병거(19절). / *emeq*(עֲמֶק) 골짜기 · *har*(הָר) 산지 — 이 장의 지형 한 쌍.
- *lo horish*(לֹא הוֹרִישׁ) — 쫓아내지 못하였다. *yarash*의 사역형 부정 — 19·21·27·28·29·30·31·32·33절의 후렴.
- *hoil*(הוֹאִיל) — 뜻을 굳히다(27절). 미완이 상대의 결심이 되는 어휘. / *mas*(מַס) — 노역·부역(28절 등 네 번).
- *Luz*(לוֹז) — 루스(23절). 벤엘의 옛 이름 — 26절에서 헛 땅에 같은 이름의 새 성읍이 세워짐.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물음(1) + 유다의 상승(2~18) + 첫 그늘(19~21) + 벤엘(22~26) + 미완의 연쇄(27~36) — 상승에서 하강으로 기우는 개막 구조.
- 1:1의 물음과 21:25("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액자 — 묻던 백성이 권의 끝에서 각자의 소견으로 흩어짐.
- 악사 일화(12~15절) = 수 15:16-19의 거의 동일한 본문 — 같은 기억이 두 권에 보존된 편집의 결.
- 수 15:63(유다가 여부스를 쫓아내지 못함) ↔ 샏 1:21(주어가 베냐민) — 같은 일의 다른 인텍스.
- 수 17:18("철 병거가 있을지라도 능히 쫓아내리라") ↔ 샏 1:19("있으므로 못하였으며") — 양보절이 이유절로 바뀌는 접속의 간격.
- 하강 사다리: 못함 → 안 함 → 섞임 → 밀려남 (27·28·32·34절). 마지막 단은 정복 보고가 아니라 피난 보고.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엄지손가락·엄지발가락 절단 — 칼을 쥐고 달리는 능력을 끊는 포로 처분 관습(고대 그리스·근동의 유사 사례). 1:6-7의 배경.
- 칠십 명의 왕 — 근동 왕실 수사의 전체수. 상 아래 부스러기는 패전 봉신의 굴욕 의례와 닿는 그림. 1:7의 배경.
- 철 병거 — 평지 전력의 우위 장비. 산지와 골짜기의 운명이 갈리는 1:19의 배경.
- 노역(*mas*) — 정복지 주민의 부역 편입 관행. 아마르나 서신의 *massu* 용례와 닿는 어휘. 1:28-35의 배경.
- 성읍 개명 — 루스→벤엘(창 35:6), 그리고 방면된 루스 사람이 헛 땅에 옛 이름의 새 성읍을 세움(1:26) — 이름과 소유가 결부되는 관습의 양면. "오늘까지 그 이름이라"는 지명 유래 각주.
- LXX: 1:18의 부정어 추가(블레셋 세 성), 1:14의 주어 차이(악사/웃니엘), Ἀδωνιβεξεκ 음역 — 본문비평·번역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 샏 1:1 ↔ 수 1:1 (모세가 죽은 후에 /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 같은 개막 형식, 후계자의 유무가 다름)
- 샏 1:12-15 ↔ 수 15:16-19 (악사 일화 — 두 권에 보존된 같은 본문)
- 샏 1:21 ↔ 수 15:63 (여부스를 쫓아내지 못함 — 주어가 베냐민/유다로 다른 평행)
- 샏 1:27-28 ↔ 수 17:11-13 (므낏세의 미완과 노역 — 전사)

- 샷 1:29 ↔ 수 16:10 (게셀의 가나안 족속 — 전사)
- 샷 1:19 ↔ 수 17:16-18 (철 병거 — '있을지라도'에서 '있으므로'로)
- 샷 1:16 ↔ 민 10:29-32 (모세의 장인 겐 사람 — 동행의 전사)
- 샷 1:34 ↔ 샷 18장 (단 지파의 이주 — 밀려남이 닿는 후속)
- 샷 1:1 ↔ 샷 20:18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 같은 물음, 다른 대상)
- 샷 1장 ↔ 샷 2:1-5 (보김 — 진단 다음의 통고와 울음)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회중의 마당, 아침. 단 위가 비어 있다. 자막 —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얼굴들이 하늘을 향한다 —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음성이 내려온다 —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두 지파가 어깨를 결는다 — 나와 함께 가면 나도 너와 함께. 베섹의 전장, 달아나는 왕, 내려오는 칼, 잘리는 엄지들. 끌려가는 왕의 독백 — 칠십 명의 왕들이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에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다. 남쪽으로 — 헤브론, 드빌, 나귀에서 내리는 여인, 윗샘과 아랫샘의 물빛, 종려나무 성읍의 겐 사람들, 호르마의 연기, 블레셋 세 성. 골짜기 어귀에서 화면이 멈춘다 — 철 병거의 행렬.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는 얻었으나, 골짜기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북쪽으로 — 베엘 성문을 가리키는 손가락, 함락, 헛 땅에 다시 세워지는 같은 이름의 성읍. 보고가 자막으로 흐른다 —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스불론이, 아셀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납달리가. 마지막 컷, 산비탈로 밀려 올라가는 단의 행렬. 화면에 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선 —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쪽, 아모리의 경계. 암전.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 아홉 번의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 초벌 부제: "여호수아의 부고 뒤에 후계자 대신 물음이 놓이고(1:1), 완료형의 수여('넘겨 주었노라', 1:2)와 아도니 베섹의 인과 고백(1:7) 위에서 남쪽의 상승이 북쪽의 하강으로 기우는 — '함께 계셨으므로'와 '못하였으며'(1:19)를 한 절에 둔 채 일곱 지파의 미완으로 번져 가는 사사기 전권의 진단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2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하강 사다리 구조 + 약사 일화의 두 권 보존 + 수 17:18과의 접속 간격 + ANE 절단·노역·개명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1:7의 인과 고백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보응 교리의 증명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적장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발화 사실과 shillam의 어휘 관찰로만 둬. 이스라엘의 절단 행위에 대한 본문의 무평가도 비워 둔 채 보존.
- 1:19의 '함께 계셨으므로 / 못하였으며'를 믿음 부족론이나 하나님의 능력 제한론 어느 쪽으로도 닫지 않고, 한 절 안의 두 인과가 접속사로만 묶여 있다는 형식 관찰로 보존.
- 1:28의 노역 선택을 불순종의 정죄로 단정하지 않고, '강성한 후에야'라는 시간 부사와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부정문의 형식 사실로만 기록.
- 악사 일화의 재배치를 특정 편집 가설의 증명으로 끌고 가지 않고, 같은 본문이 두 권에 보존되어 있다는 형태 관찰로만 둬.
- 1:34의 단 지파 밀려남을 18장 이주의 도덕적 평가로 잊지 않고, 하강 연쇄의 마지막 단이라는 구조 관찰과 18장으로 열린 이월로만 둬.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1:1)라는 후계자 없는 시대의 물음으로 열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1:2)는 완료형의 응답과 유다·시므온의 상호 계약(1:3), 아도니 베섹의 인과 고백(1:7), 악사와 샘의 기억(1:12-15)을 지나 —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1:19)의 한 절 안 긴장이 베냐민(1:21)과 일곱 지파의 연쇄(1:27-36)로 변지고, 마지막 단 지파가 산지로 밀려난 채 아모리의 경계선(1:36)으로 닫히는, 사사기 전권의 진단서 같은 개막이다.

**한 문단:** 회중의 마당, 단 위가 비어 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 권이 부고로 열리는데, 이번에는 호명되는 후계자가 없다. 백성이 직접 묻는다 —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음성이 응답한다 —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넘겨 주었노라. 두 지파가 어깨를 겹고, 베섹의 들에서 만 명이 쓰러지고, 달아나던 왕의 엄지가 잘린다. 끌려가는 그의 입에서 이 장의 신학이 나온다 — 칠십 명의 왕들이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다. 남쪽은 빛이 든다 — 헤브론과 드빌, 나귀에서 내려 샘을 구하는 악사, 종려나무 성읍의 겐 사람, 호르마, 블레셋 세 성. 그러나 골짜기 어귀에서 철 병거가 화면을 막는다 —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는 얻었으나, 못하였으며. 그 한 절부터 해가 기운다. 베냐민이 못 쫓아내고, 므낫세가 못 쫓아내 매 가나안이 뜻을 굳히고, 강성한 후에야 노역을 시켰고, 아셀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고, 단은 산지로 밀려 올라간다. 화면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아모리의 경계선이다. 그리고 아무도 아직 울지 않는다.

#### B·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남에서 북으로 훑는 지도 전체의 무대, 빈 지휘소, 잘린 엄지·상·샘·철 병거·성문이라는 소품 — 상승에서 하강으로 기우는 소재. |

| 단계         | 핵심 발견                                                                                 |
|------------|---------------------------------------------------------------------------------------|
| 2 첫 느낌·분위기 | 19절에서 식는 공기. "쫓아내지 못하였으며"의 어두운 후렴. 남쪽의 빛과 북쪽의 그늘. 보고서 문체 속 네 단의 하강.                   |
| 3 시작과 끝    | 이스라엘의 물음으로 열려 아모리의 경계선으로 닫힘 — 주어의 교체. 명령받은 상승(1:2)과 떠밀린 상승(1:34)의 대칭.                 |
| 4 등장인물·사상  | 가장 긴 대사는 적장의 것. 동행("함께 계셨으므로")과 미완의 공존. 후계자 없는 부고와 형제 사이의 상호 계약.                      |
| 5 장면 컷     | 물음·출정(1~7)/남부 종주(8~21)/벤엘(22~26)/미완의 연쇄(27~36) 4컷. 컷 4 내부는 못함→안 함→섞임→밀려남의 사다리.        |
| 6 의문·발견·정보 | 악사 일화의 두 권 보존. '있을지라도'(수 17:18)에서 '있으므로'(1:19)로 바뀐 접속. lo horish 아홉 번. LXX 1:18의 부정어. |
| 7 동영상      | 빈 단 아래의 물음 → 잘린 엄지와 독백 → 샘의 물빛 → 철 병거 앞의 멈춤 → 일곱 보고의 자막 → 밀려 올라가는 행렬 → 경계선.           |
| 8 초별 제목·부제 |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 아홉 번의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
| 9 기도·내면    | 한 절 안의 두 문장 — 함께 계셨으므로, 못하였으며 — 그 사이를 조르지 않고 들고 머문다.                                  |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후계자 없는 부고, 그러나 아직 묻는 백성:** 수 1:1과 샷 1:1은 같은 개막 형식이다 — "모세가 죽은 후에" /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런데 앞 권에서는 죽음 다음에 한 사람이 호명되고 아홉 절의 격려가 이어졌고, 이 권에서는 호명되는 사람이 없다. 그 빈 곳에서 백성이 직접 여호와께 묻는다. 묻는 것은 이 장 전체에서 가장 건장한 동작이고, 권의 첫 동작이다. 그리고 권의 마지막 문장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다. 묻는 백성에서 각자의 소견으로 — 1장 1절은 그 긴 거리의 출발 좌표다.

2. **결 2 — 적장의 입에서 나오는 인과, 그리고 같은 손의 그늘:** 이 장에서 하나님에 관한 가장 긴 문장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아도니 베섹의 것이다 —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shillam)." 자기 운명을 자기 행위의 거울로 읽는 고백이 포로가 된 왕의 입에서 나온다. 그런데 그 절단을 행한 손은 이스라엘이고, 본문은 그 손을 칭찬도 정죄도 하지 않는다. 적장의 처분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한 행위와, 그 행위 위에서 올리는 인과의 고백 — 본문은 둘을 겹쳐 두고 평가를 비워 둔다. 그 공백이 독자를 관찰자로 세운다.

3. **결 3 — lo horish의 연쇄, 못함에서 밀려남까지의 하강:**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아홉 번 반복된다. 그런데 같은 후렴이 같은 높이에 있지 않다. 철 병거라는 이유가 있는 못함(19절)에서, 가나안이 뜻을 굳히는 못함(27절)으로, 강성한 후에도 다 쫓아내지 '아니한' 안 함(28절)으로,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는 섞임(32절)으로, 산지로 밀려나는 단(34절)으로 — 한 단씩 내려간다. 여호수아 15~17장에서 세 건이었던 미완이 여기서 일곱 지파로 불어나 있다. 권의 하강 나선이 시작되기 전에, 1장이 그 나선의 단면도를 미리 그려 둔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수 1:1 — "모세가 죽은 후에" — 같은 부고 개막, 후계자의 유무가 갈리는 평행.
- 수 15:16-19 — 악사 일화의 원위치 — 같은 본문이 사사 시대의 문턱에 재배치됨.
- 수 15:63 — 여부스를 쫓아내지 못한 유다 — 샷 1:21의 베냐민과 주어가 다른 평행.
- 수 16:10; 17:11-13 — 게셀과 므낫세의 미완 — 1:27-29의 전사.
- 수 17:16-18 — "철 병거가 있을지라도 능히 쫓아내리라" — 1:19과의 접속 간격.



- 민 10:29-32 — 모세의 장인 겐 사람 — 1:16 동행의 전사.
- 샷 2:1-5 — 보김의 통고와 울음 — 1장의 진단이 향하는 다음 장면.
- 샷 18장 — 단 지파의 이주 — 1:34의 밀려남이 닿는 후속.
- 샷 20:18 —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 같은 물음이 내전의 문맥에서 반복, 배경.
- 샷 21:25 — "왕이 없으므로" — 1:1과 액자를 이루는 권의 도착점.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1의 물음에서 시작한다 — 지도자가 사라진 국면에서 내가 아직 하고 있는 가장 건강한 동작이 무엇인지 듣는다.
- **멈춤 1:** 1:7에서 멈춘다 — 적장의 입에서 나온 인과의 고백과, 평가 없이 기록된 절단의 손. 둘을 같이 전다.
- **멈춤 2:** 1:15에서 멈춘다 — 마른 땅을 받은 악사가 샘을 마저 구하는 동작. 받아 둔 것과 아직 구하지 않은 것.
- **끝:** 1:19에서 멈춘다 — 함께 계셨으므로, 그리고 못하였으며. 내 안의 산지와 골짜기를 한 절 안에 나란히 두고 본다.

#### F · 자족성 점검

- [x] 물음(1)·유다의 상승(2~18)·첫 그늘(19~21)·벤엘(22~26)·미완의 연쇄(27~36)의 다섯 단 완결
- [x] lo horish 아홉 번의 분포와 하강 사다리(못함→안 함→섞임→밀려남)
- [x] 아도니 베섹 고백의 발화 사실과 절단 행위의 무평가
- [x] 악사 일화의 두 권 보존과 수 17:18과의 접속 간격
- [x] 1:1의 물음과 21:25의 액자 구도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다 (book-telos). 권의 흐름은 미완과 진단(1~2장),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부록(17~21장)으로 움직이는데, 1장은 첫 국면의 개막 — 여호수아의 빈 곳에서 미완이 전 지파로 번지는 진단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여호수아서가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수 21:45)로 닫은 바로 다음 국면에서, 같은 완료형 약속("넘겨 주었노라", 1:2) 아래의 백성이 못함과 안 함의 측량 보고를 받아 듣는다. 약속이 변한 것이 아니라 받는 쪽의 보고가 변해 있다 — 그 간격의 기록이 1장이다. 그리고 권의 heart — 부르짖음마다 뜻을 돌이켜 구원자를 일으키시는, 탄식 섞인 공황 — 의 첫 동작이 여기서는 눈물보다 먼저 오는 정직한 진단으로 나타난다. 일곱 번의 미완을 감추지 않고 지파별로 적어 두는 이 측량이, 2장 보김의 통고와 울음을 지나, 구원자들의 시대를 거쳐, 참왕을 묻는 권 끝의 문장까지 이어지는 긴 호의 첫 점이다. 상처 부위를 정확히 짚는 손이 치료를 시작하는 손이다.

####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음(1:1)에서 진단(1:27-36)으로 / 완료형의 수여(1:2 natatti)에서 아홉 번의 lo horish로 / 남쪽의 상승(1:2 유다가 올라갈지니라)에서 북쪽의 밀림(1:34 단)으로 — 정직한 측량이 다음 장의 눈물을 준비하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장은 '여호수아 이후'라는 빈 국면을 측량하고 그 단면도를 권의 입구에 걸어 두는 운동이다. 신탁 문의(1절)가 유다의 종주(2~18절)로, 종주가 19절의 첫 그늘로, 그들이 일곱 지파의 연쇄(27~36절)로 번지며 화면이 남에서 북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1장이 끝나도 아무도 울지 않는다 — 통고와 울음은 2장 보김에서야 온다. 1장의 백터는 전권을 '미완의 진단에서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음에서 구원자들의 사이클로, 사이클의 바닥에서 왕이 없으므로(21:25)라는 고백으로' 끌고 가는 긴 하강 나선의 첫 구간이며, 그 나선 전체가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는 쪽으로 움직인다.

####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지파별 전과(戰果) 보고서다 — 누가 어디를 얻었고 누가 어디를 못 얻었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정직이다. 본문은 잘된 보고만 골라 남기지 않는다. 못함(19절)과 안 함(28절)과 섞임(32절)과 밀려남(34절)을 지파의 이름과 함께 다 적는다. 이 권이 실패의 기록을 보존하는 방식 자체가, 실패를 끝으로 삼지 않으시는 분의 손길을 문체로 보여 준다. 둘째, 동행의 지속이다. 미완의 장인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19절)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22절)가 기록되어 있다. 함께하심이 철회되었다는 문장은 없다. 동행과 미완이 한 절 안에 공존하는 1:19은, 이 권 전체가 견뎌야 할 긴장의 축소판이다. 셋째, 물음의 보존이다. 지도자가 없는데 백성이 묻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 권의 첫 동작이 신탁 문의다. 그 물음이 권의 끝에서 어떻게 비워지는지(21:25)를 알고 읽으면, 1:1의 물음은 이 권이 잃어 가는 것의 첫 기록이기도 하다. 본문은 거기까지만 보여 주고 멈춘다.

####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어떤 빈 지휘소 앞에서 있는가 — 기대던 이가 사라진 국면에서 아직 묻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의 측량 보고는 정직한가 — 얻은 산지만 적고 못 얻은 골짜기는 지워 둔 것은 아닌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정복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빈 단 아래에서 묻는 백성을 보여 주고, 한 절 안에 동행과 미완을 나란히 둔 문장을 보여 주고, 마른 땅에서 샘을 마저 구하는 한 여인의 동작을 보여 준다. 일곱 번의 미완 보고를 감추지 않는 이 권의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자기 골짜기를 지우지 않고 적어 보는 일, 못함과 안 함의 경계를 시간 부사 하나까지 살펴보는 일, 그리고 그 측량 위에서도 "함께 계셨으므로"가 여전히 유효한 문장인지 들고 머무는 일. 진단서가 눈물보다 먼저 오고, 눈물이 부르짖음보다 먼저 오고, 부르짖음마다 구원자가 일어나는 권이 이제 열린다 — 그 첫 측량에 자기 이름을 넣어 보는 것, 그 간격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측량은 끝났고 아무도 아직 울지 않았다 — 여호와와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고(2:1), 백성이 소리 높여 울며 그곳 이름이 '우는 자들'이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i yaaleh* — 누가 올라가리이까.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1:19 — "함께 계셨으므로"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는 한 절 안에서 어떻게 공존하는가?**

- 동행이 끝났다는 말도, 철이 동행보다 강하다는 말도 본문에 없다. 수 17:18은 "철 병거가 있을지라도 능히 쫓아내리라"였는데 여기서는 "있으므로 못하였으며"다. 양보절과 이유절 사이의 거리를 어느 쪽으로도 닫지 않고 보존.

**Q2. 아도니 베섹의 고백(1:7) — 적장의 입의 신학을 본문은 왜 평가 없이 두는가?**

-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라는 문장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포로가 된 왕의 입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절단을 행한 손은 이스라엘이다. 고백의 무게와 행위의 그늘을 함께 켜 채, 본문의 침묵을 침묵대로 보존.

**Q3. 악사 일화(1:12-15)는 왜 두 권에 보존되어 사사 시대의 문턱에 다시 놓이는가?**

- 수 15:16-19와 거의 동일한 본문이 미완의 연쇄 직전에 한 번 더 나온다. 마른 땅에서 샘을 구하던 기억이 이 위치에 다시 놓인 편집의 결 — 의도를 단정하지 않고 배치의 사실만 기록. 보존.

**Q4. "강성한 후에야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1:28) — 이것은 불능인가 불이행인가?**

- 힘이 없어 못한 것(19절)과 힘이 생긴 뒤에 안 한 것(28절)이 같은 연쇄 안에 있다. 못함이 안 함으로 바뀌는 경계가 어디인지, 본문은 시간 부사 하나("후에야")로만 표시한다. 보존.

**Q5. 아셀의 역전(1:32) —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에서 누가 누구를 품고 있는가?**

- 다른 보고들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했다고 적는데, 아셀과 납달리에서는 주어가 뒤집힌다. 문장 하나의 어순이 보여 주는 주객의 이동 — 그 끝이 어디로 가는지는 권을 더 읽으며 열어 둔다. 보존.

**Q6. 1:1의 묻는 백성과 21:25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 권의 첫 동작은 여호와께 묻는 것이고, 권의 마지막 문장은 각자의 소견이다. 같은 물음 형식이 20:18에서는 형제를 치는 내전의 물음이 되어 있다. 물음의 형식이 보존되는 동안 무엇이 비워졌는지 — 권 전체를 읽으며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사기 2장

JDG-002 · 역사서 · 히브리어

여호와와 사사가 길갈에서 보킴으로 올라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2:2)를 묻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던 곳에 '우는 자들'이라는 이름이 남은 뒤(2:5), 여호수아의 죽음이 다시 서술되고(2:6-9)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며(2:10), 범죄→넘기심→부르짖음→사사→재타락의 다섯 박자가 '조상들보다 더욱'(2:19)이라는 나선으로 미리 그려지는 — 신임에 뜻을 돌이키시는 마음(yinnachem, 2:18)이 바닥에 깔린 사사기 전권의 설계도.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1 — 길: 사사가 길갈에서 보킴으로 올라옴(1절). 출발지는 수치가 굴러갔다고 이름 얻은 땅(수 5:9), 도착지는 이 장에서 '우는 자들'로 이름을 얻는 들판(5절). 두 지명의 거리가 한 세대의 거리.
- 무대 2 — 되감긴 장면: 여호수아의 해산(6절), 담낫 헤레스의 무덤(9절), 세대 교체(10절). 시간 순서로는 보킴보다 앞선 회고가 뒤에 배치됨.
- 무대 3 — 지도 전체: 11절부터 특정 장소가 사라지고 시대 전체가 무대가 됨. 사사들이 서고 죽는 몇십 년이 아홉 절에 압축.
- 소품: 헐리지 않은 제단들(2절), 울음 소리(4절), 제사(5절), 무덤(9절), 가시·울무(3절 — 예고된 소품), 바알들과 아스다롯(11~13절), 노략자의 손(14절), 신음 소리(18절). 앞의 울음과 뒤의 신음 — 한 장 양 끝의 소리 두 개.
- 소재의 두 흐름: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사자·언약·사사·구원·돌이키심) 對 아래에서 새는 것들(망각·버림·음행·타락). 내려오는 줄도 새는 구멍도 끝까지 멈추지 않음.
- 형식 소재 1: 2:6-9 = 수 24:28-31의 재개 반복(Wiederaufnahme) — 같은 부고가 다른 배열로, 끝에 10절이 덧붙음.
- 형식 소재 2: 11~19절의 반복상 동사 — 단회 사건이 아니라 '~하곤 했다'의 패턴 진술. 서문의 문법.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2절) — 추궁의 차가움보다 상한 마음의 온도. 답이 없는 줄 알면서 묻는 질문.
- 울음(4~5절)과 제사 다음에 아무 변화도 기록되지 않음 — 보킴의 울음이 11절의 악행으로 이어지는 공백이 이 장에서 가장 서늘한 부분.
- 법정(1~5)에서 조문(6~10)으로, 조문에서 빨리 감기는 몰락의 연대기(11~19)로 옮겨가는 공기. 구원이 기록되는데도 어두운 연대기.
- '아니하다'의 사슬: 듣지(2)·쫓아내지(3)·알지(10)·순종하지(17)·그치지(19)·쫓아내지(21)·넘겨 주지(23) — 부정문의 바다 한가운데 놓인 유일한 상승 동사, 18절의 돌이키심.

- 옆구리의 가시(3절) — 정면의 칼이 아니라 곁을 계속 찌르는 통증의 예고. 신음(naaqah, 18절) — 말이 되지 못한 소리에 돌이키시는 구조.
- 발화 분포: 사자(1~3) → 백성의 울음(4~5, 말 없음) → 서술자(6~19) → 여호와(20~22) → 서술자(23). 백성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울기만 함 — 배경.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여호와와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킴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지 아니하셨더라."
- 하늘의 발화로 열려 하늘의 결정으로 닫힘 — 양 끝에 사람의 행동이 없음. 시작은 올라움이 두 번 겹치는 상승, 끝은 이중 부정의 정지.
- 1절의 수여 회고(올라오게·들어가게·어기지 아니하리라)가 23절의 보류(쫓아내지·넘겨 주지 아니하심)로 — 같은 발화자의 문법이 한 장 사이에 바뀜.
- 7절("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이 장 안의 마지막 밝은 문장 — 밝음의 조건이 '본 사람들의 수명'. 기억의 수명이 신앙의 수명이 되는 구도.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와 사자(1인칭 발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듣고 우는 자들 — 발화 없음), 여호수아(죽어 장사 됨), 그 세대와 다른 세대(10절 — 실질 주역), 바알들과 아스다롯, 노략하는 자들과 사방의 대적, 사사들(이름 없는 복수 — 웃니엘도 에훗도 아직 없음), 남겨진 민족들.
- 중심 사상: 2:18의 돌이키심 — 근거가 자격도 회개도 아닌 신음(naaqah). 잘해서 구원받는 구조가 아니라 아파서 들으시는 구조.
- 다섯 박자의 뼈대: 범죄(11~13) — 넘기심(14~15) — 부르짖음(18b) — 사사(16·18a) — 재타락(19). 19절의 '조상들보다 더욱'이 원을 나선으로 바꿈.
- 사이클 안의 천장: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17절) — 구원자가 서 있는 동안에도 순종이 일어나지 않음. 사사 제도의 한계가 서문에 먼저 기록됨.
- 10절의 lo yadu — 모른 것이 두 가지(여호와를, 행하신 일을). 정보 결핍이 아니라 관계 단절의 동사. 망각은 침입이 아니라 누수였음.
- 손(yad)의 이동: 넘기시는 손(14절 두 번) → 건지시는 손(16·18절) → 여호수아의 손(23절) — 한 단어의 방향 전환으로 그려지는 신학.
- 범죄의 문법: azav(버리다)와 avad(섬기다)가 동시에 — 종교의 공백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 교체. 7절에서 여호와께 쓰이던 동사가 11절에서 바알에게로.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보킴 — 사자의 1인칭 고발(은혜 회고·위반 적시·질문·제재), 소리 높인 울음, 지명 획득, 제사.
- 컷 2 (6~10절): 되감기 — 해산, 섬김의 시대, 백십 세의 부고와 담낯 헤레스, 세대의 합류,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 컷 3 (11~15절): 범죄와 넘기심 — 바알들과 아스다롯, 진노, 노략자의 손과 대적의 손, 심히 곤고하였더라.

- 컷 4 (16~19절): 사사 시대 압축 — 세우심과 구원, 사사에게도 불순종, 동행과 돌이키심, 사후의 '더욱' 타락.
- 컷 5 (20~23절): 남겨두심 — 진노의 발화,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시험하려(nassot) 함이라, 머물러 두심.
- 컷 2의 배열: 시간상 컷 1보다 앞선 장면이 뒤에 옴 — 보김의 고발에 '어찌다 여기까지'의 답처럼 끼워진 회고. 수 24장과의 경첩.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malakh YHWH*(מַלְאֲכֵי יְהוָה) — 여호와와 사자(1절). 1인칭 신적 발화를 그대로 옮기는 전달자.
- *alah*(אֱלֹהִים) — 올라가다(1절 두 번). 사자의 이동과 출애굽 회고에 겹치는 동사.
- *lo afer*(לֹא אָפַרְתִּי) — 어기지 아니하리라(1절). *parar*(פָּרַק)의 부정.
- *letsiddim*(לְצִדִּים) — '옆구리가 되리라'(3절). MT의 짧은 읽기 — 민 33:55·수 23:13을 배경으로 번역들이 '가시'를 보충. 본문비평 배경.
- *moqesh*(מוֹקֵשׁ) — 올무(3절). / *Bokhim*(בֹּכִים) — 우는 자들(5절), *bakhah*의 분사 복수. / *zavach*(זָבַח) — 제사 드리다(5절).
- *lo yadu*(לֹא יָדָעוּ) — 알지 못하였더라(10절). 관계의 동사 *yada*의 부정. / *dor acher*(דּוֹר אַחֵר) — 다른 세대(10절).
- *Baalim*(11, בָּעֲלִים)·*Ashtarot*(13, אֲשֶׁת־וְיָ) — 복수형 신명. 우가릿의 바알·아타르트와 닿는 종교사 배경.
- *vayichar aff*(וַיִּחַר אֶפְרַיִם) — 진노가 타오르다(14절, 코가 뜨거워진다는 관용구). / *shosim*(שׁוֹשִׁים) — 노략하는 자들(14절). / *vayimkerem*(וַיִּמְכְּרוּ) — 파시매(14절, *makar* 팔다).
- *shoftim*(שׁוֹפְטִים) — 사사들(16절). 권 제목의 어원, LXX Κριταί. / *yasha*(יָשָׁא) — 구원하다(16·18절, *vayoshium*).
- *zanah*(זָנָה) — 음행하다(17절). 우상 숭배가 혼인 배반의 언어로.
- *yinnachem*(יִנָּחֵם) — 뜻을 돌이키다(18절). *nacham* 니팔형 — 탄식과 긍휼이 섞인 돌이킴. LXX παρεκλήθη.
- *naaqah*(נֶאֱקָה) — 신음(18절). 출 2:24의 그 명사 — 애굽에서의 신음을 들으시던 같은 단어.
- *hishchitu*(הִשְׁחִיתוּ) — 타락하다(19절). *shachat* — 부패하다·망가뜨리다. "조상들보다 더욱"의 비교급과 결합.
- *nassot*(נָסוֹת) — 시험하다(22절). *nasah* — 관계를 묻는 장치로서의 시험.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고발(1~5) + 회고(6~10) + 패턴 진술(11~19) + 결정(20~23) — 네 단의 서문 구조.
- 재서술의 차이: 수 24:29-31은 부고 뒤에 섬김을 두어 완성으로 닫고, 삿 2:6-10은 섬김 뒤에 부고를 두고 10절(망각의 세대)을 덧붙임 — 같은 죽음이 완성의 마침표에서 잃어버린 기준점으로. 인용 위치의 신학.
- 다섯 박자: 범죄 → 넘기심 → 부르짖음 → 사사 → 재타락. 회개 박자가 없음 — 부르짖음은 *naaqah*(신음) 이지 돌아섬의 언어가 아님.
- 나선의 지시어: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19절) — 사이클이 같은 곳으로 돌아오지 않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록 미리 적힌 비교급.
- '돌이키다'의 비대칭: 백성은 돌이켜 더욱 타락하고(19절), 여호와와 신음에 뜻을 돌이키심(18절) — 같은 운동의 정반대 방향.

- '아니하다' 사슬(2:3·10·17·19·21·23절)의 부정문 밀도와 그 한가운데 놓인 유일한 상승 동사(18절).
- shoftim의 익명성: 서문에서는 이름 없는 복수 — 고유명사(웃니엘부터)는 3장에서야 채워짐.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언약 소송(rib) 양식 — 종주가 사신을 보내 봉신의 조약 위반을 묻는 고소 발화. 은혜 회고·위반 적시·질문·제재 선언의 순서가 2:1-3과 겹침. 형식 배경.
- 마리 문서의 shapitum — 재판과 통치를 겸하는 직함, shofet의 서복셈어 동족어. 사사 직의 언어 배경.
- 근동의 집단 애곡 의례 — 수메르 도시 탄식문 등 재앙 앞에서 공동체가 소리 내어 우는 양식. 2:4-5의 배경.
- 우가릿 문서의 바알·아타르트 — 가나안 풍요 신앙의 신명들. 2:11-13의 종교사 배경.
- LXX: 보김 → Κλαυθμών(울음 — 지명의 뜻 번역), 2:1에 벤엘을 더해 읽는 사본 갈래, yinnachem → παρεκλήθη, shoftim → Κριταί(권 제목의 출처). 번역·본문비평 배경.
- 랍비 전통: 보김의 사자를 비느하스와 연결해 읽는 후대 갈래(세데르 올람 계열)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샏 2:6-9 ↔ 수 24:28-31 (같은 부고의 재서술 — 배열 차이와 10절의 추가)
- 샏 2:10 ↔ 수 4:6-7, 21-24 (요단의 돌들 — "자손이 물거둔" — 질문받지 못한 기억 장치)
- 샏 2:3 ↔ 수 23:13; 민 33:55 (울무·옆구리의 가시 — 경고의 어구가 현실 선고로)
- 샏 2:2 ↔ 출 23:32-33; 34:12-13; 신 7:2-5 (언약 금지·제단 훼파 명령 — 사자가 인용하는 율법)
- 샏 2:18 ↔ 출 2:24-25 (naaqah — 애굽의 신음을 들으심과 같은 명사)
- 샏 2:11-19 ↔ 시 106:43-45 (여러 번 견지심과 뜻을 돌이키심 — 사이클의 시편 요약)
- 샏 2:11-19 ↔ 샏 3:7-11 (웃니엘 — 다섯 박자의 첫 변주)
- 샏 2장 ↔ 샏 21:25 (왕이 없으므로 — 서문의 진단이 향하는 권의 도착점, 배경)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길 위로 한 형체가 올라간다. 여호와와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음성이 1인칭으로 말한다 —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화면 구석에 헐리지 않은 제단들.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 옆구리의 가시, 신들의 울무. 울음이 들판을 덮고 자막이 짙힌다 — 보김, 우는 자들. 제단의 연기. 화면이 퇴감된다 —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고, 백십 세의 무덤에 흙이 덮이고, 한 세대가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고, 새 얼굴들이 차오른다 —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빨리 감기 — 바알의 상 앞의 절, 노략자의 말발굽, 어디로 가든지 재앙, 그 위로 말이 되지 못한 신음. 그때마다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가 사는 동안 빛이 들고, 장례 행렬이 지나면 전보다 깊은 어둠 — 한 바퀴마다 더 낮은 곳으로. 마지막 음성 — 남겨 둔 민족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움직이지 않는 민족들. 암전.

##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별 제목: "보김의 울음 — 회개가 빠진 다섯 박자, 신음에 돌이키시는 마음"
- 초별 부제: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온 사자의 고발과 평가되지 않은 울음 위에서 여호수아의 부고가 잃어버린 기준점으로 다시 서술되고, 범죄→넋기심→부르짖음→사사→재타락의 다섯 박자가 '조상들보다 더



육'의 나선으로 미리 그려지며 — 신음(naaqah)에 뜻을 돌이키시는(yinnachem) 긍휼이 어두운 권 전체의 바닥에 깔리는 사사기의 신학 서문"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8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네 단 서문 구조 + 수 24장 재개 반복 + 다섯 박자와 나선 + 언약 소송·애곡의 레·shapitum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2:18의 yinnachem을 '하나님의 변덕'이나 '무조건적 묵인'의 교리로 단정하지 않고, 신음(naaqah)을 근거로 적은 본문의 문법과 출 2:24·시 106:45의 동일 어휘 연결이라는 형태 관찰로만 둬.
- 2:10의 세대 단절을 특정 세대 비판이나 교육 방법론 강의로 바꾸지 않고, 수 4장의 기억 장치가 질문받지 못한 결과라는 본문 간 배열의 관찰로 보존.
- 2:14의 "파시매(vayimkerem)"를 신정론의 일반 명제로 끌고 가지 않고, 넘기시는 손과 건지시는 손이 같은 단어로 적힌 어휘 분포의 관찰로만 기록.
- 보김의 울음(2:4-5)을 '거짓 회개'로 단정하지 않음 — 본문이 그 울음을 평가하지 않으므로 울음과 11절 사이의 공백을 미해결 질문으로 이월.
- 남겨두신 민족들(2:20-23)을 형벌 일변도나 시험 일변도 어느 쪽으로도 누르지 않고, 본문이 두 결(진노의 발화 안의 nassot)을 같이 둔 그대로 보존.
- 다섯 박자를 '인간 본성의 필연' 같은 보편 명제로 일반화하지 않고, 권의 서문이 이후 이야기를 위해 미리 그린 패턴 진술이라는 문학 관찰로 둬.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2장은 여호와와 사사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2:1-2)고 묻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던 곳에 '우는 자들'이라는 이름이 남은 뒤(2:5), 여호수아의 부고를 수 24장에서 다시 가져와 그 끝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2:10)를 덧붙이고, 범죄(2:11-13)→넘기심(2:14-15)→부르짖음(2:18b)→사사(2:16, 18a)→재타락(2:19)의 다섯 박자를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2:19)이라는 나선의 지시어와 함께 미리 그린 다음,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yinnachem)"(2:18)을

그 어두운 패턴의 바닥에 깔고, 남겨진 민족들을 시험(nassot, 2:22)으로 결정하며 닫히는 — 사사기 전권의 신학 서문이다.

**한 문단:** 길 위로 사자가 올라간다. 수치가 굴러갔다고 이름 얻은 땅에서, 곧 울음으로 이름을 얻을 들판까지. 1인칭의 음성이 은혜를 회고하고 위반을 짚고 묻는다 —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고 제사를 드리는데, 본문은 그 울음을 평가하지 않은 채 화면을 되감는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고, 백십 세의 무덤에 흙이 덮이고, 본 사람들이 다 떠나자 —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다. 그다음부터는 빨리 감긴다. 버리고 섬기고, 진노와 넘기심, 노략자의 손, 어디로 가든지 재앙 — 그 아래로 말이 되지 못한 신음이 깔리고, 그 소리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사사가 서고, 그가 사는 동안 빛이 들고, 그가 죽으면 조상들보다 더욱 — 한 바퀴마다 더 낮은 곳으로. 마지막 음성이 떨어진다. 남겨 둔 민족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민족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 땅에 서 있다.

## B ·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길갈→보김의 길, 되감긴 무덤, 지도 전체로 번지는 시대 — 헐리지 않은 제단과 양 끝의 소리 두 개(울음·신음).                          |
| 2 첫 느낌·분위기    | 답 없는 줄 알면서 묻는 질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울음, '아니하다'의 사슬과 한가운데의 돌이키심.                                 |
| 3 시작과 끝       | 올라오심(상승)으로 열려 머물러 두심(정지)으로 닫힘. 수여의 문법이 보류의 문법으로. 밝음의 조건은 '본 사람들의 수명'(7절).                 |
| 4 등장인물·사상     | 말없이 울기만 하는 백성, 이름 없는 복수의 사사들. 중심 사상은 2:18 — 신음에 돌이키시는 마음. 손(yad) 한 단어의 방향 전환.             |
| 5 장면 컷        | 보김/되감기/범죄와 넘기심/사사 시대 압축/남겨두심의 5컷. 시간상 앞선 회고가 고발 뒤에 배치되는 재개 반복.                            |
| 6 의문·발견·정보    | 수 24장 재서술의 배열 차이와 10절의 추가. 다섯 박자에 회개 박자가 없음. '돌이키다'의 비대칭(19절 ↔ 18절). naaqah = 출 2:24의 명사. |
| 7 동영상         | 길 위의 사자 → 울음의 이름 → 무덤과 새 얼굴들 → 빨리 감기는 나선 → 움직이지 않는 민족들. 압전.                               |
| 8 초별 제목·부제    | "보김의 울음 — 회개가 빠진 다섯 박자, 신음에 돌이키시는 마음"                                                     |
| 9 기도·내면       | 울음과 신음, 두 소리 사이 — 신음까지 들으시는 마음 곁에 머문다.                                                    |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길갈에서 보김으로, 지명 두 개가 그리는 거리:** 사자의 이동 경로가 곧 한 세대의 이력서다. 길갈은 요단을 건넌 백성이 할레와 유월절로 새 출발을 새긴 곳,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수 5:9)의 땅이다. 보김은 이 장에서 처음 이름을 얻는다 — 우는 자들. 수치가 굴러간 곳에서 울음이 고이는 곳까지, 지도 위의 짧은 거리가 본문 안에서는 망각 한 세대의 거리다. 그리고 그 도착지의 울음은 평가받지 못한 채 11절의 악행과 이어진다 — 지명은 남았는데 돌아섬은 기록되지 않았다.

**2. 결 2 — 다섯 박자와 '더욱', 원이 아니라 나선:** 11~19절은 사건 보도가 아니라 패턴 진술이다. 범죄, 넘기심, 부르짖음, 사사, 재타락 — 이후 웃니엘부터 삼손까지 모든 이야기가 이 악보의 변주가 된다. 두 가지가 악보 안에 미리 적혀 있다. 하나는 17절 — 사사가 서 있는 동안에도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구원자 제도 자체의 천장이다. 다른 하나는 19절의 비교급 —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사이클은 같은 곳으로 돌아

오지 않고 매번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서문이 원을 그리는 척하면서 나선을 그려 두었기에, 권의 끝(왕이 없으므로, 21:25)은 돌발이 아니라 도착이 된다.

**3. 결 3 — yinnachem, 신음에 돌이키시는 마음:** 다섯 박자 어디에도 회개가 없다. 18절의 부르짖음은 정돈된 돌아섬의 언어가 아니라 naaqah — 말이 되지 못한 신음이고, 출애굽기 2:24에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올라오던 바로 그 명사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소리에 뜻을 돌이키신다(yinnachem — nacham의 니팔형, 탄식과 긍휼이 섞인 돌이킴). 사이클을 다시 돌게 하는 동력이 백성의 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 이 한 절이 어두운 권 전체를 받치는 바닥이다. 그리고 같은 '돌이키다'의 운동이 19절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적힌다. 사람은 돌이켜 더 낮아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돌이키신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수 24:28-31 — 여호수아의 부고 원문. 샷 2:6-9가 배열을 바꿔 다시 서술하고 10절을 덧붙임 — 완성의 마침표가 잃어버린 기준점으로.
- 수 4:6-7, 21-24 — 요단의 돌들, "자손이 물거든 대답하라" — 2:10의 망각 뒤에 놓인, 질문받지 못한 기억 장치.
- 수 23:13; 민 33:55 — 올무·뿔·옆구리의 가시 — 2:3에서 경고의 어구가 현실 선고로 전환.
- 출 23:32-33; 34:12-13; 신 7:2-5 — 언약 금지와 제단 훼파 명령 — 사자가 2:2에서 인용하는 율법의 출처.
- 출 2:24-25 — 애굽에서의 신음(naaqah)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심 — 2:18과 같은 명사, 같은 들으심.
- 시 106:43-45 — "여러 번 건지셨으나 ...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 사사기 사이클의 시편 요약, 같은 어근 nacham.
- 샷 3:7-11 — 웃니엘 — 다섯 박자의 첫 변주이자 서문 악보의 첫 연주.
- 샷 21:25 — "왕이 없으므로" — 2장의 진단이 향하는 권의 도착점, 배경.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2:2의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에서 시작한다 — 답을 요구하기보다 상한 마음으로 묻는 질문이 내게도 닿아 있는지 듣는다.
- **멈춤 1:** 2:10에서 멈춘다 — 한 세대 만의 망각. 내가 본 것이 다음 사람에게 질문 가능한 거리 안에 있는지 본다.
- **멈춤 2:** 2:18에서 멈춘다 — 회개가 아니라 신음에 돌이키시는 마음. 정돈된 말이 되지 못한 내 소리도 들리고 있다는 사실 곁에 선다.
- **끝:** 2:19와 2:18 사이에서 멈춘다 — 아래로 도는 사람의 돌이킴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이키심. 두 방향 사이 어디에 내가 서 있는지를 닫지 않은 채 켜다.

#### F · 자족성 점검

- [x] 고발(1~5)·회고(6~10)·패턴 진술(11~19)·결정(20~23)의 네 단 완결
- [x] 길갈→보김 지명 이동과 '우는 자들'의 작명 경위
- [x] 수 24장 재서술의 배열 차이와 2:10의 추가
- [x] 다섯 박자의 구성과 회개 박자의 부재, naaqah와 yinnachem의 위치
- [x] '조상들보다 더욱'(19절)의 나선 지시어와 17절의 제도적 천장
- [x] 남겨두심의 두 결(진노·시험)이 조율 없이 나란한 종결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다. 권의 흐름은 미완과 진단(1~2장),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왕이 없으므로 일어나는 부록(17~21장)으로 움직이는데, 2장은 첫 국면의 완결이자 권 전체의 설계도다 — 1장이 '무엇이 남았는가'(미완의 목록)를 보여 줬다면 2장은 '왜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진단과 예고)를 적는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여호수아서가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수 21:45)로 담은 성취의 기록 바로 다음에, 그 성취를 받은 세대가 한 세대 만에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기록이 온다 — 약속의 신실과 기억의 취약이 정면으로 마주 보는 경계가 2:10이다. 그리고 권의 heart — 부르짖음마다 돌이키시는 탄식 섞인 공황 — 가 바로 이 장의 18절에서 선언된다. 회개가 빠진 다섯 박자가 그래도 멈추지 않고 도는 이유, 어두워지는 나선 아래에서도 구원자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사람 쪽 조건이 아니라 신음을 들으시는 마음 쪽에 있다는 사실이 서문에 먼저 적히는 것이다. 사사들의 한계(17절 — 그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19절 — 죽은 후에는 더욱)는 이 공황이 임시 구조로는 다 담기지 않음을 권 내내 증언하게 되고, 그 부족분이 21:25의 진단을 지나 왕에 대한 갈망으로, 그리고 정경의 더 긴 호 안에서 참왕의 필요로 이어진다.

##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길갈의 기억에서 보김의 울음으로(2:1-5) / 본 세대에서 알지 못하는 세대로(2:7→2:10) / 평가되지 않은 울음에서 들으시는 신음으로(2:4→2:18) — 회개가 빠진 다섯 박자의 나선 아래에 돌이키시는 마음이 깔리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2장은 '미완의 사실'(1장)을 '망각의 진단'으로 옮기고, 그 진단 위에 권 전체가 따라갈 악보를 미리 그리는 운동이다. 고발(1~5절)이 회고(6~10절)로, 회고가 패턴 진술(11~19절)로, 패턴이 시험의 결정(20~23절)으로 번역되며 — 장이 닫혀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제단은 서 있고 민족들은 남아 있고 세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미해결이 곧 추진력이다. 3장이 열리면 남겨진 민족들의 목록이 먼저 나오고, 그들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에서 첫 부르짖음이 올라가고, 서문의 이름 없는 복수(shoftim)가 첫 고유명사를 얻는다 — 웃니엘. 2장의 벡터는 전권을 '서문의 악보에서 열두 번의 변주로, 변주의 하강에서 왕이 없으므로(21:25)의 진단으로' 끌고 가는 긴 운동의 출발 지점이다.

##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배교와 형벌의 연대기다 — 버리고, 섬기고, 진노하시고, 넘기시고, 파시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들으심의 비대칭이다. 이 장에서 듣지 않는 쪽은 늘 백성이고(2:17·20절), 들으시는 쪽은 늘 하나님이다 — 그것도 정돈된 기도가 아니라 말이 되지 못한 신음(naaqah)까지.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한 들으심이 사이클을 끝내 끊어지지 않게 한다. 둘째, 심판 안의 관계다. 남겨두심은 버려두심이 아니라 시험(nassot)이다 —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22절). 시험은 응답을 기다리는 형식이고,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은 관계가 포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진노의 발화 안에조차 관계의 문법이 남아 있다. 셋째, 기억의 신학이다. 2:10의 망각은 박해도 침입도 없이 일어났다 — 본 사람들이 죽고, 질문이 끊기고, 이야기가 멈춘 것뿐이다. 요단의 돌들(수 4장)이 서 있어도 묻는 입과 대답하는 입이 사라지면 장치는 침묵한다. 이 권이 그리려는 위기가 군사적 위기 이전에 전승(傳承)의 위기라는 신호가 서문에 깔려 있다. 본문은 거기까지만 보여 주고 멈춘다.

내 안의 소리는 어느 쪽인가 — 평가받지 못한 채 지나간 보김의 울음인가, 들으시는 분께 닿은 신음인가. 그리고 내가 본 것은 지금, 다음 사람이 물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울음의 진위를 판정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울던 들판과 한 세대 만에 비어 버린 기억과, 그 아래에서 신음에 돌이키시는 마음을 차례로 보여 준다. 다섯 박자의 나선은 무겁지만, 그 바닥에 깔린 한 절 —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 이 어둠의 기록을 공허의 기록으로 바꿔 읽게 한다. 잘해서가 아니라 아파서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것, 정돈된 말이 되지 못한 신음이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 — 그 사실이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그리고 2:10은 조용한 숙제를 남긴다. 망각은 침입하지 않고 스며든다. 돌을 세우는 일보다 질문을 살려 두는 일이 어렵다. 내가 본 큰 일을 누구에게, 어떤 거리에서 들려주고 있는가 — 그 물음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서문의 악보가 그려졌고 민족들은 남아 있다 — 3장에서 그 민족들의 목록 사이에 살던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부르짖고, 이름 없는 복수였던 사사들이 첫 고유명사를 얻는다. 웃니엘, 윈손잡이 에훗, 그리고 소 모는 막대기의 삼갈.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yinnachem* — 신음에 뜻을 돌이키시다.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 Q1. 보김의 울음과 제사(2:4-5)는 왜 돌아섬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고 제사까지 드렸는데, 본문은 그 울음을 한 줄도 평가하지 않은 채 11절의 악행으로 넘어간다. 진심과 감정, 의례와 변화 사이에서 어느 다리가 무너졌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보존.

#### Q2. 수 4장의 돌들이 서 있었는데 — 한 세대 만의 망각(2:10)은 어디서 새었는가?

- "자손들이 물거둔 대답하라"(수 4:6)는 기억 장치가 세워져 있었다. 돌이 사라졌는지, 질문이 끊겼는지, 대답할 어른이 없었는지 — 장치의 고장 지점을 본문은 지목하지 않는다. 망각이 침입이 아니라 누수였다는 사실만 남는다. 보존.

#### Q3. *yinnachem*(2:18) — 돌이키심의 근거가 회개가 아니라 신음이라면, 이 공허의 결은 무엇인가?

- 다섯 박자 어디에도 회개가 없는데 사이클은 끊기지 않는다. 신음(*naaqah*)에 돌이키시는 마음 — 출 2:24의 애굽에서도 같은 명사였다 — 이 자비인지 탄식인지, 돌 다인지, 어휘의 형태(*nacham* 니팔)만 기록하고 닫지 않는다. 보존.

#### Q4.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2:19) — 나선의 바닥은 어디인가?

- 사이클이 돌 때마다 더 낮아진다는 지시어가 서문에 미리 적혀 있다. 권의 끝(17~21장, 그리고 21:25)이 그 바닥인지, 바닥은 권 밖에 있는지 — 서문만으로는 닫히지 않는다. 권 전체를 읽으며 열어 둔다. 보존.

**Q5. 남겨진 민족들(2:20-23) — 형별인가 시험인가, 둘 다인가?**

- 같은 단락 안에서 남겨두심이 진노의 발화(20~21절)로도, 시험의 장치(nassot, 22절)로도 적힌다. 한 사건의 두 결이 어떻게 한 분 안에 같이 있는지 본문은 조율하지 않은 채 나란히 둔다. 보존.

**Q6. 여호와와 사자(2:1) — 전달자인가, 여호와 자신의 현현인가?**

- 사자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라고 1인칭으로 말한다. 전달자가 보낸 이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형식인지, 그 이상인지 — 6:11 이하(기드온)와 13:3 이하(삼손의 부모)에서 같은 인물이 다시 나오므로 권 전체의 미해결로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사기 3장

JDG-003 · 역사서 · 히브리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 한 구원자(*moshia*)를 세워"(3:9, 15)가 두 번 올리는 첫 바퀴 — 여호와의 영(*ruach YHWH*)이 처음 임하는 모범형 옷니엘(3:10), 베냐민('오른손의 아들') 출신 왼손잡이 에훗의 오른쪽 허벅지에 숨긴 좌우 날선 칼과 *davar*('말씀'이자 '일')의 중의(3:16-20),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요약되는 한 절 사사 삼갈(3:31)까지 — 구원의 도구가 영에서 왼손의 칼로, 칼에서 농기구로 옮겨가며 평온의 산수(40→80년)가 쌓이는 사사기 나선의 개시.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세 폭: 항공 지도(1~6절 — 블레셋 다섯 군주·가나안·시돈·히위의 명단) → 장소 묘사가 전무한 연대기(7~11절 옷니엘) → 실내 밀실(12~30절 — 알현 공간과 서늘한 다락방). 마지막 한 절(31절)은 설명이 생략된 들판.
- 축적의 변화: 지도 — 밀실 — 들판.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문·빛장·열쇠가 등장하는 밀폐 공간(23~25절).
- 소품: 좌우에 날선 한 규빗(*gomed*) 칼 — 거처가 허리띠가 아니라 "오른쪽 허벅지 옷 속"(16절), 숨기려고 만든 무기. 공물(*minchah*, 15·17·18절). 다락문들과 열쇠. 돌 뜨는 곳(*pesilim*, 19·26절 — 왕복의 경첩). 나팔(27절). 요단 나루터(28절). 소 모는 막대기(*malmad habbaqar*, 31절).
- 소재의 장부: 8년 — 40년 — 18년 — 80년 — 만 명 — 600명. 섬긴 햇수와 평온의 햇수가 번갈아 쌓임.
- 도구의 무더기: 영(10절) — 칼(21절) — 막대기(31절). 구원마다 손에 들린 것이 다름.
- 형식: 7~11절은 사이클 전 박자(악행·파심·섬김·부르짖음·세우심·영·승리·평온·죽음)를 다섯 절에 담은 뼈대 — 12절부터는 디테일이 폭발하는 살. 뼈대의 단락과 살의 단락이 나란함.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옷니엘 단락의 서늘함 — 첫 구원의 기록인데 얼굴·대사·전투 장면이 없음. 교과서 예제 풀이의 체온. 에훗 단락의 과열과 맞붙어 온도 차가 또렷해짐.
-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가 7절과 12절에 반복(12절 안에서는 겹쳐 두 번) — 예고가 아니라 실제로 도는 바퀴의 빠짐. 곁에서 "부르짖으매 ... 구원자를 세워"(9·15절)의 응답 후렴이 같이 들.
- 에훗 단락의 공기는 웃음기 — 살진 왕, '은밀한 일'의 미끼, 잠긴 문 앞에서 민망하게 기다리는 시종들(24절). 암살 서사를 풍자극의 문법으로 연출.
- 속도의 낙차: 7~11절은 다섯 절에 수십 년 — 21~22절은 몇 초를 두 절로 늘린 솔로모션(동사 일곱 개 연쇄).
- 감각: 서늘한 다락방(20절)에서 벌어지는 가장 뜨거운 일. 기름이 칼날에 영기는 촉감(22절). "발을 가리우신다"(24절)는 완곡어의 일상 냄새 — 본문이 몸의 세계에 끝까지 머물.

- 동사 주어의 이동: 옷니엘 단락은 여호와(파셨고·세우셨고·임하셨고·넘겨 주셨고) — 에훗 단락은 에훗(만들고·차고·바치고·찌르고·잡고·불고). 배경.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 남겨 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러하니."
- 31절: "에훗 후에는 아낏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 전쟁 학습의 명단으로 열려(2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농기구로 육백 명을 친 변칙적 학생으로 닫힘 — 형식 관찰.
- 어미: "~이러하니"(명단의 도입)에서 "~구원하였더라"(요약의 종결)로. 31절의 gam-hu("그도") — 접속 두 글자만으로 구원자 명단에 등재되는 최소 기록.
- 5~6절: 수 23:12-13의 통혼 경고("울무가 되리라")가 한 세대 만에 보고문의 평서형("아내로 삼으며 ...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으로 바뀜.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남겨진 민족들(블레셋 다섯 군주·가나안·시돈·히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 세대, 구산 리사다임(메소보다미아 왕, 8년), 옷니엘(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 1:12-15에서 악사를 아내로 얻은 그 인물), 에글론(모압 왕, "매우 비둔한 자"), 에훗(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공물 운반자들, 다락문 앞의 시종들, 에브라임 산지의 이스라엘, 모압 용사 만 명, 삼갈(아낏의 아들). 하나님 외에 내면이 묘사되는 인물 없음.
- 중심 사상: 부르짖음과 응답의 짝 — "부르짖으매 ... 한 구원자를 세워"(9절)가 15절에서 동일 문형으로 반복. 조건·자격 심사 없음. 8년 만이든 18년 만이든 응답의 박자가 같음.
- 1~2절의 이중 목적: 시험(nasah)과 전쟁 교습(lamad milchamah). 4절이 시험의 내용을 "모세를 통하여 ... 명령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로 좁힘 — 전쟁 교습의 명단이 순종 시험의 명단이기도 함.
- 이름의 결: Kushan Rishatayim — '이중 악행'처럼 들리는 운율의 별명 가능성(배경). Eglon — 송아지(egel)와 같은 어근으로 들리는 이름 + bari(살진)의 묘사 — 이름이 먼저 던진 농담을 서사가 회수.
- 공물의 손: 이스라엘이 에훗의 손으로(beyado) 공물을 바침(15절) — 공물을 건넰 왼손이 칼을 빼는 왼손. 18절의 행정 절차(운반자들을 먼저 돌려보냄)가 거사 준비로 겹침.
- davar의 두 얼굴: "은밀한 davar"(19절) · "하나님의 davar"(20절) — 왕은 '말씀'을 기대하고 일어서고, 에훗의 davar는 '물건'. 한 단어의 중의가 장면의 경첩.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절): 남겨두신 민족들의 명단과 이중 목적 — 통혼과 우상 섬김의 보고.
- 컷 2 (7~11절): 옷니엘 — 사이클 전 박자가 다섯 절 안에 군더더기 없이. 영의 첫 임함, 평은 40년.
- 컷 3 (12~14절): 또 악을 행함 — 에글론 강성 — 암몬·아말렉 연합 — 종려나무 성읍 점령 — 18년.
- 컷 4 (15~26절): 칼의 제작과 은닉 — 공물 진상 — pesilim에서의 회귀 — 다락방의 davar — 슬로모션의 일격 — 잠긴 문과 머뭇거림 — 탈출.

- 컷 5 (27~30절): 나팔 — "여호와께서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 나루터 차단 — 만 명 — 평온 80년.
- 컷 6 (31절): 삼갈 — 막대기, 600명, gam-hu.
- 컷 4 내부의 괄호: pesilim이 회귀점(19절)과 탈출로(26절)에 두 번 놓여 다락방 장면을 감쌌다. 잠긴 문이 벌어 준 머뭇거림의 시간(25절 "오래 기다려도")이 그대로 도주 시간 — 빗장 하나가 서사의 시계를 잠.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moshia*(מֹשִׁיָּה) — 구원자. yasha의 히필 분사. 9·15절 "한 구원자를 세워" — 사사기에서 이 칭호가 처음 발화되는 장.
- *ruach YHWH*(רוּחַ יְהוָה) — 여호와와 영(10절). 사사기 첫 임함 — 기드온(6:34)·입다(11:29)·삼손(13:25; 14:6)으로 이어지는 사슬의 첫 고리.
- *shaqat*(שָׁקַט) — 잠잠하다. 평온하다. 11절(40년)과 30절(80년)의 동사.
- *itter yad-yemino*(אֵתֶר יָד יְמִינוֹ) — 오른손이 묶인 자, 왼손잡이(15절). 베냐민('오른손의 아들') 지파명과의 어긋남.
- *gomed*(גֹּמֵד) — 칼 길이 단위(16절). 구약 유일 출현의 하팍스 — 정확한 길이 미확정. LXX는 σπιθαμή(한 뼘).
- *davar*(דָּבָר) — 말씀·일·물건(19·20절). 중의가 장면의 경첩.
- *bari*(בָּרִי) — 살진·비둔한(17절). / *aliyyat hammeqerah*(עֲלִיַּת הַמִּקְרָה) — 서늘한 다락방(20절).
- *parshedonah*(פֶּרֶשְׁדוֹנָה) — '등 뒤로'(22절). 하팍스 — 뜻이 완전히 닫히지 않음. / *misderonah*(מִסְדְּרוֹנָה) — '현관'(23절). 역시 하팍스.
- *malmad habbaqar*(מַלְמַד הַבִּקָּר) — 소 모는 막대기(31절). malmad의 어근 lamad('가르치다')가 2절의 "가르쳐 알게 하려(lelammedam)"와 같음 — 형태 관찰만.
- *makar*(מָכַר) — 팔다(8절). / *zaaq*(זָעַק) — 부르짖다(9·15절). / *nasah*(נָסָה) — 시험하다(1절). / *minchah*(מִנְחָה) — 공물(15·17·18절). / *pesilim*(פְּסִילִים) — 돌 뜨는 곳·새긴 우상들(19·26절). / *Shamgar*(שָׁמְגָר) — 외래품 이름이라는 논의,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명단(1~6) + 모범 사이클(7~11) + 풍자 서사(12~30) + 한 절 요약(31)의 사단 구성.
- 옷니엘 단락 = 2:11-19 프로그램의 첫 실물 가동. 박자 전부 보존, 디테일 전부 생략 — 이후 사사들을 채는 모범형 기준.
- 박자의 생략 곡선: 옷니엘(영의 임함 있음) → 에훗(세우심까지만, 영의 임함 없음) → 삼갈(세우심 문장도 없음). 평가어 0인 채 생략만으로 보여 주는 문법.
- 도구의 곡선: 영(10절) → 왼손의 칼(21절) → 소 모는 막대기(31절). 평온의 산수(40→80)와 엇갈리며 그려짐.
- 21~22절의 슬로모션: 동사 일곱 개 연쇄 — 성경에서 손꼽히게 노골적인 신체 묘사. 속도의 낙차(다섯 절에 수십 년 ↔ 두 절에 몇 초)가 어조 그 자체.
- 이름 놀이: Kushan Rishatayim('이중 악행'의 운율), Eglon(egel·송아지)+bari(살진) — 이름이 던진 농담을 서사가 회수. 베냐민('오른손의 아들')의 왼손잡이.
- pesilim 괄호 구조(19·26절)와 빗장의 시계(23~25절).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진상 행렬 — 속국이 종주에게 공물을 바치는 절차(운반 인원 동행·호송 종료 후 귀환). 3:15-18의 배경.
- 서늘한 옥상 다락(aliiyyat hammeqerah) — 더운 기후의 통풍 건축 관습. 3:20의 배경.
- 소 모는 막대기 — 끝에 금속 축을 단 2미터 안팎의 농기구, 비상시 무기 전용 사례 논의. 3:31의 배경.
- 아낏(Anath) — 우가릿 문헌의 전쟁 여신. '벤 아낏'이 용사 칭호인지 출신지(벤아낏) 표기인지 논의 — 확정 아님, 배경.
- 베나민의 왼손 전통 — 삿 20:16의 왼손잡이 물매꾼 칠백 명. 에훗의 왼손이 지파의 결일 가능성, 배경.
- LXX: gomed → σπιθαμή(한 뼘, 은닉 무기로 읽은 전통), parshedonah의 사본 차이, 삼갈 절의 위치 이동 전승 — 번역·본문비평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삿 3:7-11 ↔ 삿 2:11-19 (설계도와 첫 실물 — 사이클 프로그램의 가동)
- 삿 3:9 ↔ 수 15:16-19; 삿 1:12-15 (웃니엘과 악사 — 첫 구원자의 전사)
- 삿 3:5-6 ↔ 수 23:12-13; 신 7:3-4 (통혼 경고와 금지 조항 — 현실화)
- 삿 3:1-2 ↔ 출 23:29-30 (남겨두심의 또 다른 이유 — 점진 축출, 나란한 배경)
- 삿 3:15 ↔ 삿 20:16 (베나민의 왼손 — 지파 전통)
- 삿 3:31 ↔ 삿 5:6 (드보라의 노래 속 "아낏의 아들 삼갈의 날에" — 두 번째 흔적)
- 삿 3:10 ↔ 삿 6:34; 11:29; 13:25; 14:6 (여호와와 영 임함의 사슬 — 첫 고리)
- 삿 3:31 ↔ 삼상 13:19-22 (블레셋 치하의 무기 통제 — 농기구 전투의 정황, 배경)
- 삿 3:19 ↔ 수 4:19-24 (길갈 — 기념의 열두 돌과 pesilim, 같은 지명의 다른 돌들, 배경)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항공 화면 위로 명단이 흐른다 — 블레셋의 다섯 군주, 가나안, 시돈, 히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마을의 혼인 잔치, 낫선 신들의 단. 화면이 건조해진다 — 악을 행하여, 파셨으므로, 팔 년, 부르짖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 — 여호와와 영이 임하고, 전쟁은 한 문장으로 지나가고, 들판 위로 사십 년의 평온이 흐른다. 부고로 단락이 닫힌다. 다시 어두워진다 — 또 악을 행하니라. 카메라가 느려진다. 대장간의 불빛, 좌우에 날선 짧은 칼, 오른쪽 허벅지에 묶는 왼손. 공물 행렬, 살진 왕. 돌들 앞에서 멈추고 혼자 되돌아가는 사내 — 왕이여, 은밀한 일을 아뢰려 하나이다. 시종들이 물러난 서늘한 다락방 —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아뢰 일이 있나이다. 비대한 몸이 일어서고, 왼손이 움직인다. 카메라는 피하지 않는다 — 칼자루까지, 등 뒤까지, 엉기는 기름까지. 문들이 잠기고, 시종들이 민망하게 기다린다 — 발을 가리우 시나 보다. 열쇠가 돌고, 엎드려진 군주. 그 사이 사내는 돌들을 지나 산지로 달린다. 나팔 소리 — 나를 따르라. 나루터가 막히고 만 명의 숫자가 지나간다. 팔십 년의 평온. 마지막 정지 화면 — 이름 없는 들판, 막대기를 든 사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암전.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영, 칼, 막대기 — 부르짖으매 세우시되"
- 초벌 부제: "전쟁을 가르치시려 남겨두신 민족들 위에서 사이클의 첫 바퀴가 돌고, 영이 처음 임한 모범형 웃니엘에서 왼손잡이의 숨긴 칼과 davar의 중의로, 다시 소 모는 막대기 한 절로 — 부르짖음마다 구원자(moshia)를 세우시되 그 도구가 점점 기이해지는 사사기 나선의 개시"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2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사단 구성 + 모범형 사이클 + 박자 생략 곡선 + 도구 곡선 + ANE 진상 행렬·다락 건축·원손 전통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에훗의 속임수와 암살(3:16-22)을 윤리적으로 칭찬하거나 정죄하지 않음 — 본문이 평가 부사를 한 번도 쓰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관찰로 보존.
- 21~22절의 노골적 신체 묘사를 점잖게 덮거나 영해(靈解)로 추상화하지 않고, 본문이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는 서술 사실로만 기록.
- 원손(3:15)을 '약점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명제로 일반화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명과의 어긋남 + 삿 20:16의 지파 전통이라는 형태·배경 관찰로만 둬.
- 3:1-2의 '전쟁을 가르치심'을 전쟁 신학의 일반 원리로 확장하지 않고, 2:22의 시험 목적에 더해진 본문의 진술로만 보존 — 출 23:29-30의 나란한 이유와 함께 배경 처리.
- 삼갈의 '아낀 아들'을 이방 혼합의 증거로도, 신앙 영웅담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호칭 논의(전쟁 여신·용사 칭호·지명)를 미확정 배경으로 둬.
- 평온 40→80년의 산수를 '순종하면 평안이 길어진다'는 공식으로 만들지 않고, 압제 햇수(8→18년)의 증가와 나란히 놓인 두 곡선의 형식 관찰로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3장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3:1-2) 남겨두신 민족들의 명단과 통혼·우상 섬김의 보고(3:5-6) 위에서, 사이클의 전 박자를 다섯 절에 담은 모범형 옷니엘 — "여호와와 영(ruach YHWH)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 그 땅이 평온한 지 사십 년"(3:10-11) — 을 첫 바퀴로 돌리고, 베냐민('오른손의 아들') 출신 원손잡이(itter yad-yemino)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숨긴 좌우 날선 칼과 davar('말씀'이자 '일')의 중의로 비둔한 왕 에글론을 쓰러뜨려 팔십 년의 평온(3:30)을 얻는 풍자 서사를 지나, 소 모는 막대기(malmd habbaqar)로 블레셋 육백 명을 친 한 절 사사 삼갈 —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3:31) — 로 닫히는, 사사기 하강 나선의 개시다.

**한 문단:** 지도가 먼저 펼쳐진다 — 블레셋의 다섯 군주, 가나안, 시돈, 히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시험하시며 전쟁을 가르치시려 남겨두신 명단이다. 그리고 그 명단 곁에서 통혼의 보고가 평서형으로 적힌다 — 경



고는 한 세대 만에 현실이 됐다. 바퀴가 돈다. 악을 행하여, 파셨으므로, 팔 년, 부르짖음 — 그러자 세우신다. 옷니엘. 영이 임하고, 승리가 한 문장으로 지나가고, 사십 년이 평온하다. 군더더기 없는 모범이다. 바퀴가 또 돈다 — 이번에는 열여덟 해. 부르짖음 — 또 세우신다. 그런데 이번 구원자는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나온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고, 그의 무기는 아무도 검사하지 않는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있다. 은밀한 davar — 왕은 말씀을 기대하며 일어서고, 받은 것은 물건이었다. 본문은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 — 칼자루까지, 등 뒤까지, 엉기는 기름까지. 잠긴 문 앞에서 시종들이 민망하게 기다리는 동안 구원자는 돌들을 지나 산지로 달리고, 나팔이 울리고, 나루터가 막히고, 팔십 년이 평온하다. 그리고 한 절 — 막대기 하나로 육백 명,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영, 칼, 막대기. 부르짖음마다 응답은 오는데, 올 때마다 그 모양이 낫설어진다.

## B ·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지도 — 밀실 — 들판으로 축적이 바뀌는 세 폭 무대. 숨기려고 만든 칼, 공물, 빗장과 열쇠, 농기구로 끝나는 소품 목록. 햇수가 쌓이는 장부.                    |
| 2 첫 느낌·분위기    | 체온 없는 모범(옷니엘)과 과열된 풍자(에훗)의 온도 차. 악행의 후렴과 응답의 후렴이 같이 도는 소리. 웃음을 쓰는 암살 서사.                             |
| 3 시작과 끝       | 전쟁 학습의 명단으로 열려 농기구의 변칙적 학생으로 닫힘. gam-hu("그도") 두 글자의 최소 등재. 수 23:12 경고의 현실화가 진짜 출발점.                  |
| 4 등장인물·사상     | 내면 묘사 0의 인물 명단. 중심 사상은 부르짖음과 응답의 짝 — 조건 없는 동일 문형(9·15절). 이름 놀이(구산 리사다임·에글론)와 davar의 중의.              |
| 5 장면 컷        | 명단/옷니엘/압제/다락방/나루터/막대기 6컷. pesilim의 괄호 구조와 빗장이 켜진 서사의 시계.                                             |
| 6 의문·발견·정보    | 평온의 산수(40→80)와 도구의 곡선(영→칼→막대기)이 엇갈림. 박자의 생략 곡선(영의 임함이 에훗부터 사라짐). 하팍스 셋(gomed·parshedonah·miseronah). |
| 7 동영상         | 항공 명단 → 얼굴 없는 연대기 → 대장간과 다락방의 슬로모션 → 나팔과 나루터 → 막대기의 정지 화면.                                           |
| 8 초벌 제목·부제    | "영, 칼, 막대기 — 부르짖으매 세우시되"                                                                             |
| 9 기도·내면       | 잇은 햇수를 따져 묻지 않으시는 응답의 박자 곁에 머문다 — 그 응답이 기대한 모양으로 오지 않을 수 있음을 전 채로.                                   |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옷니엘, 군더더기 없는 모범형:** 다섯 절 안에 사이클의 전 박자가 들어 있다 — 악행, 파심, 섬김의 햇수, 부르짖음, 세우심, 영의 임함, 승리, 평온, 죽음. 장소도 얼굴도 대사도 없는 이 건조함은 결핍이 아니라 기준점의 문제다. 이후의 모든 사사는 이 뼈대에 비추어 읽히게 된다 — 기드온은 표징을 요구하고, 입다는 서원으로 일을 그르치고, 삼손은 박자 자체를 흘뜨린다. 3:7-11은 그 비교들이 가능해지는 원판이고, 1장에서 악사를 아내로 얻었던 갈렙 집안의 사람이 그 원판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옛 세대와 새 세대를 잇는 마지막 다리가 된다.
- 결 2 — 에훗, 웃음을 무기로 쓰는 본문:** 살진 송아지처럼 들리는 이름의 왕, '은밀한 일'이라는 미끼, 말씀(davar)을 기대하며 일어서는 몸, 잠긴 문 앞에서 용변의 완곡어로 머뭇거리는 시종들. 본문은 모압의 권력을 무섭게 그리지 않고 우습게 그린다 — 그리고 그 웃음이 압제를 해체하는 서사의 무기가 된다. 동시에 21~22



절의 카메라는 끝까지 피하지 않는다. 풍자와 노골적 신체성이 한 단락에 공존하는 이 결을 점잖게 다듬지 않고 그대로 받는 것 — 그것이 이 단락을 읽는 첫 손길이다.

**3. 결 3 — 도구의 곡선, 영에서 막대기로:** 옷니엘에게는 여호와와 영이, 에훗에게는 왼손의 숨긴 칼이, 삼갈에게는 소 모는 막대기가 있다. 박자는 같은데 손에 들린 것이 점점 낮설어진다. 그리고 평온의 햇수는 오히려 늘어난다 — 사십 년에서 팔십 년으로. 숫자의 곡선과 도구의 곡선이 엇갈리며 내려가는 이 이중 구도가, 부르짖음마다 응답이 오는데도 읽는 쪽에 안심 대신 물음을 남긴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 3장은 그 물음을 발행하는 장이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샏 2:11-19 — 사이클의 설계도 — 3:7-11은 그 프로그램의 첫 실행 가동.
- 수 15:16-19; 샏 1:12-15 — 악사를 얻은 옷니엘 — 첫 구원자의 전사.
- 수 23:12-13; 신 7:3-4 — 통혼 경고와 금지 — 3:5-6에서 평서형 보고가 됨.
- 출 23:29-30 — 남겨두심의 점진 축출 이유 — 3:1-2의 시험·교습과 나란한 배경.
- 샏 20:16 — 베냐민의 왼손잡이 물매꾼 칠백 — 에훗의 왼손이 잇닿는 지파 전통.
- 샏 5:6 — "아낀의 아들 삼갈의 날에" — 한 절 사사의 두 번째 흔적.
- 샏 6:34; 11:29; 13:25; 14:6 — 여호와와 영 임함의 사슬 — 3:10이 첫 고리.
- 샏 21:25 —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 구원자(moshia)들의 단속이 가리키게 되는 권의 도착점.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3:1-2에서 시작한다 — 내 삶에 남겨진 것들의 명단을 듣는다. 치워지지 않은 것이 시험이자 교습일 수 있다는 본문의 진술 끝에 선다.
- **멈춤 1:** 3:9에서 멈춘다 — 부르짖으매, 세우셨으니. 팔 년을 잊고 산 뒤의 부르짖음에도 같은 문장으로 오는 응답.
- **멈춤 2:** 3:15-16에서 멈춘다 — 오른손이 묶인 이가 구원자로 세워지고, 그 묶임이 아무도 검사하지 않는 통로가 된다.
- **끝:** 3:31에서 멈춘다 — 이름의 내력도 평온의 햇수도 없이 '그도'라는 두 글자로 명단에 든 구원. 짧게 기록된 것이 작게 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준다.

#### F · 자족성 점검

- [x] 명단(1~6)·옷니엘(7~11)·압제(12~14)·에훗(15~30)·삼갈(31)의 사단+한 절 완결
- [x] 사이클 전 박자의 모범형과 박자 생략 곡선(영의 임함 유무)
- [x] 도구의 곡선(영→칼→막대기)과 평온의 산수(40→80)의 엇갈림
- [x] davar 중의·이름 놀이·pesilim 괄호·빛장의 시계라는 풍자 장치들
- [x] ruach YHWH 첫 임함과 이후 사슬(6:34; 11:29; 13:25; 14:6)의 첫 고리 확인

---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미완과 진단(1~2장),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왕이 없으므로 벌어지는 부록(17~21장)으로 움직이는데, 3장은 그 나선의 첫 바퀴 — 모범형(옷니엘)에서 시작해 도구와 방

식이 기이해지는 곡선이 개시되는 입구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여기서 처음 발화되는 moshia(구원자)라는 칭호가 중요한 좌표가 된다.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는 세워지는데, 세워진 이는 반드시 죽고, 죽으면 바퀴가 또 돈다 — 이 단속(斷續)의 구조 자체가 죽지 않는 구원자, 바퀴를 끝내는 왕에 대한 물음을 권 전체에 걸쳐 키워 간다. 그리고 권의 heart — 부르짖음마다 돌이키시는 탄식 섞인 공홀 — 가 이 장에서 두 번 반복되는 동일 문형("부르짖으매 ... 세우셨으니", 3:9, 15)으로 처음 실연된다. 잊은 햇수를 따져 묻지 않으시는 응답이 먼저 놓이고, 그 응답의 도구가 점점 낮설어지는 곡선이 그 위에 겹쳐진다. 공홀은 변하지 않는데 그릇이 흔들리는 — 그 이중 구도가 3장의 구속사 위치다.

##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설계도(2:11-19)에서 첫 실물(3:7-11)로 / 모범형의 전 박자에서 생략의 문법으로(영의 임함이 에훗부터 사라짐) / 영(3:10)에서 왼손의 칼(3:21)로, 칼에서 소 모는 막대기(3:31)로 — 부르짖음마다 세우시되 그 구원자들의 모양이 '이것으로 충분한가'를 묻게 만드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3장은 사이클을 추상에서 실물로 옮기고 그 실물에 첫 균열을 새기는 운동이다. 옷니엘에서 박자가 완전했기에 에훗의 생략이 보이고, 에훗의 생략이 있었기에 삼갈의 한 절이 충격이 된다. 평온의 햇수는 늘어나는데(40→80) 압제의 햇수도 늘어나고(8→18), 4:1에서 바퀴는 또 돈다. 3장의 벡터는 전권을 '부르짖음과 세우심의 반복에서 그 반복으로는 끝나지 않는 물음(왕의 부재, 21:25)으로' 끌고 가는 긴 하강의 첫 구간이다.

##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세 건의 무용담이다 — 승전 한 건, 암살 한 건, 농기구의 육백 명.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조건 없는 응답이다. 7절은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라고 적는다 — 잊은 쪽이 백성이라는 사실이 명시된 채로, 부르짖음마다 세우심이 온다. 팔 년 만이든 열여덟 해 만이든 응답의 문형이 같고, 자격 심사가 없다. 둘째, 도구의 자유다. 영이 임한 모범형도, 오른손이 묶인 이의 숨긴 칼도, 이름조차 낯선 이의 막대기도 — 본문은 셋 모두를 "구원하였더라"의 동사 아래 둔다. 구원의 통로가 읽는 쪽의 기대와 다른 모양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이 첫 바퀴에서부터 제시되는 셈이다. 셋째, 그림에도 남는 물음이다. 박자가 하나씩 생략되고 도구가 점점 낮설어지는 곡선은, 이 구원자들이 바퀴를 멈추지 못한다는 사실과 함께 읽힌다. 공홀은 신실한데 그릇은 흔들리고, 평온은 길어지는데 다음 타락이 온다 — 본문은 거기까지만 보여 주고 멈춘다.

##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몇 해 만의 부르짖음 앞에 서 있는가 —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온 응답이 내가 기대한 모양이 아니었을 때, 그것을 응답으로 알아본 적이 있는가. 내게 묶인 오른손은 무엇이고, 그 묶임이 통로가 된 적은 있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어떤 구원자를 닮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잊은 햇수를 따져 묻지 않는 응답의 박자를 두 번 들려주고, 오른손이 묶인 이의 왼손과 농기구를 권 손을 차례로 보여 준다. 깨끗한 모범은 얼굴이 없고, 얼굴이 보이는 구원은 웃음과 핏기를 같이 묻히고 있다 — 그 불편함을 다들지 않은 채로 건네는 것이 이 장의 손길이다. 그리고 평온 팔십 년이라는 가장 긴 숨 끝에서 바퀴는 또 돈다. 부르짖음마다 오는 공홀과, 그 공홀로도 멈추지 않는 바퀴 — 그 사이에서 '이것으로 충분한가'를 쥐게 되는 것, 그 물음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평온 팔십 년이 끝나고 바퀴가 또 돈다(4:1) — 이번에는 철 병거 구백 대가 서고, 구원은 종려나무 아래 앉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장막 말뚝을 쥔 야엘의 손에서 온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oshia* — 구원자.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 Q1. 전쟁을 가르치시는 시험(3:1-2) — 남겨두심의 이 둘째 목적은 어떤 결인가?

- 2:22는 시험을, 출 23:29-30은 점진 축출을, 3:2는 전쟁 교습을 남겨두심의 이유로 말한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셨다는 진술이 다른 이유들과 어떻게 포개지는지 — 본문은 명단만 주고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 Q2. 에훗의 속임과 칼 — 본문은 왜 한 번도 평가하지 않는가?

- 거짓 전갈, 숨긴 무기, 밀실의 일격. 서사 전체에 칭찬의 부사도 정죄의 부사도 없다.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15절)와 에훗의 모든 동작 사이의 거리 — 세우심이 방법까지 승인한 것인지 본문은 침묵한다. 어느 쪽으로도 닫지 않고 보존.

#### Q3. 에훗에게는 영의 임함이 없다 — 모범형의 박자에서 무엇이 빠지기 시작하는가?

- 웃니엘은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10절)가 있고, 에훗은 세우심(15절)까지만, 삼갈은 그 문장조차 없다. 한 장 안에서 박자가 하나씩 줄어드는 이 생략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 평가어 없이 생략만 두는 문법을 그대로 둔다. 보존.

#### Q4. davar의 중의(3:19-20) —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받아지는 문장 놀이의 폭은?

- 왕은 '말씀'을 기대해 일어서고 받은 것은 '물건'이었다. 본문이 이 중의를 의도한 풍자인지, 그 웃음이 어디까지를 겨냥하는지 — 단어의 두 얼굴이라는 형태 사실만 기록하고 닫지 않는다. 보존.

#### Q5. 삼갈 한 절(3:31) — 이름·지파·부르짖음·평온 없이 끼워진 구원자는 왜 이 형태인가?

- 사이클의 어떤 박자도 없이 gam-hu("그도") 두 글자로만 명단에 등재된다. '아낀 아들'이라는 호칭의 정체(전쟁 여신·용사 칭호·지명)도 미확정이다. 한 절의 짧음 자체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열어 둔다. 보존.

#### Q6. 평온의 산수(40→80년) — 길어지는 평온과 깊어지는 바퀴는 같이 갈 수 있는가?

- 평온은 늘어나는데(40→80) 압제도 늘어난다(8→18년). 그리고 4:1에서 바퀴가 또 돈다. 가장 긴 평온이 가장 긴 안전이 아니라는 이 장부의 곡선이 권 전체에서 어디로 가는지 — 닫지 않고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사사기 4장

JDG-004 · 역사서 · 히브리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4:1)로 둘째 바퀴가 돌기 시작하고, 철 병거 구백과 이십 년의 학대 아래 부르짖음이 오르자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하던 여선지자 드보라(*ishah neviah*)가 바락을 소환하며 —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4:9)는 복선이 기손 강의 혼란(4:15)을 지나 야엘의 장막 말뚝(*yetad haohel*, 4:21)에서 닫히는 — 영광이 머뭇거린 장군에게서 두 여인에게로 옮겨 가는 장.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셋: 에브라임 산지의 종려나무 아래 재판석(4~5절) — 다불 산과 기손 강의 평지(6~16절) — 사아난님 상수리나무 곁 유목민 장막(11, 17~22절). 군대의 평지가 나무 그늘과 장막 사이에 끼임.
- 배경의 그림자: 하술(2절) — 수 11장에서 불태워진 성읍의 이름이 다시 왕의 거점으로. 막 뒤에 미완이 깔린 채 개막.
- 소품: 철 병거 구백(3·13절, 두 번 헤아려짐) 對 종려나무·장막·이불(*semikhah*)·우유 부대·장막 말뚝·방망이 — 무쇠 구백과 살림 도구의 저울.
- 우유(19절): 물을 청했는데 우유 부대가 열림 — 청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오는 환대의 디테일.
- 소재의 두 무더기: 무쇠의 어휘(병거·학대·군대·칼날) 對 살림의 어휘(나무 그늘·이불·우유·말뚝) — 결말을 쥐는 쪽은 살림.
- 형식 소재: 4:1 사이클 공식 재가동("에훗이 죽으니 ... 또"). *makar*(팔다) — 2절 심판과 9절 구원의 복선에 같은 동사.
- 이름들: 드보라=벌, 랍비돗=햇불, 바락=번개 — 형태 관찰.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또" — 팔십 년 평온(3:30) 다음 한 절 만의 도돌이표. 압제 기간이 바퀴마다 길어짐(팔 년 → 십팔 년 → 이십 년) + "심히 학대했으므로".
- 9절 "여인의 손에"의 서늘함 — 독자는 드보라로 짐작하나 본문이 그 짐작을 다른 장막으로 데려감. 복선과 짐작이 어긋난 채 동행하는 긴장.
- 환대 장면의 공기 — 들어오소서·두려워하지 마소서·이불·우유. 가장 따뜻한 어휘들이 가장 위태로운 장면을 감쌌. 야엘의 속내는 끝까지 비공개.
- 말과 사건의 맞물림 — 드보라의 발화마다 그대로 실행됨(6~7절 예고 → 13~15절 성취 / 9절 예고 → 21~22절 성취). 말이 앞서가는 장.
- 감각: 강가의 진창에서 무거워지는 철 바퀴, 병거에서 내려 뛰는 도주, 따뜻한 우유와 쏟아지는 잠.

- 발화 분포: 가장 긴 발화들이 두 여인의 입에서. 야빈은 무언(無言)의 왕, 시스라의 마지막 말은 "너는 없다 하라" — 배경.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 악의 재발로 열려 점진의 진멸로 닫힘. 손의 수미 — 2절 야빈의 손에 팔렸던 백성이 24절 자기들의 손으로 야빈을 누름.
- "행하매"(미완의 연결)로 열려 "진멸하였더라"(종결)로 닫힘. 23절 "그 날에"와 24절 "점점 더" — 하루의 승전과 긴 과정의 잇닿음.
- 액자는 요약문(1~3절, 23~24절), 그림은 장면(4~22절) — 요약이 장면을 감싸는 구성.
- 3절 부르짖음 → 23절 굴복. 응답이 선언("구원자를 세우셨으니", 3:9) 대신 사람의 등장("그 때에 ... 드보라가", 4절)으로 옴.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야빈(이름뿐, 끝내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왕), 시스라(철 병거 구백의 군대 장관), 드보라(랍비듯이 아내·여선지자·사사·재판하는 이), 바락(아비노암의 아들, 소환되는 장군), 헤벨(족속을 떠난 겐 사람), 야엘(헤벨의 아내), 납달리·스불론 만 명, 이스라엘 자손.
- 중심 사상: 넘겨주심(natan beyad) — "네 손에 넘겨 주리라"(7절), "넘겨 주신 날이라"(14절). 이끄심(7절)·혼란(15절)·굴복(23절)의 주어가 줄곧 여호와.
- 14절의 받침: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 만 명의 하강 이전에 먼저 내려가시는 분.
- 사이클 양식: 악(1) — 팔림(2) — 압제 이십 년(3a) — 부르짖음(3b) — 구원(4~22) — 굴복·안정(23~24, 5:31의 사십 년으로). 이번 바퀴는 구원자 칸이 셋으로 분업(말하는 드보라·진군하는 바락·마무리하는 야엘).
- 드보라의 특이점: 위기가 일으키는 사사가 아니라 전쟁 전부터 이미 재판 직무 중인 유일한 사사(5절).
- 8~9절: 조건문 두 개의 거울 구조(가면 가려니와 / 가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노라) — 조건 달린 순종. 선지자는 동행을 약속하되 대가를 고지("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본문은 그 조건을 꾸짖지 않음.
- 도구의 연쇄: 왼손의 칼(3:16) → 소 막대기(3:31) → 장막 말뚝(4:21) — 구원 도구가 병기창 아닌 살림 쪽으로 내려가는 목록.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1~3절): 재가동 — 에훗의 죽음, 또 악, 팔림, 철 병거 구백, 이십 년, 부르짖음.
- 컷 2(4~10절): 종려나무 아래 — 재판하는 여선지자, 바락 소환, 조건과 복선, 게데스의 만 명.
- 컷 3(11절): 한 절의 이주 — 겐 사람 헤벨의 장막. 씨앗을 심어 두고 잇은 척하는 복선의 컷.
- 컷 4(12~16절): 다불과 기손 — "일어나라", 하강하는 만 명, 칼날 앞의 혼란(hamam), 걸어서 도망하는 장관, 한 사람도 남지 않는 추격.
- 컷 5(17~22절): 야엘의 장막 — 화평의 틀, 환대의 언어, 우유와 이불, "너는 없다 하라", 말뚝과 방망이, 바락에게 보여 주는 결말.
- 컷 6(23~24절): 결산 — 그 날의 굴복, 점점 더 누르는 손.

- 배열 구조: 두 여인의 두 처소(컷 2·5)가 전투의 평지(컷 4)를 앞뒤로 감쌌. 분량도 여인들의 장면(13절)이 전투(5절)보다 김.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ishah neviah*(אִשָּׁה נְבִיאָה) — 여선지자(4절). 어순은 '여인, 선지자'.
- *Devorah*(דְּבוֹרָה) — 벌(꿀벌). / *Lappidot*(לַפִּידוֹת) — 횃불들. / *Baraq*(בָּרָק) — 번개. 이름의 뜻, 형태 관찰만.
- *tomar Devorah*(תֹּמַר דְּבוֹרָה) — 드보라의 종려나무(5절). / *shaphat*(שָׁפַט) — 재판하다·다스리다.
- *rekhev barzel*(רֶכֶב בָּרֶזֶל) — 철 병거(3·13절). / *tsoaq*(צָעַק) — 부르짖다(3절).
- *makar*(מָכַר) — 팔다. 2절(심판)과 9절(구원의 복선) 양방향으로 쓰임.
- *beyad ishash*(בְּיַד אִשָּׁה) — 여인의 손에(9절). / *natan beyad* — 손에 넘겨주다(7·14절).
- *Qishon*(קִישׁוֹן) — 기손(7·13절). / *hamam*(חָמָם) — 혼란에 빠뜨리다(15절). 출 14:24·수 10:10과 같은 동사 — 형태 관찰만.
- *semikhah*(שְׁמִיכָה) — 이불·덮개(18절).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hapax).
- *nod hechalav*(נֹד הַחֶלָּב) — 우유 부대(19절). / *yetad haohel*(יֵתֵד הָאֹהֶל) — 장막 말뚝(21절). / *maqquvet*(מַקְקֵט) — 방망이. / *balaat*(בָּלָאָה) — 가만히·살며시.
- *Yael*(יָעֵל) — 들염소(17절). / *kanaa*(כָּנַע) — 굴복하게 하다(23절). / *qum*(קָם) — 일어나다(9·14절).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손(yad)의 사슬: 2절 야빈의 손에 → 7절 네 손에 → 9절 여인의 손에 → 14절 네 손에 넘겨 주신 날 → 21절 손에 방망이 →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 9절이 분기점 — '네 손'으로 가던 흐름이 조건 이후 '여인의 손'으로 갈라짐.
- 복선의 이중 비껴감: 9절의 '여인'을 독자는 드보라로 짐작 → 드보라는 끝까지 무기를 들지 않음 → 11절의 낯선 가정 → 17절에서 장막이 무대로 → 21절에서 짐작이 완전히 비껴감(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겐 여인).
- 명령-성취 쌍: 6~7절 예고 ↔ 13~15절 성취 / 9절 예고 ↔ 21~22절 성취. 드보라의 말이 사건보다 앞서감.
- 11절의 서사 기법: 전쟁 준비 한가운데 유목민 한 가정의 이사 한 절 — 17절에서 열리고 22절에서 닫히는 씨앗.
- 환대 언어의 전복: 들어오소서 → 이불 → 우유 → "없다 하라" → 말뚝. 보호의 문법이 결말의 통로가 됨.
- 무언의 액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야빈이 2절과 23~24절에서 장을 감싸는 이름으로만 존재.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유목 문화의 분업 — 장막을 치고 걷는 일은 여인의 일과. 말뚝과 방망이는 야엘이 매일 다루던 도구라는 배경.
- 근동 환대 규범 — 장막에 받아들인 손님은 주인이 보호할 의무. 17절의 '화평'이 그 틀이며, 18~21절의 전복이 깊게 울리는 배경.
- 철 병거의 전술 — 평지에서 보병에 압도적, 산지·진창에서 무력. 다불 산(보병의 고지)과 기손 강가(병거의 평지)라는 지형 설정 자체가 배경.
- 겐 족속 — 모세 장인의 계보(민 10:29-32; 삿 1:16)와 이어지는 유목 집단. 금속 세공과 닿는 계보로 읽는 자료들 — 배경으로만.



- LXX: 사사기는 A·B 두 사본 전승이 크게 갈리는 책. 4:8에 바락의 말을 늘리는 확장구(MT에 없음).  
Δεββωρα·Iαηλ 음역 — 번역·본문비평 배경.
- 랍비 전통: 메길라 14a가 드보라를 일곱 여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셈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샷 4:2 ↔ 수 11:1-11 (하솔 왕 야빈 — 불태워진 성읍의 부활, 미완의 대가)
- 샷 4:1 ↔ 샷 2:18-19 (사사가 죽으면 돌이켜 더욱 타락 — 사이클 공식의 전사)
- 샷 4:15 ↔ 출 14:24-25; 수 10:10 (hamam — 병거와 물 앞의 같은 동사)
- 샷 4:7, 13 ↔ 샷 5:20-21 (기손 강 — 산문의 '혼란'을 노래가 별과 급류로 보충)
- 샷 4:18-22 ↔ 샷 5:24-27 (야엘 — 같은 사건의 산문과 시)
- 샷 4:11 ↔ 민 10:29-32; 샷 1:16 (겐 사람 — 모세 장인의 계보)
- 샷 4:8-9 ↔ 히 11:32 (바락 — 믿음의 목록에 적힌 이름, 형태 사실 배경)
- 샷 4장 ↔ 삼상 12:9-11 (시스라와 바락 — 사무엘의 회고, 배경)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어두운 화면, 자막 — 에훗이 죽으니, 또, 철 병거 구백 대의 바퀴 소리 위로 이십 년이라는 숫자가 얹히고, 부르짖음이 오른다. 화면이 남쪽으로 — 산지의 빛, 종려나무 한 그루, 그 아래 앉은 여인, 재판을 기다리는 줄. 북쪽에서 소환된 장군에게 여인이 말한다 —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시스라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 손에 넘겨 주리라. 장군의 조건 — 당신이 함께 가면 가려니와. 여인의 고지 — 반드시 함께 가리라, 그러나 이번 길의 영광은 네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행군 중에 카메라가 잠깐 길가로 —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치는 겐 사람의 가정. 다볼 산 위의 만 명, 평지를 메우는 병거.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만 명이 내려가고, 강가에서 바퀴가 무거워지고, 대열이 무너진다. 장관이 병거에서 내려 뿔다. 낮익은 장막, 문 앞의 여인 —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불, 우유, 잠. 너는 없다 하라. 여인이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가만히 다가가고, 화면은 장막 밖으로 빠진다. 추격자가 도착하고 여인이 나가 맞는다 —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보이리라. 시스라가 죽어 누워 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은 채다. 자막 — 하나님께서 그 날에 야빈을 굴복하게 하신지라. 점점 더 누르는 손. 암전.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여인의 손에 — 종려나무와 장막 사이"
- 초벌 부제: "에훗의 죽음 뒤 '또'로 재가동된 둘째 바퀴에서, 종려나무 아래 재판하던 여선지자가 번개라는 이름의 장군을 소환하고, 조건 달린 순종 위에 '여인의 손에(beyad israh)'라는 복선이 걸리며 — 기손 강의 혼란(hamam)이 철 병거 구백을 삼키고 장막 말뚝(yetad haahel)이 복선을 닫는, 영광이 두 여인에게로 옮겨 가는 장"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4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사이클 공식 + yad 사슬 + 복선의 이중 비껴감 + 하솔 부활 + ANE 장막·환대·병거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야엘의 행위(4:18-21)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지도 단죄하지도 않고, 환대 언어와 말뚝 사이의 긴장을 미해결 질문으로 보존. 5:24의 칭송은 다음 장의 본문 사실로만 이월.
- 드보라를 여성 리더십 강의의 소재로 일반화하지 않고, 본문이 적은 그대로 — 여선지자·사사·재판하는 이라는 복합 직무와 전쟁 전부터 직무 중이었다는 사실 — 로만 기록.
- 바락의 조건(4:8)을 불신앙으로 단정하지 않음. 본문이 꾸짖지 않는다는 사실과 히 11:32에 이름이 적힌다는 형태 사실만 나란히 보존.
- 기손 강의 혼란(4:15)을 자연 현상(폭우)으로도 초자연 개입으로도 단정하지 않음. 산문은 방법을 적지 않고 5장의 노래가 보충한다는 본문 간 관계만 기록.
- '여인의 손'(4:9)을 어떤 일반 담론으로도 확장하지 않고, makar 동사의 양방향 사용과 복선·성취의 서사 구조라는 본문 사실로만 둬.
- 하솔의 재등장(4:2)을 특정 교훈의 공식으로 만들지 않고, 수 11장과의 본문 간 거리(불태워진 성읍 → 압제의 거점)라는 관찰로만 보존.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4장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4:1)라는 사이클 공식의 재가동 위에서 철 병거 구백과 이십 년의 학대(4:2-3)를 깔고,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하던 여선지자 드보라(ishah neviah, 4:4-5)가 바락을 소환하여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4:7)는 말씀을 전하고, 조건을 단 장군에게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4:9)는 복선을 걸며 — 기손 강의 혼란(hamam, 4:15)이 병거 구백을 무력화하고 야엘의 장막 말뚝(yetad haohel, 4:21)이 그 복선을 닫은 뒤, "하나님이 그 날에 가나안 왕 야빈을 ... 굴복하게 하신지라"(4:23)로 결산되는, 영광이 머뭇거린 장군에게서 두 여인에게로 옮겨 가는 장이다.

**한 문단:** 팔십 년의 평온이 한 절 만에 무너진다. 에훗이 죽으니, 또 — 바퀴가 다시 돈다. 이번 압제는 더 길고 (이십 년) 더 무겁다(철 병거 구백). 게다가 그 본거지가 하솔이다 — 여호수아가 불태운 그 이름이 돌아와 있다. 부르짖음이 오르는데, 응답이 선언으로 오지 않고 이미 앉아 있던 사람으로 온다. 라마와 베엘 사이 종려나무 아래, 재판하던 여선지자. 그가 북쪽의 장군을 소환한다 — 다불 산으로 가라, 내가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장군은 조건을 단다 — 당신이 함께 가면 가려니와. 선지자는 동행을 약속하되 대가를 고지한다 — 영광은 네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독자는 그 여인을 드보라로 짐작하지만, 서사는 길가의 장막 한 채를 슬쩍 비추고 지나간다(4:11). 다불 산에서 만 명이 내려가고, 기손 강가에서 철 바퀴가 무거워지고, 대열이 무너진다 —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걸어서 도망한 장관이

그 장막에 닿는다.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 이불과 우유와 잠. 그리고 야엘이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가만히 다가간다. 추격해 온 바락이 보는 것은 끝난 결말이다 —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은 채. 복선이 닫히고, 손이 점점 더 누른다.

## B ·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종려나무 재판석 — 다불·기손의 평지 — 유목민 장막, 세 무대. 무쇠 구백 對 살림 도구의 저울. 배경에 하솔의 그림자.                  |
| 2 첫 느낌·분위기    | "또"의 도돌이표와 길어지는 압제. 짐작과 어긋난 채 동행하는 복선. 따뜻한 환대 어휘에 감싸인 위태로움. 말이 사건보다 앞서가는 구조.          |
| 3 시작과 끝       | 악의 재발로 열려 점진의 진멸로 닫힘. 손의 수미 — 팔렸던 손이 누르는 손으로. 요약 액자 안의 생생한 장면들.                       |
| 4 등장인물·사상     | 무언의 왕 야빈, 복합 직무의 드보라, 조건 다는 바락, 장막의 야엘. 중심 사상은 넘겨주심(natan beyad)과 앞서 나가시는 여호와(4:14).  |
| 5 장면 컷        | 재가동/종려나무/한 절의 이주/다불과 기손/야엘의 장막/결산 6컷. 두 여인의 두 처소가 전투를 앞뒤로 감싸는 배열.                     |
| 6 의문·발견·정보    | yad의 사슬과 9절의 분기점. makar의 양방향(2·9절). 복선의 이중 비껴감. hamam = 출 14:24의 동사. semikhah는 hapax. |
| 7 동영상         | 병거 바퀴 소리 → 종려나무 그늘 → 길가의 장막 → 산의 하강과 강가의 혼란 → 장막 안의 고요 → 점점 더 누르는 손.                  |
| 8 초벌 제목·부제    | "여인의 손에 — 종려나무와 장막 사이"                                                                |
| 9 기도·내면       | 철 병거 구백 앞의 한 문장 —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 곁에 머문다.                                  |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makar와 yad, 한 주권 아래의 두 방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야빈의 손에 파시고(makar), 9절에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신다 — 심판의 동사가 구원의 문장에 다시 쓰인다. 그리고 손(yad)이 장 전체를 꿰다: 야빈의 손에(2절) → 네 손에(7절) → 여인의 손에(9절) → 넘겨 주신 날(14절) → 방망이를 든 손(21절) → 점점 더 누르는 손(24절). 압제도 구원도 같은 주권의 발화 안에 있고, 그 손의 사슬이 9절에서 갈라진다 — 조건을 단 장군의 손에서 무대 밖 여인의 손으로.
- 결 2 — 복선의 이중 비껴감:** "여인의 손에"를 듣는 독자는 드보라를 짐작한다 — 무대 위의 여인이 그 사람 뿐이니까. 그런데 드보라는 끝까지 무기를 들지 않고 말만 한다. 서사는 전쟁 준비 한가운데서 유목민 한 가정의 이사를 한 절 심어 두고(4:11) 잊은 척 행군을 따라가다가, 17절에서야 그 장막을 무대로 세운다. 짐작은 두 번 접힌다 — 선지자에서 장막의 여인으로, 이스라엘에서 겐 족속으로. 영광이 가장 뜻밖의 손에 놓이는 이 배치, 왼손의 칼과 소 막대기를 지나온 권의 도구 목록(이번엔 장막 말뚝)과 같은 결로 움직인다.
- 결 3 — 환대 언어의 전복과 철을 삼키는 강:**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불(semikhah —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 청한 물 대신 우유 — 보호의 문법이 전부 갖춰진 뒤에 말뚝이 온다. 본문은 야엘의 속을 한 줄도 보여 주지 않은 채 그 전복을 통과시키고, 평가를 다음 장의 노래에 넘긴다. 한편 평지의 무적이던 철 병거 구백은 기손 강가에서 혼란(hamam)에 빠진다 — 출애굽기 14:24에서 애굽의 병거에 쓰인 그 동사다. 무쇠가 물가에서 무력해지고 살림 도구가 결말을 쥐는 — 힘의 문법이 두 군데서 같이 뒤집히는 장이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수 11:1-11 — 하솔 왕 야빈과 불태워진 성읍 — 4:2에서 같은 이름이 압제의 거점으로 돌아옴, 미완의 대가.
- 삿 2:18-19 — 사사가 죽으면 돌이켜 더욱 타락 — 4:1 사이클 공식의 설계도.
- 출 14:24-25; 수 10:10 — hamam, 혼란에 빠뜨리시는 동사 — 병거와 물 앞에서 거둬 올리는 같은 단어.
- 삿 5:4-5, 20-21 — 별들이 싸우고 기손이 끌어 감 — 산문이 적지 않은 방법을 노래가 보충.
- 삿 5:24-27 — 야엘 칭송 — 같은 사건의 시, 4장이 미룬 평가의 행방.
- 민 10:29-32; 삿 1:16 — 겐 사람의 계보 — 4:11 이주의 내력.
- 히 11:32 — 기드온, 바락, 삼손 — 조건을 달았던 이름이 믿음의 목록에 적힘, 형태 사실 배경.
- 삼상 12:9-11 — 시스라와 바락 — 사무엘의 회고에 같이 호명됨, 배경.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4:1의 "또"에서 시작한다 — 끝난 줄 알았던 것이 되돌아오는 도돌이표가 내 삶 어디에 있는지 듣는다.
- 멈춤 1: 4:5에서 멈춘다 — 부르짖음이 오르기 전부터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던 사람. 응답이 등장보다 먼저 준비되어 있는 구도.
- 멈춤 2: 4:14에서 멈춘다 —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철 병거 구백 앞에서 내려가는 걸음의 받침.
- 끝: 4:9와 4:22 사이에서 멈춘다 —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는 고지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장막 앞. 영광이 누구의 것인지를 쥐지 않은 채 머문다.

#### F · 자족성 점검

- [x] 재가동(1~3)·소환(4~10)·복선의 씨앗(11)·전투(12~16)·장막(17~22)·결산(23~24)의 여섯 단 완결
- [x] yad 사슬의 여섯 고리와 9절 분기점
- [x] makar의 양방향 사용(2절 심판 · 9절 구원의 복선)
- [x] 복선(4:9)과 성취(4:21-22)의 닫힘, 이중 비껴감의 경로
- [x] 환대 언어의 전복과 hamam의 교차 본문(출 14:24) 형태 관찰

---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다. 권의 흐름은 미완과 진단(1~2장),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그리고 왕이 없으므로 벌어지는 부록(17~21장)으로 움직이는데, 4장은 나선의 둘째 바퀴 — 웃니엘과 에훗을 지나 압제가 더 길어지고(이십 년) 압제의 무게가 철 병거 구백으로 구체화되는 구간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이 장의 출발점 자체가 미완의 청구서다 —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수 11장)이 다시 압제의 본거지로 서 있다. 끝내지 않은 일이 다음 세대의 사슬로 돌아오는 구도 위에서, 그러나 부르짖음이 오르자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 위기가 일으켜 세운 사사가 아니라 전쟁 전부터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하던 사사. 그리고 권의 heart — 부르짖음마다 돌이키는 탄식 섞인 공회 — 가 이 장에서는 "내가 ... 이끌어 ... 네 손에 넘겨 주리라"(4:7)와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4:14)로 발화된다. 전쟁의 주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인 채로, 구원자의 칸은 셋으

로 갈라지고(말하는 이·진군하는 이·마무리하는 이) 영광은 가장 뜻밖의 손에 놓인다. 구원자들의 형태가 바뀌마다 더 기이해지는 이 진행이, '이 구원자들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물음을 권의 도착점을 향해 쌓아 간다.

##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또"의 재발(4:1)에서 점점 더 누르는 손(4:24)으로 / 야벳의 손에 팔립(4:2)에서 여인의 손의 성취(4:21-22)로 / 종려나무 그들의 말(4:6-9)에서 장막 안의 닫힌 복선으로 — 영광이 머뭇거린 장군을 지나 두 여인에게로 옮겨 가되 아무도 꺾이지 않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4장은 '말이 먼저 가고 사건이 따라가는' 운동이다. 드보라의 발화(4:6-7, 9)가 예고가 되고 13~15절과 21~22절이 그 성취가 된다 — 한 장 안에서 예언과 닫힘이 두 번 완결된다. 그러나 이 바퀴의 승리도 나선을 멈추지 못한다. 23~24절의 진멸은 5:31의 사십 년 평온으로 이어지지만, 권의 다음 바퀴(6장)는 더 깊은 곳에서 다시 돈다. 4장의 벡터는 전권을 '구원자의 형태가 점점 더 뜻밖이 되어 가는 하강'으로 끌고 가는 둘째 구간이고, 그 끝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21:25)가 기다린다.

##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전투 보고다 — 소집, 진군, 궤멸, 추격, 결산.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주어의 일관성이다. 이끄시는 분도, 혼란에 빠뜨리시는 분도, 굴복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다(4:7, 15, 23). 만 명의 하강 앞에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4:14)가 놓인다 — 사람의 전투가 먼저 내려가시는 걸음의 뒤를 따른다. 둘째, 영광의 이동이다. 조건을 단 장군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는 고지를 받고, 그 말대로 결말은 두 여인의 손을 지난다. 그런데 본문은 바락을 조롱하지 않는다 — 만 명을 이끌고 내려간 것도 그 이고, 믿음의 목록(히 11:32)에 이름이 적히는 것도 그다(형태 사실). 영광이 옮겨 가는데 아무도 꺾이지 않는다 — 영광이 애초에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었다는 결이 바닥에 깔려 있다. 셋째, 힘의 문법이 뒤집히는 두 무대다. 평지의 무적이던 철 병거가 강가에서 무력해지고, 보호의 문법이던 환대가 장막 안에서 전복된다. 무쇠는 물에, 장군은 살림 도구에 — 본문은 그 기이함을 설명하지 않은 채 보여 주고, 야엘의 윤리라는 매듭은 풀지 않은 채 다음 장의 노래로 넘긴다. 본문은 거기까지만 보여 주고 멈춘다.

##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어떤 부르짖음 곁에 있는가 — 그리고 내 손에 매일 익은 가장 낮은 도구는, 어떤 부름과 잇닿을 수 있는가. 내가 조건을 달며 머뭇거리는 길 위에서도, 앞서 나가시는 걸음은 멈추지 않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용맹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종려나무 아래 앉은 사람과, 조건을 달고도 산을 내려간 사람과, 매일 다루던 말뚝으로 결말을 준 사람을 차례로 보여 준다. 구원의 도구 목록이 왼손의 칼에서 소 막대기로, 소 막대기에서 장막 말뚝으로 — 병기창이 아니라 살림 쪽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이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손에 익은 것, 무대의 중심이 아니라 길가의 장막 — 거기서 복선이 닫힌다. 그리고 머뭇거림조차 이야기 밖으로 쫓겨나지 않는다. 조건을 단 사람도 산을 내려갔고, 그 이름은 끝내 믿음의 목록에 남았다. 영광을 쥐지 못한 채 순종하는 길과, 그 길에 앞서 나가시는 걸음 — 그 사이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산문은 결산을 마쳤지만 노래가 남았다 — "그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5:1), 같은 하루가 별과 급류와 축복의 시로 다시 불린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beyad isha* — 여인의 손에.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 Q1. 야엘의 환대와 말뚝(4:18-21) — 이 행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 들어오소서·두려워하지 마소서·이불·우유 — 보호의 문법이 전부 갖춰진 뒤에 말뚝이 온다. 17절은 야빈과 헤벨 사이의 화평을 적고, 본문은 야엘의 동기도 평가도 한 줄 적지 않는다. 5:24의 칭송과 환대 규범의 위반 사이의 긴장을 어느 쪽으로도 누르지 않고,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보존.

#### Q2. 바락의 조건(4:8) — 불신인가, 선지자의 동행을 구한 분별인가?

-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본문은 이 조건을 꾸짖지 않고, 영광의 이전이라는 대가만 고지한다(4:9). 그리고 히 11:32의 믿음의 목록에 바락의 이름이 적힌다 — 형태 사실. 조건과 목록 사이의 거리를 닫지 않는다. 보존.

#### Q3. "여인의 손에"(4:9) — 서사는 왜 드보라를 짐작하게 한 뒤 야엘로 비껴가는가?

- 독자의 짐작을 두 번 접는 복선 — 무대 위의 여인(드보라)에서 무대 밖의 여인(야엘)로, 이스라엘 여인에서 겐 여인으로. 이 비껴감 자체가 무엇을 보여 주려는 배치인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 Q4. 하술의 부활(4:2) — 불태워진 성읍(수 11장)이 어떻게 다시 압제의 거점이 되었는가?

- 여호수아가 멸한 그 이름이 한 세대들을 지나 칠 병거 구백의 본거지로 돌아와 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문은 침묵한다. 미완의 대가라는 무게만 들고 이월. 보존.

#### Q5. 드보라는 왜 전쟁 전부터 재판하고 있었는가(4:4-5) — 위기가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사사?

- 다른 구원자들은 부르짖음 뒤에 일으켜 세워지는데, 드보라는 부르짖음이 오르기 전부터 종려나무 아래에서 직무 중이다. 응답이 등장보다 먼저 준비되어 있던 셈인지 — 본문은 시간의 앞뒤만 보여 주고 닫지 않는다. 보존.

#### Q6. 기손 강의 혼란(4:15) — 칼날과 강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 산문은 "여호와께서 ...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라고만 적고 방법을 말하지 않는다. 5장의 노래가 별과 급류를 보충하지만(5:20-21), 4장 자체는 hamam 한 동사로 멈춘다. 출 14:24와 같은 동사라는 형태 사실만 쥐고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사사기 5장

JDG-005 · 역사서 · 히브리어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hitnaddev) 여호와를 찬송하라"(5:2)로 열려, 세일에서 오시는 폭우의 신현(5:4-5)과 별들·기손 강의 참전(5:20-21), 지파 호명의 칭찬과 풍자가 같이 적힌 명부(5:14-18), 야엘 찬가의 일곱 겹 쓰러짐(5:27)과 적장의 어머니가 내다보는 창살(5:28-30)을 지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5:31)로 닫히는 — 4장의 산문을 시로 다시 부르는 드보라의 노래.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일차 무대는 노래하는 입(5:1) — 4장이 카메라로 찍은 전장을 5장이 무대 위에서 다시 부름. 노래가 차례로 무대를 호출: 세일·에돔 들(4) → 빈 대로와 오솔길(6) → 성문(8) → 물 길는 곳(11) → 다아낙·므깃도 물가(19) → 별들의 길(20) → 장막(24~27) → 창가(28). 땅의 길에서 하늘의 길까지.
- 소품: 방패와 창("보였던가" — 부재로만 등장, 8), 흰 나귀와 양탄자(10), 양의 우리와 피리(16), 배와 해변(17), 우유·영건 우유·귀한 그릇(25), 장막 말뚝과 일꾼들의 방망이(26), 창문과 창살(28), 채색 옷과 수 놓은 채색 옷(30). 무기 대신 살림의 물건들이 전쟁 시의 소품.
- 형식: 같은 사건의 산문(4장)·시(5장) 병행 — 출 14~15장(갈대 바다)과 같은 배열. 시가 산문에 없는 폭우(4~5, 20~21)를 보탬 — 철 병거가 기손 강가에서 무력해진 사정의 열쇠.
- 주제어: hitnaddev(즐거이 헌신하다) — 2절과 9절, 노래의 머리와 허리에 두 번. 승전가의 첫 감사가 승리가 아니라 자원함.
- 2절 para peraot —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로 옮겨진 난해구. 지도자들의 앞장섬 / 헌신의 표로 머리털을 풀어놓음, 두 독법 전통 — 배경.
- 소재 음역: 찬송 — 신현 — 황폐 — 깨어남 — 호명 — 풍자 — 전투 — 저주 — 복 — 살해 — 기다림 — 기원. 한 곡 안에 감정의 전 음역.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어두워지는 권에서 터지는 빛 — 그러나 노래 한가운데 황폐의 회고(6~8)가 있어, 빛이 어둠을 지나온 빛으로 들림.
- "깟지어다" 네 번(12) — 노래가 노래 자신을 깨우는 소리.
- 속도의 낙차: 19~22절은 빠르고(왕들·별들·강·말발굽), 24~27절은 늘어짐 — 전투 전체보다 한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이 더 깊. 시의 슬로모션.
- 젖어 있는 전장: 하늘과 구름의 물(4~5), 기손의 표류(21), 물 길는 곳(11), 우유(25).
- 명부의 공정함: 참전은 행적대로(18), 불참은 "어찌 됨이냐"(16·17)로, 메로스는 저주로(23) — 칭찬·풍자·저주의 등급.

- 28절부터 시점이 적진으로 — 이긴 쪽의 노래가 진 쪽의 기다림을 비추는 드문 결. 배경.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 31절: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 회고의 찬송(2 — 지나간 일)으로 열려 기원(31 — 오지 않은 일)으로 닫힘. 별들이 싸우던 밤의 노래가 아침 해로 끝남.
- 마지막 문장만 산문 —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는 편집자의 정형구(3:11, 3:30과 동형). 시를 산문이 감싸는 액자.
- 2절과 9절의 동일 단어 쌍(즐거이 헌신한 백성 + 여호와를 찬송하라) — 머리와 허리의 후렴. 공이 자원한 백성과 여호와, 두 곳으로만 돌아감.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드보라·바락(노래하는 둘, 1), 드보라("이스라엘의 어머니" — 자기 칭호, 7), 삼갈·야엘(시대의 이름 표, 6), 야엘(복의 이름으로 재등장, 24), 여호와(세일에서 오시는 분, 4; '도움'을 셈하시는 분, 23), 참전 다섯 지파와 불참 네 지파, 가나안 왕들과 시스라(19), 메로스 주민(23), 시스라의 어머니와 지혜로운 시녀들(28~30). 비인격 배역: 별들(20), 기손 강(21), 말발굽(22).
- 중심 사상: 자원함(hitnaddev) — 무장 없는 백성(8)이 스스로 나옴. 반대극은 메로스 — 오지 않음이 죄목이 되는 유일한 저주.
- 4장의 칭호(여선지자·재판하는 이)와 다른 5장의 자기 칭호 — 어머니. 한 노래에 어머니가 둘: 일어난 어머니(7)와 기다리는 어머니(28).
- 같은 두 손의 두 절: 환대의 격식(영긴 우유·귀한 그릇, 25)과 말뚝·방망이(26) — 사이를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tsidqot YHWH(11) — 물 걷는 곳에서 되뇌는 내용이 전과가 아니라 여호와 의의(義)들, 복수형.
- racham rachamatayim(30) — '한두 처녀'의 문자적 그림은 태(胎) 하나 둘. 직물과 사람이 같은 노략물 목록에서 세어짐 — 어휘 관찰로만.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1절): 찬송과 회고 — 자원함(2), 왕들을 향한 선포(3), 신현과 폭우(4~5), 황폐(6~8), 흰 나귀와 물 걷는 곳(9~11).
- 컷 2 (12~18절): 깨어남과 호명 — 깰지어다 네 번(12), 참전 칭찬(14~15a·18), 르우벤의 결심과 피리(15b~16), 길르앗·단·아셀(17).
- 컷 3 (19~23절): 전투 — 다아낙·므깃도(19), 별들(20), 기손(21), 말발굽(22), 메로스(23).
- 컷 4 (24~30절): 두 여인 — 야엘 찬가와 일곱 겹 쓰러짐(24~27), 시스라 어머니의 창(28~30). 두 공간 모두 여인의 공간, 가운데 시스라 — 한쪽에선 쓰러져 있고 다른 쪽에선 아직 오는 중. 시간을 겹쳐 놓은 거울 구조.
- 컷 5 (31절): 기원과 평온. 23절(저주하라)과 24절(복을 받을 것이니)이 연이은 절에서 마주 보는 경첩도 기록.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hitnaddev*(הִתְנַדֵּב) — 스스로 원하여 드리다(2·9절). 재귀형. 어근 *nadav* = 자원제(*nedabah*, 레 7:16)와 동일. 사사기에서 이 장에만 등장.
- *para peraot*(פָּרָע פְּרָעוֹת) — 영솔/머리털 풀음의 두 독법이 갈리는 난해구(2절). 배경.
- *barakhu YHWH*(בָּרְכוּ יְהוָה) — 여호와를 찬송하라(2·9절 후렴). / *chadal*(חָדַל) — 그치다, 6~7절 세 번.
- *em beYisrael*(אֵם בְּיִשְׂרָאֵל) — 이스라엘의 어머니(7절). / *perazon*(פְּרוֹזוֹן) — 마을 사람들/농촌 지도력, 난해어(7·11절). 배경.
- *uri uri*(עוּרִי עוּרִי) — 깰지어다 네 번(12절). / *mashabbim*(מַשְׁבִּימִים) — 물 걷는 곳(11절). / *tsidqot YHWH* —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들, 복수형(11절).
- *mishpetayim*(מִשְׁפָּטִים) — 양의 우리, 쌍수형(16절). 창 49:14의 잇사갈에게 쓰인 같은 단어. / *chique lev / chiqre lev* — 큰 결심(15절)과 크게 살핌(16절), 한 글자 차이의 언어유희.
- *kokhavim*(כּוֹכָבִים) — 별들, *mesillot* — 그들이 다니는 길(20절). / *nachal qedumim*(נַחַל קְדוּמִים) — 옛 강(21절). / *daharot daharot*(דְּהָרוֹת דְּהָרוֹת) — 말발굽 질주의 의성 반복(22절).
- *Meroz*(מְרוֹז) — 성경에 여기 한 번만 나오는 성읍(23절). *oru arur* — 저주하라, 거듭거듭. / *tevorakh minnashim*(תְּבוֹרַךְ מִנָּשִׁים) — 여인들보다 복되도다(24절).
- *chemah*(חֶמָּה) — 영긴 우유, *sefel addirim* — 귀한 그릇(25절). / *yated*(יָתַד) — 장막 말뚝, *halmut amelim* — 일꾼들의 방망이(26절).
- 27절의 일곱 동사: *kara*(קָרָא) 3회 + *naphal*(נָפַל) 3회 + *shakhav*(שָׁכַב) 1회, 마지막에 *shadud*(שָׁדַד) 1회.
- *eshnav*(אֶשְׁנָב) — 창살(28절). / *yabbev*(יָבִיב) — 부르짖다, 구약 단 1회 동사(28절). / *racham rachamatayim*(רַחֵם רַחֲמַתַּיִם) — 태 하나 둘(30절). / *ketset hashemesh bigvurato* — 해가 힘 있게 돋음 같이(31절).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찬송·회고(2~11) + 깨어남·호명(12~18) + 전투(19~23) + 두 여인(24~30) + 기원·평온(31)의 다섯 단.
- 병행 기록의 분업: 산문(4장)은 절차를, 시(5장)는 폭우·열 지파의 출결·내면(망설임·기다림·되됨)을 맡음. 중복이 아니라 분업.
- 호명 명부의 셈: 참전 다섯(에브라임·베냐민·마길·스불론·잇사갈) + 불참 넷(르우벤·길르앗·단·아셀) + 재호명(스불론·납달리, 18절). 4장의 두 지파(4:6, 10)가 시에서 열 지파의 결산으로 확장.
- "어찌 됴이나"의 후렴 — 르우벤(16)과 단(17)에게 같은 물음. 결심(15)과 살핌(16)의 언어유희가 풍자의 날.
- 27절의 슬로모션 — 한 절 일곱 동사의 반복·점층. 19~22절의 빠른 몽타주와 의도된 낙차.
- 저주(23)와 복(24)의 인접 — 오지 않은 메로스와 행동한 야엘이 연이은 절에서 마주 봄.
- 계단식 평행(staircase parallelism) —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4절) 류의 고대 시 형식. 이 장의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층위로 꼽힘 —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승전시 장르 — 메르넵타 석비, 카데시 전투 시 등 전승을 시로 기념하는 근동 관습. 5장의 장르 배경.
- 여인들의 승전 노래 관습 — 미리암(출 15:20-21), 사울 시대 여인들(삼상 18:6-7). 5:1·12의 배경.

- '창가의 여인' 도상 — 님루드·사마리아 출토 상아 조각의 창살 너머 여인 얼굴. 5:28의 시각 배경.
- 노략물 분배 관행 — 전리품을 식물과 사람으로 셈하는 근동 전쟁 문화. 5:30의 배경.
- 폭풍과 함께 개입하는 신의 표상 — 5:4-5·20-21은 그 형식을 시내·세일의 신현 전통(신 33:2, 시 68:7-8)으로 가져옴. 배경.
- LXX: 사사기의 B·A 두 사본 계열이 사실상 다른 번역 전승 — 5장에서 차이가 가장 두드러짐. 난해 어휘의 음역 잔존 — 번역자들이 멈춘 단어의 표지. 본문비평 배경.
- 랍비 전통: 탈무드 메길라 14a가 드보라를 일곱 여예언자 가운데 하나로 셈함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샷 5장 ↔ 샷 4장 (같은 전투의 시·산문 병행 — 폭우·명부·내면의 보충)
- 샷 5:1 ↔ 출 15:1-21 (바다의 노래 — 승전가 장르의 전사)
- 샷 5:4-5 ↔ 시 68:7-8; 신 33:2; 합 3:3-15 (세일·시내에서 오시는 신현 전통)
- 샷 5:6 ↔ 샷 3:31 (아낀 아들 삼갈 — 호명의 전사)
- 샷 5:16 ↔ 창 49:14-15 (양의 우리 사이에 앉음 — mishpetayim의 어휘 짝, 잇사갈→르우벤)
- 샷 5:21 ↔ 시 83:9-10 (기손 강에서 시스라에게 행하신 것 같이 — 후대의 회상, 배경)
- 샷 5:14-18 ↔ 샷 8:1-3; 12:1-6 (지파 분열의 결 — 명부의 균열이 갈등으로 자라는 다음 장들)
- 샷 5:31 ↔ 샷 3:11, 30; 6:1 (사십 년 평온의 정형구와 그 다음의 하강)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검은 화면에 두 목소리 —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남쪽 지평선, 세일에서 행렬이 진행하고 하늘이 물을 쏟는다. 산들이 진동한다. 빈 대로, 오솔길로 숨는 행인들, 그친 마을 — 자막,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도다. 사만 명에 방패 하나 보이지 않는다. 물 걷는 곳의 두레박 소리 사이로 여호와와의 의로우신 일이 되뇌어진다. 깎지어다, 깎지어다. 이름들이 불린다 — 내려간 발들과 피리 곁에 앉은 발들, 묶인 배와 한가한 해변. 다아낙과 므깃도 물가, 왕들이 왔으나 은을 얻지 못한다. 별들이 저희 길에서 싸우고, 기손 옛 강이 무리를 끌어 가고, 말발굽 소리만 남는다.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음성. 그리고 시간이 늘어진다 — 귀한 그릇의 영긴 우유, 말뚝을 잡는 손, 방망이를 잡는 오른손, 꾸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꾸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꾸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 죽었도다. 북쪽 한 집, 창살 너머의 얼굴 —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시녀들의 셈 —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그 얼굴 위로 기원이 덮인다 —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돌음 같게 하시옵소서. 동이 트고, 자막 —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암전.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 어머니가 둘인 승전가"
- 초벌 부제: "자원한 백성의 찬송(hitnaddev)으로 열려, 폭우의 신현과 지파 호명의 출결부, 별들과 기손 강의 참전, 메로스의 저주와 야엘의 복, 일곱 겹 쓰러짐과 시스라 어머니의 창을 지나 해돋이의 기원으로 닫히는 — 4장의 산문을 시로 다시 부르는 드보라의 노래"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31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산문·시 병행의 분업 + 호명 명부의 셈 + 27절 슬로모션 + 승전시·창가 도상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야엘의 행위(5:24-27)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거나 비난하는 어느 쪽 평가도 하지 않고, 환대의 격식과 말뚝 사이의 설명되지 않은 간격, 27절의 일곱 동사라는 본문 사실로만 기록.
- 5:20의 별들을 천사론·점성술 어느 쪽으로도 끌고 가지 않고, 하늘과 강이 배역을 받은 시적 배열과 신현 전통(시 68편 등)과의 어휘 연결로만 둬.
- 5:31의 기원("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을 보복의 신학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승전가 장르의 종결 기원이라는 형식 관찰로 보존.
- 메로스의 저주(5:23)를 공동체 참여 독려의 설교 재료로 바꾸지 않고, '오지 않음'이 죄목이 되는 유일 사례라는 본문 사실과 미해결 질문으로 이월.
- racham rachamatayim(5:30)의 참혹을 고발 논평으로 확장하지 않고, 전쟁이 사람을 세는 어휘의 문자적 그림이라는 관찰로만 둬.
- 시스라 어머니의 창(5:28-30)을 조롱이다/연민이다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고, 본문이 표정을 짓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보존.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5장은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behitnaddev am) 여호와를 찬송하라"(5:2)라는 자원함의 찬송으로 열려, 세일에서 오시는 신현과 폭우(5:4-5 — 4장의 기손 강을 푸는 열쇠), 빈 대로와 그친 마을 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어머니"(5:7), 참전과 불참이 같이 적히는 지파 호명의 출결부(5:14-18), 별들과 옛 강의 참전(5:20-21), 메로스의 저주와 야엘의 복(5:23-24), 한 절 일곱 동사의 쓰러짐(5:27)과 창살 너머 적장 어머니의 기다림(5:28-30)을 지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5:31)라는 기원과 사십 년 평온으로 닫히는 — 4장의 산문이 적은 같은 전투를 시로 다시 부르는,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층위로 꼽히는 승전가다.

**한 문단:** 두 목소리가 노래를 연다 — 드보라와 바락. 첫 감사가 승리가 아니라 자원함이다. 사만 명 중에 방패도 창도 보이지 않던 백성(5:8)이 스스로 나왔다는 것. 노래가 남쪽 지평선을 부르며 세일에서 행렬이 진행하고 하늘과 구름이 물을 쏟는다 — 산문이 말하지 않던 폭우, 철 병거 구백 대가 기손 강에서 무력해진 사정 이 시 쪽에 적혀 있다. 노래는 어두운 날들을 회고한다 — 대로가 비고 마을이 그치던 때,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도다. 그리고 명부가 펼쳐진다. 내려간 이름들은 행적대로, 오지 않은 이름들에는 같은 물음이 —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의 큰 결심은 피리 소리 곁에 앉아 있었다. 별들이 저희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고, 기손 옛 강이 무리를 쓸어 간다. 와서 돕지 않은 메로스에게는 저주가, 행동한 야엘에

게는 여인들보다 큰 복이 — 연이은 두 절에서. 그리고 시간이 늘어진다. 영긴 우유가 귀한 그릇에 담기고, 말뚝과 방망이를 잡은 두 손 아래 그가 꾸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진다 — 한 절에 일곱 번. 화면이 적진의 창가로 넘어간다.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 영영 오지 않을 병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얼굴 위로, 노래의 마지막 기원이 덮인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 B ·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노래하는 입이 일차 무대 — 세일에서 창가까지 무대들이 호출됨. 살림의 물건들(우유·그릇·말뚝·피리·창살)이 전쟁 시의 소품. 산문·시 병행 형식.              |
| 2 첫 느낌·분위기    | 어두워지는 권에서 터지는 빛 — 그러나 황폐의 회고를 품은 빛. 깰지어다 네 번. 빠른 전투와 늘어지는 장막의 낙차. 젖어 있는 전장.                     |
| 3 시작과 끝       | 회고의 찬송으로 열려 기원으로 닫힘 — 밤의 별에서 아침 해로. 마지막 문장만 산문(편집 정형구) — 시를 산문이 감싸는 액자.                         |
| 4 등장인물·사상     | 한 노래에 어머니가 둘 — 일어난 어머니(5:7)와 기다리는 어머니(5:28). 별·강·말발굽까지 배역을 받음. 중심 사상은 자원함(hitnaddev), 반대극은 메로스. |
| 5 장면 컷        | 찬송·회고/깨어남·호명/전투/두 여인/기원의 5컷. 컷 4는 장막과 창가의 거울 구조 — 쓰러진 시스라와 아직 기다려지는 시스라의 시간 겹침.                 |
| 6 의문·발견·정보    | 병행 기록의 분업(폭우·명부·내면을 시가 보충). 불참이 노래에 실려 영구화됨. 27절 일곱 동사. 메로스와 '여호와를 돕다'의 어법. 창가 도상의 배경.          |
| 7 동영상         | 폭우의 행렬 → 빈 대로 → 호명 → 별들과 강 → 장막의 슬로모션 → 창살 너머의 얼굴 → 해돋이와 사십 년.                                  |
| 8 초벌 제목·부제    |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 어머니가 둘인 승전가"                                                                      |
| 9 기도·내면       | 즐거이 나온 이름들과 오지 않은 이름들, 창가의 한 사람까지 같이 본 채 — 물 걷는 곳의 되됨 곁에 머문다.                                   |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hitnaddev, 무장 없는 백성의 자원함**: 승전가의 첫 감사가 전과도 장수도 아니고 백성이 스스로 나왔다는 사실이다(5:2-9). 그 자원함은 8절의 배경 위에서 읽힌다 — 사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가진 것이 마음뿐이던 백성의 헌신이 노래의 머리와 허리에 두 번 새겨지고, 그 정반대편에 와서 돕지 않은 메로스의 저주(23절)가 선다. 자원함과 그 부재 — 이 한 쌍이 노래의 양극이고, '여호와를 돕다'라는 낯선 어법이 그 사이에서 사람의 옴과 안 옴이 하늘의 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2. **결 2 — 호명 명부, 노래가 된 출결부**: 4장의 만 명(스불론·납달리)이 5장에서 열 지파의 결산으로 넓어진다. 참전한 이름은 행적대로 — 죽음을 무릅쓴 백성(18절). 오지 않은 이름에는 같은 물음이 — 어찌 됨이냐(16·17절). 결심만 컸던 르우벤의 시냇가에는 한 글자 차이의 언어유희(chiqueq/chiqre)가 풍자의 날로 선다. 칭찬과 풍자가 한 명부에 적히고, 그 명부가 노래에 실리는 순간 한 세대의 출결이 공동체의 영구 기억이 된다. 그리고 그 갈라진 명부 — 열 중 넷의 불참 — 가 이 가장 밝은 장 안에 이미 다음 하강(8:1의 에브라임, 12장과 20장의 지파 간 칼)의 자료로 적혀 있다.



3. **결 3 — 두 여인의 두 공간, 슬로모션과 기다림**: 노래의 마지막 두 장면은 모두 여인의 공간이다. 야엘의 장막에서는 시간이 늘어난다 — 환대의 그릇(25절)과 말뚝·방망이(26절)를 거쳐, 한 절 일곱 동사의 쓰러짐(27절). 시스라 어머니의 창가에서는 시간이 멎어 있다 — 영영 오지 않을 병거를 향한 물음(28절)과 태(racham)로 사람을 세는 시녀들의 셈(30절). 독자는 이미 결말을 보았고 어머니는 모른다 — 시가 시간을 겹쳐 놓은 이 배열에서, 승전가가 적의 슬픔을 응시하기를 그만두지 않는다. 본문은 조롱도 연민도 적지 않는다. 그 무표정한 응시가 이 노래의 깊이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삿 4장** — 같은 전투의 산문 기록. 시가 폭우(5:4-5, 20-21)·열 지파 명부·내면을 보충하는 병행.
- **출 15:1-21** — 바다의 노래. 구원 사건 직후 시로 부르는 같은 배열, 미리암과 여인들의 노래 전통.
- **시 68:7-8** — "하나님이 광야에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물을 내림" — 5:4-5와 같은 신현 어휘.
- **신 33:2; 합 3:3-15** — 세일·바란에서 오시는 신현 전통의 다른 본문들.
- **삿 3:31** — 아낏의 아들 삼갈, 5:6 호명의 전사.
- **창 49:14-15** —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잇사갈 — 5:16 mishpetayim의 어휘 짝.
- **시 83:9-10** — "기손 강에서 시스라에게 행하신 것 같이" — 이 전투가 후대 기도의 전례가 된 흔적, 배경.
- **삿 6:1; 8:1-3** — 사십 년 평온 다음의 하강과 에브라임의 불평 — 명부의 균열이 자라는 다음 장들.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5:2에서 시작한다 —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내게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스스로 내민 적이 있는지 듣는다.
- **멈춤 1**: 5:15-16에서 멈춘다 — 르우벤 시냇가의 큰 결심과 피리 소리. 결심이 컸던 채로 몸이 가지 않은 날들을 본다.
- **멈춤 2**: 5:11에서 멈춘다 — 물 걷는 곳에서 되뇌어지는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들. 내 우물가의 되뇌임이 무엇인지 본다.
- **끝**: 5:28과 5:31 사이에서 멈춘다 — 창가의 기다림 위로 덮이는 해돋이의 기원. 답하지 않고, 두 그림을 같이 켜 채 머문다.

#### F · 자족성 점검

- [x] 찬송·회고(2~11)·깨어남·호명(12~18)·전투(19~23)·두 여인(24~30)·기원(31)의 다섯 단 완결
- [x] hitnaddev 2회(2·9절)와 메로스의 저주(23절)라는 양극 구조
- [x] 산문(4장)·시(5장) 병행과 시의 세 보충(폭우·명부·내면)
- [x] 27절 일곱 동사의 슬로모션과 28~30절 창가 장면의 시간 겹침
- [x] 31절 기원·평온 정형구와 6:1로 이어지는 나선의 경첩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미완과 진단(1~2장),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왕이 없으므로 일어나는 부록(17~21장)으로 움직이는데, 5장은 그 나선의 이른 구간에서 솟는 가장 밝은 음이다 — 자원하는 백성, 일어난 어머니, 싸우시는 하늘.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이 노래는 출애굽의 노래(출 15장)를 잇는 둘째 마

다다. 갈대 바다에서 물이 군대를 덮었고, 기손에서 다시 물이 병거를 쓸었다 — 시내산의 신현(땅의 진동, 물을 내리는 하늘)이 세일에서 다시 진행한다(5:4-5). 구원의 기억이 한 세대의 일이 아니라 거듭 불리는 노래의 계보가 되는 것이다(시 83:9-10이 이 전투를 다시 부르는 데서 그 계보가 확인된다). 그러나 권의 heart — 부르짖음마다 돌이키시는 탄식 섞인 긍휼 — 는 이 밝은 장에도 그들을 드리운다. 노래의 명부가 이미 갈라져 있다. 열 지파 중 넷이 오지 않았고, 한 성읍이 저주를 받았다. 자원함이 전체의 것이 아니었다는 기록 — 승리의 노래가 품은 이 균열이, 구원자들의 한계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는 권의 운동 안에서 5장이 차지하는 정확한 좌표다. 빛이 밝을수록 갈라진 금이 선명하다.

##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건(4장)에서 노래(5장)로 / 빈 대로(5:6)에서 물 걷는 곳의 되됨(5:11)으로 / 움츠러든 백성(5:8)에서 즐거이 내미는 백성(5:2·9)으로 — 그러나 갈라진 명부(5:15-17·23)가 다음 하강을 미리 적어 두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5장은 구원의 사건을 공동체의 기억으로 바꾸는 운동이다. 산문이 끝낸 일을 시가 다시 부르면서 폭우와 명부와 마음이 기록에 더해지고, 한 번의 전투가 거듭 불릴 노래가 된다. 빈 대로가 다시 사람의 길이 되고, 우물가에서 여호와와 의로우신 일들이 되뇌어진다. 그러나 이 벡터는 직선이 아니다 — 노래의 마지막 기원(해돋이)과 사십 년 평온 바로 다음 절에서 권은 다시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6:1)로 꺾인다. 5장의 운동은 전권을 '부르짖음과 구원의 반복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가'라는 물음 쪽으로 미는 긴 나선의, 가장 높이 솟았다가 내려가는 마디다.

##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전쟁의 결산서다 —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적장이 어떻게 쓰러졌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자원함의 회복이다. 새 신들을 택하고 무기도 없이 숨어 다니던 백성(5:8)이 스스로를 내어놓는 백성으로 깨어났다 — 이 노래의 감격은 군사적 성취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돌아선 데 있다. 둘째, 기억의 제도화다. 물 걷는 곳에서 사람들이 되뇌는 것은 전과 목록이 아니라 여호와와 의로우신 일들(tsidqot YHWH)이고, 노래는 그 되뇌음을 다음 세대까지 실어 나르는 그릇이 된다 — 칭찬도 풍자도 함께. 출결부가 노래가 되는 순간, 공동체는 자기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잊을 수 없게 된다. 셋째, 응시의 폭이다. 이 승전가는 이긴 쪽의 감격으로 닫히지 않고 진 쪽 어머니의 창가까지 시선을 넓힌다 — 전쟁이 사람을 태(racham)로 세는 어휘의 참혹까지 적은 채로. 승리를 노래하면서 그 승리의 그늘에 선 얼굴을 지우지 않는 것 — 본문은 거기까지 보여 주고 멈춘다.

##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어느 줄에 적히는 사람인가 — 내려간 이름들과 피리 곁에 앉은 이름들 사이에서. 그리고 결심이 컸던 날과 몸이 움직인 날은, 내 달력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참전을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명부를 펼쳐 보인다 — 죽음을 무릅쓴 이름들, 큰 결심에 머문 이름들, 배와 해변에 앉은 이름들, 그리고 와서 돕지 않은 한 성읍. 방패도 창도 없던 백성이 가진 유일한 것이 즐거이 내미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이, 가진 것의 크기를 셈하며 머뭇거리는 독자에게 묻이 된다. 그리고 노래는 마지막에 두 창을 나란히 둔다 — 말뚝을 잡은 손의 장막과, 오지 않는 병거를 기다리는 창살. 승리의 이면까지 응시하고서야 부르는 해돋이의 기원 —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돌음 같게 하시옵소서." 그 기원과 사십 년의 평온,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는 하강 사이에서, 즐거이 헌신함(hitnaddev)이라는 단어 하나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로 남는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사십 년의 평온이 지나고 미디안의 그늘이 땅을 덮는다 — 다음에 부름받는 사람은 일어난 어머니가 아니라,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한 사람(6:11)이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hitnaddev* — 즐거이 헌신하다.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 Q1. 산문과 시(4~5장) — 같은 사건을 두 번 적는 기록은 무엇을 말하는가?

- 시가 폭우·명부·내면을 보충한다는 분업은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느 쪽이 사건의 '본 기록'인지, 둘을 같이 읽으라는 배열 자체가 독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본문이 말하지 않는다. 보존.

#### Q2. 르우벤 시냇가의 큰 결심(5:15-16) — 풍자인가 애석함인가?

- 결심이 두 번 적히고 옴은 적히지 않는다. 피리 소리 결의 물음("어찌 됨이냐")이 조소인지 아쉬움인지, 한 글자 차이의 언어유희(*chiqueq/chiqre*)가 어느 쪽 어조를 싣는지 — 닫히지 않는다. 보존.

#### Q3. 페로스(5:23) — '여호와를 돕는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 별들까지 부리시는 분이 한 성읍의 오지 않음을 저주로 셈하신다. 위치도 정체도 알 수 없는 이름, 행위가 아니라 부재가 죄목이 되는 유일한 사례 — '돕다'라는 동사가 여호와를 목적어로 받는 이 어법의 무게를 닫지 않는다. 보존.

#### Q4. 야엘 찬가(5:24-27) — 노래는 무엇을 복이라 부르는가?

-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 환대의 그릇과 장막 말뚝이 한 사람의 두 손에 있었고, 노래는 그 행위를 복으로 부르며 일곱 동사로 길게 머문다. 본문은 윤리 평가를 적지 않는다. 복이라는 단어와 슬로모션의 길이만 남겨 둔 채 이월. 보존.

#### Q5. 시스라 어머니의 창(5:28-30) — 승전가는 왜 적의 슬픔 앞에 머무는가?

- 이긴 쪽의 노래가 마지막 장면을 진 쪽 어머니의 창가에 내어 준다. *racham*(태)으로 사람을 세는 시녀들의 셈이 그 기다림 곁에 나란하다. 조롱과 비탄 사이에서 본문은 표정을 짓지 않는다 — 그 무표정을 그대로 보존.

#### Q6. 해돋이의 기원(5:31)과 권의 나선 — 가장 밝은 노래 다음이 왜 다시 하강인가?

-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돋음 같게" — 기원과 사십 년 평온 다음 절이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6:1)다. 노래의 빛이 나선을 멈추지 못하는 이 배열이 권 전체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5장 안에서는 닫히지 않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사사기 6장

JDG-006 · 역사서 · 히브리어

"큰 용사여(*gibbor hechayil*)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6:12)라는 호명이 포도주 틀에 숨어 타작하는 사람에게 내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6:13)라는 정직한 항변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6:14)는 파송의 입구가 되며, 전쟁의 권 한가운데 여호와 살롬(6:24)의 제단이 서고, 떨면서 밤에 행한 첫 순종(6:27)과 두 번의 양털(6:36-40) 위에 책망 없는 응답이 내리는 — 숨은 자를 용사로 불러내시는 기드온 소명의 장.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의 상하 분할: 들판은 미디안의 것("메뚜기 떼 같이 ...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5절), 이스라엘은 땅 밑("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2절) — 약속의 땅 위에서 땅 속으로 들어간 백성.
- 좁혀지는 무대: 오브라의 상수리나무 한 그루와 포도주 틀(11절). 타작 마당(*goren*)이 아니라 움푹한 바위 확(*gat*) 안의 타작 — 무대 배치 자체가 숨음.
- 소품: 밀, 포도주 틀, 염소 새끼·가루 한 에바·소쿠리·양푼(19절), 지팡이와 반석과 불(21절), 칠 년 된 둘째 수소(25절),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 나팔(34절), 양털 뭉치와 이슬과 그릇(36~40절) — 농가의 살림이 처음부터 끝까지 소품.
- 소재의 두 무더기: 숨는 것들(굴·포도주 틀·밤) 對 드러나는 것들(호명·불·제단·나팔) — 숨음에서 드러남으로 옮겨가는 흐름.
- 형식 소재: 1~6절의 압제 묘사가 앞 바퀴들(3:8, 12~14; 4:2~3)보다 유난히 깊 — 심고 빼앗기는 반복의 자세한 묘사.
- 사이클의 끼어든 한 칸: 부르짖음(6절)과 사자의 등장(11절) 사이에 선지자의 책망(7~10절) — 앞 바퀴들에 없던 변형.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6절의 눌린 숨 — 수고가 통째로 헛것이 되는 일곱 해("먹을 것을 남겨 두지 아니하며", 4절).
- 12절의 공기 전환 — "큰 용사여": 숨은 사람에게 떨어지는 호명. 농담처럼 들릴 뻔한 말의 진지함.
- 책망(8~10절)의 어조 — 꾸짖음 속에 베푸신 일의 긴 목록(애굽 인도·압제자들에게서의 구원·땅의 수여). 버림의 어조가 아니라 잊힌 역사를 다시 읽어 주는 어조.
- 명암: 굴·포도주 틀·밤의 철거 — 어둠 속에서 진행되고 아침마다 드러나는 리듬(28절 "아침에 일찍이", 38절 "이튿날 일찍이").
- 손의 분주함 — 밀 털고, 반죽하고, 나르고, 허물고, 찌는 손. 하늘의 발화가 농가의 손일로 번역됨.

- 의문문의 밀도 — 기드온의 세 질문(13·15절), 여호와와의 수사 의문(14절), 요아스의 반문(31절). 질문이 회피가 아니라 경첩으로 놓임.
- '함께(im)'의 사슬 — 선언(12절) → 의문(13절) → 약속(16절). 같은 전치사가 세 발화를 통과 — 배경.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칠 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 같은 주어, 반대 결의 동사 — 여는 동사는 심판의 넘기심, 닫는 동사는 두 번째 확인 요청에까지 맞춰 주시는 응답.
- 시야의 이동: 백성 전체를 향한 전국적 심판(1절)에서 한 사람의 밤과 타작 마당(40절)으로 — 좁아지며 닫히는 액자.
- 무대의 이동: 산속의 굴(2절)에서 노천 타작 마당(37절)으로 — 숨음의 공간에서 노출의 공간으로.
- 6절의 익명의 절규("부르짖었더라")와 39절의 이름 있는 간청("노하지 마옵소서") — 부르짖음이 한 장을 지나며 대화가 됨.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미디안·아말렉·동방 사람들(압제 연합), 이스라엘 자손, 이름 없는 한 선지자(8절), 여호와와의 사자, 기드온(받는 자 → 25절부터 행하는 자), 요아스(바알 제단의 주인이자 아들의 변호인), 종 열 사람, 성읍 사람들, 아비에셀·므낫세·아셀·스불론·납달리, 여호와와의 영(34절).
- 이름의 대비: 이름 없이 말만 전하고 사라지는 선지자 對 이름이 하나 더 생기는 기드온(여룹바알, 32절).
- 중심 사상: 함께하심의 물음표 — 선언(12절)이 정직한 의문(13절)을 통과한 뒤 일인칭 약속(16절)이 됨.
- 소명 양식: 현현 — 위임(14절) — 항변(15절) — 약속(16절) — 표징(17~21절). 출 3장의 문답 순서·어휘(ki chyyeh immakh, 출 3:12)와 평행.
- 13절 항변의 처리: 반박도 책망도 없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vayyifen)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14절) — 정직한 의문이 파송의 입구로.
- 제단의 운동: 여호와 살롬 제단이 서고(24절) — 바알 제단이 헐리고(25절) — 산성 꼭대기에 새 제단(26절). 칠 년 된 둘째 수소가 압제의 햇수를 마감하는 번제물.
- 두 극단의 어휘가 한 사람에게: dal·hatsair(가장 약한 가문·가장 작은 자, 15절) 對 gibbor hechayil(큰 용사, 12절).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절): 미디안의 압제 — 메뚜기 떼의 침입, 남김 없는 약탈, 굴로 들어간 백성, 부르짖음.
- 컷 2 (7~10절): 한 선지자 — 애굽 인도의 복기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응답 없이 끊기는 발화.
- 컷 3 (11~24절): 상수리나무 아래의 소명 — 호명·항변·파송·약속·표징·반석의 불·두려움·평강·여호와 살롬 제단.
- 컷 4 (25~32절): 밤의 파괴 — 바알 제단 철거, 아침의 발각, 성읍의 분노, 요아스의 변호, 새 이름 여룹바알.
- 컷 5 (33~35절): 적의 결집과 영의 소집 — 이스라엘 골짜기의 진, 영의 옷 입힘(lavshah), 나팔과 네 지파.



- 컷 6 (36~40절): 양털 두 번 — 젖은 양털·마른 땅, 마른 양털·젖은 땅. 두 밤의 확인과 책망 없는 응답.
- 컷 3 내부의 문답 사다리: 선언(12) → 의문(13) → 파송(14) → 항변(15) → 약속(16) → 표징(17~21) → 평강(23) → 제단(24). 소명 단락이 평강의 이름으로 봉인된 뒤에야 철거 명령(25절)이 옴.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gat*(גַּת) — 포도주 틀(11절). 바위를 파서 만든 환. 타작 마당(*goren*)의 노동이 이 안으로 숨어 들어옴.
- *gibbor hechayil*(גִּבּוֹר הַחַיִּיל) — 큰 용사·힘의 사람(12절). 룻 2:1에서는 보아스의 '유력한 자' — 형태 관찰.
- *YHWH immekha*(יְהוָה עִמָּךְ) —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12절). 13절의 의문, 16절의 약속과 한 사슬.
- *vayyifen elav*(וַיִּפֶּן אֵלָיו) — 그를 향하여 돌이키시고(14절). 항변 직후의 동작.
- *lekha bekochakha zeh*(לְךָ בְּכֹחֲךָ זֶה) — 가라, 이 너의 힘으로(14절). 지시어 *zeh*가 붙은 힘 — 무엇을 가리키는 지 본문은 확정하지 않음.
- *ki ehyeh immakh*(כִּי אֶהְיֶה עִמָּךְ) —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16절). 출 3:12와 같은 어형 — 형태 관찰만.
- *alpi haddal*(אֶלְפִי הַדָּל) — 내 가문은 가장 약하고 / *hatsair*(הַצָּעִיר) — 나는 가장 작은 자(15절). 이중의 작음.
- *ot*(אוֹת) — 표징(17절) / *minchah*(מִנְחָה) — 예물(18절).
- *shalom lekha al-tira lo tamut* — 네게 평강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23절) / *YHWH Shalom*(יְהוָה שָׁלוֹם) — 여호와와 평강, 제단의 이름(24절).
- *Yerubbaal*(יֵרֻבְעָל) — '바알이 그와 다룰 것이라(*yarev bo habbaal*)'에서 온 새 이름(32절).
- *ruach YHWH lavshah*(רוּחַ יְהוָה לָבְשָׁהּ) — 여호와와 영이 기드온을 입으셨다(34절). 옷의 동사 — 대상 12:18; 대하 24:20과 같은 그림, 형태 관찰만.
- *giztat hatsemer*(גִּזְטַת הַטֶּמֶר) — 깎아 놓은 양털 뭉치(37절) / *tal*(טַל) — 이슬 / *anasseh-na*(אַנְסֵה-נָּא, 어근 *nissah*) — 시험하게 하소서(39절).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압제(1~6) + 선지자(7~10) + 소명(11~24) + 밤의 철거(25~32) + 영의 소집(33~35) + 양털(36~40) — 여섯 단의 구성.
- 사이클의 변형: 앞 바퀴들(3:9, 15; 4:3 이하)에서는 부르짖음 → 구원자였으나, 이 바퀴에서는 부르짖음 → 선지자의 책망 → 사자. 응답의 첫 형태가 칼이 아니라 말씀.
- 책망의 끝진 끝(10절): 백성의 반응·회개 기록 없이 장면 전환 — 구원이 자격 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되는 공백.
- 호명과 실상의 간격: *gibbor hechayil*(12절)이 떨어지는 곳이 포도주 틀 속 — 말이 실상을 앞서감.
- 표징의 연쇄: 반석의 불(21절) — 양털 1(36~38절) — 양털 2(39~40절). 세 번 다 응답, 책망 0회.
- 이름의 문학: 제단에 붙는 이름(여호와 살롬, 24절)과 사람에게 붙는 이름(여룹바알, 32절) — 한 장에 명명이 두 번.
- 칠 년의 호응: 압제 칠 년(1절)과 칠 년 된 둘째 수소(25절) — 햇수의 짝.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낙타 유목 집단의 수확기 습격 경제 — 6:5의 무수한 낙타는 군사적 낙타 운용의 이른 기록으로 논의됨. 배경.



- 포도주 틀(gat)의 구조 — 바위를 판 밟는 확과 받는 확. 타작은 본래 바람 부는 노천 타작 마당의 키질 노동 — 움푹한 틀 속 타작은 바람도 공간도 없는 숨음. 배경.
- 바알(폭풍·비·풍요의 신)·아세라(목상) — 가나안 농경 종교의 짝. 농사의 신을 섬기는 마을이 농산물을 빼앗기는 구도. 배경.
- 환대 음식(6:19) — 염소 새끼와 가루 한 에바의 무교병. 근동의 손님 대접 관습, 창 18장의 상차림과 같은 결. 배경.
- 이슬(tal) — 건기 팔레스타인 농업의 주요 수분원. 양털 표징의 일상적 토대. 배경.
- LXX: gibbor hechayil → δυνατός τῇ ἰσχύι 계열, lavshah → ἐνδύω 계열 직역, 사사기의 A·B 사본 계열 차이 — 번역·본문비평 배경.
- 랍비 전통: 탈무드 로쉬 하샤나 25b가 기드온·입다·삼손 세대의 사사 권위를 모세·아론·사무엘과 견주어 논의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샷 6:15-16 ↔ 출 3:11-12 (내가 누구이기에 / 내가 만드시 너와 함께 — 같은 소명 문답 양식, 같은 어휘 ki chyeheh immakh)
- 샷 6:22-23 ↔ 출 33:20 (대면하여 보았나이다의 두려움 — 보고 살 자 없음의 배경)
- 샷 6:7-10 ↔ 샷 2:1-5 (사자/선지자의 책망 — 권 안의 호응)
- 샷 6:6 ↔ 샷 3:9, 15; 4:3 (부르짖음 — 앞 바퀴들과의 대조 지점)
- 샷 6:25-26 ↔ 신 7:5 (제단을 헐며 아세라를 찍으라 — 율법의 배경)
- 샷 6:39 ↔ 창 18:30-32 (노하지 마옵소서 — 간청 어법의 같은 결, 배경)
- 샷 6:14 ↔ 샷 7:2-7 (이 너의 힘으로 — 백성이 너무 많다는 다음 장의 셈법)
- 샷 6:36-40 ↔ 샷 8:27 (표징을 구하던 사람의 훗날 예뵈 — 배경)
- 샷 6장 ↔ 사 9:4; 시 83:9-11 (미디안의 날 — 후대가 기억하는 구원, 배경)
- 샷 6:11 ↔ 히 11:32 (기드온 — 신약 믿음의 목록, 배경)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수확기의 들판에 먼지가 일고, 천막과 낙타가 메뚜기 떼처럼 골짜기를 덮는다. 곡식단이 실려 나가고 외양간이 빈다. 산비탈의 바위 틈마다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 웅덩이와 굴과 산성. 굴 속에서 부르짖음이 새어 나온다. 한 사람이 회중 앞에 선다 —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이 끊긴다. 오브라, 상수리나무 아래. 움푹한 바위 확 안에서 한 사람이 몸을 숙여 밀을 털고 있다. 음성 —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손이 멈춘다.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음성의 주인이 그를 향해 돌아본다 —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나의 집은 가장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만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소쿠리의 고기와 무교병이 반석에 놓이고, 지팡이 끝에서 불이 솟아 사른다. 슬프도소이다 —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돌이 쌓이고 이름이 붙는다 — 여호와 살롬. 밤, 열 사람의 그림자. 바알 제단이 무너지고 칠 년 된 수소가 새 제단에 오른다. 아침의 술령임 — 끌어내라. 한 노인이 막아선다 — 바알이 과연 신일진대 자신을 위해 다룰 것이니라. 새 이름이 붙는다 — 여룹바알. 골짜기에 적진이 펼쳐지고, 영이 한 사람을 옷처럼 감싸고, 나팔이 울리고, 산마다 사람들이 내려온다. 타작 마당, 양털 한 뭉치. 새벽 — 짜낸 이슬이 그릇에 가득하다. 다음 밤 — 양털만 마르고 온 땅이 젖어 있다. 젖은 땅 위의 마른 양털, 암전.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포도주 틀의 큰 용사 — 호명이 실상을 앞서갈 때"
- 초벌 부제: "메뚜기 떼의 압제 아래 굴로 들어간 백성의 부르짖음에 선지자의 책망이 먼저 오고, 포도주 틀에 숨은 사람에게 '큰 용사여'(gibbor hechayil)라는 호명과 '이 너의 힘으로'라는 파송이 내리며, 전쟁의 권한가운데 여호와 살롬의 제단이 서고, 떨면서 행한 밤의 순종과 두 번의 양털 위에 책망 없는 응답이 놓이는 — 기드온 소명의 장"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4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여섯 단 구성 + 사이클 변형 + 출 3장 소명 문답 평행 + ANE 낙타 유목·포도주 틀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6:36-40의 양털을 '하나님의 뜻 분별법'이라는 적용 공식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약속 이후의 확인 요청이라는 본문 사실과 책망 없는 두 번의 응답이라는 기록으로만 보존 — 불신앙인가 신중함인가는 미해결로 이월.
- 6:12의 gibbor hechayil 호명을 '긍정 선언'류 자기계발 원리로 끌고 가지 않고, 호명과 실상의 간격이라는 본문 배열과 동행 선언("여호와께서 너와 함께")이 한 문장이라는 사실 관찰로만 둬.
- 6:24의 여호와 살롬을 평화주의 교리의 전거로 단정하지 않고, 전쟁 직전의 제단에 평강의 이름이 붙었다는 위치 관찰로만 기록.
- 6:27의 밤의 순종을 용기 부족의 흠으로도 신중한 지혜로도 단정하지 않고, 두려움과 순종이 한 절에 공존한다는 사실로만 보존.
- 6:13의 항변을 불신앙의 표본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항변 직후 책망 없이 파송이 이어지는 본문의 순서(13절→14절) 관찰로만 둬.
- 6:34의 lavshah(영이 옷 입히심)를 성령론 교리 체계로 확장하지 않고, 어형과 병행 구절(대상 12:18; 대하 24:20)의 형태 관찰로만 보존.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6장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6:2) 만들어 들어간 백성의 부르짖음(6:6)에 구원자 대신 선지자의 책망(6:7-10)을 먼저 보내시고,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터는 사람에게 "큰 용

사여(gibbor hechayil)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6:12)라는 호명을 내리시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6:13)라는 정직한 항변에 책망 없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6:14)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ki ehyeh immakh)"(6:16)로 응하시고, 반석의 불(6:21)과 여호와 살롬 제단(6:24)과 떨면서 행한 밤의 철거(6:27)와 새 이름 여룹바알(6:32)과 영의 옷 입히심(lavshah, 6:34)을 지나, 두 번의 양털(6:36-40)에까지 노하심 없이 그대로 행하시는 — 숨은 자를 용사로 빚어 가시는 소명의 장이다.

**한 문단:** 들판은 메뚜기 떼 같은 천막과 낙타가 덮었고, 약속의 땅을 받은 백성은 그 땅 밑의 굴에 산다. 부르짖음이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말이다 —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이 응답 없이 끊기고, 장면이 한 그루 상수리나무 아래로 좁혀진다. 움푹한 바위 확 안에서 한 사람이 미디안 몰래 밑을 털고 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 숨어 있는 사람에게 떨어지는 호명. 그는 되묻는다.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음성의 주인이 그를 향해 돌이킨다 —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가장 약한 가문의 가장 작은 자라는 항변 위에 약속이 놓인다 —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석에서 불이 솟아 예물을 사르고, 죽음을 예감한 사람에게 평강이 선언되고, 전쟁의 권 한가운데 '여호와와 평강'이라는 이름의 제단이 선다. 그 밤, 그는 떨면서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고 — 두려워서 밤에,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다 — 아침의 분노 속에서 여룹바알이라는 새 이름을 얻는다. 영이 그를 옷처럼 감싸고 나팔이 울리고 네 지파가 모이는데, 그는 타작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편다. 두 밤에 걸친 확인 요청에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젖은 땅 위의 마른 양털 — 장이 거기서 닫힌다.

#### B·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들판은 미디안, 백성은 땅 밑 — 상하로 갈린 무대. 포도주 틀 속의 타작이라는 어긋난 배치. 칠 년 된 수소·양털·이슬 등 농가 살림의 소품들.          |
| 2 첫 느낌·분위기    | 헛수고의 일곱 해, 웃지 않는 호명, 복기가 긴 책망, 밤에 진행되고 아침에 드러나는 리듬, '함께(im)'의 사슬.                          |
| 3 시작과 끝       | "넘겨 주시니"(1절)로 열려 "그대로 행하시니"(40절)로 닫힘 — 같은 주어, 반대 결의 동사. 굴에서 타작 마당으로, 절규에서 대화로.             |
| 4 등장인물·사상     | 이름 없는 선지자와 이름이 돌이 되는 기드온. 중심 사상은 함께하심의 물음표 — 선언(12)이 의문(13)을 통과해 약속(16)이 됨. 출 3장 소명 문답 평행. |
| 5 장면 컷        | 압제/선지자/소명/밤의 철거/영의 소집/양털의 6컷. 컷 3은 문답의 사다리 — 평강의 제단이 봉인된 뒤에야 철거 명령.                        |
| 6 의문·발견·정보    | 사이클에 끼어든 선지자와 끊긴 책망. 호명과 실상의 간격. '이 너의 힘'의 지시어. 표징 세 번에 책망 0회. lavshah의 옷 그림.              |
| 7 동영상         | 메뚜기 떼의 들판 → 굴의 부르짖음 → 포도주 틀의 호명 → 반석의 불 → 밤의 철거 → 영의 옷 입힘과 나팔 → 두 밤의 양털.                   |
| 8 초별 제목·부제    | "포도주 틀의 큰 용사 — 호명이 실상을 앞서갈 때"                                                              |
| 9 기도·내면       |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 라고 묻은 입을 막지 않으시고 돌이켜 보신 그 시선 곁에 머문다.                                         |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gibbor hechayil, 실상을 앞서가는 호명:** "큰 용사여"가 떨어지는 곳은 전장이 아니라 숨음의 노동 한복판이다. 그 순간의 그에게 이 말은 사실 묘사가 아니다. 그런데 장이 끝나기 전에 그는 제단을 쌓은 사람, 우상을 허문 사람, 나팔을 분 사람이 되어 있다. 말이 사람을 그 말 쪽으로 끌여가는 — 호명이 사람을 만들어 가는 소명의 문법이 이 장의 첫 결이다. 그리고 그 호명은 추켜세움이 아니라 동행 선언과 한 문장이다("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용사의 근거가 사람 안이 아니라 곁에 계신 분에게 놓이는 배열까지가 본문의 그림이다.

2. **결 2 — 항변이 입구가 되는 순서:**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13절)는 전승으로 들은 신앙과 눈앞의 현실 사이의 간격을 숨기지 않는 정직한 의문이다. 본문은 이 항변을 불신앙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바로 다음 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 돌이키시고(vayyifen) — 반박도 꾸짖음도 없이 —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라고 보내신다. 의문이 자격 박탈의 사유가 아니라 파송의 입구로 놓이는 순서, 13절과 14절의 이 맞닿음이 둘째 결이다.

3. **결 3 — 표징 세 번, 책망 0회:** 반석의 불(21절), 젖은 양털(38절), 마른 양털(40절) — 이 장에서 확인은 세 번 요청되고 세 번 다 응답된다. 마지막 요청은 약속과 영의 입히심과 군대의 소집까지 받은 다음의 일인데도, 하나님은 "노하지 마옵소서"라는 조심스러운 간청에 노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약속을 받고도 떨어지는 마음의 간격을 책망이 아니라 동행으로 채우시는 인내 — 그 기록의 결이 셋째다. 다만 이 인내가 확인 요청 일반에 대한 보증인지는 본문이 말하지 않으므로, 사실의 기록으로만 쥔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출 3:11-12 — "내가 누구이기"와 "내가 만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ki ehveh immakh)" — 6:15-16과 같은 소명 문답 양식, 같은 어휘.
- 출 33:20 —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 6:22-23의 두려움과 평강 선언의 배경.
- 사 2:1-5 — 여호와와 사자의 책망과 보김의 울음 — 6:7-10의 권 내 호응.
- 신 7:5 — 그들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를 찍으라 — 6:25-26 명령의 율법 배경.
- 창 18:30-32 —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 6:39 간청 어법의 같은 결, 배경.
- 사 7:2-7 —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 '이 너의 힘으로'가 삼백 명의 셈법으로 이어지는 다음 장.
- 사 8:27 — 기드온의 에봇 — 표징을 구하던 사람의 훗날, 배경.
- 사 9:4; 시 83:9-11 — 미디안의 날 — 후대 본문이 기억하는 구원의 계보, 배경.
- 히 11:32 — 기드온을 부르는 믿음의 목록 — 신약의 회고, 배경.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6:2에서 시작한다 — 약속의 땅 위에서 굴로 들어간 백성. 내 삶에서 받은 것 위에 살지 못하고 숨어 사는 영역이 있는지 듣는다.
- **멈춤 1:** 6:12-13에서 멈춘다 — 호명과 항변. 나를 부르는 말과 내가 느끼는 실상의 간격, 그리고 그 간격을 숨기지 않고 물을 수 있는지 본다.
- **멈춤 2:** 6:24에서 멈춘다 — 전쟁 직전의 여호와 살롬. 내 평강이 싸움의 결과인지, 싸움보다 먼저 받는 것인지 그 순서를 본다.

- 끝: 6:27과 6:40 사이에서 멈춘다 — 떨면서 행한 밤의 순종과 책망 없는 두 번의 응답. 두려움과 순종이 공존해도 순종이 순종으로 섰해지는 기록 곁에 머문다.

#### F·자족성 점검

- [x] 압제(1~6)·선지자(7~10)·소명(11~24)·밤의 철거(25~32)·영의 소집(33~35)·양털(36~40)의 여섯 단 완결
- [x] 사이클 변형(부르짖음 → 책망 → 사자)과 책망의 끊긴 끝
- [x] '함께(im)' 사슬(12·13·16절)과 출 3장 소명 문답 평행
- [x] 호명(gibbor hechayil)과 실상(포도주 틀)의 간격 구조
- [x] 표징 3회·책망 0회의 분포와 여호와 살롬·여룹바알 명명 한 쌍

####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미완과 진단(1~2장),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왕이 없으므로 일어나는 부록의 어둠(17~21장)으로 움직이는데, 6장은 그 나선의 새 바퀴가 열리는 입구다. 그런데 바퀴의 틀이 달라져 있다 — 부르짖음에 구원자가 곧장 오던 앞 바퀴들과 달리, 여기서는 책망이 먼저 오고(6:7-10), 구원자는 굴과 포도주 틀의 깊이에서, 가장 약한 가문의 가장 작은 자로 불러 나온다. 사이클이 돌수록 응답의 절차는 길어지고 구원자의 결격은 자세해진다 — 그 기울기가 참왕의 필요를 한 단 더 드러내는 것이 이 바퀴의 좌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6:16의 "내가 만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는 떨기나무 곁 모세에게 주어진 어형(출 3:12) 그대로이고, 위임의 근거가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함께하심이라는 소명의 문법이 시대를 건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권의 heart — 부르짖음마다 돌이키시는 탄식 섞인 공홀 — 가 이 장에서는 책망 속의 긴 복기(6:8-9), 항변을 향해 돌이키시는 동작(6:14), 양털 두 번에까지 노하심 없는 응답(6:38, 40)으로 구체화된다. 심판으로 넘기신 분과 양털 하나에 응하시는 분이 같은 분이라는 폭이, 이 권이 그리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굴과 포도주 틀의 숨은(6:2, 11)에서 타작 마당의 드러남(6:37)으로 / 익명의 부르짖음(6:6)에서 이름 있는 대화(6:39)로 / 호명(6:12)에서 그 호명을 닮아 가는 사람으로 — 항변을 통과시킨 동행의 약속이 숨은 자를 용사로 빚어 가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6장은 '숨은 사람을 불러내 출발선에 세우는' 운동이다. 압제의 묘사(1~6절)가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음이 책망의 복기(7~10절)로, 책망의 공백이 호명과 문답(11~24절)으로, 문답이 밤의 첫 순종(25~32절)과 영의 소집(33~35절)으로, 소집이 두 밤의 확인(36~40절)으로 번역되며 한 사람이 굴의 깊이에서 타작 마당의 한테로 올라온다. 그러나 6장이 끝나도 칼은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다 — 전투는 7장에서야 오고, 그것도 군대를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삼만 이천을 삼백으로 줄이시는 방향으로 온다. 6장의 벡터는 전권을 '부르짖음에서 구원으로, 구원자의 한계에서 참왕의 필요로' 끌고 가는 하강 나선의 한 구간이며, "이 너의 힘으로"(6:14)라는 파송이 "백성이 너무 많다"(7:2)는 섰법과 맞닿는 데서 다음 장의 문이 열린다.

####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농부의 징집 서사다 — 부름, 망설임, 동원, 출정 준비.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호명의 힘이다. "큰 용사여"는 발화 시점의 사실이 아니었는데, 장이 닫히기 전에 그 사람은 그 말을 닮



아 가고 있다. 말이 실상을 앞서가서 사람을 끌여가는 — 그리고 그 말의 근거가 사람의 잠재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라는 동행에 놓여 있는 — 소명의 문법이 바닥에 깔려 있다. 둘째, 의문의 통과다. 이 장의 하나님은 정직한 항변을 막지 않으신다.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라는 물음이 책망 대신 파송으로 응답되고, 약속 뒤의 거듭된 확인 요청이 노하심 대신 두 번의 이슬로 응답된다. 믿음의 길에 의문과 떨림이 동행하는 것을 본문이 평가 없이 보존한다 — 떨면서도 행한 밤의 순종이 순종으로 셈해지듯이. 셋째, 순서의 전복이다. 전쟁의 권 한가운데 제단이 먼저 서고 그 이름이 평강이며, 출정보다 우상의 철거가 먼저이고, 군대를 모은 다음 장의 첫 말씀이 '줄이라'다. 이 권이 말하려는 구원이 군사력의 서사와 결이 다르다는 신호가 6장의 배열마다 걸려 있다. 본문은 거기까지만 보여 주고 멈춘다.

##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지금 어느 포도주 틀 안에 있는가 — 그리고 나를 부르는 말과 내가 느끼는 실상의 간격 앞에서, 그 간격을 숨기는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라고 정직하게 묻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용사가 되라고 다그치지 않는다. 다만 숨어 일하는 한 사람을 보여 주고, 그에게 떨어진 호명을 들려주고, 그 호명에 정직한 항변으로 응한 입과 그 입을 막지 않으신 응답을 보여 준다. 의문이 길의 끝이 아니라 입구가 되는 순서, 떨림과 순종이 한 절 안에 공존해도 순종이 순종으로 기록되는 결, 약속을 받고도 남는 확인의 갈증에 노하심 없이 두 밤을 응답하시는 인내 — 그 모든 간격이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그리고 전쟁 직전에 먼저 명명된 평강의 제단이 묻는다 — 평강은 싸움의 전리품인가, 싸움보다 먼저 받는 받침인가. 호명과 실상 사이, 약속과 떨림 사이 —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군대는 모였고 양털은 두 번 응답받았다 — 그런데 하룻 샘 곁에서 들리는 첫 말씀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7:2)이며, 삼만 이천이 삼백이 되는 셈법으로 다음 장이 열린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YHWH Shalom* — 여호와와는 평강.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김 단계로 이월.

#### Q1. "큰 용사여"(6:12) — 이 호명은 현재의 묘사인가, 아직 없는 것을 부르는 호출인가?

- 호명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털고 있었다. 묘사라면 사실과 어긋나고, 호출이라면 말이 실상을 앞서가며 사람을 만들어 가는 다른 종류의 언어다. 본문은 어느 쪽인지 표시하지 않는다. 보존.

#### Q2. 선지자의 책망(6:7-10) — 왜 응답 없이 끊기는가?

-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10절) 뒤에 백성의 회개도 반응도 적히지 않은 채 장면이 상수리나무 아래로 바뀐다. 책망과 소명 사이의 이 공백이 무엇을 뜻하는지 — 구원이 자격 회복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인지, 다른 무엇인지 — 본문 안에서 답하지 않는다. 보존.



**Q3. "이 너의 힘으로"(6:14) — 어느 힘을 가리키는가?**

- 지시어 zeh(이)가 붙어 있는데, 그 시점까지 기드온이 보인 것은 숨은 타작과 정직한 항변뿐이다. 항변하던 그 기운인지, 16절의 동행이 만들 힘을 앞당겨 부르는 것인지, 본문은 확정하지 않는다. 보존.

**Q4. 여호와 살롬(6:24) — 전쟁 직전의 제단에 왜 평강의 이름이 붙는가?**

- 적이 골짜기에 진을 치기 전, 나팔이 울리기 전, 소명 단락의 끝에 세워진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와 평강'이다. 싸움이 끝나기도 전에 평강이 먼저 명명되는 이 순서의 무게를 어느 교리로도 누르지 않고, 위치의 관찰로만 쫓는다. 보존.

**Q5. 밤의 순종(6:27) — 두려움 섞인 순종은 순종의 결격인가, 순종의 실제 모양인가?**

- "두려워하므로 ... 밤에 행하니라" — 명령된 일은 다 행해졌고, 두려움도 다 기록되었다. 본문은 칭찬도 책망도 적지 않는다. 떨면서 행한 첫 순종을 평가 없이 보존한 이 기록의 결을 미해결로 둔다. 보존.

**Q6. 양털 시험(6:36-40) — 약속 뒤의 확인 요청은 불신인가, 하나님은 왜 책망 없이 두 번 다 응답하시는가?**

- 약속(16절)과 영의 입히심(34절)과 군대의 소집(35절) 뒤에 표징이 두 번 더 요청된다. 신명기 6:16은 시험하지 말라 하고, 이 본문의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38, 40절). 두 본문의 대면을 어느 쪽으로도 누르지 않고 나란히 둔 채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사기 7장

JDG-007 · 역사서 · 히브리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7:2)이라는 뜻밖의 진단 아래 삼만 이천이 만 명으로, 만 명이 다시 halves 삼백으로 줄어들고 — 두려워하는 지휘관에게는 책망 대신 적진의 꿈 이야기가 허락되며(7:10-15), 칼 한 자루 없이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만 든 삼백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7:20)를 외칠 때 적군이 친구끼리 치며 무너지는(7:22) —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는 자랑의 길을 미리 막으시는 감산의 밤.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하룻 샘 곁의 이스라엘 진영(위) 對 모레 산 앞 골짜기의 미디안 진영(아래, 7:1·8) — 고지의 소수와 골짜기를 메운 다수.
- 12절의 군세 묘사: 미디안·아말렉·동방 사람들이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낙타가 해변의 모래 같음 — 적군은 숫자 없이 직유로만.
- 무대의 운동: 채움이 아니라 비움 — 32,000 → 22,000 귀환 → 10,000 → 9,700 귀환 → 300. 막이 오를수록 무대 위 사람이 줄어들.
- 소품: 샘물·혀·손바닥·무릎(5~6절), 나팔·빈 항아리·항아리 안에 감춰진 횃불(16절), 꿈속의 보리떡 한 덩어리(13절), 양식(8절).
- 칼의 위치: 외침 속에는 있고("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20절) 삼백의 손에는 없음(왼손 횃불·오른손 나팔). 실제 칼은 22절 — 적군이 서로를 치는 손에.
- 지명의 올림: 하룻 샘(Ein Charod) ↔ "두려워 떠는 자(charad)"(3절) — 떨림이라는 이름의 샘 곁에서 떠는 자들이 가려짐.
- 형식 소재: 2절의 동기절 — pen yitpaer(자랑할까 함이라). 군대 감축의 이유가 전술이 아니라 자랑의 차단으로 명시됨.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너무 많은즉" — 전쟁 앞에서 모자람이 아니라 많음이 문제로 진단되는 첫 문장. 셈법이 뒤집힌 채 장이 열림.
- 위협의 방향: 적군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입 —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2절). 이기기 전에 이긴 뒤의 말을 막으심.
- 넘겨 주다(natan beyad)" 다섯 번의 이동: 2절 부정 → 7절 약속 → 9절 완료 → 14절 적의 입 → 15절 기드온의 입. 숫자가 줄수록 수여 선언은 늘어남.
- 밤의 공기: 정탐도 꿈도 기습도 밤 — 이경 초, 파수 교대 직후(19절)라는 시각 명시.

- 전투 장면의 역설: 이스라엘 쪽에서 아무도 칼을 휘두르지 않음 — 빛과 소리와 외침뿐. 제 위치에 선 삼백 (21절).
- 감각: 활는 소리, 한밤의 꿈 이야기, 삼백 개의 빈 항아리가 한꺼번에 깨지는 소리 — 그 다음에야 보이는 햇불.
- 발화 구조: 여호와(1~11) → 적군 두 사람(13~14) → 기드온(15~18). 확신이 적의 입을 경유해 지휘관에게 닿는 배열 — 배경.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 샘 곁에 진을 쳤고."
- 25절: "... 오렐과 스오프의 머리를 요단 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 삼만 이천의 진영으로 열려 적장 두 사람의 머리로 닫힘 — 무리에서 머리 둘로 좁혀지는 수의 액자.
- 물의 수미: 하룻 샘(가려냄의 물)에서 요단 강(추격의 물)으로.
- 이름의 액자: 1절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 6장에서 바알과 다튀 얻은 이름이 미디안 전투의 문 앞에 걸림. 25절 — 적장이 죽은 곳이 그들의 이름으로 불림(오렐 바위·스오프 포도주 틀).
- 포도주 틀의 호응: 6장의 기드온이 숨던 곳 ↔ 7장 끝 적장 스오프가 죽는 곳 — 같은 소품의 다른 운명.
- 빛의 리듬: 이른 아침(1절) — 밤(9~22절) — 다음 날의 추격(23~25절). 가장 어두운 한가운데서 햇불이 커짐.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줄이시는 분, 1~9절 주도), 기드온/여룹바알(듣는 자→두려워하는 자→15절부터 명령하는 자), 부라(10절 — 이름이 기록된 동행자), 익명의 적군 둘(꿈 꾀 자와 해몽하는 친구), 32,000의 백성 (22,000/9,700/300으로 갈림), 미디안·아말렉·동방 연합, 납달리·아셀·므낫세·에브라임, 두 방백 오렐과 스오프.
- 중심 사상: 구원의 공로 회계 — 군대가 많으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말이 가능해지므로, 그 말이 불가능한 규모까지 줄이심(2절).
- 두 단계 가려냄: ① 자기 신고(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3절 — 신 20:8의 적용, 삼분의 이가 떠남) ② 본 인도 모르는 관찰(물 마시는 자세, 5~6절 — 율법에 없는 이 장만의 시험).
- 명단 작성자의 명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4절) — 가려냄의 주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 두려움의 두 처분: 두려워 떠는 22,000은 돌려보내시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은 책망 없이 길을 내주심 — "두려워하거든 부라와 함께 내려가서 들으라"(10~11절).
- 보리떡의 자기 인식: 추수를 빼앗기던 백성·포도주 틀에 숨던 지휘관의 가난이 꿈의 어휘 그대로(보리떡) — 그 초라한 빵이 유목민의 집(장막)을 엮음.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경배함(15절).
- yasha(구원하다)의 주어 다툼: 2절 — 금지되는 문장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yadi hoshiah li)" / 7절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같은 동사의 주어가 장의 쟁점.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절): 하룻 샘의 감산 — "너무 많은즉"(2), 두려워 떠는 자 22,000의 귀환(3), 물가의 시험과 활는 300(4~7), 양식과 나팔의 인제(8).

- 컷 2 (9~15절): 그 밤의 적진 — "두려워하거든 부라와 함께"(10), 메뚜기·모래의 군세(12), 보리떡 꿈과 해몽(13~14), 경배와 "일어나라"(15).
- 컷 3 (16~22절): 이경 초 — 세 대 편성과 나팔·빈 향아리·햇불(16),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17), 깨지는 향아리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19~20), 제 위치의 300과 친구끼리 치는 적군(21~22).
- 컷 4 (23~25절): 추격 — 세 지파의 합류(23), 에브라임의 수로 점령(24), 오렘 바위·스엠티 포도주 틀과 두 머리(25).
- 컷 1 내부의 계단: 같은 진단 두 번 — "너무 많은즉"(2) · "아직도 많으니"(4). 한 번의 가려냄으로 끝나지 않는 이중 감산.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rav*(רב) — 많다. 2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절 적군의 낙타에게 같은 계열의 말이 걸림.
- *pen-yitpaer alai Yisrael*(פֶּן־יִתְּפֹאֵר עָלַי יִשְׂרָאֵל) —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할까 하노라. *pa'ar*의 히트파엘(재귀형) — 자기를 영화롭게 하다.
- *yadi hoshiah li*(יָדִי הוֹשִׁיעָה לִּי) —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2절). *yasha*의 주어로 사람의 손이 놓이는, 차단되는 문장.
- *yare ve-chared*(יָרָא וַחֲרַד) — 두려워 떠는 자(3절). 1절의 *Ein Charod*(하룻 샘)와 같은 어근의 올림 — 형태 관찰만.
- *laqaq*(לָקַח) — 훔다(5절, 개가 훔듯). 6절 *ham-malaqqim*(הַמִּלְאֻקִּים) — 훔는 자들, 그 분사형. / *kara al-birkayim* — 무릎을 꿇다(5절).
- *natan beyad*(נָתַן בְּיָד) — 손에 넘겨 주다. 2(부정)·7·9·14·15절, 다섯 번의 수여 선언.
- *tselil lechem seorim*(צִלֵּל לֶחֶם שְׁעִרִּים) — 보리떡 한 덩어리(13절). *tselil*은 성경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hapax).
- *shofar*(שׁוֹפָר) — 나팔 / *kad*(כָּד) — 향아리 / *lappid*(לָפִיד) — 햇불(16절). 빛이 그릇 속에 감춰지는 세 소품.
- *rosh ha-ashmoret ha-tikhonah*(רֹאשׁ הָאֶשְׁמֹרֶת הַתִּיכּוֹנָה) — 이경 초(19절). 한밤 파수의 교대 직후라는 시각 명시.
- *cherev laYHWH ulGidon*(חֶרֶב לַיהוָה וּלְגִדּוֹן) —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20절). 어순은 여호와 먼저. 18절 MT에는 *cherev* 없음 — 형태 관찰.
- *Tsur Orev*(צוּר עוֹרֵב) — 오렘(까마귀) 바위 / *Yegev Zeev*(יָגֵב זֵאֵב) — 스엠티(이리) 포도주 틀(25절). 두 방백의 이름이 들짐승.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감산(1~8) + 야간 정탐과 꿈(9~15) + 기습(16~22) + 추격(23~25) — 네 단의 전투 서사.
- 감산의 산수: 32,000 → 300, 백분의 일 아래. 권의 다음 장이 적군 135,000을 확정(8:10) — 450 對 1. 사람의 손이 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비율.
- 줄어드는 숫자와 늘어나는 수여: 군대가 깎일수록 "넘겨 주다"의 선언이 누적(다섯 번) — 9절에서 전투 전에 이미 완료형.
- 두 단계 가려냄의 비대칭: 마음의 자백(3절) 對 몸의 습관(5~6절) — 한 번은 본인이 알고 떠나고, 한 번은 본인도 모르게 가려짐.
- 칼의 어긋남: '칼'을 외치는 입(20절)과 칼이 없는 손(햇불·나팔) — 실제 칼은 적군이 서로를 치는 22절에만.

- 하룻/charad의 어휘유희, 보리떡(가난)·장막(유목)의 충돌 그림, 오렘·스엠프(까마귀·이리)이라는 짐승 이름의 방백들 — 문체 장치.
- 확신의 경유지: 여호와와 직접 발화(9절)가 아니라 적군의 꿈과 해몽(13~14절)을 듣고서야 기드온이 경배함 — 발화 동선의 설계.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야간 기습과 세 대 분진 — 근동 전쟁의 익숙한 양식. 삼상 11:11(사울), 창 14:15(아브람)의 병행. 7:16-19의 배경.
- 군영의 꿈 점복 — 꿈을 전조로 읽는 근동 관습(마리 문서의 꿈 보고 전통 등). 꿈 하나에 사기가 껴있는 13~14절의 배경.
- 낙타 유목 연합의 약탈 — 추수기 침탈(6:3-5)과 대규모 낙타 운용. 군사사적으로 이른 기록 가운데 하나. 12절의 배경.
- 횃불·나팔의 부대 표시 — 통상 횃불 하나·나팔 하나가 한 부대의 신호라면, 300개의 횃불과 나팔은 한밤의 적에게 300개 부대로 읽혔을 가능성. 배경.
- 본문 전승: 7:3의 "길르앗 산" — 지리상 길보아가 기대되는 곳의 난점, 사본·역본 갈래 있음. 7:18 MT에 cherev 없음(20절에만). 7:5-6의 LXX 사본 계열 차이. 전부 본문비평 배경, 해석 아님.
- 랍비 전통: 후대 주석이 7:5-7의 무릎 꿇는 자세를 우상 숭배 습관과 연결하는 등 여러 해설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샷 7:3 ↔ 신 20:8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 율법 규정의 적용)
- 샷 7장 ↔ 샷 6:11-24, 36-40 (포도주 틀의 기드온, 두 번의 양털 — 두려움과 표징의 내력)
- 샷 7:6 ↔ 샷 8:10 (300 對 135,000 — 권 안에서 확정되는 비율)
- 샷 7:2 ↔ 삼상 14:6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 샷 7:2 ↔ 시 33:16-17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 군세와 구원의 분리)
- 샷 7장 ↔ 사 9:4 (미디안의 날과 같이 — 후대 예언의 비교 기준, 배경)
- 샷 7:25 ↔ 사 10:26; 시 83:9-11 (오렘 바위·두 방백의 이름이 후대 본문으로 옮겨감, 배경)
- 샷 7:16 ↔ 고후 4:7 (질그릇에 담긴 보배 — 깨지는 그릇과 드러나는 빛이라는 그림의 인용 계보, 배경)
- 샷 7장 ↔ 히 11:32 (기드온을 호명하는 목록, 배경)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이른 아침, 하룻 샘. 삼만 이천의 진영이 능선을 덮고, 골짜기 건너편에는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의 장막과 모래 같은 낙타들. 음성 —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 이만 이천이 능선을 넘어 사라진다. 아직도 많으니 — 만 명이 물가로 내려간다. 카메라가 수면 높이로 낮아진다. 꿩은 무릎들, 그리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삼백. 남은 자들이 양식과 나팔을 넘기고 떠난다. 어둠. 그 밤에 —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두려워하거든 부라와 함께. 두 사람이 비탈을 내려가고, 적진 끝에서 꿈 이야기가 들린다 —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 장막을 덮었다. 이는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어둠 속의 경배. 일어나라. 삼백이 세 대로 갈라지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향아리, 향아리 안에 횃불. 이경 초, 파수 교대 직후. 삼백 개의 향아리가 한꺼번에 깨지고 삼백 개의 횃불이 드러나

고 삼백 개의 나팔이 운다 —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삼백은 제 위치에 서 있을 뿐, 골짜기가 스스로 뒤집힌다 — 친구끼리 칼로 치며 도망친다. 새 아침,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가 모여들고 에브라임이 요단의 수로를 막는다. 오렐 바위, 스넵 포도주 틀 — 두 방백의 머리가 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옮겨진다. 암전.

##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별 제목: "너무 많은즉 — 삼백이면 충분하다는 산수"
- 초별 부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7:2)는 진단으로 삼만 이천이 삼백으로 줄어들고, 두려워하는 지휘관에게 적진의 보리떡 꿈이 확신으로 건네지며,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만 든 삼백의 외침 앞에서 적군이 친구끼리 치며 무너지는 — 구원의 주어를 흐릴 수 없게 만드는 감산의 밤"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2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네 단 전투 서사 + 이중 감산 구조 + 신 20:8 적용 + ANE 야습·꿈 점복·낙타 약탈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7:2(군대 감축)를 '하나님은 작은 것을 쓰신다'는 일반 원리나 사역 철학으로 확장하지 않고, 자랑 차단이라는 본문 명시의 동기절(pen yitpaer)과 감산의 산수라는 사실 관찰로만 둬.
- 7:5-7의 활는 자세를 '깨어 있는 신앙'의 알레고리로 끌고 가지 않고, 기준의 이유가 본문에 없다는 사실과 해석 갈래(경계심/우연)의 존재만 기록 — 미해결로 이월.
- 7:13의 보리떡을 그리스도 예표나 말씀의 상징으로 단정하지 않고, 가난한 빵과 유목민 장막의 충돌이라는 꿈 속 그림의 형태 관찰로만 보존.
- 7:16의 깨지는 항아리를 고후 4:7과 동일시하는 교리 연결로 닫지 않고, 인용 계보의 배경 표기로만 둬.
- 7:22의 적군 자멸을 '하나님이 다 하시니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수동성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제 위치에 선 300과 치시는 여호와와 분업이라는 본문 배열의 관찰로만 기록.
- 7:25의 참수 보고를 폭력의 정당화나 비판 어느 쪽으로도 누르지 않고, 무리에서 머리 둘로 좁혀지는 수의 액자라는 문학 관찰로 둬.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7장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7:2)는 진단 아래 두려워 떠는 자의 귀환(7:3 — 신 20:8의 적용, 이만 이천)과 물가의 시험(7:5-7 — 찹는 삼백)으로 군대를 백분의 일 아래까지 줄이시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는 책망 대신 적진의 보리떡 꿈을 들려주시며(7:10-15),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만 든 삼백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7:20)를 외칠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7:22) 적군이 스스로 무너지는 — 구원의 주어를 흐릴 수 없게 지키시는 감산의 밤이다.

**한 문단:** 이른 아침, 하룻 샘 곁에 삼만 이천이 진을 친다. 골짜기 건너편은 메뚜기 떼 같은 적군과 모래 같은 낙타들 — 그런데 첫 말씀이 뒤집혀 있다. 너무 많다. 모자람이 아니라 많음이 문제다. 이긴 다음 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 삼분의 이가 떠난다. 아직도 많으니 — 물가에서 찹는 삼백만 남는다. 그 밤, 완료형의 선언이 내려온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래도 떨고 있는 지휘관에게 길이 하나 더 열린다 — 두려워하거든 부라와 함께 내려가서 들으라. 적진 끝에서 꿈 이야기가 들린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 장막을 덮었다 — 가난한 자의 빵이 자기들의 집을 무너뜨리는 꿈을, 적이 꾸고 적이 푼다. 기드온이 경배한다. 이경 초, 파수 교대 직후 — 삼백 개의 항아리가 한꺼번에 깨지고 감춰졌던 횃불이 드러나고 나팔이 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 외치는 그 손에 칼은 없다. 삼백은 제 위치에 서 있을 뿐인데 골짜기가 스스로 뒤집힌다. 친구끼리 칼로 치며 도망치는 적군, 모여드는 지파들, 요단의 수로, 그리고 강 건너편에서 옮겨지는 두 방백의 머리.

#### B·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고지의 소수와 골짜기의 다수. 막이 오를수록 비워지는 무대. 칼 없는 양손 — 나팔·빈 항아리·감춰진 횃불. 하룻(Charod) 샘과 charad(떨다)의 울림.   |
| 2 첫 느낌·분위기    | "너무 많은즉" — 뒤집힌 셈법. 줄어드는 숫자 곁에서 늘어나는 "넘겨 주다"(다섯 번). 칼날 없는 한밤의 빛과 소리.                          |
| 3 시작과 끝       | 삼만 이천의 진영으로 열려 두 방백의 머리로 닫힘. 하룻 샘에서 요단 강으로 — 물의 수미. 가장 어두운 한가운데서 켜지는 횃불.                     |
| 4 등장인물·사상     | 줄이시는 여호와, 두려워하는 기드온, 이름이 기록된 부라. 중심 사상은 구원의 공로 회계 — yasha의 주어 다름(2절 對 7절).                   |
| 5 장면 컷        | 감산(1~8)/적진의 꿈(9~15)/기습(16~22)/추격(23~25) 4컷. 컷 1 내부는 "너무 많은즉"."아직도 많으니"의 이중 감산.               |
| 6 의문·발견·정보    | 450 對 1의 산수(8:10 연결). 자백과 습관이라는 두 갈래 가려냄. '칼'을 외치는 입과 칼 없는 손. tselil(보리떡 덩어리)은 성경 단 한 번의 단어. |
| 7 동영상         | 비워지는 능선 → 물가의 삼백 → 한밤의 꿈 → 깨지는 항아리와 드러나는 횃불 → 스스로 무너지는 골짜기 → 두 방백의 머리.                       |
| 8 초벌 제목·부제    | "너무 많은즉 — 삼백이면 충분하다는 산수"                                                                     |

| 단계      | 핵심 발견                                  |
|---------|----------------------------------------|
| 9 기도·내면 | 빈 항아리 속에 감춰진 햇불 — 깨지고서야 드러나는 빛 곁에 머문다. |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pen yitpaer, 승리보다 먼저 잠그는 자랑의 길:** 7장의 모든 이상한 일들 — 감군, 칼 없는 무장, 적군의 자멸 — 이 2절의 동기절 하나에서 풀린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위협이 골짜기의 적군이 아니라 승리한 다음 날 이스라엘의 입에 있다는 진단이다. 그래서 사람의 손이 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비율(450 對 1, 8:10 기준)까지 줄이시고, 남은 삼백의 손에서는 칼마저 비우신다.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이긴 뒤의 말버릇까지 설계된 전투 — 그 회계가 이 장의 골격이다.

2. **결 2 — 두려움의 비대칭, 둘러보냄과 데려가심:** 두려워 떠는 이만 이전은 조건 없이 귀환이 허락되고(3절 — 신 20:8의 율법대로), 두려워하는 기드온은 책망 없이 부라와 함께 적진으로 안내된다(10절). 같은 두려움에 다른 처분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가 한 번도 죄목으로 다뤄지지 않는 장이다. 떠는 자에게는 돌아갈 길을, 떨면서도 가야 할 자에게는 들을 귀를 — 꿈과 해몽이라는 확신의 통로가 적의 입을 경유해 미리 놓여 있다. 자랑에는 가차 없고 두려움에는 너그러운 비대칭이 7장의 속살이다.

3. **결 3 — 깨져야 드러나는 햇불, 서 있기만 하는 군대:** 햇불은 처음부터 켜져 있었으나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었고,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에야 골짜기를 둘러쌌다(16·19-20절). 그리고 그 빛을 든 삼백은 "각기 제 위치에 서서"(21절) 외쳤을 뿐, 치신 이는 여호와다 —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22절). 깨뜨림과 드러남이 한 동작이고, 서 있음과 무너짐이 한 문장 안에 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햇갈릴 수 없도록 배열된 밤이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신 20:8 —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돌아갈지니 — 7:3의 규정 전사. 율법이 전쟁터에서 그대로 집행되는 드문 장면.
- 사 6:11-24, 36-40 — 포도주 틀의 타작, 두 번의 양털 — 7장의 두려움과 표징이 이어 온 내력.
- 사 8:10 — 적군 십삼만 오천 — 삼백의 상대 규모가 권 안에서 확정됨.
- 삼상 14:6 —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 같은 산수의 후대 발화.
- 시 33:16-17 —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 군세와 구원의 분리를 노래하는 시가.
- 사 9:4; 10:26 — "미디안의 날과 같이" — 이 밤이 후대 예언의 비교 기준으로 회상됨, 배경.
- 시 83:9-11 — 오렐과 스엿의 이름이 시가서의 기도로 옮겨감, 배경.
- 고후 4:7 — 질그릇에 담긴 보배 — 깨지는 그릇과 드러나는 빛이라는 그림의 인용 계보, 배경.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7:2의 "너무 많은즉"에서 시작한다 — 내 삶에서 모자라서가 아니라 많아서 가려진 것이 있는지 듣는다.
- **멈춤 1:** 7:10에서 멈춘다 —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부라와 함께." 두려움이 책망이 아니라 동행의 사유가 되는 문장.
- **멈춤 2:** 7:13에서 멈춘다 — 보리떡 한 덩어리. 적의 꿈에 비친 내 모습이 내 자기평가보다 클 수 있다는 그림.
- **끝:** 7:20과 7:22 사이에서 멈춘다 — 외치는 입과 칼 없는 손, 서 있는 삼백과 치시는 여호와. 내 몫과 그분 몫의 경계선 곁에 머문다.

## F· 자족성 점검

- [x] 감산(1~8)·적진의 꿈(9~15)·기습(16~22)·추격(23~25)의 네 단 완결
- [x] 32,000 → 22,000 귀환 → 10,000 → 300의 산수와 2절 동기절(pen yitpaer)의 연동
- [x] "넘겨 주다(natan beyad)" 다섯 번의 화자 이동(부정→약속→완료→적의 입→기드온의 입)
- [x] 두 갈래 가려냄(자백/습관)과 두려움의 비대칭(3절 귀환 對 10절 동행)
- [x] 칼의 어긋남 — 외침 속의 칼(20절)과 적군이 서로를 치는 칼(22절)

##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미완과 진단(1~2장),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왕이 없으므로의 부록(17~21장)으로 움직이는데, 7장은 그 나선 한가운데의 정점이다 — 줄이고 비우는 방식의 승리가 가장 순도 높게 기록된 장. 누가 구원자인가라는 권의 질문에 이 장의 산수가 가장 선명한 답을 준다. 군대를 백분의 일 아래로 깎으시고 그 손에서 칼마져 비우신 것은, 구원(yasha)의 주어가 사람으로 바뀌는 길 —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7:2) — 을 미리 끊으시는 설계였다. 그리고 권의 heart — 부르짖음마다 돌이키시는 탄식 섞인 공훈 — 가 이 장에서는 두려움을 다루시는 손길로 나타난다. 떠는 자 이만 이천을 죄목 없이 돌려보내시고, 떠는 지휘관에게는 부라를 붙이시며 적의 꿈까지 미리 두시는 — 자랑에는 가차 없고 두려움에는 너그러우신 비대칭. 그러나 나선은 나선이다. 이 정점의 바로 다음 장에서 백성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다스리소서"(8:22)라며 7:2가 막은 바로 그 어법을 사람에게 돌리고, 기드온의 에봇이 온 이스라엘의 울무가 된다. 가장 선명한 답이 찍힌 밤조차 하강을 멈추지 못한다는 사실이, 사람 구원자의 한계 너머를 — 참왕의 필요를 — 가리킨다.

##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많음(7:2 rav)에서 적음(삼백)으로 / 떨리는 손(7:10)에서 완료형의 수여(7:9 "넘겨 주었느니라")로 / 감춰진 횃불에서 깨진 향아리의 빛으로 — 구원의 주어를 흐릴 수 없게 지키시는 감산의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7장은 '사람의 손이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승리'를 만들기 위해 군대와 무기와 공로의 여지를 차례로 비워 가는 운동이다. 능선을 덮은 삼만 이천이 물가의 삼백으로, 삼백의 손에서 칼이 나팔과 횃불로, 전투가 서 있음과 외침으로 — 줄어드는 것들의 끝에서 "여호와께서 ... 치게 하시므로"(22절)라는 주어가 홀로 남는다. 그러나 이 벡터는 7장 안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같은 운동이 권 전체에서는 하강 나선의 한 굽이다 — 다음 장에서 공로의 주소를 사람에게 돌리려는 움직임(8:22)이 곧장 일어나고, 에봇 하나가 울무가 되며, 나선은 입다와 삼손을 지나 "왕이 없으므로"(21:25)까지 내려간다. 7장의 벡터는 '구원자는 누구인가'라는 권의 질문을 가장 밝게 비추고, 바로 그 밝기로 사람 구원자의 한계를 드러내는 운동이다.

##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기상천외한 승전 작전이다 — 감군, 야습, 향아리, 횃불, 함성.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공로의 회계다. 이 전투의 설계 목표는 승리 자체가 아니라 승리 다음 날의 문장이다 —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가 발화 불가능해지는 조건을 만드는 것. 줄이심도, 칼 없는 무장도, 적군의 자멸도 전부 그 한 문장을 막는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 둘째, 두려움을 다루시는 결이다. 7장에서 두려움은 한 번도 정죄되지 않는다. 떠는 자는 돌아가고, 떠는 지휘관은 동행자와 함께 내려가 적의 꿈을 듣는다. 확신이 명령으로 강요되지 않고 들려온 이야기 하나로 건네지는 — 강한 손이 아니라 듣는 귀를 통해 사람을 일으키시는 방식이

바닥에 깔려 있다. 셋째, 드러남의 순서다. 햇불은 항아리가 깨질 때 보였고, 삼백의 충분함은 줄어드는 다음에야 증명되었으며, 기드온의 칼이라는 이름은 적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 가려진 것이 깨어짐과 줄어듦을 통과해 드러나는 — 본문은 그 순서까지만 보여 주고 멈춘다.

####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무엇이 많아서 든든한가 — 그 많음이 가리고 있는 주어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 두려움은 지금 귀환의 사유인가, 부라와 함께 내려가 들으라는 초대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용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뒤집힌 셈법의 첫 문장을 들려주고, 떠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능선과 떠는 사람 하나가 내려가는 비탈을 나란히 보여 주고, 빈 항아리 속에 감춰진 햇불을 보여 준다. 줄어드는 것이 잃음이 아니라 드러남의 통로가 되는 밤 — 많아서 가려졌던 주어가 적어진 다음에야 또렷해지는 산수 — 그 곁에 독자를 세운다. 그리고 외침 하나를 남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 칼이 없는 손으로 외쳐진 그 함성의 어순, 여호와가 먼저고 사람이 다음인 그 순서가 지켜지는 동안과 무너지는 다음 장 사이에서, 독자는 자기 입의 어순을 듣게 된다. 그 간격이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골짜기의 함성이 가라앉기도 전에 에브라임의 향의가 날아들고(8:1), 삼백의 밤을 지난 기드온 앞에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청과 금 에봇 하나 — 승리의 정점에서 곧장 드리워지는 그늘이 다음 장을 연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pen-yitpaer* — 자랑할까 함이라.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 Q1. 활는 자의 기준(7:5-7) — 왜 그쪽이었는가?

- 경계를 늦추지 않는 자세였다는 풀이도, 의도 없는 구별 표지였을 뿐이라는 풀이도 후대의 해석이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기준의 이유가 아니라 결과의 충분함이다 — "내가 이 물을 활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7:7). 이유는 달지 않고 보존.

##### Q2. 왜 보리떡인가(7:13) — 꿈의 어휘는 누가 골랐는가?

- 적군의 꿈에 이스라엘이 보리떡 — 추수를 빼앗기던 백성의 가난한 빵 — 으로 나타나고, 그 초라한 덩어리가 유목민의 장막을 엮는다. 꿈이 적군의 불안을 비추는 것인지, 미리 두신 전조인지, 본문은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보존.

##### Q3.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7:20) — 자랑을 차단한 장에서 사람 이름이 함성에 들어간 것은 무엇인가?

- 7:2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말을 봉쇄했는데, 승리의 외침에는 기드온의 이름이 여호와 다음에 나란히 놓인다. 어순이 답인지, 14절에서 적군이 먼저 쓴 표현("기드온의 칼")의 인용인지, 8장의 그늘로 이어지는 복선인지 — 달지 않는다. 보존.

**Q4. 두려움의 두 갈래(7:3·10) — 돌아간 이만 이천과 내려간 기드온은 무엇이 달랐는가?**

- 같은 두려움인데 한쪽은 귀환의 사유가 되고 한쪽은 정탐의 길이 열린다. 떠는 자를 돌려보내신 분이 떠는 지휘관에게는 부라를 붙여 주신다. 이 비대칭의 이유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Q5. 적군의 자멸(7:22) — 삼백의 뭇은 무엇이였는가?**

- "각기 제 위치에 서서"(21절) 나팔을 불었을 뿐, 치신 이는 여호와다 —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서있음과 외침이 전부인 군대 — 그 분업의 경계가 어디인지, 본문은 선을 긋지 않고 보여 주기만 한다. 보존.

**Q6. 머리 둘로 닫히는 끝(7:25) — 승리의 보고 다음에 무엇이 오는가?**

- 전리품 보고로 장이 닫히자마자 8:1에서 에브라임의 항의가 날아든다. 가장 큰 승리의 밤 바로 뒤에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 배열된 이유 — 7장 안에서는 닫히지 않는다. 다음 장으로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사기 8장

JDG-008 · 역사서 · 히브리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8:2)로 동족의 노여움을 풀던 입이 숙곳의 장로들을 들가시로 징별하고(8:16),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YHWH yimshol bakhem)"(8:23)고 왕관을 거절한 그 손이 금 에봇을 만들어 여호와 살롬의 성읍 오브라에 올무(moqesh, 8:27)를 세우는 — 부드러운 대답과 가혹한 보복, 가장 옳은 말과 가장 위험한 물건이 한 사람에게서 같이 나오는 기드온의 그늘.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길 전체 — 에브라임의 실랑이 → 요단 도하(8:4) → 숙곳 성문 → 브누엘 망대 → 갈골의 적진 → 노바·욕브하 동쪽 장막 길 → 헤레스 비탈의 귀로 → 오브라. 로드무비형 무대.
- 길의 역설: 갈수록 적이 줄고 동족과의 마찰이 늘어남 — 정복의 길에서 충돌의 대부분이 내부에서 발생.
- 소품: 주어지지 않은 떡(8:5-6), 들가시와 찔레(qotse hammidbar·barqanim, 8:7·16), 망대(8:9·17), 칠십칠 명의 명단(8:14), 초승달 장식(saharonim, 8:21·26), 귀고리(nezem)와 펼쳐진 겹옷(simlah, 8:24-25), 금 천칠백 세겔, 자색 의복, 에봇(8:27).
- 소품의 흐름: 떡(결핍)에서 금(과잉)으로 — 그리고 금이 녹아 올무가 됨.
- 소재의 두 갈래: 입의 소재(부드러운 대답·맹세·거절)와 손의 소재(찔음·혈음·처형·제작) — 입과 손이 서로 다른 사람처럼 움직이는 병치.
- 형식 소재: ayefim verodfim(8:4) — 피곤과 추격의 분사 병치. 1~21절(전쟁 단)과 22~35절(전후 단)의 시간 압축률 격차.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하늘이 조용한 장 — 7장을 끌고 가던 하나님의 음성이 8장에는 한 절도 없음. 사람의 말(항의·조롱·위협·맹세·제안)만 가득.
- "네 손 안에"의 왕복 — 조롱(8:6)과 응수(8:7)와 보복(8:15) 사이를 오가는 손의 어휘. 8:22에서 백성은 구원의 공을 기드온의 손에 돌림.
- 전쟁 영화 후반부의 공기 — 적과의 장면(8:11-12)은 두 절, 동족과의 장면(에브라임·숙곳·브누엘)은 길고 자세함. 카메라가 내부 갈등에 더 오래 머물.
- 의문문의 밀도 — "어찌 됴이냐"(8:1)·"비교되겠느냐"(8:2)·"주겠느냐"(8:6)·"어떠한 사람들이더냐"(8:18). 마지막 질문만 심문이 아니라 형제 고백을 여는 열쇠.
- 무게의 역전 — 떡 한 덩이가 성읍의 운명이 되고, 명단 한 장이 칠십칠 명의 징별 목록이 되고, 귀고리들이 모여 한 집의 올무가 됨.



- 여호와와 인용 속에만 — 기드온의 문장(8:3·7·23)과 화자의 평가(8:34) 안에서만 호명됨. 직접 발화·직접 행동 서술 0건.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나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 35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따라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 하였더라."
- 다툼으로 열리고 배은으로 닫힘 — 항의를 받던 사람이 잊히는 사람이 되는 역전의 액자.
- 어미의 대비: "다투는지라"(현재진행의 소란) → "아니하였더라"(부정 완료의 적막). 마지막 두 절이 부정 문의 연쇄 — 기억하지 아니하며 ·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 28절의 사이클 공식("사십 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이 장 중간에 옴 — 공식의 마침표를 지나쳐 에봇·아비멜렉·재타락까지 이어지는 꼬리.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에브라임 사람들, 기드온과 삼백 명, 숙곳의 방백·장로 칠십칠 명, 브누엘 사람들, 세바와 살문나, 갈 골의 만 오천, 명단을 적은 숙곳의 청년(naar, 8:14), 맏아들 여텔(칼을 빼지 못한 소년, 8:20), 왕권을 제안한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아내와 칠십 명의 아들, 세겔의 첩, 아비멜렉. 여호와 — 등장하시되 대사와 동작 없이 사람들의 문장 안에서만.
- 중심 사상: 손(yad) — 누구의 손이 이겼는가. 하나님의 손(8:3·7) → 기드온의 손(8:22) → 잊혀진 손(8:34)으로 임자가 미끄러지는 사슬.
- 거절 셋의 뼈대: 숙곳의 떡 거절(8:6) — 브누엘의 동일 답(8:8) — 기드온의 왕관 거절(8:23). 앞의 둘은 보복으로, 마지막은 요청(8:24)으로 이어짐.
- 8:19의 폭로: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 공적 추격전 아래 깔린 사적 복수의 결. 처형 권한을 맏아들 소년에게 넘기는 장면(8:20)과 소년의 두려움.
- 에봇의 서술: 만들었다 — 두었다 — 위했다 — 울무가 되었다(8:27). 의도는 비어 있고 결과만 기록됨. 위치는 여호와 살롬 제단(6:24)의 성읍 오브라.
- mashal 다섯 번(8:22-23)과 비어 있는 melek — 그 단어가 8:31의 이름 Avimelekh('내 아버지는 왕')로 귀환.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에브라임의 항의와 부드러운 대답 — 끝물 포도의 비유로 풀리는 노여움.
- 컷 2 (4~9절): 숙곳·브누엘의 거절 — 피곤하나 추격하는 삼백, 거절된 떡, 들가시의 위협과 망대 철거 예고.
- 컷 3 (10~12절): 갈골 기습 — 장막 거주자의 길로 우회, 안심하던 적진, 두 왕 생포.
- 컷 4 (13~17절): 귀로의 보복 — 청년의 명단 칠십칠 명, 들가시 징벌, 망대 철거, 성읍 사람들의 죽음.
- 컷 5 (18~21절): 다볼의 진실과 처형 — "내 형제", 여텔의 머뭇거림, 두 왕의 마지막 말, 직접 처형과 초승달 장식.
- 컷 6 (22~27절): 왕권 거절과 에봇 — mashal의 대화, 겉옷 위의 귀고리, 금 천칠백 세겔, 오브라의 울무.
- 컷 7 (28~35절): 에필로그 — 사십 년 평온, 칠십 명의 아들, 아비멜렉, 죽음, 바알브릿, 이중의 망각.

- 컷 1과 컷 4의 거울: 같은 동족의 모욕에 강한 지파(에브라임)에는 외교, 작은 성읍(숙곳·브누엘)에는 들가시 — 본문은 차이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 컷 6 내부의 경사: 거절(8:23)에서 요청(8:24)까지 한 절, 에봇에서 올무까지 한 절 — 가장 빠른 추락이 가장 짧은 행간에서 발생.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olelot*(עֲלֵלוֹת) — 끝물 포도, 수확 뒤 남은 송이(8:2) / *batsir*(בָּצִיר) — 만물의 수확. 자기를 낮추는 비유의 두 축.
- *ayefim verodfim*(עֵיפִים וְרֹדְפִים) — 피곤하나 추격하며(8:4). 분사 둘의 병치 — 상태와 동작의 공존.
- *Sukkot*(סֻכּוֹת) — 숙곳, '초막들' / *Penuel*(פְּנוּאֵל) — 브누엘, '하나님의 얼굴'(창 32:30-31의 지명 계보, 배경).
- *qotse hammidbar*(קוֹצֵי הַמִּדְבָּר) — 들가시 / *barqanim*(בָּרְקָנִים) — 찰레, 구약 단 한 번 등장(hapax) / *migdal*(מִגְדָּל) — 망대.
- *naar*(נָעַר) — 청년·소년. 명단을 적은 숙곳의 청년(8:14)과 칼을 빼지 못한 여텔(8:20)에게 같은 단어.
- *saharonim*(שָׁהָרִים) — 초승달 장식(8:21·26) / *nezem*(נֶזֶם) — 귀고리(8:24, 출 32:2 계열) / *simlah*(שִׁמְלָה) — 겹옷(8:25).
- *efod*(עֹפֹד) — 에봇(8:27) / *moqesh*(מוֹקֵשׁ) — 올무. 출 23:33의 경고 어휘가 구원자의 집에 적용됨.
- *mashal*(מָשָׁל) — 다스리다. 8:22-23 두 절에 다섯 번. *YHWH yimshol bakhem* —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melekh*(מֶלֶךְ)는 이 대화에 부재.
- *zanah*(זָנָה) — 음란하게 쫓다(8:27 에봇 · 8:33 바알들). 샷 2:17 사이클 공식의 어휘.
- *Avimelekh*(אַבִּימֶלֶךְ) — 내 아버지는 왕(8:31) / *Baal Berit*(בַּעַל בְּרִית) — 언약의 바알(8:33).
- *Yerubbaal*(יֵרֻבְעָל) — 바알이 그와 다투게 하라(6:32 → 8:29·35) / *chesed*(חֶסֶד) — 은혜·신실(8:35의 '후대'의 바탕) / *zakhar*(זָכַר) — 기억하다, 8:34에서 부정형으로만.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두 단 구조: 전쟁 단(1~21절 — 외교·거절·기습·보복·처형)과 전후 단(22~35절 — 왕권·에봇·에필로그). 시간 압축률이 단마다 다름.
- 여호와와 발화 부재 — 6~7장과의 결정적 형식 차이. 서른다섯 절이 사람의 말과 손으로만 진행됨.
- 거절 셋의 사슬: 숙곳(8:6) — 브누엘(8:8) — 기드온(8:23). 보복 둘과 요청 하나로 갈라지는 후속.
- 손(yad) 모티프 사슬: 하나님의 손 → 네 손 → 내 손 → 기드온의 손 → 잊혀진 손(8:3·6·7·15·22·34).
- 출 32장 평행: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8:24) ↔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출 32:2) — 귀고리가 예배 기물이 되는 같은 어법.
- 여룹바알 인클루지오: 6:32에서 받은 이름이 8:29·35에 되돌아옴 — 바알과 다투라던 이름이 바알브릿의 기록 결에서 마지막으로 호명됨.
- 이름의 아이러니: *mashal*의 대화에서 비워진 왕(*melekh*)이 *Avimelekh*라는 이름으로 귀환(8:31) — 거절은 문장에, 왕관은 이름에 남음.
- 숫자의 사슬: 십이만·만 오천(8:10), 칠십칠(8:14), 천칠백(8:26), 칠십(8:30), 사십(8:28) — 모든 것을 세는 장에서 하나님의 발화만 0.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초승달 장식(saharonim) — 근동 달신 숭배 도상과 닿는 장신구·부적 문화. 미디안 왕들의 위세품. 8:21·26의 배경.
- 에봇 — 제사장 의복이자 신탁 도구(출 28장 계열). 근동의 신상 의복·신탁 기물 문화가 배경. 기드온의 에봇이 어느 쪽이었는지는 본문이 비워둠.
- 바알브릿(언약의 주) — 세겜의 도시 수호신. 삿 9:4·46의 엘브릿 신전과 연결. 조약신 문화의 배경.
- 숙곳 청년의 기록(8:14) — 길에서 붙잡힌 무명의 청년이 칠십칠 명의 명단을 적음. 철기시대 초 알파벳 문해 확산의 배경 증언.
- 전공 장군에 대한 왕권·세습 제안(8:22) — 근동 도시국가의 관행과 닿는 형식 배경.
- LXX: 사사기의 A·B 이중 본문 전승, 에봇의 음역(εφοῦδ) 보존, 헤레스 비탈(8:13)의 이독 — 본문비평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삿 8:2-3 ↔ 잠 15:1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 격언의 내러티브 실연)
- 삿 8:1-3 ↔ 삿 12:1-6 (같은 에브라임의 항의 — 기드온의 외교와 입다의 칼, 사만 이천의 대조 복선)
- 삿 8:24 ↔ 출 32:2-4 (귀고리 요청의 어법 — 아론의 금송아지 평행)
- 삿 8:27 ↔ 삿 6:24 (에봇이 세워진 오브라 = 여호와 살롬 제단의 성읍)
- 삿 8:35 ↔ 삿 6:32 (여룹바알 — 이름의 출생과 마지막 호명)
- 삿 8:31, 33 ↔ 삿 9:1-6, 46 (아비멜렉·바알브릿 — 다음 장의 도화선)
- 삿 8:8 ↔ 창 32:30-31 (브누엘 —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지명의 내력, 배경)
- 삿 8:26-30 ↔ 신 17:14-17 (왕의 법 — 많은 아내와 은금의 축적, 배경 거울)
- 삿 8:23 ↔ 삼상 8:7 (왕권과 여호와와의 통치 — 모티프의 후일담, 배경)
- 삿 8:27, 33 ↔ 삿 2:17, 19 (zanah — 사이클 공식 어휘의 재등장)
- 삿 8:27 ↔ 출 23:33; 시 106:36 (moqesh — 올무 경고의 계보)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흙먼지 이는 길에서 에브라임의 얼굴들이 붉어진다 —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피곤한 지휘관이 답한다 —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나. 노여움이 풀린다. 삼백 명이 요단을 건넌다 —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숙곳의 성문이 닫힌다 —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거냐. 들가시를 가리키는 손가락, 브누엘의 망대. 밤의 갈골, 장막 길로 우회한 기습, 끌려오는 두 왕. 귀로 — 붙잡힌 청년이 칠십칠 명의 이름을 적는다. 들가시가 장로들 위로 지나가고 망대가 무너진다. 막사의 심문 — 네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당신과 같아서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침묵 —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소년 여텔의 손이 칼자루에서 멈춘다.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 기드온이 일어난다. 초승달 장식이 떼어진다. 무리의 외침 —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한 박자 —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리고 끊기지 않는 화면 —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겉옷이 펼쳐지고 귀고리가 쏟아진다. 금이 녹아 에봇이 되고, 여호와 살롬의 성읍에 세워진다. 사람들이 모여든다 —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사십 년이 빨리 감긴다. 칠십 명의 아들, 세겜의 아기 —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 묘실의 돌이 닫히고, 바알브릿의 신당으로 향하는 뒷모습들 — 기억하지 아니하며,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암전.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왕관을 거절한 입, 에봇을 만든 손"
- 초벌 부제: "끝물 포도의 비유로 에브라임의 노여움을 풀던 입이 숙곳의 장로들을 들가시로 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YHWH yimshol bakhem)'고 세습 왕권을 거절한 손이 금 귀고리로 에봇을 만들어 여호와 살롬의 성읍에 올무(moqesh)를 세우는 — 거절된 왕관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에 보존된 채, 여호와와 발화 없이 사람의 말과 손으로만 흘러가는 기드온의 그늘"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5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두 단 구조 + 거절 셋의 사슬 + 출 32장 평행 + 여룹바알 인클루지오 + ANE 초승달 장식·문해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8:23("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을 신정 정치의 교리 명제나 정치 체제론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직전·직후 행적(사적 복수·에봇)과 나란히 놓인 본문 배열의 관찰로만 둬.
- 기드온의 보복(8:16-17)과 처형(8:21)을 도덕적 단죄나 영웅적 정당화 어느 쪽으로도 누르지 않고, 에브라임 외교와의 온도 차이라는 본문 사실로만 기록.
- 에봇(8:27)을 '모든 종교적 기물은 위험하다'는 일반론으로 확장하지 않고, 의도가 비워진 채 결과(올무)만 적힌 서술 형식의 관찰로 보존.
- 세바와 살문나의 이름 뜻 풀이는 어원 추정의 불확실성이 있어 본문에 신지 않고 생략 — 확실한 음역만 기록.
- 8:2-3의 부드러운 대답을 갈등 관리 기법의 강의로 바꾸지 않고, 잠 15:1과의 어휘 결 및 12장 입다와의 대조 복선이라는 문학 관찰로만 둬.
- 여호와와 발화 부재를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단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6~7장과의 형식 대비 관찰로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8장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8:2)라는 부드러운 대답으로 동족의 노여움을 풀고 열린 뒤, 피곤하나 추격하는(ayefim verodfim, 8:4) 삼백 명이 숙곳과 브누엘의 냉대(8:6-9)를 지나 갈골에서 두 왕을 사로잡고(8:12), 들가시의 징벌과 망대 철거(8:16-17)와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8:19)는 사적 복수의 처형(8:21)을 거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YHWH yimshol bakhem)"(8:23)는 왕권 거절과 금 에봇의 올무(moqesh, 8:27), 아비멜렉이라는 이름(8:31), 그리고 죽음 이후의 재타락(8:33-35)으로 닫히는 — 구원자 자신이 다음 몰락의 제작자가 되는 장이다.

**한 문단:** 길 위에서 에브라임이 따져 묻고, 기드온은 자기 집안의 만물을 상대의 끝물 아래에 두는 비유로 답한다 — 노여움이 풀린다. 그런데 같은 입이 몇 절 뒤 숙곳을 향해 다른 온도로 말한다 —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갈골의 기슭으로 두 왕이 잡히고, 귀로에서 위협은 그대로 집행된다 — 명단 칠십칠명, 들가시, 무너지는 망대. 막사의 심문에서 추격전의 바닥이 드러난다 —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칼을 빼지 못하는 소년 여텔을 지나 기드온이 직접 일어선다. 승리 뒤에 백성이 왕관을 내민다 —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거절은 완벽하다 —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리고 바로 다음 절 —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겹옷이 펼쳐지고 귀고리가 쌓이고 금이 녹아 에봇이 된다. 여호와 살롬의 제단이 서 있는 그 성읍에, 올무가 같이 선다. 사십 년의 평온, 칠십 명의 아들, 세겔의 첩이 낳은 아기의 이름 —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바알브릿에게 돌아서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룹바알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 부정문의 적막으로 장이 닫힌다.

## B ·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길 전체가 무대인 로드무비. 떡(결핍)에서 금(과잉)으로 흐르는 소품. 입의 소재와 손의 소재가 서로 다른 사람처럼 움직임.                    |
| 2 첫 느낌·분위기    | 하늘이 조용한 장 — 여호와와 직접 발화 0건. "네 손 안에"의 왕복. 적보다 동족과의 장면에 오래 머무는 카메라.                        |
| 3 시작과 끝       | 다툼("다투는지라")으로 열려 배은("아니하였더라")으로 닫힘. 28절의 사이클 공식을 지나쳐 가는 일곱 절의 꼬리.                        |
| 4 등장인물·사상     | 중심 사상은 손(yad) — 하나님의 손에서 기드온의 손으로, 그리고 잊혀진 손으로 임자가 미끄러지는 사슬. 거절 셋의 뼈대.                   |
| 5 장면 컷        | 외교/거절/기슭/보복/처형/왕권·에봇/에필로그 7컷. 컷 1과 컷 4의 거울(외교 對 들가시), 컷 6 내부의 가장 가파른 경사.                 |
| 6 의문·발견·정보    | 여호와와 발화 부재라는 형식. 숫자의 사슬(십이만·칠십칠·천칠백·칠십·사십)과 0인 음성. 출 32장 평행, mashal 다섯 번과 비어 있는 melekch. |
| 7 동영상         | 끝물 포도의 검양 → 들가시와 명단 → 형제의 고백 → 거절된 왕관 → 쏟아지는 귀고리 → 오브라의 에봇 →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 신당으로 향하는 뒷모습.  |
| 8 초벌 제목·부제    | "왕관을 거절한 입, 에봇을 만든 손"                                                                    |
| 9 기도·내면       | 바르게 말한 날의 입과 곁에서 무언가를 모으는 손 — 그 간격을 내려놓은 채 머문다.                                          |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두 온도의 입:** 같은 사람의 입에서 끝물 포도의 검양(8:2-3)과 들가시의 위협(8:7)이 나온다. 에브라임의 노여움은 비유 하나로 풀리고, 숙곳과 브누엘의 조롱은 살을 찢는 징벌과 망대 철거와 죽음으로 돌아온다(8:16-17). 본문은 이 차이의 동기를 설명하지 않고 두 장면을 나란히 둘 뿐이다. 그리고 이 병치는 권 안에서 다시 호출된다 — 12장에서 같은 에브라임이 같은 항의를 입다에게 했을 때, 거기에는 부드러운 대답 대신



칼이 가고 사만 이천이 쓰러진다. 8:2-3은 잠 15:1("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의 내러티브 실연이면 서, 동시에 그 실연자가 몇 절 뒤 정반대의 결을 보이는 — 격언이 인격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기록이기도 하 다.

2. **결 2 — 말과 손의 간격:**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 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8:23) — 세습 왕권의 첫 제안 앞에서 나온 이 거절은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바른 신학의 문장이다. 그런데 그 문장과 같은 호흡으로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8:24)가 이어지 고, 모인 금은 에봇이 되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 니라"(8:27)에 이른다. 귀고리를 모으는 어법은 출 32:2의 아론과 닿고, 에봇이 세워진 오브라는 6:24의 여호와 살롬 제단이 있는 성읍이다. 입은 여호와와 통치를 선언했고 손은 위함의 대상을 만들었다 — 말과 손의 이 간 격이 8장이 보존하는 가장 무거운 사실이다.

3. **결 3 — 이름에 남는 것들:** 이 장은 이름으로 말한다. 6:32에서 '바알이 그와 다투게 하라'고 받은 여룹바알이 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 바알브릿을 신으로 삼은 기록(8:33) 곁에서 마지막으로 호명된다(8:35). mashal의 대 화(8:22-23)에서 끝내 발화되지 않은 왕(melekh)이라는 단어는 세겔 첩의 아들 이름 —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8:31) — 안에 보존된다. 거절은 문장에 남았고 왕관은 이름에 남았다. 그리고 다음 장은 그 이름이 일어나 는 이야기다. 본문은 이 아이러니를 한 마디도 논평하지 않는다. 이름들을 기록해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이.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잠 15:1 —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 8:2-3의 외교가 실연하는 격언.
- 삿 12:1-6 — 같은 에브라임의 항의에 입다는 칼로 답함 — 부드러운 대답의 부재가 부르는 결과의 대조, 복선.
- 출 32:2-4 —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 귀고리가 예배 기물이 되는 어법의 평행.
- 삿 6:24 · 6:32 — 여호와 살롬 제단과 여룹바알이라는 이름 — 8장의 에봇과 마지막 호명이 닿는 출발점.
- 삿 9:1-6, 46 — 아비멜렉의 세겔 왕권과 바알브릿 신전의 은 — 8장의 씨앗이 싹트는 다음 장.
- 신 17:14-17 — 왕의 법(많은 아내·은금 축적 금지) — 8:26-30의 배경 거울.
- 삼상 8:7 —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 왕권 모티프의 후일담, 배경.
- 출 23:33 · 시 106:36 — 올무(moqesh)의 경고 계보 — 구원자의 집에 적용된 단어.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8:2-3에서 시작한다 — 노여움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대답이 내게 있는지 듣는다.
- **멈춤 1:** 8:19에서 멈춘다 — 공적인 일 아래 깔린 사적인 결. 내 추격의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본다.
- **멈춤 2:** 8:23과 8:24 사이에서 멈춘다 — 가장 바른 말과 그다음의 작은 요청. 그 행간이 내게도 있는지 본 다.
- **끝:** 8:34-35에서 멈춘다 — 기억하지 아니하며,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받은 은혜와 갚지 않은 신실의 목록 앞에 선다.

#### F · 자족성 점검

- [x] 외교(1~3)·거절(4~9)·기습(10~12)·보복(13~17)·처형(18~21)·왕권과 에봇(22~27)·에필로그(28~35)의 일 곱 컷 완결
- [x] 여호와와의 직접 발화 0건이라는 형식 사실과 6~7장과의 대비



- [x] 거절 셋의 사슬과 손(yad) 모티프의 임자 이동
- [x] 출 32장 평행·여룹바알 인클루지오·아비멜렉 이름의 형태 관찰
- [x] 28절 사이클 공식과 그것을 지나쳐 가는 꼬리(29~35절)의 구조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다. 권의 흐름은 미완과 진단(1~2장),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부록 — 왕이 없으므로(17~21장)로 움직이는데, 8장은 그 나선이 처음으로 사사 자신 안으로 들어오는 국면이다. 웃니엘에게는 흠이 기록되지 않았고 에훗과 드보라의 이야기에서도 구원자의 그들은 중심에 오지 않았다. 기드온에서 처음으로, 구원의 손이 보복의 손이 되고(8:16-17), 가장 바른 거절의 입이 올무가 될 물건을 주문한다(8:23-27). 백성이 우상으로 흘러가기 전에 구원자가 위함의 대상을 먼저 만드는 — 하강의 동력이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첫 기록이다. 그래서 8장은 참왕의 질문을 한 단 깊게 판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는 명문은 옳았다 — 그러나 그 명문을 말한 사람도 그 통치를 살아내지 못했다면,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사사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왕이라는 물음이 이 장의 그늘에서 자란다. 그리고 권의 heart — 부르짖음마다 돌이키시는 탄식 섞인 공회 — 는 이 장에서 음성 없이 일한다. 발화가 없는 장에서도 평온 사십 년(8:28)은 주어졌다. 침묵 속의 공회이라 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드러운 대답(8:2-3)에서 들가시의 보복(8:16-17)으로 / 거절된 왕관(8:23)에서 만들어진 에훗(8:27)으로 / 여룹바알이라는 이름(6:32)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8:31)으로 — 구원자 자신이 올무의 제작자가 되며 하강 나선이 안으로 접히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8장은 '구원의 완결을 몰락의 씨앗으로 바꾸는' 운동이다. 미디안은 다시 머리를 들지 못하고(8:28) 사이클 공식의 평온이 찍히지만, 본문은 그 마침표에서 멈추지 않고 에훗과 칠십 명의 아들과 아비멜렉과 바알브릿까지 일곱 절을 더 간다. 손의 임자가 하나님(8:3·7)에서 기드온(8:22)으로, 기드온에서 망각(8:34)으로 미끄러지고, 그 미끄러짐의 끝에서 9장의 학살과 가시나무 우화가 기다린다. 8장의 벡터는 전권을 '사사의 한계가 사사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국면들'을 지나 "왕이 없으므로"(21:25)의 진단까지 끌고 가는 긴 하강의 본격 구간이다.

##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승전의 마무리다 — 잔병이 소탕되고 두 왕이 처형되고 전리품이 쌓인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들이 움직인다. 첫째, 침묵이다. 6~7장을 끌고 가던 여호와와 음성 없이 이 장에서 들리지 않는다. 사람의 말 — 항의, 조롱, 위협, 맹세, 제안 — 만으로 서른다섯 절이 흘러가고, 그 사이 결정들은 전부 사람의 판단에서 나온다. 음성이 빠진 무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장의 형식 자체가 증언한다. 둘째, 망각의 예비다. 마지막 두 절의 이중 부정 — 기억하지 아니하며,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 은 갑작스러운 결말이 아니다. 승리의 공이 누구의 손에 머무는지가 장 내내 흐려지고 있었고(8:3 → 8:22 → 8:34), 공의 임자가 흐려질 때 기억도 같이 흐려진다. 셋째, 한 사람 안의 두 결이다. 7장의 겸손한 지휘관과 8장의 보복자, 부드러운 대답과 들가시, 바른 거절과 에훗의 손 — 본문은 어느 쪽도 지우지 않고 둘 다 한 사람의 기록으로 보존한다. 영웅 서사라면 그들을 잘라냈을 것이고 고발 서사라면 빛을 잘라냈을 것이다. 사사기는 둘 다 남긴다. 본문은 거기까지만 보여 주고 멈춘다.

내 입이 가장 바른 말을 한 날 — 내 손은 곁에서 무엇을 모으고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거절했다고 믿는 왕관은, 지금 어떤 이름 안에 보존되어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기드온을 단죄하지도 변호하지도 않는다. 다만 끝물 포도의 비유와 들가시를, 거절의 명문과 에봇을, 여룹바알과 아비멜렉이라는 두 이름을 나란히 보여 줄 뿐이다. 그 병치가 독자를 부른다 — 옳은 문장을 말하는 일과 그 문장대로 사는 일 사이의 행간, 8:23과 8:24 사이의 그 한 절 간격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장의 침묵이 또 하나의 물음을 남긴다. 음성이 들리지 않던 사십 년에도 평온은 주어졌다 — 침묵을 부재로 읽을 것인가, 기다림으로 읽을 것인가. 답은 본문에 없다. 다만 펼쳐진 겹옷 위에 쌓이던 금과, 여호와 살롬의 제단 곁에 세워진 올무의 그림이, 읽는 사람의 손을 오래 들여다보게 한다. 그 응시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거절된 왕관이 보존된 이름 — 아비멜렉 — 이 세겜에서 일어나 바알브릿 신전의 은으로 사람을 사고 형제 칠십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며(9:1-5), 막내 요담이 산 위에서 가시나무 왕의 우화를 외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oqesh* — 올무.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Q1. 에브라임에게는 끝물 포도의 겸양(8:2-3), 숙곳에는 들가시(8:16) — 같은 입의 두 온도는 어디서 갈라지는가?**

- 강한 지파에는 자기를 낮추는 외교가, 작은 성읍들에는 가혹한 징벌이 간다. 힘의 차이인지, 모욕의 결 차이인지, 시점의 차이(전투 전/후)인지 — 본문은 동기를 한 마디도 설명하지 않는다. 두 장면의 병치 자체를 보존.

**Q2.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8:23)와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8:24) — 거절과 요청 사이의 행간에는 무엇이 있는가?**

- 사사기에서 가장 옳다 할 문장과 올무가 될 물건의 주문이 한 절 간격으로 붙어 있다. 그 사이의 시간도 심경도 본문은 비워 두었다. 행간을 채우지 않고 간격 그대로 보존.

**Q3. 에봇(8:27) — 기드온은 무엇을 만들려 했는가?**

- 기념물인지 신탁 기물인지 본문은 의도를 적지 않는다. 만들었고, 두었고, 위함을 받았고, 올무가 되었다 — 동사 넷뿐. 만든 사람의 마음과 물건의 운명 사이 간격을 미해결로 이월.

**Q4. 여호와와의 발화가 없는 장 — 이 침묵은 부재의 표시인가, 서술의 장치인가?**

- 6~7장을 끌고 가던 음성이 8장에서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8:28의 평온은 주어진다. 침묵과 평온이 같이 있는 이 구도를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보존.

**Q5. 아비멜렉이라는 이름(8:31) — 그 이름은 무엇을 폭로하는가?**

- "내 아버지는 왕." 왕권을 거절한 사람의 집에서 이 이름이 나온다. 히브리어 문장의 주어 구조상 이름을 둔 이가 기드온으로 읽히는 전승이 있으나 본문은 명시하지 않는다. 거절된 단어가 이름으로 귀환하는 형태만 기록하고, 그 마음의 풀이는 이월.

**Q6. 사십 년의 평온(8:28)은 어째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뒤집히는가(8:33)?**

- "기드온이 이미 죽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 평온이 인물 한 사람의 수명에 매여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과 한 집을 후대하는 일이 같은 호흡으로 무너지는(8:34-35) 결을 평가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사기 9장

JDG-009 · 역사서 · 히브리어

바알브릿 신전의 은 칠십 개로 산 사람들과 "한 바위 위에서" 죽은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명(9:5) 위에 선 가시나무 왕의 삼 년 — 그늘 없는 나무가 그늘을 약속하고 불을 위협하는 성경 최초의 우화(9:15),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9:23), 세겔 망대의 불(9:49)과 데베스의 맷돌 위 짝(9:53)을 지나 "하나님이 갇으셨고 ... 요담의 저주가 응하니라"(9:56-57)로 결산되는, 부르짖음도 사사도 없는 권 최장의 장.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세겔 — 그리심 산이 내려다보는 성읍. 무대 전환: 골목의 모의(1~3) → 오브라의 한 바위(5) → 상수리나무 기둥 곁 즉위(6) → 그리심 산 꼭대기(7) → 들판·성문(26 이하) → 세겔 망대 보루(46) → 데베스 망대(50). 망대가 두 번 —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죽는 건물.
- 소품: 은 칠십 개(바알브릿 신전의 금고, 4절), 한 바위(even achat, 5절 — 도살대 같은 돌), 상수리나무 기둥(6절), 우화의 소품(기름·단 열매·포도주·가시), 도끼·나뭇가지(48절), 불(49·52절), 소금(45절), 맷돌 위 짝(pelach rekhev, 53절), 청년의 칼(54절).
- 마지막 소품의 결: 곡식을 갈던 부역의 돌이 전쟁을 끝냄 — 무기 아닌 살림의 물건.
- 소재의 두 무더기: 사람이 세우는 것들(은·골육 논리·기둥 곁 즉위) 對 위에서 갇으시는 것들(악한 영·저주의 성취·보응) — 앞 무더기가 뒤에 따라잡히는 구조.
- 형식 소재: 2절 첫 발화가 산수("칠십 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 은 칠십(4절)과 형제 칠십(5절)의 수 일치.
- 이름의 형태: Avimelekh = '내 아버지는 왕'. 왕 됄을 사양한 기드온(8:23)의 아들 이름 안에 왕이 들어 있음(8:31) — 형태 관찰.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2절) — 뼈와 살의 언어가 득표의 언어로 쓰이는 서늘함.
- "한 바위 위에서"(5절) — 전장이 아니라 한 곳에서 차례로, 제의처럼 치러진 학살. 문장 끝의 숨구멍: "다만 ...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 사이클의 부재 — 부르짖음 없음,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문장 없음. 하나님의 이름이 23절에서 처음 동사의 주어로 등장.
- 우화(7~15)가 장 전체의 설계도처럼 앞에 걸림 — 16~20의 조건부 저주가 주석, 22절 이후가 시공. 예고와 성취의 기시감.
- 그늘과 불이 한 입에서 나옴(15절) — 가시덤불 아래 피할 그늘이 없다는 일상의 사실 위에 세워진 풍자.
- 발화 분포: 9장에서 하나님의 직접 발화 0회, 행동 보고 2회(23절·56~57절) — 말썽 없는 손길의 장.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되."
- 57절: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 머리와 꼬리가 둘 다 '여룹바알의 아들' — 앞은 잔탈한 아들, 뒤는 숨었던 막내. 두 아들이 장의 양 끝을 집.
- 시작은 사람의 말(설득·산수·골육), 끝은 하나님의 행동 보고(갚으셨으니·응하니라) — 모의로 열려 결산으로 닫힘.
- 24절의 1차 결산문이 장 중간에 미리 찍힘 — 보응의 문장이 장을 두 번 감싸는 액자.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아비멜렉(잔탈자), 외가 형제들(첫 공모), 세겜 사람들(은을 낸 시민),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고용된 무리), 형제 칠십 명, 요담(숨은 막내·우화의 화자), 가알(선동가), 스불(관리·밀고자), 데베스의 무명 여인, 무기 든 청년, 그리고 23절의 하나님.
- 중심 사상: 보응 — 24절이 명시("포악한 일을 갚되 ... 피 흘린 죄를"). 방식은 번개가 아니라 공모자들의 균열 — 서로가 서로의 형벌이 됨.
- 우화의 논리: 세 나무의 동일한 거절 공식("내가 어찌 ○○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 왕 됨이 '버림 + 우쭐댐'으로 정의됨. 가시나무만 수락하되 조건("내 그늘에 피하라")과 위협("불이 나와서 백향목을")이 함께 옴.
- 요담의 저주는 조건부(16~20절) —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면 ...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판정을 사실 여부에 맡기는 형식.
- 소금(45절): 씨 뿌리는 들의 동작으로 불모를 선언 — 농부의 손짓이 저주로 뒤집힘.
- 어휘의 결: ruach raah(악한 영)의 파견 동사 vayyishlach(23절) — 하나님이 주어. vayyashev(56절) — 어근 shuv '되돌리다', 행위가 행위자에게 돌아가는 그림.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절): 모의·학살·즉위 — 골육의 산수, 신전의 은 칠십, 한 바위의 칠십 명, 숨은 막내, 기둥 곁 대관.
- 컷 2 (7~21절): 그리심 산의 우화 — 세 번의 거절과 가시나무의 수락, 조건부 저주, 브엘로의 도망.
- 컷 3 (22~25절): 삼 년과 균열 — 악한 영, 세겜의 배반, 산길의 매복, 24절의 1차 결산.
- 컷 4 (26~41절): 가알의 큰소리와 스불의 밀고, 새벽 들판의 전투, 가알 축출.
- 컷 5 (42~45절): 세겜 진멸 — 들의 백성, 성의 함락, 소금.
- 컷 6 (46~49절): 세겜 망대 — 엘브릿 보루, 살몬 산의 나뭇가지, 불, 천 명. 우화의 1차 성취.
- 컷 7 (50~57절): 데베스 — 맷돌 위작, "여인이 그를 죽였다 할까", 청년의 칼, 군대 해산, 이중 결산.
- 불의 변주: 우화의 불(15) → 저주의 쌍방향 불(20) → 실제 불(49) → 불을 들고 다가서다 돌에 멈춤(52~53) — 예고와 성취가 겹치되 마지막은 비틀림.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Avimelekh(אִמֶּלֶךְ) — '내 아버지는 왕'. 왕 됨을 사양한 아버지의 아들 이름 — 형태 관찰.
- mashaal(מַשָּׂאָל) — 다스리다(2절 2회·22절). 후대의 '비유' 명사와 동철 — 배경 관찰만.
- Baal Berith / El Berith — '언약의 주'(4절/46절). 같은 신전인지 별개인지 본문 미확정.

- *reqim ufochazim*(רִיקִים וּפְּחָזִים) — 비어 있는 자들과 들며 가벼운 자들(4절).
- *even achat*(עֵבֶן אַחַת) — 한 바위(5·18절). / *elon mutstsav*(עֵלֹן מוֹטְסָב) — 세워진 것 곁의 상수리나무(6절).
- *atad*(אָטָד) — 가시나무·가시덤불(14~15절). / *tselel*(צֶלֶל) — 그늘(15절). / *esh*(עֵשׂ) — 불(15·20·49·52절).
- *zayit · teenah · gefen* — 감람나무(8절)·무화과나무(10절)·포도나무(12절). 거절하는 세 나무.
- *ruach raah*(רוּחַ רָעָה) — 악한 영(23절). 파견 동사 *vayyishlach* — 하나님이 주어. 삼상 16:14 계열 — 배경.
- *melach*(מֶלֶךְ) — 소금(45절). / *migdal*(מִגְדָּל) — 망대(46·51절).
- *pelach rekhev*(פֶּלֶחַ רֶכֶב) — 멧돌 위잡(53절). *rekhev* '올라타는 것' — 윗돌의 그림.
- *gulgolet*(גֻּלְגֹּלֶת) — 두개골(53절). 후대 아람어 지명 골고다와 같은 계열 낱말 — 음역 형태 관찰만.
- *vayyashev Elohim*(וַיַּשְׁבֵּה אֱלֹהִים) — 하나님이 되돌리셨다·값으셨다(56절). / *qelalah*(קִלְלָה) — 저주(57절).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모의·학살·즉위(1~6) + 우화·저주(7~21) + 균열(22~25) + 반란·진압(26~45) + 망대의 불(46~49) + 데베스(50~55) + 결산(56~57) — 일곱 단의 구조.
- 성경 최초의 우화(9:7~15) — 식물 의인화 풍자. 세 거절의 동일 공식 반복 뒤 넷째의 수락 — 3+1 형식.
- 보응의 액자: 24절(중간 결산)과 56~57절(최종 결산)이 같은 내용을 두 번 짚음 — 회계 장부의 문체.
- 산수의 겹침: 은 칠십(4절) — 형제 칠십(5절). 한 생명에 은 한 개꼴이라는 셈이 본문에 풀이 없이 놓임.
- 불 모티프의 궤적: 우화의 언어(15) → 저주의 언어(20, 쌍방향) → 실제 연기(49) → 미완으로 끊김(52~53). 말이 사건이 되어 가는 한 장 안의 궤적.
- 하나님의 발화 0회·행동 2회(23절·56~57절) — 침묵 속의 통치라는 서술 구조.
- 여인의 손 계보: 야엘(4:21; 5:26)에 이어 데베스의 무명 여인(9:53) — 전쟁 서사를 끝내는 여인들. 아비멜렉의 수치 의식(54절)이 그 계보를 본문 안에서 증언.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세겜 텔 발라타 발굴 — 성벽이 매우 두꺼운 요새형 신전(소위 *migdal* 신전) 유구 보고. 9:4·46의 신전 논의와 연결되는 고고학 배경(동정 단정 아님).
- 소금 뿌림(45절) — 정복한 성에 불모를 선언하는 근동 전쟁 의례와 닮은 결. 배경.
- 식물 논쟁 우화 장르 — 메소포타미아 '위성류와 대추야자' 논쟁시 등 근동 전통. 9:7~15의 장르 배경.
- 신성한 나무와 세운 돌 — 수 24:26의 세겜 상수리나무와 큰 돌. 9:6 즉위 장소의 내력.
- 아마르나 서신의 라바야 — 기원전 14세기 세겜 일대의 통치 기록. 세겜의 독자적 정치 전통 배경.
- LXX: *atad* → ῥάμνος, *ruach raah* → πνεῦμα πονηρόν(삼상 16:14 LXX 계열), 사사기 A본·B본 이중 전승 — 번역·본문비평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샏 9장 ↔ 샏 8:22-23 (왕 됨의 사양 —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직후에 놓인 찬탈의 장)
- 샏 9:1-5 ↔ 샏 8:30-31, 33-35 (아들 칠십과 세겜 첩의 아들, 바알브릿 송배 — 인물과 죄목의 전사)
- 샏 9:7 ↔ 신 11:29; 27:12 (그리심 산 — 축복 선포의 산에서 외쳐지는 풍자와 저주)
- 샏 9:6 ↔ 수 24:1, 26 (세겜 언약과 상수리나무 아래 큰 돌 — 언약의 장소에서 치러지는 즉위)
- 샏 9:53 ↔ 샏 4:21; 5:26 (야엘 — 전쟁 서사를 끝내는 여인의 손, 무명 여인의 계보)



- 샷 9:53-54 ↔ 삼하 11:21 (맷돌 위작을 던진 것이 누구냐 — 후대 전쟁 교범의 전례로 인용되는 죽음)
- 샷 9:23 ↔ 삼상 16:14 (부리시는 악령 — ruach raah 계열 어구, 배경)
- 샷 9장 ↔ 샷 21:25 (왕이 없으므로 — 권의 도착점과 9장의 거리: 잘못된 왕의 표본과 왕 부재의 결말)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세겜의 골목, 저녁 빛. 낮은 목소리 — 칠십 명이 다스리는 것과 하나가 다스리는 것,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나는 너희와 골육입니다. 신전 금고에서 은 칠십 개가 세어져 나오고, 비어 있고 들뜬 얼굴들이 그 돈을 받는다. 오브라의 한 바위 — 차례로 일흔 번, 카메라는 바위만 비춘다. 막내 하나가 화면 모서리의 어둠으로 사라진다. 상수리나무 기둥 곁의 환호, 즉위. 그리심 산 꼭대기에서 외침이 내려온다 — 나무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무화과나무는 단 열매를,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들어 사양합니다. 가시덤불이 답합니다 —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아니면 불이 나와 백향목을 사르리라. 외친 사람은 산을 내려가 사라진다. 자막 — 삼 년. 보이지 않는 손이 공모자들 사이로 지나가고, 세겜이 등을 돌리고, 산길마다 매복이 깔린다. 성문의 큰소리 —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밤의 전령, 새벽 들판의 그림자, 쫓겨나는 선동가. 들의 백성 위로 칼이 지나가고, 성이 무너지고, 폐허에 소금이 뿌려진다. 망대의 보루 — 도끼, 나뭇가지, 연기, 천 명. 데베스의 또 다른 망대 — 불을 들고 문으로 다가서는 왕, 위에서 떨어지는 맷돌 위작, 깨진 두개골.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여인이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칼이 지나가고 군대가 흩어진다. 마지막 자막 — 하나님이 갚으셨으니, 요담의 저주가 응하니라. 압전.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그늘 없는 나무의 그늘 — 가시나무 왕 삼 년"
- 초벌 부제: "바알브릿 신전의 은 칠십 개와 한 바위 위의 형제 칠십 명(9:4-5) 위에 선 왕 — 그늘 없는 나무의 그늘 약속(9:15)이 악한 영(9:23)과 망대의 불(9:49)과 데베스의 맷돌(9:53)을 지나 '하나님이 갚으셨으니'(9:56-57)로 결산되는, 부르짖음도 사사도 없는 권 최장의 장"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2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일곱 단 구조 + 성경 최초의 우화 + 보응의 이중 액자 + 세겜 발굴·소금 의례·식물 우화 장르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9:23(악한 영의 파견)을 신정론의 결론이나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교리 단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파견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기록된다는 본문 사실과 24절의 목적절('갚음이라')의 병기로만 둬 — 난제는 미해결로 보존.

- 요담의 우화를 '성경은 왕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정치 이데올로기 명제로 일반화하지 않고, 과녁이 왕권 일반인지 가시나무 왕권인지의 갈래를 열린 질문으로 이월.
- 9:53-54(여인의 손과 수치)를 명예 문화 비판이나 현대 담론의 예화 어느 쪽으로도 끌고 가지 않고, 야엘과의 계보(4~5장)와 삼하 11:21의 후대 인용이라는 본문 간 사실로만 기록.
- 소금 뿌림(9:45)을 특정 상징 의미로 단정하지 않고, 근동 전쟁 의례와 닮은 결이라는 배경 관찰로만 둬.
- gulgolet(9:53)과 골고다의 어휘 계열 관찰을 기독교론적 예표론으로 확장하지 않고, 음역 형태의 관찰로만 보존.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9장은 세겜 외가의 골육 논리와 바알브릿 신전의 은 칠십 개(9:1-4)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칠십 명을 한 바위 위에서"(9:5) 죽이고 선 아비멜렉의 삼 년을, 그리심 산에서 외쳐진 성경 최초의 우화 — 열매 있는 나무들의 거절과 그늘 없는 가시나무의 그늘 약속·불 위험(9:7-15) — 와 요담의 조건부 저주(9:16-20)라는 설계도 아래 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의 균열(9:23-24)과 가알의 반란(9:26-41), 세겜 진멸과 소금(9:42-45), 망대의 불(9:46-49), 데베스의 맷돌 위작(9:50-55)을 지나 "하나님이 ... 갚으셨으니 ...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9:56-57)로 결산하는, 부르짖음도 사사도 없는 권 최장의 장이다.

**한 문단:** 세겜의 골목에서 귓속말이 시작된다. 칠십 명의 다스림과 단독 통치,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 나는 너희와 골육입니다. 신전 금고에서 은 칠십 개가 나오고, 비어 있고 들뜬 자들이 고용되고, 오브라의 한 바위 위에서 형제 칠십 명이 차례로 죽는다. 다만 막내 하나가 숨어서 남는다.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왕이 세워질 때, 그리심 산 꼭대기에서 살아남은 막내가 외친다 —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제 열매를 버리고 우쭐대기를 사양했는데, 가시나무가 말했습니다.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아니면 불이 나와 백향목을 사르리라. 삼 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시고, 공모자들이 갈라진다. 선동가의 큰소리와 관리의 밀고, 새벽 들판의 칼, 무너지는 성과 뿌려지는 소금, 보루를 삼키는 연기와 천 명. 그리고 데베스 — 불을 들고 망대 문에 다가서는 왕의 머리 위로 맷돌 위작이 떨어진다. 여인이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 청년의 칼이 그 말을 마저 끝낸다. 내레이터가 장부를 덮는다. 하나님이 갚으셨으니, 요담의 저주가 응하니라.

#### B·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세겜 중심의 무대와 두 번 서는 망대. 신전의 은·한 바위·소금·맷돌이라는 소품 — 부엌의 돌이 전쟁을 끝내는 마지막.         |
| 2 첫 느낌·분위기    | 골육이 득표의 언어가 되는 서늘함, 제의처럼 치러진 학살과 하나의 숨구멍, 사이클이 멈춘 침묵, 그늘과 불이 한 입에서 나오는 축감. |
| 3 시작과 끝       | '여룹바알의 아들'이 양 끝을 짊 — 찬탈한 아들로 열려 숨었던 막내의 저주 성취로 닫힘. 사람의 모의에서 하나님의 결산으로.     |
| 4 등장인물·사상     | 중심 사상은 보응 — 공모자들이 서로의 형벌이 되는 방식. 우화의 논리: 왕 됨 = 버림 + 우쭐댐, 가시나무만 수락.         |
| 5 장면 컷        |                                                                            |

| 단계         | 핵심 발견                                                                           |
|------------|---------------------------------------------------------------------------------|
|            | 모의/우화/균열/반란/진멸/망대/데베스의 7컷. 불의 변주 — 우화(15)→저주(20)→실제(49)→돌에 멈춤(53).              |
| 6 의문·발견·정보 | 은 칠십과 형제 칠십의 산수, 보응 결산문의 이중 액자(24·56-57), 하나님 발화 0회·행동 2회, vayyashev(되돌리다)의 어근. |
| 7 동영상      | 골목의 귀엣말 → 한 바위 → 산 위의 우화 → 삼 년의 균열 → 소금과 연기 → 떨어지는 맷돌 → 장부를 덮는 두 문장.            |
| 8 초별 제목·부제 | "그늘 없는 나무의 그늘 — 가시나무 왕 삼 년"                                                     |
| 9 기도·내면    | 말씀 없이 두 번 움직이신 하나님 곁에서 — 내가 피해 들어간 그들이 누구의 것인지 묻기만 하고 머문다.                      |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shivim, 두 번 겹치는 칠십의 산수:** 바알브릿 신전의 은 칠십 개(4절)가 형제 칠십 명(5절)의 목숨과 마주 놓인다. 한 생명에 은 한 개꼴 — 본문은 이 셈을 풀이하지 않고 수만 병치한다. 그리고 그 칠십이 24절과 56절에서 다시 호명되며 장부가 닫힌다. 2절에서 통치를 숫자 비교로 열었던 사람의 산수가, 끝에서는 하나님의 회계로 뒤집힌다. 숫자로 시작한 장이 숫자로 결산되는데, 셈의 주인이 바뀌어 있다.
- 결 2 — esh, 말이 연기가 되어 가는 불의 궤적:** 불은 처음에 우화의 언어였다(15절). 그다음 저주의 언어가 되고(20절 — 아비멜렉에게서 세겜으로, 세겜에게서 아비멜렉으로, 쌍방향), 마침내 실제 연기가 된다(49절 — 보루의 천 명). 그러나 마지막 변주는 비틀린다. 불의 사람 아비멜렉 자신은 불로 죽지 않는다 — 불을 들고 망대 문에 다가서다가(52절) 맷돌에 멈춘다(53절). 예고는 성취되되 기계처럼 반복되지 않는다. 우화가 역사가 되는 동안에도 마지막 한 수는 예측 바깥에서 온다.
- 결 3 — 발화 0회, 행동 2회의 침묵 통치:** 9장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다. 사사를 세우지도, 부르짖음을 들으시지도 않는다(부르짖음 자체가 없다). 그러나 두 번 움직이신다 — 악한 영을 보내시고(23절), 갇으신다(56-57절). 그리고 그 갇으심의 동사가 shuv, '되돌리다'다. 새 형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행위가 행위자에게 돌아가게 하셨다는 문법. 침묵이 부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본문은 설교 없이 동사 하나로 기록한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샏 8:22-23 —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는 사양 바로 다음 장에 놓인 찬탈 — 배치 자체가 대조.
- 샏 8:30-31, 33-35 — 아들 칠십 명, 세겜 첩의 아들, 바알브릿 승배 — 9장의 인물·자금·죄목이 전부 직전 장에 예비됨.
- 신 11:29; 27:12 — 그리심 산은 축복 선포의 산 — 그 산에서 외쳐지는 풍자와 저주의 역설적 무대.
- 수 24:1, 26 — 세겜의 언약과 상수리나무 아래 큰 돌 — 언약 갱신의 장소에서 치러지는 찬탈자의 즉위.
- 샏 4:21; 5:26 — 야엘의 손 — 전쟁 서사를 끝내는 여인들의 계보가 데베스의 무명 여인(9:53)으로 이어짐.
- 삼하 11:21 — "맷돌 위쪽을 던진 것이 누구냐" — 지우려 했던 기록이 후대 전쟁 교범의 전례로 남음.
- 삼상 16:14 — 부리시는 악령 — ruach raah 계열 어구의 다른 용례, 배경.
- 샏 21:25 — "왕이 없으므로" — 잘못된 왕의 표본(9장)과 왕 부재의 결말(21장) 사이에 권 전체가 걸려 있음.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9:2의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에서 시작한다 — 내가 관계의 언어를 거래의 언어로 바꿔 쓴 적이 있는지 듣는다.
- 멈춤 1: 9:15에서 멈춘다 — 그늘 없는 나무의 그늘 약속. 내가 기대고 있는 약속들 가운데 실제로 가려 주는 것과 말뿐인 것을 가려 본다.
- 멈춤 2: 9:23에서 멈춘다 — 말씀 없이 움직이시는 손.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기록되고 있는 장부를 생각한다.
- 끝: 9:56-57에서 멈춘다 — 되돌아가는(shuv) 보응. 내게서 나간 것들이 어디로 돌아오고 있는지, 답을 만들지 않고 그 동사 곁에 머문다.

## F · 자족성 점검

- [x] 모의·학살·즉위(1~6) / 우화·저주(7~21) / 균열(22~25) / 반란(26~41) / 진멸(42~45) / 망대(46~49) / 데베스·결산(50~57)의 일곱 단 완결
- [x] 은 칠십 — 형제 칠십의 수 병치와 보응 결산문의 이중 액자(24·56-57)
- [x] 우화의 3+1 형식(세 거절 공식 + 가시나무의 조건부 수락)과 불 모티프의 네 변주
- [x] 하나님의 발화 0회·행동 2회 구조와 vayyashev(shuv)의 어근 관찰
- [x] 야엘 — 데베스 무명 여인의 계보와 삼하 11:21의 후대 인용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미완과 진단(1~2장),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왕이 없으므로 일어나는 부록(17~21장)으로 움직이는데, 9장은 그 나선의 한가운데 끼인 특이한 막간이다 — 부르짖음이 없고,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사사가 없고, 이방 압제자조차 없다. 위협이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자란 장, 사이클이 멈춘 장이다. 그런데 바로 그 정지가 이 장의 좌표를 만든다. 직전 장에서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8:23)며 왕 뱀을 사양했고, 그 사양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본문은 사람이 세운 왕의 표본 실험을 실행할 절에 걸쳐 보여 준다 — 골육과 은으로 세워지고, 한 바위의 피 위에 서고, 그늘을 약속하나 그늘이 없고, 삼 년 만에 자기에게서 나간 불에 따라잡히는 왕.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9장은 '참왕은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를 음화로 그리는 중심 막간이다. 열매 있는 나무들이 사양하며 남긴 빈 왕좌 —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서 다스리는 왕의 윤곽 — 가 이 장이 권 전체와 그 너머를 위해 비워 두는 질문이고, 권의 heart인 탄식 섞인 공황은 이 장에서 침묵의 형태로, 그러나 장부를 놓지 않으시는 두 번의 손길로 일한다.

##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골육의 산수(9:2)에서 하나님의 장부(9:56-57)로 / 그늘 없는 그늘 약속(9:15)에서 되돌아오는 불(9:20→49)로 / 사람이 세운 왕(9:6)에서 침묵 속에 갇으시는 통치(9:23)로 — 우화가 역사가 되고, 행위가 행위자에게 돌아가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9장은 '사람이 세운 가시나무 왕권의 자기 소멸'을 기록하는 운동이다. 모의(1~6절)가 예고(7~21절)를 만나고, 예고가 균열(22~25절)을 지나 성취(46~55절)에 이르고, 성취가 결산(56~57절)으로 봉

인된다. 말이 먼저 가고 사건이 따라가는 구조 — 우화의 불이 저주의 불이 되고 실제 연기가 되기까지 삼 년이 걸리지만, 본문은 그 삼 년을 한 절(22절)로 접는다.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이 벡터는 하강 나선의 가속 구간이다 — 기드온의 에봇(8:27)에서 아비멜렉의 학살로, 사사의 그늘에서 사사 아닌 자의 불로. 그리고 9장이 끝나도 권은 멈추지 않는다 — 돌라와 야일의 사십오 년(10:1-5)이 숨을 고르게 한 뒤, 백성은 다시 더 깊은 배역으로 내려가고, 그 바닥에서 여호와와 마음에 관한 문장(10:16)이 기다린다.

####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정변과 내전의 기록이다 — 모의, 학살, 즉위, 반란, 진압, 불, 죽음.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침묵 속의 통치다. 하나님은 이 장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으시지만 두 번 움직이신다 — 악한 영의 파견(23절)과 갇으심(56-57절). 사사를 세우지 않으시는 시간이 통치의 공백이 아니었다는 것, 장부는 침묵 중에도 기록되고 있었다는 것이 이 장의 바닥에 깔린 첫 사실이다. 둘째, 음화로 그려지는 참왕이다. 우화는 잘못된 왕을 풍자하면서 동시에 빈 윤곽 하나를 남긴다 — 열매를 버리지 않으면서 다스리는 왕, 약속한 그늘이 실제로 있는 왕. 9장 어디에도 그런 왕은 등장하지 않지만, 가시나무의 삼 년이 무너지는 모든 장면이 그 부재를 가리킨다. 셋째, 되돌아감의 문법이다. 보응의 동사 *vayyashev*(*shuv* — 되돌리다)는 형벌이 바깥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행위자에게 귀환하는 그림을 그린다. 한 바위 위에 흘린 피가 삼 년을 돌아 두개골 하나로 돌아오는 동선 — 본문은 그것을 기적 없이, 음모와 배반과 전쟁이라는 지극히 사람다운 경로로 보여 주고 멈춘다.

####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지금 누구의 그늘에 피해 있는가 — 그 그늘은 실제로 있는가, 말뿐인가. 그리고 내게서 나간 것들은 지금 어디로 되돌아오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판결문을 내밀지 않는다. 다만 골육이라는 따뜻한 말이 거대로 쓰이는 골목을 보여 주고, 그늘 없는 나무가 그늘을 약속하는 산 위의 외침을 들려주고, 삼 년 뒤 떨어지는 맷돌 하나를 보여 준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 위에 말쑥 없이 일하시는 두 번의 손길을 겹쳐 둔다.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닫히지 않는 장부가 있다는 것 —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상한 위로로 읽히는 까닭은, 그 장부의 주인이 권 전체에서 부르짖음마다 돌이키시던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다. 가시나무의 초대와 열매 있는 나무의 사양 사이, 말뿐인 그늘과 실제 그늘 사이 — 그 사이에서 자기 기대는 곳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이 장이 독자 안에 남기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가시나무의 삼 년이 재가 되고 — 돌라와 야일의 조용한 사십오 년(10:1-5) 뒤에 백성은 더 깊은 배역으로 내려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10:16)는 문장이 권의 다음 매듭에서 기다린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tse*l — 그늘.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림 단계로 이월.

**Q1. 우화의 과녁(9:7-15) — 왕권 자체인가, 가시나무 왕권인가?**

- 열매 있는 나무들이 왕 됨을 '버림과 우쭐댐'으로 정의하며 사냥하는 그림은 왕정 일반에 대한 풍자처럼도, 그늘 없는 가시나무라는 초점은 아비멜렉이라는 특정 찬탈자만 겨누는 것처럼도 읽힌다. 직전 장 8:23("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과 어떻게 묶이는지 — 해석의 갈래를 닫지 않고 보존.

**Q2.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시매(9:23) — 심판의 도구로 분열을 쓰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 파견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24절이 목적('값음이라')을 달아 준다. 그러나 악한 영이라는 도구 자체는 설명되지 않는다. 삼상 16:14과 같은 계열 어구라는 형태 사실만 기록하고, 난제는 난제인 채로 이월. 보존.

**Q3. 은 칠십과 형제 칠십(9:4-5) — 두 수의 겹침은 의도된 대응인가?**

- 신전의 은 칠십 개로 고용한 무리가 형제 칠십 명을 죽인다. 한 생명에 은 한 개꼴이라는 셈이 본문 위에 놓여 있으나, 내레이터는 그 산수를 풀이하지 않는다. 수의 병치 자체를 관찰로만 보존.

**Q4. 요담은 어디로 갔는가(9:21) — 저주만 남고 사람은 사라진다?**

- 우화를 외친 막내는 브엘로 도망해 거기 거주하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다. 57절이 그의 저주의 성취를 보고할 때 그는 무대에 없다. 말이 사람보다 오래 남아 일하는 이 구도를 어떻게 들을지 — 보존.

**Q5. "여인이 그를 죽였다 할까"(9:54) — 이 수치 의식은 무엇을 비추는가?**

- 두개골이 깨진 왕이 마지막 힘으로 지운 것은 기록이다 —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문장. 그러나 삼하 11:21은 정확히 그 문장으로 그를 기억한다. 야엘(4:21; 5:26)에 이어 전쟁 서사를 끝내는 여인의 손, 그리고 지우려 한 기록이 더 오래 남는 역설 — 평가 없이 보존.

**Q6. 부르짖음도 사사도 없는 이 장이 왜 권에서 가장 긴가?**

- 9장에는 사이클이 없다 — 압제자도 이방이 아니고, 구원자도 세워지지 않는다. 그런 막간이 쉼일곱 절로 권의 한가운데를 차지한다. 이 배치의 무게 — 사람이 세운 왕의 표본 실험이 왜 이만큼의 지면을 받는지 — 를 권 전체를 읽으며 열어 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사기 10장

JDG-010 · 역사서 · 히브리어

이야기 없이 비석 두 개로 남은 돌라와 야일의 사십오 년(10:1-5) 뒤에 일곱 신의 목록이 펼쳐지고(10:6),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10:13)라는 권에서 가장 차가운 선언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10:16, *vatiqtsar nafsho* — 직역: 그의 영혼이 짧아지셨다)가 여섯 절 사이에 나란히 놓이는 — 말의 거절과 견디지 못하시는 마음이 한 장 안에 공존하는 사사기의 전환점.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세 폭: 비석 두 개(사밧의 돌라·가문의 야일, 1~5절) — 일곱 신의 단이 세워지는 진영(6~16절) — 마주 본 두 군영(길르앗의 암몬 對 미스바의 이스라엘, 17~18절).
- 소사사 기록의 문체: 일어나서 — 구원하고 — 다스리고 — 죽으매 — 장사되었더라. 장면·대사·대적 없이 동사만 지나가는 비문(碑文)형 서술. 평온기의 사사는 이야기 없이 남음.
- 소품: 어린 나귀 삼십(4절 — 전쟁의 권 속 평온과 지위의 표지), 성읍 삼십(하봇야일), 이방 신들(6절 섬김의 대상 → 16절 제하여 버리는 짐), 손(7절 — "손에 파시매", 매물의 문법).
- 세 겹의 삼십(아들·나귀·성읍)과 두 번의 일곱(신들의 목록·구원의 이력) — 10장은 셈하는 장. 변영도, 배신도, 은혜도 목록으로 적힘.
- 돌라의 기록에는 대적의 이름이 없음 — "구원하니라"(1절)인데 무엇에게서 구원했는지 빈칸. 아비멜렉 다음이라는 위치만 단서로 남음.
- 형식 소재: 6절의 일곱 신 목록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라는 뺄셈으로 종결 — 일곱의 덧셈이 하나의 상실로 끝나는 문장 구조.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사십오 년의 고요(돌라 23년 + 야일 22년) 직후의 급강하 — 권에서 가장 긴 신들의 목록이 가장 평온한 기록 바로 뒤에 옴.
- 13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 권에서 처음으로 부르짖음이 거절당하는 문장. 그러나 여섯 절 뒤 16절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 말과 마음의 간격이 한 장 안에 보존됨.
- 발화 배치: 10절 백성 — 11~14절 여호와 — 15절 백성 — 16절은 발화 없이 행동과 서술만. 대화가 끊긴 곳에서 가장 깊은 문장이 나옴.
- 8~9절의 놀림: 치다·억압하다의 동사 쌍, 십팔 년의 길이, 요단을 건너 유다·베냐민·에브라임까지 번지는 곤고의 지도.
- 6절 안에서 같은 동사 *avad*(섬기다)의 긍정과 부정이 갈라짐 — 일곱 신은 "섬기고" 여호와와는 "섬기지 아니하므로". 16절에서 "여호와를 섬기매"로 사슬이 뒤집힘.

- 18절의 웅성거림 — 물음은 있는데 일어서는 사람이 없는 군영의 공기.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잇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나라."
- 18절: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 구원자가 일어나며 열리고, 구원자가 없어 서로 묻는 물음으로 닫힘 — 1절에는 사람이 서 있고 18절에는 빈 직책만 걸려 있음.
- 1:1("여호와께 여쭙어 —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과 10:18("서로 이르되 — 누가 먼저 나가서") — 같은 '누가 먼저'의 묻는 방향이 여호와에게서 서로에게로 바뀜.
- 동사 hoshia의 운명: 1절 "구원하나라" → 13절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 14절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반어) → 15절 "건져내옵소서" — 한 동사가 장의 줄거리를 꿰.
- 무대의 이동: 죽은 자의 비석(시작)에서 산 자들의 공백(끝)으로.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돌라(족보 석 줄, 행적 빈칸), 야일(아들·나귀·성읍 삼십의 가장), 이스라엘 자손(집합 인물), 여호와(진노 7절·발화 11~14절·근심 16절), 블레셋과 암몬(압제의 두 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17~18절). 등장하지 않는 인물: 다음 구원자 — 사이클이라면 일어나야 할 빈칸.
- 중심 사상: 버림(azav) — 6절 서술, 10절 백성의 고백, 13절 여호와와 고발이 같은 동사를 씀. 사실 관계는 양쪽이 일치, 갈라지는 것은 그다음의 처분.
- 사이클의 변형: 2:11-19의 공식(악행→압제→부르짖음→구원자)에서 부르짖음 다음에 구원자 대신 거절(13절)이 오는 첫 장.
- 거절 발화의 해부: 구원 이력 일곱 열거(11~12) — 고발(13a) — 선언(13b) — 반어 명령(14,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거절 한 마디를 위해 은혜 일곱을 세는 비율.
- "너희가 택한 신들"(14절) — 선택의 책임을 돌려주는 소유격. 택함받던 백성이 택하는 백성이 되었고 그 선택지에 여호와가 없었음.
- 이방 신들의 동산: 섬김의 대상(6절) → 반어의 주어(14절) → 제거되는 짐(16절). 회개가 말(10절)에서 손의 일(16절)로 옮겨 가는 순서.
- 16절의 대상어: 여호와와 근심이 닿는 것이 백성의 죄가 아니라 백성의 amal(곤고·고생)로 적힘.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두 비석 — 사건 없는 사십오 년, 나귀와 성읍의 평온한 목록.
- 컷 2 (6~9절): 일곱 단과 십팔 년 — 신들의 목록, 진노, 손에 파심, 번지는 곤고.
- 컷 3 (10~14절): 부르짖음과 거절 — 고백 한 절에 답 네 절, 답의 대부분이 기억의 회계.
- 컷 4 (15~16절): 돌이킴과 근심 — 처분의 말김, 단의 제거, 섬김의 회복, 그리고 짧아지신 영혼.
- 컷 5 (17~18절): 미스바의 물음 — 마주 본 진영, 주인 없는 '머리'의 약속.
- 컷 3 내부의 저울: 거절 선언은 반 절, 구원의 기억은 두 절 — '안 하겠다'를 말하기 위해 '얼마나 했는지'를 일곱 번 세는 무게중심.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Tola*(תּוֹלָא) — 둘라. 창 46:13의 잇사갈 자손 이름. 진홍 벌레와 같은 철자 — 이름 관찰만.
- *Yair*(יָאִיר) — 야일. '그가 빛을 비춘다' 꼴. / *Chavvot Yair*(חַבְּוֹת יָאִיר) — 야일의 마을들. 민 32:41; 신 3:14의 지명 재등장.
- *ayarim*(עֲרִימִ) — 4절에서 '어린 나귀들'과 '성읍들'이 같은 철자로 적힌 언어유희. 통상 성읍은 *arim*(עֲרִימִ).
- *azav*(אָזַב) — 버리다·떠나다(6·10·13절). 서술·고백·고발이 공유하는 동사.
- *vayimkerem*(וַיִּמְכְּרֵם) — 그들을 파시매(7절). 어근 *makar*는 시장의 매매 동사 — 언약 백성이 매물의 문법으로 적힘.
- *zaaq*(צָאָק) — 부르짖다(10절). / *chatanu*(חָטְאוּ) —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1인칭 복수 고백형(10·15절).
- *lo osif lehoshia*(לֹא אוֹסִיף לְהוֹשִׁיָּא) — 다시는 구원하기를 더하지 아니하리라(13절). *yasaf*(더하다)+*yasha*(구원하다)의 결합.
- *leku zaaqu*(לֵכוּ וְצָאָקוּ) — 가서 부르짖으라(14절). 명령형 쌍의 반어.
- *hesiru*(הִסִּירוּ) — 제하여 버리고(16절). *sur*의 사역형 — 손의 동사.
- *vatiqtsar nafsho*(וַתִּקְצַר נַפְשׁוֹ) — 그의 영혼이 짧아졌다(16절). 형용사 *qatsar* '짧다'의 동사형. 삿 16:16의 삼손("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과 같은 표현 — 형태 관찰만.
- *amal*(עָמַל) — 곤고·고생·짓눌리는 수고(16절). / *mi haish*(מִי הָאִישׁ) — 그 사람은 누구인가(18절). / *rosh*(רֹאשׁ) — 머리(18절).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두 비석(1~5) + 재타락과 압제(6~9) + 부르짖음과 거절(10~14) + 돌이킴과 근심(15~16) + 두 진영의 물음(17~18) — 다섯 단의 전환 구조.
- 일곱 對 일곱: 6절의 신들 일곱 항목 ↔ 11~12절의 구원 이력 일곱 항목. 겹치는 이름(시돈·암몬·블레셋) — 섬긴 신들의 명단과 그 민족들에게서 건지심받은 명단이 포개짐.
- 사이클의 변형: 부르짖음→구원자 공식이 처음으로 끊기고, 구원자 호명 없이 장이 닫힘 — 빈칸이 11장의 입다 영입을 부르는 문이 됨.
- *hoshia*의 사슬: 구원하니라(1) —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11) — 구원하였거늘(12) — 구원하지 아니하리라(13) — 구원하게 하라(14, 반어) — 건져내옵소서(15).
- *avad*의 사슬: 일곱 신을 섬기고(6) —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6) — 바알들을 섬김으로(10) — 다른 신들을 섬기니(13) — 여호와를 섬기매(16). 섬김의 대상이 한 장 안에서 뒤집힘.
- 회개의 두 번: 말의 고백(10절) 뒤에 거절이, 말+처분 말김+제거의 고백(15~16절) 뒤에 근심이 적힘 — 본문은 인과를 명시하지 않고 순서만 보존.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어린 나귀 탑승 — 근동 평지 지배층의 이동 수단·지위 표지. 삿 5:10("흰 나귀를 탄 자들")·12:14와 같은 결. 10:4의 배경.
- 만신전 목록 양식 — 조약·비문이 여러 민족의 신을 지역별로 열거하는 형식. 10:6의 일곱 신 체계 목록의 형식 배경.
- 언약 소송(*riv*) 양식 — 종주가 봉신에게 과거의 은혜를 열거한 뒤 배신을 고발하는 발화 구조. 10:11-14의 형식 배경.

- 봉신의 호소 관행 — 곤경의 부르짖음(zaaq)이 조약 관계의 언어이기도 했다는 배경.
- LXX: vatiqtsar nafsho → ὀλιγώθη ἡ ψυχὴ αὐτοῦ(영혼이 작아졌다), ayarim 언어유희 → πῶλους/πόλεις의 우연한 소리쌍, 사사기의 A·B 이중 사본 전승 — 번역·본문비평 배경.
- 랍비 전통: 후대 주석가들이 10:16을 신인동형 표현의 대표 사례로 논의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샯 10:10-16 ↔ 샯 2:11-19 (사이클의 원형과 그 변형 — 부르짖음 다음의 거절은 10장이 처음)
- 샯 10:18 ↔ 샯 1:1 (누가 먼저 — 묻는 대상이 여호와에게서 서로에게로)
- 샯 10:4 ↔ 민 32:41; 신 3:14 (하봇야일 — 지명의 전사)
- 샯 10:16 ↔ 삼상 7:3-4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의 제거 + 여호와만 섬김 — 같은 짝)
- 샯 10:6 ↔ 신 32:15-18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낯선 신들에게 — azav의 노래, 배경)
- 샯 10:16 ↔ 샯 16:16 (vatiqtsar nafsho — 같은 동사 qatsar가 여호와와 삼손에게 한 번씩, 형태 관찰)
- 샯 10:10 ↔ 출 2:23-25 (부르짖음과 들으심의 원형, 배경)
- 샯 10:18 ↔ 샯 11:1-11 (빈 지휘석이 부르는 사람 — 쫓겨난 입다의 영입)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에브라임 산지의 한낮, 비석 하나 — 사밋의 돌라, 이십삼 년. 화면이 길르앗으로 넘어가 또 하나 — 가문의 야일, 이십이 년. 어린 나귀를 탄 아들이 성읍 사이를 오가는 평온한 몽타주로 사십오 년이 몇 초 만에 흐른다. 조명이 떨어진다. 단이 하나씩 선다 —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일곱. 자막 —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땅이 기울고 열여덟 해의 겨울이 빠르게 감긴다. 강 건너에서도 연기가 오른다. 무릎 꿇은 회중 — 범죄하였나이다. 하늘의 음성이 책장 넘기듯 일곱을 센다 —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한 문장 —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침묵. 회중이 다시 입을 연다 —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려니와, 오직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손들이 움직이고 단이 하나씩 들려 나간다. 그 위로 자막이 천천히 오른다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지막 화면, 미스바의 횃불 아래 얼굴들이 서로를 둘러본다 —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라. 아무도 일어서지 않는다. 암전.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다시는, 그리고 여섯 절 뒤 — 짧아지신 영혼"
- 초벌 부제: "이야기 없는 두 사사의 사십오 년 뒤에 일곱 신의 목록과 일곱 구원의 회계가 마주 서고,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10:13)와 '마음에 근심하시니라'(10:16, vatiqtsar nafsho)가 여섯 절 사이에 공존하는 — 묻는 대상이 여호와에게서 서로에게로 바뀌며 닫히는 사사기의 전환점"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4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다섯 단 전환 구조 + 일곱 對 일곱 대칭 + 소사사 정형구 + ANE 만신전 목록·언약 소송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10:13("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을 하나님의 변심이나 위협 수사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거절 선언과 16절의 근심이 여섯 절 사이에 공존한다는 본문 사실로만 보존 — 반어인가 진심인가의 긴장은 미해결로 이월.
- 10:16("마음에 근심하시니라")을 '회개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공식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본문이 인과를 명시하지 않은 채 순서만 적었다는 관찰로 둬.
- vatiqtsar nafsho의 신인동형 표현을 신학적 체계(무감수성 논쟁 등)로 끌고 가지 않고, 직역의 그림과 샷 16:16의 동사 일치라는 형태 관찰로만 보존.
- 소사사 돌라·야일의 짧은 기록을 '평온은 기록할 가치가 없다'는 교훈으로 바꾸지 않고, 이야기 없는 정형 구라는 문체 사실로만 둬.
- 10:18의 '서로 묻는' 변화를 불신앙의 정죄로 단정하지 않고, 1:1과의 형식 대비라는 관찰로만 기록 — 평가는 본문이 하지 않음.
- 일곱 신 ↔ 일곱 구원의 대칭을 저자의 의도로 확정하지 않고, 항목 수와 겹치는 이름들이라는 썸의 사실로만 보존.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10장은 이야기 없이 비석으로 남은 돌라의 이십삼 년과 야일의 이십이 년(10:1-5) 뒤에 "바알들과 아스다룻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이라는 일곱 신의 목록(10:6)과 십팔 년의 압제(10:7-9)를 펼치고, 부르짖는 백성에게 일곱 구원의 이력(10:11-12)을 센 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10:13)라는 권에서 가장 차가운 선언을 두며, 그러나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의 곤고 앞에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10:16, vatiqtsar nafsho — 그의 영혼이 켜이지셨다)로 그 선언 너머의 마음을 적고,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라"(10:18)라는 주인 없는 물음으로 닫히는, 사사기의 전환점이다.

**한 문단:**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 비석이 둘 선다 — 돌라 이십삼 년, 야일 이십이 년. 어린 나귀를 탄 아들 삼십이 성읍 삼십을 오가는 평온이 다섯 절 만에 지나간다. 그리고 조명이 떨어진다. 단이 일곱 개 세워진다 — 바알들에서 블레셋의 신들까지. 일곱을 섬긴 썸의 끝은 뻗셈이다 —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팔리고, 열여덟 해의 겨울이 요단 양편을 덮는다. 부르짖음이 오른다 — 범죄하였나이다. 하늘의 답이 회계 장부처럼 펼쳐진다 — 애굽에서, 아모리에게서, 암몬에게서, 블레셋에게서, 시돈에게서, 아말렉에게서, 마온에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반 절의 선언 —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백성이 다시 입을 연다 —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려니와, 오직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손들이 단을 하나씩 들어낸다. 그 노동 위로 한 문장이 적힌다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영혼이 짧아지셨다. 미스바의 햇불 아래에서 얼굴들이 서로를 둘러본다 — 누가 먼저 나가랴. 아무도 일어서지 않은 채 장이 닫힌다.

#### B·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비석 둘 — 일곱 단 — 마주 본 두 진영의 세 폭 무대. 어린 나귀 삼십과 들려 나가는 신들이라는 소품, 세 겹의 삼십과 두 번의 일곱이라는 셈. |
| 2 첫 느낌·분위기    | 사십오 년의 고요 다음의 폭풍. 거절(13절)과 근심(16절) 사이의 여섯 절. 대화가 끊긴 곳에서 가장 깊은 문장이 나오는 배열.          |
| 3 시작과 끝       | 구원자가 일어나며 열리고 구원자 없는 물음으로 닫힘. 1:1(여호와께)과 10:18(서로에게)의 '누가 먼저' 대비. hoshia 한 동사의 운명. |
| 4 등장인물·사상     | 족보만 남은 돌라, 살림 목록의 야일, 그리고 등장하지 않는 다음 구원자. 중심 사상은 버림(azav) — 고백과 고발이 같은 동사를 씀.      |
| 5 장면 컷        | 두 비석/일곱 단과 십팔 년/부르짖음과 거절/돌이킴과 근심/미스바의 물음 — 5컷. 컷 3의 저울: 거절 반절, 기억 두 절.             |
| 6 의문·발견·정보    | 일곱 신 ↔ 일곱 구원의 대칭과 겹치는 이름들. 회개의 모양 변화(말→말+손). vatiqtsar nafsho의 직역과 샷 16:16의 동사 일치. |
| 7 동영상         | 두 비석의 몽타주 → 일곱 단 → 십팔 년의 겨울 → 회개의 음성 → 들려 나가는 단들 → 근심의 자막 → 아무도 일어서지 않는 군영.        |
| 8 초별 제목·부제    | "다시는, 그리고 여섯 절 뒤 — 짧아지신 영혼"                                                        |
| 9 기도·내면       | 가장 차가운 문장과 가장 깊은 문장 사이의 여섯 절을 풀어 달라 청하지 않고, 그 곁에 말없이 머문다.                          |

####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목록이 목록에게 답하다:** 10장은 셈의 장이다. 아들 삼십·나귀 삼십·성읍 삼십의 평온한 셈(4절) 뒤에 일곱 신의 셈(6절)이 오고, 그 일곱에 일곱 구원의 셈(11~12절)이 마주 선다. 시돈·암몬·블레셋은 양쪽 명단에 다 있다 — 그 신들을 섬겼고, 그 민족들에게서 건지심을 받았다. 버림의 회개와 은혜의 회개가 같은 수로 포개질 때, 고발은 따로 길 필요가 없어진다. 목록 자체가 고발이 된다.

2. **결 2 — 말과 마음의 간격:**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13절)와 "마음에 근심하시니라"(16절)는 여섯 절 사이에 있다. 본문은 둘을 화해시키지 않는다. 거절 발화의 무게중심이 사실은 과거의 구원을 세는 데 있다는 것(네 절 중 두 절이 기억), 근심의 대상어가 백성의 죄가 아니라 백성의 곤고(amal)라는 것 — 이 둘이 간격의 양쪽 기슭에 놓인 관찰 사실이다. 그리고 vatiqtsar nafsho — 영혼이 짧아지셨다 — 라는 직역의 그림이, 더 견딜 길이가 남지 않은 마음을 말의 거절 아래에서 드러낸다. 16:16에서 삼손이 들볶여 죽을 지경이 될 때 같은 동사가 쓰인다는 형태 사실은, 이 표현이 닳고 닳은 관용구가 아니라 한계까지 몰린 내면의 언어임을 곁에서 받친다.

3. **결 3 — 물음의 방향이 바뀐다:** 권은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를 여호와께 묻는 데서 시작했다(1:1). 10장은 같은 물음을 서로에게 묻는 데서 끝난다(10:18). 방금 부르짖고 방금 단을 들어낸 백성이, 지휘관의 인선은 하늘에 가져가지 않는다. 그 방향 전환의 끝에 '머리가 되리라'는 빈 약속이 걸리고, 다음 장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내쫓았던 사람을 데리러 간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던 권에서 구원자를 협상으로 영입하는 권으로 — 10:18은 그 문턱의 문장이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샷 2:11-19 — 악행→압제→부르짖음→구원자의 사이클 원형 — 10장은 그 공식이 처음 어긋나는 관절.
- 샷 1:1 —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 여호와께 묻던 개막과 10:18의 대비.
- 민 32:41; 신 3:14 — 야일이 작은 성읍들을 하봇야일이라 부름 — 10:4 지명의 전사.
- 삼상 7:3-4 —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매 — 10:16과 같은 제거+섬김의 짝.
- 신 32:15-18 —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낯선 신들에게 — azav의 노래, 배경.
- 샷 16:16 —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 — 10:16과 같은 동사 qatsar, 형태 관찰.
- 출 2:23-25 —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 부르짖음과 들으심의 원형, 배경.
- 샷 11:1-11 — 길르앗 장로들이 돕 땅의 입다를 데리러 감 — 10:18의 빈 물음이 여는 다음 장.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0:1-5에서 시작한다 — 이야기 없이 지나간 사십오 년. 기록되지 않는 평온의 시간이 내게도 있는지 듣는다.
- 멈춤 1: 10:6에서 멈춘다 — 일곱을 섬긴 셈의 끝이 하나를 안 섬김이라는 뻔셈. 내 목록의 끝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본다.
- 멈춤 2: 10:13과 10:16 사이에서 멈춘다 — 거절의 말과 짧아지신 영혼. 그 여섯 절의 간격을 풀지 않은 채 양쪽을 다 읽는다.
- 끝: 10:16 전반에서 멈춘다 — 고백이 손의 일이 되는 순간. 단을 들어내는 노동이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집 안의 물건을 치우는 일이었다는 것을 진다.

#### F · 자족성 점검

- [x] 두 비석(1~5)·일곱 단과 십팔 년(6~9)·부르짖음과 거절(10~14)·돌이킴과 근심(15~16)·미스바의 물음(17~18)의 다섯 단 완결
- [x] 일곱 신 ↔ 일곱 구원의 대칭과 겹치는 이름들(시돈·암몬·블레셋)
- [x] hoshia·avad·azav 세 동사의 사슬 구조
- [x] 13절 거절과 16절 근심의 여섯 절 간격 — 인과 아닌 순서의 보존
- [x] 1:1과 10:18의 '누가 먼저' 방향 대비

---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미완과 진단(1~2장),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왕이 없으므로의 부록(17~21장)으로 움직이는데, 10장은 그 나선의 한가운데서 사이클의 공식이 처음 어긋나는 관절이다 — 부르짖으면 구원자가 일어나던 톱니가 멈추고, 거절이 끼어들고, 구원자 호명 없이 장이 닫힌다. 그러나 이 장이 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무게는 공식의 고장이 아니라 그 고장의 틈으로 드러나는 마음에 있다. 권의 heart — 부르짖음마다 돌이키시는 탄식 섞인 공회 — 가 10:16에서 가장 깊은 표현을 얻는다. vatiqtsar nafsho, 그의 영혼이 이스라엘의 고생 안에서 짧아지셨다. 사이클이 거듭될수록 드러나는 것은 백성의 죄의 깊이만이 아니라 그 죄를 견디시는 분의 아픔이라는 것 — 일곱 신의 목록이 길어질수록 일곱 구원의 기억도 길어지고, 거절의 말 아래에서 견디지 못하시는 마음이 새어 나온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출애굽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던

그 들으심(출 2:24)이 여기서서는 거절의 형식을 입고도 끝내 곤고 곁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머리로 세우는 10:18의 물음은, 왕이 없다는 권의 진단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려가는 계단이다.

####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야기 없는 평온(10:1-5)에서 일곱 신의 전면화(10:6)로 / 부르짖음(10:10)에서 거절(10:13)로 / 거절의 말에서 짧아지신 영혼(10:16)으로 / 여호와께 묻던 물음(1:1)에서 서로에게 묻는 물음(10:18)으로 — 사이클의 고장이 하나님의 아픔을 드러내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0장은 '공식이 멈춘 곳에서 마음이 드러나는' 운동이다. 부르짖음→구원자의 톱니가 처음으로 어긋나면서, 그동안 공식 뒤에 가려져 있던 두 가지가 동시에 노출된다 — 백성의 버림이 일곱 겹이라는 것과, 그 버림을 받으신 분의 영혼이 백성의 곤고 앞에서 짧아진다는 것. 장이 닫혀도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고 지휘석은 비어 있다. 그 공백이 11장의 입다 — 공동체가 내쫓았던 사람을 공동체가 데리러 가는 — 를 부르고, 나선은 거기서 한 단 더 내려간다. 10장의 벡터는 전권을 '구원자들의 한계에서 참왕의 필요로' 끌고 가는 긴 운동의, 마음이 가장 깊이 보이는 구간이다.

####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국제 정세의 기록이다 — 일곱 민족의 신들, 두 압제자, 십팔 년, 마주 본 두 진영. 그러나 수면 아래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평온의 침묵이다. 돌라와 야일의 사십오 년은 다섯 절로 지나간다. 위기는 긴 서사를 얻고 평온은 비문을 얻는 이 비대칭은, 권이 기록하려는 것이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흐름임을 문체로 보여 준다. 둘째, 거절 안의 기억이다. "다시는"의 발화 네 절 가운데 두 절이 과거의 구원을 세는 데 쓰인다. 안 하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 얼마나 했는지를 일곱 번 세는 발화 — 그 비율이, 이 거절이 관계 바깥의 판결문이 아니라 관계 안의 통증임을 드러낸다. 셋째, 근심의 대상어다. 16절에서 여호와와 영혼을 짧게 한 것은 백성의 죄가 아니라 백성의 amal — 곤고, 고생 — 으로 적혀 있다. 잘못을 셈하던 발화(11~13절)와 고생을 견디지 못하는 서술(16절) 사이에서, 본문은 마지막 말을 마음 쪽에 준다. 본문은 거기까지만 보여 주고 멈춘다.

####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의 부르짖음은 어떤 모양인가 — 말에서 멈춘 적은 없는가, 손이 움직인 적은 있는가. 그리고 나의 곤고 앞에서 영혼이 짧아지시는 분이 계시다는 문장을, 나는 어디까지 믿고 읽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회개의 공식을 주지 않는다. 첫 고백 다음의 거절과 두 번째 고백 다음의 근심을 '그래서'로 잇지 않은 채, 다만 순서대로 보여 줄 뿐이다. 일곱 단을 들어내는 노동이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집 안을 치우는 손의 일이었다는 것 — 그 작음이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그리고 이 장이 끝내 쥐여 주는 것은 백성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장이다. 다시는, 이라고 말씀하신 분의 영혼이 여섯 절 뒤에 짧아진다. 말로는 달고 마음으로는 달지 못하시는 그 간격 — 차가운 선언과 견디지 못하심이 한 장 안에 같이 적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곤고 가운데 있는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지휘석은 비었고 물음은 서로를 둘러본다 — 길르앗 장로들이 돛 땅으로 가서, 기생의 아들이라 내쫓았던 큰 용사 입다에게 머리가 되어 달라 청하고(11:1-11), 쫓겨난 사람의 서원이 다음 이야기를 연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vatiqtsar nafsho — 그의 영혼이 짧아지셨다.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1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 Q1. 돌라와 야일(10:1-5) — 평온한 시대의 사사는 왜 이야기 없이 남는가?

- 웃니엘 이후 가장 살이 없는 기록이다. 대적도, 전투도, 영의 임함도 없이 연수와 매장지만 남았다. 위기의 사사는 긴 서사를 얻고 평온의 사사는 비문 다섯 절을 얻는 이 문체의 비대칭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보존.

#### Q2.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10:13) — 반어인가 진심인가?

- 최종 판결로 읽으면 16절의 근심과 부딪히고, 수사로 읽으면 일곱 구원을 센 11~12절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부모의 '다시는'처럼 들린다는 느낌은 독자의 비유일 뿐 본문의 말이 아니다. 거절의 말과 근심의 마음을 둘 다 적고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 본문 그대로 보존.

#### Q3. vatiqtsar nafsho(10:16) — 쫓아진 것은 무엇인가?

- 직역은 '그의 영혼이 쫓아졌다'. 번역들은 근심·견디지 못함·진노의 누그러짐 사이에서 갈린다. 인내의 길이인지, 거리인지, 숨인지 — 본문은 그림만 주고 풀이를 주지 않는다. 샷 16:16에서 같은 동사가 삼손에게 쓰인다는 형태 사실만 곁에 두고 이월. 보존.

#### Q4. 일곱 신(10:6)과 일곱 구원(10:11-12) — 이 썸의 일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 버림의 목록과 건지심의 목록이 같은 수로 마주 서고, 시돈·암몬·블레셋이 양쪽에 곁친다. 저자의 의도된 배열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항목 수와 곁침이라는 썸의 사실만 기록하고, 그 대칭이 거절 발화 안에서 하는 일은 열어 둔다. 보존.

#### Q5. 두 번의 고백(10:10, 10:15-16) — 두 번째에 더해진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때문'인가?

- 첫 고백은 말이었고 두 번째에는 처분의 말김과 신들의 제거가 더해졌다. 본문은 첫 번째 다음에 거절을, 두 번째 다음에 근심을 적되 '그래서'라고 잇지 않는다. 회개의 모양과 응답의 인과를 공식화하지 않고 순서만 보존.

#### Q6.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10:18) — 여호와께 묻지 않는 물음은 어디로 가는가?

- 1:1에서는 같은 물음을 여호와께 가져갔다. 방금 부르짖었던 백성이 지휘관의 물음은 서로에게 묻는다. 이 방향 전환이 다음 장의 입다 영입 —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협상 — 을 여는데, 본문은 그 변화를 평가하지 않는다. 대비의 사실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사사기 11장

JDG-011 · 역사서 · 히브리어

"네가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11:2)라는 말로 쫓겨난 큰 용사(*gibbor chayil*)가 미스바에서 머리(*rosh*)로 세워지고, 암몬 왕에게 삼백 년의 역사 강론(11:12-28)을 보낸 뒤 여호와와 영이 임하는데(11:29) — 그 임재 다음에 서원 한 문장(11:30-31)이 끼어 들고, 소고를 잡고 춤추며 문에서 나온 무남독녀(11:34)와 해마다 나흘씩 이어지는 딸들의 애곡(11:40)으로 닫히는, 말의 사람이 말에 묶이는 사사기의 깊은 굽이.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의 이동: 길르앗 아버지 집 → 돌 땅(망명지) → 미스바(계약, "여호와 앞에서") → 말로 펼쳐지는 광야 길·아르논·헤스본 → 전선 이십 성읍 → 미스바 자기 집의 문 → 산 → 다시 집.
- 핵심 무대 장치: 문 — 31절에서 서원의 문장 안에 들어가고, 34절에서 열림. 닫힌 문(2절의 축출)과 열린 문(34절)이 장의 앞뒤에 놓임.
- 소품: 소고(*tof*)와 춤(34절 — 승전 영접의 악기), 찢기는 옷(35절), 두 달이라는 시간(37절), 산과 동무들, 변제(*olah*)라는 단어 — 제단은 화면에 등장하지 않음(39절은 "서원한 대로 행하니"로만).
- 소재의 두 무더기: 말의 것들(계약·강론·논증·서원·애곡의 노래) 對 몸의 것들(쫓겨난 몸·춤추는 몸·찢긴 옷·산을 오르는 발걸음) — 말이 몸을 끌고 다니는 장.
- 형식 소재: 협상 두 번(장로들 4~11절, 암몬 왕 12~28절) — 둘 다 말의 왕복. *qatsin*(장관, 6절) → *rosh*(머리, 8절)의 상향 곡선. 30절의 서원도 조건부 계약문("주시면 — 드리겠나이다").
- 1절의 어순: 호칭("큰 용사")이 출신("기생이 낳은 아들")보다 먼저 — 기드온의 호칭(삿 6:12)과 같은 단어, 다른 발화 위치(천사의 인사 對 서술자의 소개).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형제들의 축출 발언이 직접 인용으로 보존됨(2절) — 그리고 7절에서 입다가 거의 같은 말을 장로들에게 돌려줌. 상처가 문장 그대로 남은 장.
- "머리" 세 번(8·9·11절) — 쫓겨난 이에게 거둬 놓이는 직함. 9절 입다의 어법은 승리의 주어를 여호와로 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 앞 절반은 말소리 가득한 무대(협상·강론), 뒤 절반은 침묵 깊은 무대(산·두 달·짧은 보고). 전투는 두 절 — 가장 말 많은 장이 가장 말을 아끼는 비극으로 닫히는 낙차.
- 소고 소리의 두 얼굴 — 출 15:20·삼상 18:6의 기쁨의 관습이 이 장에서는 듣는 이를 무너뜨리는 소리로. 34절의 "보라(*hinneh*)"가 독자를 입다의 시선 안에 세움.
- 입다는 사사들 가운데 발화가 가장 긴 인물 — 그 말의 사람이 자기 말 한 문장에 묶임("내가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35절).

- 35절과 36절이 같은 동사(patsah — 입을 열다)를 주고받음: 아버지의 비탄과 딸의 수용이 한 동사의 두 활용으로 마주 봄 — 배경.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 40절: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 기생인 어머니로 열리고 딸들의 애곡으로 닫힘 — 여성으로 열리고 여성으로 닫히는 액자. 어머니도 딸도 무명, 이름이 기록된 이는 입다뿐.
- 어미의 결: 1절은 한 사람의 이력 소개("아들이었고"), 40절은 관습의 지속("애곡하더라") — 개인의 출생에서 공동체의 연례 의례로. 장은 끝나는데 애곡은 끝나지 않는 시제.
- 집의 수미: 쫓겨난 아버지 집(2절)과 문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자기 집(34절) — 집에서 쫓겨난 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을 잃는 구도.
- 39~40절의 기록 순서: "이것이 이스라엘에 관습(chok)이 되어" — 마지막 기록권이 입다의 전공이 아니라 딸들의 의례에 주어짐.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입다(유일하게 이름 기록), 길르앗(아버지 — 지명과 동명), 기생인 어머니(무명), 본처의 아들들(무명), 뚝 땅의 빈 사람들, 길르앗 장로들, 암몬 자손의 왕(끝까지 무명), 사신들, 여호와(계약의 증인·영), 딸(무명), 딸의 동무들, 이스라엘의 딸들(기억의 공동체).
- 중심 사상: 말이 사람을 묶는다 — 계약(11절, 여호와 앞에서)·논증(12~27절)·서원(35절, 돌이키지 못함)·수용(36절, "당신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의례(40절, 해마다)의 다섯 겹.
- 상황의 전사: 10:18의 "먼저 싸우는 자가 머리가 되리라" — 11장은 그 공석이 채워지는 서사. 버림(1~3) → 부름(4~11) → 변론(12~28) → 영과 서원(29~31) → 승리(32~33) → 귀향과 이행(34~39) → 의례(40)의 일곱 단.
- 닳은꼴 관찰: 10:15-16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매달림 ↔ 11:8에서 장로들이 입다에게 매달림 — 버린 이에게 돌아와 비는 구도의 겹침, 형태 관찰.
- 7절: 입다의 첫 마디는 상처의 회고 — "전에 나를 미워하여 ...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사과 없는 부름을 정확히 알면서도 가는 사람 — 본문은 그 마음을 설명하지 않음.
- garash/yarash의 올림: 사람에게 쫓겨난(garash, 2·7절) 이가 여호와께서 쫓아내신(yarash, 23~24절) 역사를 변론 — 두 동사의 소리가 겹침.
- 27절: "심판하시는 여호와(YHWH hashofet)" — 사사기(쇼페탐)의 책 이름 어근이 여호와께 돌려지는 문장. 형태 관찰.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출신과 추방 — 큰 용사, 기생의 아들, 형제들의 축출, 뚝 땅의 빈 사람들.
- 컷 2 (4~11절): 장로들의 청과 미스바 계약 — 버림의 회고(7), 머리의 확인(9), 여호와 앞에 아뢰는 모든 말(11).

- 컷 3 (12~28절): 사신의 왕복 — 역사 강론. 점령하지 않았다(15), 시혼의 전쟁(19~22), 그모스 논법(24), 삼백 년(26), 재판장 여호와(27), 듣지 않는 왕(28).
- 컷 4 (29~33절): 영(29) — 서원(30~31) — 이십 성읍의 승리(32~33). 임재와 서원과 전쟁이 다섯 절에 압축.
- 컷 5 (34~40절): 문 앞의 소고 — 옷 찢음과 비탄(35) — 딸의 수용과 두 달(36~38) — 이행의 짧은 보고(39) — 딸들의 의례(40).
- 컷 4 내부의 경첩: 영 → 서원 → 승리의 순서. 옷니엘(3:10)은 임재에서 구원으로 직행 — 입다는 그 사이에 조건부 문장을 끼움. 본문은 평가 없이 순서만 보여 주고, 32절의 승리 보고는 9절 입다 자신의 표현("넘겨주시매")으로 적힘.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gibbor chayil*(גִּבּוֹר חַיִּיל) — 큰 용사(1절). 샷 6:12에서 기드온이 받은 호칭과 같은 짝 — 같은 호칭, 다른 출신.
- *ben ishah zonah*(בֶּן־אִשָּׁה זֹנָה) — 기생인 여인의 아들(1절). / *anashim reqim*(אָנָשִׁים רִיקִים) — 빈 사람들(3절). reqim은 샷 9:4의 아비멜렉 추종자들에게도 붙은 형용 — 형태 관찰.
- *qatsin*(קָצִין) — 장관·지휘관(6절) / *rosh*(רֹאשׁ) — 머리(8·9·11절). 장로들의 첫 제안과 상향된 제안이 다른 단어.
- *garash*(גָּרַשׁ) — 쫓아내다(2·7절) / *yarash*(יָרַשׁ) — 차지하다·쫓아내다(23~24절 등). 소리와 결이 겹치는 두 동사.
- *Kemosh*(כְּמוֹשׁ) — 그모스(24절). 통상 모압의 신 — 암몬 왕에게 호명된 점은 미해결 질문으로.
- *neder*(נָדַר) — 서원(30·39절). / *vehaalitihu olah*(וְהֵעֲלִיתֵהוּ עֹלָה) — 그를 번제로 올리겠다(31절). olah는 '올라가는 것'이라는 어근의 제사 용어.
- *ruach YHWH*(רוּחַ יְהוָה) — 여호와와 영(29절). / *lifnei YHWH*(לִפְנֵי יְהוָה) — 여호와 앞에서(11절).
- *tof umecholot*(תוף וּמַחֲלוֹת) — 소고와 춤(34절). 출 15:20과 같은 짝. / *yechidah*(יְחִידָה) — 오직 하나뿐인 딸(34절). 창 22:2 yachid의 여성형 — 형태 관찰.
- *patsah peh*(פָּתַח פֶּה) — 입을 열다(35·36절). 아버지와 딸이 같은 동사를 주고받음.
- *akar*(עָכַר) — 괴롭게 하다(35절 be'okherai). 수 7:25-26의 아간·아골 골짜기와 같은 어근 — 형태 관찰.
- *veyaradti al-heharim*(וַיֵּרָדְתִּי עַל־הַהָרִים) — 직역 "산들 위로 내려가서"(37절). 산으로 가는데 동사가 yarad(내려가다) — 지형 설명 제안들이 있으나 확정 아님, 미해결.
- *betulim*(בְּתוּלִים) — 처녀임(37~39절). / *chok*(חֹק) — 규례·관습(39절). / *letannot*(לְתַנּוֹת) — 애곡하다·기리다(40절). 어근 tanah는 샷 5:11에서 '낭송하다'로도 — 드문 동사.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일곱 단: 버림(1~3) — 부름(4~11) — 변론(12~28) — 영과 서원(29~31) — 승리(32~33) — 귀향과 이행(34~39) — 의례(40).
- 변론의 네 층(12~27절): 역사적 사실(점령하지 않았다) — 신학적 논거(여호와께서 쫓아내셨다) — 시간의 논거(삼백 년의 시효) — 재판 언어(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 사사기 최장 연설이 칼이 아니라 논증 — 그리고 28절 한 절로 기각됨.
- 분량의 배분: 외교 17절 / 전투 2절 / 딸의 서사 7절 — 본문의 무게중심이 절수로 드러남.
- 영접 관습의 전복: 소고와 춤의 승전 영접(출 15:20·삼상 18:6)이 비극의 장치로 뒤집힘 — 기쁨의 양식이 그대로 슬픔의 방아쇠가 되는 배열.



- 입(peh) 모티프: 변론하는 입(12~27절) — 서원하는 입(30~31절) — "입을 열었으니"의 비탄(35절) — "입에서 낸 말씀대로"의 수용(36절). 한 신체 부위가 장 전체를 꿰는 실.
- 무명성의 배치: 어머니·형제들·암몬 왕·딸·동무들 전부 무명 — 이름 있는 단독자 입다를 무명의 인물들이 둘러싸는 구도. 딸은 이름 대신 의례로 기억됨.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메사 석비(주전 9세기 모압) — "그모스가 진노하여 땅을 내주었고, 회복하게 했다"는 어법. 신이 땅을 주고 빼앗는다는 11:24의 문법이 모압 쪽 실물 자료에 실재 — 배경.
- 전쟁 서원 관습 — 출전 전 승리를 조건으로 봉헌을 약속하는 양식. 민 21:2의 이스라엘 서원도 같은 형식 — 11:30-31의 형식 배경.
- 인신제사 자료 — 왕하 3:27의 모압 왕의 맏아들 번제, 페니키아 권역의 토팻 유적. 레 18:21·신 12:31의 금지가 전제하는 주변 세계 — 배경.
- 근동 국경 분쟁 문서의 역사 회고 논증 — 과거 조약·전쟁·점유 연한으로 영유권을 다투는 외교 양식. 11:12-27의 형식 배경.
- 여성의 계절적 애곡 의례 — 근동에 널리 퍼진 연례 의례 형식. 11:40의 형식 배경(기원 단정 아님).
- LXX: 사사기는 A·B 두 본문 계열 병행 전승. letannot → θρηνεῖν(애가를 부르다) — 곡인지 기림인지의 갈래가 번역 전통에도 보임. 랍비·중세 전통: 경솔한 서원의 예(창세기 랍바 60:3 등), 평생 봉헌설(킴히·랍바 그) — 해석사 배경, 본문 확정 아님.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샏 11:8-11 ↔ 샏 10:17-18 (먼저 싸우는 자가 머리가 되리라 — 공석의 전사)
- 샏 11:19-22 ↔ 민 21:21-31; 신 2:26-37 (시혼과의 전쟁 — 강론의 원천 본문)
- 샏 11:30-31 ↔ 민 21:2 (조건부 전쟁 서원의 전례 — 형식 비교)
- 샏 11:31-39 ↔ 레 18:21; 신 12:31 (자녀를 불로 드리는 일의 금지 — 본문은 연결을 명시하지 않음, 긴장의 보존)
- 샏 11:39 ↔ 레 27:1-8 (서원으로 드린 사람을 값으로 무르는 규정 — 본문이 언급하지 않는 율법 조항, 배경)
- 샏 11:34 ↔ 출 15:20; 삼상 18:6 (소고와 춤의 승전 영접 — 관습의 배경이자 전복)
- 샏 11:3 ↔ 삼상 22:2 (쫓겨난 이 곁에 모이는 사람들 — 아둘람과 닿는 결, 형식 배경)
- 샏 11:34(yechidah) ↔ 창 22:2(yachid) (하나뿐인 자녀 — 형태 관찰, 두 본문의 결말은 다름)
- 샏 11:35(akar) ↔ 수 7:25-26 (아간·아골 골짜기 — 같은 어근의 '괴롭게 하다')
- 샏 11:24 ↔ 왕하 3:27; 왕상 11:5 (그모스 권역의 관습·암몬 신의 이름 — 미해결 질문의 자료)
- 샏 11:1 ↔ 히 11:32 (입다가 믿음의 목록에 호명 — 배경, 평가 아님)
- 샏 11:29-33 ↔ 샏 12:1-7 (에브라임의 향의와 쉼볼렛 —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불씨)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길르앗의 한 집, 문이 닫힌다. 내가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 한 남자가 등을 보이고 걸어간다. 돛 땅, 변두리의 들판에 빈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평선에 먼지 —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청한다. 장관이 되라. 전에 나를 쫓아 내지 아니하였느냐 — 말이 오가고 장관이 머리로 올라간다. 미스바, 남자가 모든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다.

사신들이 길을 오간다 —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쫓아내셨거늘, 삼백 년이거늘, 심판하시는 여호와와 오늘 판결하시옵소서. 왕좌의 얼굴은 끝내 잡히지 않는다. 듣지 아니하였더라. 바람 — 여호와와 영이 임하신다. 진군의 한가운데서 입이 클로즈업된다 —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번제물로 드리 겠나이다. 전장은 두 절 — 아로엘에서 민닛까지 이십 성읍, 끝. 귀로. 미스바의 집, 문이 열린다. 소고 소리, 춤 추는 발, 하나뿐인 딸. 옷이 찢긴다 — 내가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는다 — 당신이 입을 여셨으니 말씀대로 행하소서, 다만 두 달만. 산등성이를 걷는 그림자들. 두 달 뒤, 한 그림자가 내려온다. 39절은 화면을 보여 주지 않는다 — 자막만, 서원한 대로 행하니. 해가 바뀌어도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산으로 오른다. 나홀. 노래인지 곡인지 모를 소리가 능선에 남는다. 암전.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입을 연 사람 — 삼백 년의 변론과 두 달의 애곡"
- 초벌 부제: "기생의 아들로 쫓겨난 큰 용사가 미스바에서 머리로 세워지고 역사 강론으로 먼저 싸우는데, 여호와와 영이 임한 다음에 끼어든 조건부 서원 한 문장이 소고와 춤으로 문에서 나온 무남독녀와 마주치는 — 딸의 사람이 딸에 묶이고 딸들의 나홀 애곡이 마지막 기록으로 남는 사사기의 깊은 굽이"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3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일곱 단 구조 + 변론의 네 층 + 메사 석비·전쟁 서원·애곡 의례 배경 + 영접 관습의 전복)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11:30-31의 서원을 '불신앙의 증거'로도 '이방 문화의 산물'로도 단정하지 않고, 영의 임재(29절)와 서원(30절)의 순서라는 본문 사실과 옷니엘(3:10)과의 배열 차이만 기록함.
- 11:39의 이행을 번제 실행으로도 평생 봉헌으로도 확정하지 않음 — "서원한 대로 행하니"라는 본문의 절제,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의 부연, 레 18:21·신 12:31의 금지, 레 27의 무름 규정, 해석사의 두 갈래를 전부 나란히 보존하고 미해결로 둬.
- 11:35의 비탄("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을 입다의 인격 비난이나 옹호 어느 쪽으로도 끌고 가지 않고, 비탄의 방향이라는 관찰과 akar 어근의 형태 사실로만 기록.
- 11:24의 그모스 논법을 다신교 인정의 증거나 단순 수사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메사 석비의 병행 어법이라는 배경 자료와 미해결 질문으로 보존.
- 히 11:32의 입다 호명을 서원의 정당화로 쓰지 않고, 정경 안의 배경 사실로만 기록. 11:40의 딸들의 의례도 기원·성격 단정 없이 letannot의 어근 갈래(곡·낭송)와 함께 형태 관찰로 둬.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11장은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고"(11:1)라는 어순으로 소개된 입다가 형제들에게 쫓겨나 돛 땅의 빈 사람들(anashim reqim) 가운데 머물다가, 환난을 당한 장로들의 청으로 미스바에서 머리카락(rosh)이 되어 모든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고(11:11), 암몬 왕에게 역사·신학·시효·재판의 네 층 변론(11:12-27)을 보냈으나 기각당한 뒤(11:28), 여호와와 영이 임하시고(11:29) — 그 다음에 조건부 서원("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11:30-31)을 입에 올리고 이십 성읍을 이기는데(11:32-33), 소고를 잡고 춤추며 문에서 나온 이가 무남독녀였고(11:34), 아버지보다 의연한 딸의 수용(11:36-37)과 두 달의 애곡을 지나 "서원한 대로 행하니"(11:39)로 절제된 이행이 보고된 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나흘씩 애곡하는 관습(11:40)으로 닫히는 — 말의 사람이 말에 묶이는 장이다.

**한 문단:** 문이 닫히며 장이 열린다. 네가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 쫓겨난 사람이 변두리 돛 땅에서 빈 사람들과 출입한다. 그런데 환난이 오자 그를 버린 사람들이 그를 부른다. 전에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 상처를 문장 그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그러나 승리의 주어를 여호와로 두는 조심스러운 어법으로 계약을 맺고, 모든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다. 그리고 칼보다 먼저 말로 싸운다 — 점령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다, 삼백 년이거늘, 심판하시는 여호와와는 판결하시옵소서. 네 층의 변론이 한 절로 기각되고, 여호와와 영이 임하신다. 그런데 그 임재 다음에 한 문장이 끼어든다 —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번제물로. 전장은 두 절 만에 지나가고, 미스바의 집 문이 열린다. 소고 소리, 춤, 하나뿐인 딸. 아버지는 옷을 찢으며 자기 처지를 비탄하고, 딸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씀대로 행하시라 답한다. 두 달의 산, 절제된 한 절의 이행 보고, 그리고 이름 없는 딸을 위해 해마다 산으로 오르는 딸들의 나흘이 장의 마지막 기록으로 남는다.

#### B ·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아버지 집 → 돛 땅 → 미스바 → 전선 → 자기 집의 문 → 산. 소고·찢긴 옷·두 달이라는 소품, 말의 것들과 몸의 것들의 두 무더기.               |
| 2 첫 느낌·분위기    | 직접 인용으로 보존된 상처(2·7절), 세 번의 머리, 말 많은 앞과 침묵 깊은 뒤의 낙차, 소고 소리의 두 얼굴.                            |
| 3 시작과 끝       | 기생인 어머니로 열려 딸들의 애곡으로 닫히는 여성 액자 — 둘 다 무명. 개인의 이력에서 공동체의 연례 의례로.                              |
| 4 등장인물·사상     | 이름이 기록된 이는 입다뿐. 중심 사상은 '말이 사람을 묶는다' — 계약·논증·서원·수용·의례의 다섯 겹.                                 |
| 5 장면 컷        | 추방/계약/강론/영·서원·승리/문 앞의 소고 — 5컷. 컷 4의 경첩: 영 → 서원 → 승리의 순서(웃니엘은 직행).                           |
| 6 의문·발견·정보    | 변론의 네 층과 한 절의 기각. 분량 배분(외교 17절 / 전투 2절 / 딸 7절). garash/yarash의 울림, hashofet이 여호와께 돌려지는 27절. |
| 7 동영상         | 닫히는 문 → 돛 땅 → 미스바의 계약 → 사신의 왕복 → 바람(영) → 입의 클로즈업 → 두 절의 전장 → 열리는 문과 소고 → 산의 두 달 → 해마다 나흘.   |
| 8 초별 제목·부제    | "입을 연 사람 — 삼백 년의 변론과 두 달의 애곡"                                                               |

| 단계      | 핵심 발견                                                 |
|---------|-------------------------------------------------------|
| 9 기도·내면 | 닫힌 문과 열린 문 사이에서 — 내 입에서 낸 말들이 누구의 문 앞에 놓여 있는지 곁에 머문다. |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garash와 yarash, 쫓겨난 자의 변론:** 형제들이 그를 쫓아냈다(garash, 2절·7절). 그가 변론한 역사의 중심 동사는 여호와께서 아모리를 쫓아내셨다는 것이다(yarash, 23~24절). 소리가 겹치는 두 동사가 이 장의 앞뒤를 묶는다 — 사람의 축출을 겪은 이가 하나님의 축출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강론하는 사람이 된다. 변두리에서 보낸 시간이 그의 입에 역사를 채웠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지만, 사사기에서 가장 긴 연설이 쫓겨났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본문에 그대로 있다.
- 결 2 — 영 다음의 서원, 끼어든 한 문장:** 웃니엘은 여호와와 영이 임하자 곧장 나가 싸웠다(3:10). 입다는 영이 임한(29절) 다음에 조건부 서원(30~31절)을 끼워 넣는다. 본문은 이 서원을 한마디도 평가하지 않는다 — 꾸짖지도, 막지도, 변호하지도 않는다. 다만 순서를 보여 주고, 승리의 보고(32절)를 입다 자신이 9절에서 쓴 표현("넘겨 주시매")으로 적고, 그 서원의 값을 장의 끝까지 따라간다. 임재와 흥정이 한 사람 안에 나란히 있는 그림 — 사사들의 신학이 흐려지는 하강 나선의 깊은 굽이가 여기서다.
- 결 3 — patsah peh, 입을 연 값과 마지막 기록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35절, 아버지) — "당신이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36절, 딸). 같은 동사가 비탄과 수용으로 마주 본다. 변론하던 입, 서원하던 입, 비탄하는 입 — 입의 모티프가 장 전체를 꿰는데, 마지막 발화권은 입다에게 있지 않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관습이 되어"(39~40절) — 본문은 마지막 기록을 딸들의 애곡에 준다. 이십 성읍의 전공이 아니라 이름 없는 딸을 위한 나흘이, 이 장이 이스라엘에 남긴 것으로 기록된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샏 10:17-18 — "먼저 싸우는 자가 머리가 되리라" — 11장의 공석을 미리 연 전사.
- 민 21:21-31; 신 2:26-37 — 시혼과의 전쟁 — 11:19-22 강론의 원천 본문.
- 민 21:2 — 이스라엘의 조건부 전쟁 서원 — 11:30-31 형식의 전례.
- 레 18:21; 신 12:31 — 자녀를 불로 드리는 일의 금지 — 11:31·39과의 긴장, 본문은 연결을 명시하지 않음.
- 출 15:20; 삼상 18:6 — 소고와 춤의 승전 영접 — 11:34의 배경이자 전복.
- 삼상 22:2 — 아둘람에 모인 환난당한 자들 — 쫓겨난 이 곁에 사람들이 모이는 결, 형식 배경.
- 창 22:2 — 하나뿐인 자녀(yachid/yechidah) — 형태 관찰, 두 본문의 결말은 다름.
- 샏 21:25 — 왕이 없으므로 — 11:27의 "심판하시는 여호와"가 스쳐 말한 공백이 권의 도착점에서 진단으로 확정됨.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1:2-3에서 시작한다 — 내가 쫓겨났던 문, 그리고 그 변두리에서 곁에 모인 사람들을 떠올리며 듣는다.
- **멈춤 1:** 11:7-11에서 멈춘다 — 사과 없이 필요로만 온 부름 앞에서, 상처를 기억하면서도 모든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는 걸음.
- **멈춤 2:** 11:29-31에서 멈춘다 — 임재 다음에 끼어든 흥정의 문장. 이미 받은 것 앞에서 더 걸어 보려는 내 입의 버릇을 본다.
- **끝:** 11:36-40에서 멈춘다 — 아버지보다 의연한 딸의 목소리와, 이름 없는 이를 해마다 기억하는 딸들의 나흘 사이에 머문다.

## F · 자족성 점검

- [x] 버림(1~3)·부름(4~11)·변론(12~28)·영과 서원(29~31)·승리(32~33)·귀향과 이행(34~39)·의례(40)의 일곱 단 완결
- [x] qatsin → rosh의 협상 곡선과 "여호와 앞에서"의 계약(11절)
- [x] 변론의 네 층(역사·신학·시효·재판)과 28절의 기각
- [x] 영 → 서원 → 승리의 순서와 옷니엘(3:10)과의 배열 차이
- [x] 서원 이행의 절제된 보고(39절)와 해석 두 갈래의 미해결 보존
- [x] 딸들의 의례(40절)가 마지막 기록권을 갖는 종결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미완과 진단(1~2장),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왕이 없으므로 벌어지는 부록(17~21장)으로 움직이는데, 11장은 그 나선의 깊은 굽이다 — 구원자가 구원하면서 제 집을 무너뜨리는 지점. 옷니엘에게서는 영의 임재가 곧장 구원으로 이어졌고(3:10), 기드온은 표징을 거듭 구했고(6장), 입다는 영이 임한 다음에 이방의 흥정 문법으로 서원한다(11:30-31). 구원자들의 신학이 한 굽이씩 흐려질수록, 부르짖음마다 돌이키시는 여호와와 공홍(10:16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과 그 구원자들의 한계 사이의 거리가 벌어진다. 그런데 바로 이 장에서 입다 자신이 그 공백의 답을 스쳐 말한다 — "심판하시는 여호와와 오늘 ... 판결하시옵소서"(11:27). 사사들의 책에서 참 재판장이 호명되는 문장이 가장 흐려진 사사의 입에 놓여 있다. 변론에서는 참왕을 호명한 사람이 서원에서는 그분을 흥정의 상대로 대하는 — 그 간격이 구속사의 호 위에서 이 장의 좌표다. 구원은 임했고, 구원자는 부서졌고, 질문은 짙어졌다: 흔들리지 않는 왕은 어디 있는가.

##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닫힌 문(11:2)에서 열린 문(11:34)으로 / 네 층의 변론(11:12-27)에서 한 문장의 서원(11:30-31)으로 / 이십 성읍의 승리(11:33)에서 나홀의 애곡(11:40)으로 — 구원자의 한계가 깊어질수록 기억하는 일이 공동체의 몫으로 넘어가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1장은 '쫓겨난 사람을 머리로 세우시는 구원'과 '그 구원자가 자기 말에 묶이는 값'을 한 장 안에 같이 보여 주며 권의 하강 나선을 한 굽이 더 내리는 운동이다. 변두리의 사람이 부름을 받고(4~11절), 말이 칼보다 먼저 나가고(12~28절), 영이 임하고(29절), 그 사이에 끼어든 한 문장이 장의 후반 전체를 끌고 간다(30~40절). 그리고 이 운동은 11장에서 멈추지 않는다 — 12장에서 에브라임이 강을 건너와 따지고, 입다의 말은 이번에는 변론이 아니라 칼이 되어 요단 나루에서 '쉽볼렛' 한 단어로 사만 이천을 가르다. 말의 사람의 말이 동족을 향하는 다음 굽이까지, 나선은 계속 내려간다.

##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사사의 승전 기록이다 — 부름, 협상, 강론, 영, 이십 성읍.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버림과 부름의 아이러니다. 기업에서 지워진 사람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고, 그를 쫓아낸 사람들의 환난이 그를 부르는 통로가 된다. 본문은 이 역전을 영웅담으로 칠하지 않는다 — 입다의 첫 마디("전에 나를 미워하여")에 상처를 그대로 남겨 두고, 그런 사람을 통해 구원이 온다는 사실만 보여 준다. 둘째, 임재와 불신



의 동거다. 여호와와 영이 임한 사람 안에 조건부 흥정의 문법이 남아 있다. 본문은 그 서원을 정죄하는 문장을 하나도 쓰지 않는 대신, 그 말의 값을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나홀의 애곡까지 끝까지 따라간다 — 침묵의 서사가 평가보다 무겁다. 셋째, 기억의 이양이다. 장의 마지막 기록권이 사사의 전공이 아니라 딸들의 의례에 주어진다. 이름이 남지 않은 딸을 위해 해마다 산으로 오르는 발걸음 — 구원자의 한계가 깊어질수록, 부서진 것을 기억하는 일이 공동체의 몫으로 넘어간다. 본문은 거기까지만 보여 주고 멈춘다.

####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어떤 문 앞에서 어떤 말을 입에 올렸는가 — 이미 임한 것을 받기보다 조건을 걸어 흥정하려 한 문장이 내게도 있는가. 그리고 이름이 남지 않은 누군가를 위해, 해마다 가 주는 나홀이 내게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입다를 정죄하라고도 변호하라고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쫓겨난 사람의 보존된 상처와, 여호와 앞에 모든 말을 아뢰는 계약과, 임재 다음에 끼어든 한 문장과, 그 문장이 연 문을 차례로 보여 준다. 그리고 그 문에서 나온 딸의 목소리 — 아버지보다 의연하게, 당신이 입을 여셨으니 말씀대로 행하소서 — 를 들려준다. 입에서 낸 말이 어디까지 걸어가는지를 이토록 길게 따라가는 본문 앞에서, 독자는 자기 입의 문장들을 썬하게 된다. 변론의 입과 서원의 입이 같은 입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이 승전비가 아니라 애곡의 의례였다는 사실 — 그 두 사실 사이의 간격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암몬은 행복했으나 동족이 강을 건너온다 — 에브라임 사람들이 따지러 오고, 요단 나루에서 '쉽볼렛' 한 단어가 사만 이천의 생사를 가르는(12:1-7), 말이 칼이 되는 첫 동족의 강이 기다린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lifnei YHWH* — 여호와 앞에서.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1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 Q1. 영의 임재(11:29) 뒤의 서원(11:30-31) — 왜 더 필요했는가?

- 여호와와 영이 임한 사람이 조건부 흥정의 문장을 입에 올린다. 확신의 결핍인지, 뚝 땅에서 익힌 변경의 문법인지, 주변 세계의 전쟁 서원 관습이 스민 것인지 — 본문은 어느 쪽으로도 설명하지 않고, 꾸짖는 음성도 막는 손길도 기록하지 않는다. 임재와 서원의 순서만 보존. 이월.

##### Q2.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11:31) — 입다는 무엇을 상징했는가?

- 당시 가옥 구조상 가축이 먼저 나올 수 있었다는 제안이 있으나, '나를 영접하러(liqrati)'는 사람의 동작이다. 입다의 머릿속을 본문은 보여 주지 않는다. 그리고 34절은 "그 외에는 아들이 없고 딸도 없었더라"로 하나뿐임을 겹쳐 말한다. 비워 둔 채 보존.

##### Q3.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11:39) — 무엇을 행했는가?

- 본문은 이행의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는다. 번제 실행으로 읽는 갈래와,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의 부연에 기대어 평생 봉헌·독신으로 읽는 갈래가 해석사에 나란하다. 레 18:21·신 12:31의 인신제사 금지, 레



27:1-8의 무름 규정도 본문 끝에 있으나 11장은 어느 것도 언급하지 않는다. 어느 갈래로도 닫지 않고 본문의 절제 그대로 보존. 이월.

**Q4. "네 신 그모스"(11:24) — 암몬 왕에게 모압 신의 이름은 왜인가?**

- 그모스는 통상 모압의 신으로 전해지고 암몬의 신은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왕상 11:5). 모압·암몬의 얽힌 내력(창 19장) 배경 제안, 외교적 통칭 제안이 있으나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메사 석비의 병행 어법만 배경으로 끝에 두고 보존.

**Q5. 11:35의 비탄 —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는 왜 자기를 향하는가?**

- 옷을 찢는 아버지의 첫 발화가 딸의 운명이 아니라 자기 처지의 무너짐을 말한다. 본문은 이 비탄을 평가하지 않고, 딸의 응답(36~37절)이 아버지보다 의연하다는 대비만 남긴다. akar 어근(수 7장의 아간과 동일)의 형태 사실과 함께, 비탄의 방향을 판단 없이 보존.

**Q6. 딸의 무명성과 의례(11:40) — 이름 대신 남은 나홀은 무엇을 기억하는가?**

- 딸은 이름 없이 남고,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나홀씩 간다. letannot의 어근 tanah는 애곡으로도 낭송·기림으로도 쓰인 드문 동사다(삿 5:11). 이 의례가 곡인지 기림인지, 본문이 마지막 기록권을 딸들에게 준 그 선택이 무엇을 보존하는지 — 닫지 않고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사기 12장

JDG-012 · 역사서 · 히브리어

기드온 때와 같은 향의가 헵박("우리가 만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12:1)으로 돌아오고, 암몬과는 말로 다투던 입다가 동족과는 칼로 답하며(12:4) — 길르앗이 장악한 요단 나루턱에서 쉼볼렛(*Shibboleth*) 한 단어, 자음 하나가 형제 사만 이천의 생사를 가른 뒤(12:5-6), 평온 공식 없이 "육 년"으로 닫히는 입다의 부고(12:7)와 아들·딸·나귀의 산수로 흐르는 소사사 셋 — 구원의 길목이 동족을 거르는 검문소로 바뀌는 사사기의 안쪽 굽이.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1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또 강 — 그러나 쓰임이 다름. 11장까지 전선은 길르앗 對 암몬이었는데 12장에서는 강 자체가 전선. 강 양쪽에 적이 아니라 형제.
- 나루턱의 개조: 얇은 물목이 검문소가 됨 — 길르앗 사람들이 늘어서고 한 명씩 통과하는 줄.
- 후반부(7~15절)의 무대 전환: 함성과 물소리가 사라지고 베들레헴·아얄론·비라돈의 지명들과 무덤 넷만 남음.
- 소품: 불(말로만 등장 — "불사르리라", 1절), 칼(4절), 단어 하나(쉼볼렛 — 이삭 또는 흐르는 물), 시집보낸 딸 삼십·데려온 며느리 삼십(9절), 어린 나귀 칠십 마리(14절).
- 소재의 두 무더기: 전반부는 전부 말에서 나온 것(향의·헵박·모욕·검문·발음), 후반부는 전부 숫자(삼십·칠·십·사십·칠십·팔) — 그 사이에 사만 이천.
- 형식 소재: 12:1 = 8:1의 재방송 + 헵박 증폭("불사르리라"). 9장의 불 어휘("불이 나와서 사르리라")가 형제의 입으로 이동.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절에서 8:1이 겹쳐 들림 — 같은 향의가 한 세대를 지나 헵박이 되어 돌아옴. 친족의 입에서 나오는 "불사르리라"의 차가움.
- "죽으매 ... 장사되었더라" 네 번(7·10·12·15절) — 학살 기사 다음에 오는 부고의 후렴. 소란보다 무거운 고요.
- 온도의 급변: 전반부(1~6절)는 권에서 가장 시끄러운 대목, 7절부터 소리가 끊기고 목록만 흐름.
- 이 장에 여호와와의 발화 없음 — 여호와와의 이름은 입다의 회고 인용으로 단 한 번(3절). 사람의 말만 오가고 그 말이 칼이 됨.
- 감각: 검문 줄 곁으로 계속 흐르는 물소리, 단어 하나에 움직이는 손("잡아서"), 후반부 잔칫집(혼인 예수 번)의 소리.
- 발화량의 단계적 감소: 대화(1~3절) → 서술(4~6절) → 정형구 목록(7~15절).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 우리가 만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 15절: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으매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 에브라임으로 열려 에브라임 땅으로 닫히는 액자 — 협박의 발신지가 마지막에는 안장의 장소.
- 따지는 의문("~하지 아니하였느냐")으로 시작해 담담한 보고("장사되었더라")로 종결 — 물음에서 묘비로.
- '부르다'의 어긋남(부르지 않았다 對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은 끝까지 판정되지 않은 채 남음.
- 마지막 절의 "아말렉 사람의 산지" — 옛 원수의 이름이 지명에 남은 땅. 이 장의 칼은 그 원수가 아니라 형제에게 갔음.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에브라임 사람들(항의→모욕→패주→도망), 입다(반론자→지휘관→부고의 주인), 길르앗 사람들(군대이자 검문관), 도망하는 자(익명 단수 — 한 명씩 통과하는 그림), 입산·엘론·압돈, 여호와(입다의 회고 인용 속에만, 3절).
- 중심 사상: 정체 —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5절). 자기 증언("아니라")이 기각되고 발음이 판결함. 출신이 몸의 차원에서 드러남.
- 입다의 반론 5단(2~3절): 불렀다 — 구원하지 않았다 — 목숨을 손에 두고 건너갔다 — 여호와께서 넘겨 주셨다 — 어찌하여 오늘 싸우려느냐. 11:14-27의 외교 강론과 같은 화법, 다른 전개.
- '도망한 자(palit)'의 부메랑: 4절에서는 길르앗에게 던진 모욕, 5절에서는 에브라임 자신의 처지 — 같은 단어의 연속 사용.
- 호칭: "길르앗 사람 입다"(7절) — 11:1의 첫 소개와 같은 출신 표기가 부고에도 쫓겨났던 땅의 이름에 묶인 시작과 끝.
- vayishchatuhu(6절) — 처형 동사의 어근이 shachat(제물·짐승의 도살) — 전투 동사가 아닌 도살 동사. 형태 관찰.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시비와 반론 — 협박("불사르리라")과 다섯 단의 회고 반박.
- 컷 2 (4절): 개전 — 서술자가 개전 사유를 명기: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 도망한 자라 하였음이라." 모욕한 문장이 전쟁의 원인.
- 컷 3 (5~6절): 나루턱 검문 — 청원·질문·부인·시험·판정·집행의 여섯 단 절차, 반복 서술, 합계 사만 이천.
- 컷 4 (7~15절): 부고 넷 — 입다 육 년(평온 공식 없음), 입산 칠 년, 엘론 십 년, 압돈 팔 년. "죽으매 ... 장사되었더라"의 후렴.
- 컷 3 내부: 절차가 행정 문서처럼 정밀할수록 기록의 온도는 내려감 —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되풀이된 관행의 서술.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shibbolet(שִׁבְּוֹלֶת) — 이삭(창 41:5) 또는 흐르는 물(시 69:2). 시험된 것은 뜻이 아니라 첫 자음 š.
- sibbolet(סִבְּוֹלֶת) — 사맥(s)으로 시작하는 표기. 발음 차이가 철자로 본문에 보존된 드문 사례.

- *maabrot haYarden*(מַעְבְּרוֹת הַיַּרְדֵּן) — 요단 나루터. 어근 *avar*(건너다)의 명사형 — 1·3·5절의 동사들과 한 어근.
- *vayilkod*(וַיִּלְכֹּד) — 장악하다(5절). 3:28과 7:24의 도하 지점 점령에 쓰인 *lakad* 계열.
- *pelite Efrayim*(פְּלִיטֵי אֶפְרַיִם) — 에브라임의 도망자들. 4절의 모욕과 5절의 서술이 동일 어구.
- *nisrof baesh* — 불로 사르리라(1절). / *vaasimah nafshi vekhappi* — 내 목숨을 내 손바닥에 두고(3절, 삼상 19:5; 28:21의 관용구).
- *lo yakhin ledabber ken*(לֹא יָכִין לְדַבֵּר כֵּן) —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6절).
- *vayishchatuhu*(וַיִּשְׁחַטּוּהוּ) — 그를 죽였더라(6절). 어근 *shachat* — 도살 동사. 형태 관찰만.
- *arbaim ushnayim elef* — 사만 이천(6절). / *shesh shanim*(שֵׁשׁ שָׁנִים) — 육 년(7절), 사사 재임 최단.
- *Ivtan*(אִבְטָן) · *Elon*(אֵילָן) · *Avdon*(עַבְדֹּן) — 소사사 셋.
- *ayarim*(אֵיָרִים) — 어린 나귀들(14절). 10:4의 야일에게서 나귀(*ayarim*)와 성읍(*arim*)이 소리로 겹치던 단어.
- *Ayyalon*(אֵיָלָן, 12절) — 엘론이 묻힌 곳. 자음 본문에서 엘론(אֵילָן)과 동일 철자 — 모음(발음)만 다름. 형태 관찰만.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8:1 평행의 증폭: 같은 에브라임의 항의 — 기드온의 비유("끝물 포도", 8:2)와 "노여움이 풀리나라"(8:3) 對 입다의 회고 반박과 즉시 개전(12:4). 본문은 평행만 두고 판정하지 않음.
- 평온 공식의 부재: 옷니엘(3:11)·에훗(3:30)·기드온(8:28)에게 붙던 "땅이 평온하였더라"가 입다에게 없음 — "사사가 된 지 육 년"(12:7)만.
- 숫자의 좌표: 미디안의 칼 든 자 십이만(8:10) 곁에 동족 사만 이천(12:6) — 서술자는 비교하지 않고 두기만 함.
- 나루터 모티프의 반전: 3:28(모압 차단 = 구원) → 7:24-25(미디안 퇴로 차단) → 12:5-6(동족 검문 = 학살). 같은 무대 장치가 권의 진행과 함께 안쪽을 향함.
- *avar* 어근 사슬: 건너갈 때(1절) — 건너가서(3절) — 건너가게 하라(5절) — 나루터(*maabrot*). 한 어근이 시비·회고·검문을 꿰뚫음.
- 소사사 목록의 틀: 돌라·야일(10:1-5)과 입산·엘론·압돈(12:8-15)이 입다 서사를 앞뒤로 감싸는 프레임. 야일의 나귀 삼십과 압돈의 나귀 칠십 — 변영 산수의 짝.
- 발화량의 감소 구조: 대화 → 서술 → 정형구. 말이 무너진 장이 말의 양 자체를 줄이며 닫힘.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셈어 방언 분화 — 원시 셈어 치찰음 계열(š/s/t)이 지역 방언마다 다르게 실현됨. 요단이라는 지리 경계가 발음의 경계이기도 했음. 12:5-6의 언어학적 배경.
- 도하 지점 통제 — 강의 나루는 통행·퇴로의 요지(마리 문서의 유프라테스 나루 통제 기록 등). 12:5의 배경.
- 혼인 동맹 — 딸을 밖으로 보내고 며느리를 들이는 근동의 표준 동맹 수단. 입산의 삼십·삼십(12:9) 배경.
- 나귀와 신분 — 나귀를 타는 것은 근동에서 왕족·유지의 표지(마리 서신 등). 야일(10:4)·압돈(12:14)의 배경.
- LXX: š 음소가 없어 쉽볼렛/십볼렛의 차이가 번역에서 증발 — στάχυς(이삭) 번역 또는 우회 표현. 12:7 '성읍들' 복수의 사본 차이. 12:6의 ἔσφαξαν — 도살 결의 동사. 전부 배경.

- 랍비 전통: 창세기 랍바 60장 등이 입다 세대의 갈등을 두고 지도자 책임을 논의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샷 12:1-4 ↔ 샷 8:1-3 (같은 도발, 다른 결말 — 비유와 풀린 노여움 對 회고와 개선)
- 샷 12:6 ↔ 샷 8:10 (사만 이천과 십이만 — 동족과 외적의 숫자 좌표)
- 샷 12:5 ↔ 샷 3:28; 7:24-25 (요단 나루턱 — 구원의 길목이 학살의 길목으로)
- 샷 12:1 ↔ 샷 9:15, 20, 49 (불 모티프 — 우화의 불이 형제의 협박으로)
- 샷 12:8-15 ↔ 샷 10:1-5 (소사사 목록의 프레임, 나귀 산수의 짝)
- 샷 12:4 ↔ 샷 11:1-3 (도망자라는 모욕 — 쫓겨났던 입다의 개인사가 스치는 단어)
- 샷 12:5-6 ↔ 샷 20-21장 (동족의 칼 — 베냐민 내전의 예고)
- 샷 12장 ↔ 샷 21:25 (왕이 없으므로 — 통합 실패가 향하는 권의 도착점)
- shibboleth ↔ 창 41:5-7; 시 69:2, 15 (이삭/흐르는 물 — 어휘 배경)
- 샷 12:6 ↔ 마 26:73 (말소리가 정체를 표명함 — 후대 장면, 배경)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북쪽으로 올라오는 군중의 발소리. 에브라임이 입다 앞에 선다 —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외동딸을 묻은 지 얼마 안 된 얼굴이 답한다 —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 목숨을 내 손에 두고 건너갔노라. 화면이 전투로 끊긴다 — 자막: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는 도망한 자라 하였음이라. 함성이 잦아들면 강. 얇은 물목에 길르앗 사람들이 늘어서고, 도망자가 한 명씩 다가온다. 나를 건너가게 하라 —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 아니라 —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 십볼렛. 손이 그를 붙든다. 물은 계속 흐른다. 절차가 거듭되고, 자막이 찍힌다: 죽은 자가 사만 이천 명이었더라. 묘비 하나 — 사사가 된 지 육 년이라. 화면이 밝아진다 — 베들레헴의 잔칫집, 나가는 가마 서른과 들어오는 가마 서른. 아얄론의 비석. 비라돈 길 위의 나귀 칠십 마리 행렬. 마지막 자막 —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강물 소리만 남고 암전.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쉽볼렛 — 자음 하나의 거리, 첫 동족의 강"
- 초벌 부제: "기드온 때의 향의가 협박으로 증폭되어 돌아오고, 말의 사람 입다가 말로 풀지 못한 시비가 내전이 되며 — 요단 나루턱에서 단어 하나가 형제 사만 이천을 가른 뒤, 평온 공식 없는 육 년의 부고와 아들·딸·나귀의 산수로 흘러가는 사사기의 안쪽 굽이"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8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8:1 평행 증폭 + 나루턱 모티프 반전 + 평온 공식 부재 + 방언 분화·도하 통제·혼인 동맹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십볼렛 검문(12:5-6)을 '배타의 죄'에 대한 설교나 현대 정치 비유로 일반화하지 않고, 한 음소가 기준이 된 절차의 구조와 방언 분화라는 언어학적 배경의 관찰로만 둬.
- 기드온의 답(8:2-3)과 입다의 반박(12:2-3)을 '온유한 화법이 옳다'는 처세 교훈으로 누르지 않고, 본문이 두 장면을 평행으로 두기만 한다는 배열 사실로 보존.
- 평온 공식의 부재(12:7)를 입다에 대한 신적 심판의 단정으로 읽지 않고, 정형구의 유무라는 형식 관찰로만 기록.
- 소사사 셋의 숫자 목록을 '세속적 번영의 공허'로 평가하지 않고, 사건 없는 기록이라는 사실과 그 고요의 양면(회복인지 공백인지)을 열린 질문으로 이월.
- vayishchatuhu(도살 동사)와 11장의 서원을 잇는 추론을 단정하지 않고, 동사의 결이라는 형태 관찰로만 둬.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12장은 기드온 때와 같은 에브라임의 항의가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12:1)라는 협박으로 증폭되어 돌아오고,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12:2)라는 입다의 회고 반박이 평화를 만들지 못한 채 내전이 터지며(12:4), 길르앗이 장악한 요단 나루턱에서 십볼렛(Shibboleth) 한 단어 — 자음 하나 — 가 형제 사만 이천의 생사를 가른 뒤(12:5-6), "사사가 된 지 육 년"(12:7)이라는 평온 공식 없는 부고와 입산·엘론·압돈의 숫자 목록(12:8-15)으로 흘러가는, 바깥을 향하던 칼이 처음으로 동족의 강을 만나는 장이다.

**한 문단:** 북쪽으로 올라오는 발소리로 장이 열린다.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 한 세대 전 기드온이 들었던 그 항의인데, 이번에는 끝에 불이 붙어 있다.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외동딸을 묻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답한다 —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 목숨을 내 손에 두고 건너갔노라. 정확한 회고였지만 다음 절은 전투다. 서술자는 개전 사유를 한 문장으로 명기한다 —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는 도망한 자라 하였음이라. 모욕이 칼이 되었고, 칼이 강으로 갔다. 길르앗이 나루턱을 장악한다 — 에훗이 모압을 꿰뚫던 그 길목이다. 도망자가 한 명씩 다가온다. 나를 건너가게 하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라. 그러면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십볼렛 — 손이 그를 붙든다. 뜻이 아니라 첫 자음이 시험되었고, 물은 계속 흘렀고, 합계는 사만 이천이었다. 그리고 부고 — 사사가 된 지 육 년이라. 평온하였더라는 문장은 오지 않는다. 대신 잔칫집과 나귀 행렬의 숫자들이 흘러가고, 마지막 무덤은 에브라임 땅에 놓인다.

#### B ·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전선이 된 강, 검문소로 개조된 나루턱. 말로만 타는 불, 단어 하나라는 소품. 말의 무더기(전반)와 숫자의 무더기(후반). |



| 단계         | 핵심 발견                                                                               |
|------------|-------------------------------------------------------------------------------------|
| 2 첫 느낌·분위기 | 협박으로 돌아온 항의의 서늘함, 네 번의 "장사되었더라", 폭풍에서 적막으로 꺾이는 온도, 여호와와 발화가 없는 장.                   |
| 3 시작과 끝    | 에브라임으로 열려 에브라임 땅으로 닫히는 액자. 따지는 물음에서 묘비로. 마지막 절의 "아말렉 사람의 산지" — 어긋난 칼의 방향.           |
| 4 등장인물·사상  | 중심 질문은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나" — 자기 증언이 기각되고 발음이 판결. '도망한 자'의 부메랑(4절 모욕 → 5절 처지).            |
| 5 장면 컷     | 시비(1~3)/개전(4)/검문(5~6)/부고 넷(7~15). 컷 3은 청원·질문·부인·시험·판정·집행의 여섯 단 절차.                  |
| 6 의문·발견·정보 | 자음 하나가 철자로 보존됨(쉽볼렛/십볼렛). 십이만 곁의 사만 이천. 평온 공식의 부재. <i>avar</i> 어근 사슬. 엘론/아알론의 동일 자음. |
| 7 동영상      | 군중의 발소리 → 협박과 반박 → 물목의 검문 줄 → 사만 이천의 자막 → 묘비 → 잔칫집과 나귀 행렬 → 에브라임 땅의 무덤.             |
| 8 초벌 제목·부제 | "쉽볼렛 — 자음 하나의 거리, 첫 동족의 강"                                                          |
| 9 기도·내면    | 같은 단어를 두 가지로 발음하는 형제들 — 내 입의 말이 다리인지 검문인지, 묻지 않고 물가에 머문다.                           |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걸

- 결 1 — 같은 항의, 두 번째 방송의 증폭:** 12:1은 8:1의 재방송이다 —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한 세대를 지나며 한 마디가 늘었다 — "불사르리라." 기드온은 자기를 낮추는 비유로 노여움을 풀었고(8:2-3), 입다는 정확한 사실의 회고로 반박했는데 다음 절이 전투다(12:4). 본문은 두 장면을 평행으로 두기만 하고 판정하지 않는다. 다만 9장에서 우화와 저주를 타고 다니던 불의 어휘가 여기서 형제의 입으로 옮겨와 있다는 사실 — 협박의 언어가 권 안에서 학습되고 있다는 흔적 — 을 형태로 남긴다.
- 결 2 — 쉽볼렛, 자음 하나의 검문:** 시험된 것은 단어의 뜻이 아니라 첫 자음이다. 본인이 "아니라"라고 말해도 혀가 그를 말한다 — 자기 증언이 기각되고 발음이 판결하는 절차. 서술자는 이 절차를 청원·질문·부인·시험·판정·집행의 여섯 단으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되풀이된 관행으로 기록하고 합계를 적는다 — 사만 이천. 미디안의 십이만(8:10) 곁에 놓이는 숫자인데, 이번 칼은 동족을 향했다. 그리고 처형의 동사는 전투 동사가 아니라 도살 동사(*shachat*)다. 본문은 평가 없이, 문체의 온도만으로 이 강의 차가움을 전한다.
- 결 3 — 나루턱의 지리, 구원의 길목이 거르는 체로:** 3:28에서 에훗은 요단 나루턱을 장악해 모압을 끊었다 — 막는 것이 구원이었다. 7:24-25에서 에브라임은 강가를 장악해 미디안의 퇴로를 막았다 — 그때는 불렸고, 응답했다. 12:5-6에서 같은 무대 장치가 동족을 거른다. 어근도 같다 — *avar*(건너다)가 1절의 시비, 3절의 회고, 5절의 청원과 나루턱(*maabrot*)이라는 명사까지 한 장을 뒀다. 같은 강, 같은 동사, 같은 전술이 권의 진행과 함께 방향만 안쪽으로 굽었다. 그리고 입다의 부고에는 평온 공식이 없다 — "사사가 된 지 육 년이라." 정형구의 침묵이 이 굽이의 깊이를 잰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샏 8:1-3 — 같은 에브라임의 항의와 기드온의 비유, "노여움이 풀리니라" — 12:1-4의 대조 평행.
- 샏 8:10 — 미디안 연합의 칼 든 자 십이만 — 사만 이천이 놓이는 비교 좌표.
- 샏 3:28 — 에훗의 나루턱 장악(모압 차단) — 같은 길목, 반대 방향의 전사.
- 샏 7:24-25 — 에브라임의 강가 장악(오렐·스엠펜) — 불렸던 기억의 전거.
- 샏 9:15, 20, 49 — "불이 나와서 사르리라" — 12:1 협박의 불이 잇는 모티프.

- 샷 10:1-5 — 돌라·야일의 소사사 틀과 나귀 삼십 — 12:8-15의 프레임 짝.
- 샷 11:1-3 — 쫓겨난 입다 — '도망한 자'라는 모욕이 스치는 개인사.
- 샷 20-21장 — 베냐민 내전 — 12장의 동족의 칼이 전면화되는 부록, 21:25의 도착점.
- 창 41:5-7; 시 69:2 — shibboleth의 두 용례(이삭/흐르는 물) — 어휘 배경.
- 마 26:73 —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 말씨가 정체를 드러내는 후대 장면, 배경.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2:1에서 시작한다 — 내게 돌아온 항의가 어떤 말로 증폭되어 있는지, 그 말 끝에 불이 붙어 있는지 듣는다.
- **멈춤 1:** 12:2-3에서 멈춘다 — 정확한 회고가 평화를 만들지 못하는 순간. 옳은 말과 푸는 말의 간격을 본다.
- **멈춤 2:** 12:6에서 멈춘다 — 뜻이 아니라 발음이 시험되는 검문. 내 말의 속이 아니라 껍질로 사람을 거른 적이 있는지 본다.
- **끝:** 12:7과 12:15 사이에서 멈춘다 — 평온 공식 없는 부고와 에브라임 땅의 무덤. 닫히지 않은 것들 곁에 머문다.

#### F · 자족성 점검

- [x] 시비(1~3)·개전(4)·검문(5~6)·부고 넷(7~15)의 네 단 완결
- [x] 8:1 평행의 증폭("불사르리라")과 두 결말의 대조
- [x] 십볼렛/십볼렛 — 자음 하나가 철자로 보존된 검문 절차의 여섯 단
- [x] 나루텍 모티프의 반전(3:28 → 7:24-25 → 12:5-6)과 avar 어근 사슬
- [x] 평온 공식의 부재(12:7)와 소사사 셋의 숫자 목록(12:8-15)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미완과 진단(1~2장),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왕이 없으므로의 부록(17~21장)으로 움직이는데, 12장은 그 나선이 안으로 굽는 지점이다 — 웃니엘의 깨끗한 사이클에서 기드온의 흔들림과 아비멜렉의 유흥을 지나, 적과 싸우던 칼이 여기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동족의 강을 만난다. 3장에서 모압을 끊던 나루텍이 형제를 거르는 검문소가 되고, 8장에서 비유로 풀리던 항의가 협박과 내전이 되고, 외적의 숫자(십이만) 곁에 동족의 숫자(사만 이천)가 적힌다. 왕 없는 시대의 통합 실패가 가장 작은 단위 — 음소 하나 — 로 내려와 측정되는 장이며, 발음 하나로 형제를 가려 죽이는 이 물목은 20~21장의 베냐민 내전을 미리 보여 주는 예고편이다. 그리고 권의 heart — 부르짖음마다 일으키시는 탄식 섞인 궁핍 — 의 곁에서 보면, 이 장의 가장 무거운 사실은 여호와와의 발화가 없다는 것이다. 하늘의 말이 회고 속 인용(12:3)으로만 남은 장에서 사람의 말은 협박과 모욕과 검문으로 내려가고, 입다의 부고에서는 평온의 정형구마저 끊긴다. 구원자들의 한계가 백성의 한계와 포개지며, 본문은 그 모든 결락으로 참왕의 부재를 가리킨다.

바깥을 향하던 칼(11장 암문)에서 동족의 강(12:4-6)으로 / 구원의 길목(3:28)에서 학살의 길목(12:5-6)으로 / 말의 다리(11:14-27)에서 말의 검문(쉽볼렛)으로, 검문에서 침묵(숫자 목록)으로 — 통합의 실패가 음소 하나의 단위까지 내려가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2장은 '같은 말을 쓰는 형제 사이의 미세한 차이가 생사의 기준이 되기까지'의 하강을 기록하는 운동이다. 부름의 어긋남(1~2절)이 협박이 되고, 협박이 모욕이 되고(4절), 모욕이 개전 사유로 명기 되고, 전쟁이 검문 절차가 되어(5~6절) 함께 사만 이천에 이른다. 그 뒤에 오는 것은 말의 소멸이다 — 7절부터 장은 대화 없이 정형구와 숫자로만 흐른다. 그러나 권은 멈추지 않는다. 13장에서 사이클이 다시 도는데 이번에는 부르짖음조차 기록되지 않는다 — 블레셋 사십 년이 적막 속에 흐르고, 구원은 군대가 아니라 한 아이의 탄생 예고로 다시 시작된다. 12장의 벡터는 전권을 '구원자들의 한계에서 왕이 없으므로(21:25)로' 끌고 가는 하강 나선의 안쪽 굽이이며, 그 굽이의 깊이만큼 참왕의 필요가 선명해진다.

###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지파 간 군사 충돌의 기록이다 — 시비, 전투, 검문, 함께.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무너지고 있다. 첫째, 말이다. 이 장에서 칼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전부 말이었다 — 부르짖지 않았다는 항의, 불사르리라는 협박, 도망한 자라는 모욕. 서술자는 개전 사유를 무기나 영토가 아니라 한 문장의 말("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 하였음이라", 4절)로 명기한다. 말이 다리 노릇을 그만두고 칼이 되는 과정이 절 단위로 기록된 셈이다. 둘째, 정체의 검문화다.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라는 물음 앞에서 자기 증언은 기각되고 발음이 판결한다. 말의 속(뜻)이 아니라 겹질(자음)이 경계가 되는 순간 — 같은 하나님, 같은 언어, 같은 강을 공유하는 형제 사이에서 차이의 최소 단위가 사형의 기준이 된다. 셋째, 하늘의 침묵이다. 여호와와 영이 임하던 11장과 달리 12장에는 여호와와 발화가 없고, 그 이름은 입다의 회고 인용에만 남는다. 구원의 기억이 자기 정당화의 어휘가 되고, 평온의 정형구가 부고에서 끊기고, 마지막에는 사건 없는 숫자들만 흐른다. 본문은 거기까지만 보여 주고 멈춘다.

###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 입의 단어 하나는 오늘 누구에게 다리이고 누구에게 검문인가 — 나는 말의 속을 듣는 사람인가, 말의 겹질로 사람을 거르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길목은 사람을 건너가게 하는 곳인가, 가려 세우는 곳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판결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항의 앞에 섰던 두 사람의 다른 대답을 평행으로 두고, 한 명씩 물가로 다가오는 도망자의 줄을 보여 주고, 뜻이 아니라 자음이 시험되는 절차를 절차 그대로 들려준다. 그리고 숫자를 적는다 — 사만 이천. 흐르는 물을 뜻할 수 있는 단어가 흐르는 물가에서 경계가 되었다는 사실, 발음 하나로 죽이던 장이 발음만 다른 두 이름(엘론과 아얄론)을 나란히 두고 닫힌다는 형태 — 그 미세한 차이의 무게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형제를 가르는 기준이 끝내 음소 하나까지 작아질 수 있다면, 형제를 잇는 일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되는가. 본문은 답하지 않고, 그 물음을 나루턱의 물소리 곁에 둔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동족의 강 뒤에 적막이 오고 —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블레셋 사십 년이 흐르는데, 이번에는 부르짖음조차 기록되지 않은 채(13:1), 소라 땅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와 사자가 찾아와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의 탄생을 예고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aabrot* — 나루턱, 건너가게 하는 곳.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1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 Q1. 같은 도발, 다른 결말(8:1-3 對 12:1-4) — 무엇이 달랐는가?

- 기드온은 비유 한 마디로 노여움을 풀었고, 입다는 정확한 회고로 반박했는데 전쟁이 왔다. 협박의 유무 (8:1에는 "불사르리라"가 없음), 화법의 차이, 시점의 차이(외동딸을 잃은 직후) — 어느 것이 결정적이었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보존.

#### Q2. 말의 사람 입다 — 왜 동족 앞에서는 말이 평화를 만들지 못했는가?

- 장로들과 협상하고(11:9-10), 암몬 왕에게 외교 서신을 보내고(11:14-27), 서원의 말로 자신을 묶던 사람(11:30-31)이 동족의 시비 앞에서는 반박 다음 절에서 개전한다. 말로 살아온 사람의 말이 멈춘 순간 — 본문은 동기를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 Q3. 한 음소의 검문(12:5-6) — 서술자는 왜 평가하지 않는가?

- 발음 하나로 형제를 가려 죽이는 절차를 본문은 옹호도 비판도 하지 않고, 절차의 단계와 합계만 기록한다. 사사기 서술자의 이 침묵이 무엇을 들고 있는지 — 17~21장의 "왕이 없으므로"와 어떻게 잇닿는지 — 는 권 전체를 읽으며 열어 둔다. 보존.

#### Q4. 사만 이천(12:6) — 이 숫자의 무게는 어디에 놓이는가?

- 미디안의 칼 든 자 십이만(8:10) 곁에 동족 사만 이천이 놓인다. 서술자는 두 숫자를 비교하지 않고 두기만 한다. 외적과의 전쟁 기록과 같은 문체로 적힌 동족의 숫자 — 그 동일한 문체가 의도인지 관행인지 닫히지 않는다. 보존.

#### Q5. 평온 공식의 부재(12:7) — "땅이 평온하였더라"는 왜 끊겼는가?

- 웃니엘·에훗·기드온에게 붙던 정형구가 입다에게 없고, 재임 육 년이라는 최단 기록만 남는다. 정형구의 소멸이 시대의 변화를 표시하는 것인지, 입다 개인의 그늘인지 — 형식 관찰만 두고 이월한다. 보존.

#### Q6. 소사사 셋의 산수(12:8-15) — 이야기 없는 안정은 무엇의 기록인가?

- 아들 삼십·딸 삼십·아들 사십·손자 삼십·나귀 칠십 — 사건도 적의 이름도 부르짖음도 없는 숫자의 시대. 학살 다음에 오는 이 고요가 회복인지 공백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압돈이 에브라임 땅에 묻히는 마지막 절(12:15)의 배열과 함께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사사기 13장

JDG-013 · 역사서 · 히브리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13:1)로 도는 마지막 바퀴 — 그런데 이번에는 부르짖음이 없다. 그 침묵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먼저 찾아와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13:5)를 고지하고, "내 이름은 기묘자라(*peti*)"(13:18)는 문답과 제단 불꽃의 상승(13:20)을 지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13:25)로 닫히는 — 청하지 않은 백성을 위해 태에서부터 구원자를 빚으시는 삼손 이야기의 개막.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1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1절의 민족 광각(악행·사십 년·블레셋) → 2절부터 소라 땅 한 집으로 하강, 끝까지 좁은 화각 유지. 집 — 들(9절) — 들의 바위(19절) — 마하네단(25절).
- 블레셋 사람은 한 명도 무대에 등장하지 않음 — 압제 사십 년이라는 자막과 전선 없는 화면의 대비.
- 부재의 소품: 포도주·독주(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먹지 말라), 삭도(*morah* — 대지 말라). 금지로만 존재하며 무대에 오르지 않는 소품들.
- 실재의 소품: 염소 새끼와 소제(15·19절), 들의 바위(제단이 되는 평범한 돌), 불꽃(20절 — 하늘로 오르는 수직 운동).
- 소재의 두 무더기: 결핍의 어휘(악·압제·불임·공포) 對 개시의 어휘(임신·탄생·복·움직이기 시작) — 그런데 결핍 쪽에 '부르짖음'이 없음.
- 형식 소재: 13:1 사이클 공식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한 칸이 빈 채 구원자 준비(2절)가 곧바로 개시. 5절 *yachel*과 25절 *vattachel* — 같은 어근 *chalal*의 수미 묶음.
- 이름의 비대칭: 마노아는 이름이 있고, 계시를 두 번 다 먼저 받는 여인은 이름이 없음. 2절 — 결핍의 이중 표기("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절의 갑갑함 — 악행·압제·끝. 부르짖는 소리가 없음. 사십 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응해 버린 공기.
- 아무도 청하지 않았는데 2절에서 준비가 시작되는 일방성 — 이 장의 기본 공기.
-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3회(4·7·14절) — 아이보다 규정이 먼저 와 있는 순서. 존재보다 부름이 앞섬.
- 전쟁 사사기 한복판의 가정 드라마 — 칼도 나팔도 없이 부엌과 들녘만 비추는 카메라. 구원이 군대 소집이 아니라 태의 소식으로 열리는 스케일 역전.
- 세 화자의 문장 유형: 사자 = 명령·약속의 직조 / 마노아 = 의문문의 연쇄 / 여인 = 보고와 논증.

- 20절의 감각 — 식탁이 제단으로, 환대가 경배로 뒤집히는 불꽃. 직후 얼굴을 땅에 댄 정적.
- 18절 peli(형용사)와 19절 mafli laasot(동사) — 이름으로 거절된 단어가 행동으로 보여지는 배열. 형태 관찰.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 25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 민족의 악행으로 열려 한 사람 위의 영의 움직임으로 닫힘. '넘겨 주시니라'와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의 주어가 둘 다 여호와 — 심판과 개시가 같은 손.
- 시간 단위의 대비: 사십 년(이 책의 최장 압제) 對 '움직이기 시작'(가장 작은 첫 동작). 그 사이에 한 가정의 아홉 달.
- 광각에서 마하네단이라는 좁은 지명으로 — 그런데 그 지명이 '단의 진영'. 전쟁 없던 장의 끝에 군사 어휘가 지명으로 놓임.
- 1절에 부르짖음이 없고 24절에 복이 있음 — 요청 없이 주어진 것들의 목록으로서의 한 장.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호와와 사자(최다 발화), 마노아의 아내(이름 없이 최다 동작 — 두 번의 수신·보고·달려감·논증·출산과 명명), 마노아(기도·질문·공포), 삼손(24절~), 태 속의 아이(부재하면서 규정의 중심), 이스라엘과 블레셋(1절에만).
- 중심 사상: 지명(指名) — 민 6장의 나실인은 자원 서원(기간 한정, 종료 후 일상 복귀)인데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본인 의사 이전에 구별됨. 서원이 아니라 부름.
- 부름의 한정: "구원하기 시작하리라"(13:5) — 완성이 아니라 개시만. 탄생 고지 안에 구원자의 폭이 미리 새겨짐.
- 탄생 고지 양식: 불임 명시(2) → 현현·고지(3~5) → 보고(6~7) → 재확인 기도와 재방문(8~14) → 제의·인지(15~23) → 출생·명명(24) → 성장 공식과 영의 개시(24b~25). 창 18장·삼상 1장·삿 6장과 같은 결.
- 재방문의 방향: 마노아의 기도는 "우리에게"(8절)였는데 9절은 여인에게 먼저 —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 22~23절 대비: 남편의 공포("반드시 죽으리로다") 對 아내의 세 겹 논증(수납·보이심·말씀하심) — 같은 광경에서 반대 결론. 이 장의 신학자는 이름 없는 쪽.
- 염소 새끼의 용도 전환: 환대의 음식(15절) → 번제물(19절). 사이에 16절 —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 괄호("마노아가 여호와와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 lefaamo(25절) — 어근 paam은 치다·두드리다·요동하다. 창 41:8(번민)·시 77:4(불안)와 같은 어근. 잔잔한 인도가 아니라 충동에 가까운 동사의 그림. 배경.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바귀의 압축 — 다시 악, 사십 년, 블레셋. 부르짖음 없음.
- 컷 2 (2~7절): 첫 방문 — 불임의 여인에게 고지: 임신·아들·3중 규정·태로부터의 나실인·구원의 개시. 여인의 보고("하나님의 사람 ... 심히 두려우므로").



- 컷 3 (8~14절): 기도와 재방문 — 다시 여인에게 먼저. 양육법을 묻는 질문(8·12절)에 어머니의 금기를 반복하는 답(13~14절) — 질문과 답의 어긋남.
- 컷 4 (15~23절): 음식 제안 → 번제 전환 → 이름 문답(기묘자) → 바위 위의 번제와 기이한 일 → 불꽃 상승과 앞드림 → 공포와 논증.
- 컷 5 (24~25절): 출생 — 명명(삼손) — 성장·복 — 마하네단에서 영의 첫 움직임.
- 컷 4의 인지 구조: 21절 "마노아가 그제야 ... 알았더라" — 알아봄이 떠남 이후에 옴.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aqarah*(אָקָרָה) —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2절). 사라(창 11:30)·리브가(창 25:21)·라헬(창 29:31)·한나(삼상 1장)로 이어지는 계보의 단어.
- *malakh YHWH*(מַלְאֲכֵי יְהוָה) — 여호와와 사자(3절). 창 16장 하갈에게 처음 등장하는 표현.
- *hinnakh harah*(הִנֵּנִי הָרָה) — 보라 네가 임신하여(3·5·7절의 고지 공식).
- *nezir Elohim*(נָזִיר אֱלֹהִים) — 하나님의 나실인(5·7절). 어근 *nazar* = 구별하다·떼어 두다. 민 6장의 *nazir*와 같은 단어, 서원 주체가 다름.
- *yachel lehoshia*(יָחֵל לְהוֹשִׁיעַ) — 구원하기 시작하리라(5절). *yachel*은 *chalal*의 사역형.
- *morah*(מֹרָה) — 삭도(5절). / *yayin veshekhar*(יַיִן וְשֵׁכָר) — 포도주와 독주(4·7·14절).
- *ish haElohim*(אִישׁ הָאֱלֹהִים) — 하나님의 사람(6·8절). 모세(신 33:1)·엘리아(왕상 17:18)의 칭호 — 여인이 방문자를 선지자급으로 인정한 표지.
- *pele*(פֶּלִיא) — 기묘하다·헤아릴 수 없다(18절). / *mafli laasot*(מַפְלִיא לַעֲשׂוֹת) —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19절). 같은 어근 *pala*의 형용사와 동사.
- *Shimshon*(שִׁמְשׁוֹן) — 삼손(24절). *shemesh*(שֶׁמֶשׁ, 해)에서 온 이름 — '작은 해'의 결. 인근 지명 벤세메스(해의 집)와 같은 어근, 배경.
- *vattachel ruach YHWH lefaamo*(וַתִּתְּחַל רוּחַ יְהוָה לְפָעָמוֹ) — 여호와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25절). *vattachel* = *chalal*, 5절과 같은 어근. *lefaamo*의 어근 *paam* = 치다·두드리다·요동하다.
- *Machaneh Dan*(מַחֲנֵה דָן) — 단의 진영(25절). 18:11-12에 지명의 내력 —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사이클 변형: 악행(1a) — 압제(1b) — [부르짖음 없음] — 구원자 준비(2절~). 3:9, 3:15, 4:3, 6:6, 10:10과 비교할 때 유일하게 부르짖음이 빠진 바퀴.
- '시작'의 인클루지오: 5절 *yachel lehoshia* ↔ 25절 *vattachel* — 같은 어근 *chalal*이 고지의 약속과 장의 결말을 묶음.
- 탄생 고지 양식의 일곱 단: 불임 — 현현·고지 — 보고 — 재방문 — 제의·인지 — 출생·명명 — 성장·개시.
- 두 번 다 여인에게 먼저(3·9절) — 남편의 기도("우리에게")와 어긋나는 방향. 질문(아이의 양육법)과 답(어머니의 금기 반복)의 어긋남(8·12절 對 13~14절).
- 규정 발화의 역비례: 어머니의 금기(임신 기간 한정)는 3회, 아이의 금기(평생)는 1회 — 짧은 금기가 자주, 긴 금기가 한 번.
- *pele* 어근 사슬: 이름 문답의 거절(18절) → 행동의 현시(19절). 창 32:29(압박의 같은 문답)와 평행.
- 인지의 지연: 16절 괄호("알지 못함이였더라") → 21절 "그제야 알았더라" — 떠남 이후의 알아봄.

- 13장 안에서 나실인 규정은 전부 온전한 채 닫힘 — 목록만 세워지고 아무것도 시험되지 않은 상태의 종결.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우가랏 아크하트 서사시 — 의로운 다넬의 무자식과 신의 아들 약속. 불임-수태 고지 모티프의 근동 배경.
- 우가랏 케레트 서사시 — 후사 끊긴 왕의 위기와 신의 개입. 같은 모티프 배경.
- 신적 방문자에게 음식을 차리는 환대 양식 — 창 18장과 같은 결, 13:15의 배경.
- 이름 관념 — 이름을 아는 것 = 그 존재를 부르고 질 수 있다는 근동의 생각. 13:17-18 문답의 배경.
- 머리카락 봉헌 — 서원과 머리털을 묶는 관습이 근동·지중해 권역에 분포. 삭도 금지의 문화 배경.
- 소라의 지리 — 쉘펠라 구릉지, 블레셋 해안 평야와 유다 산지 사이의 완충 지대.
- LXX: 사사기는 A·B 두 사본 계열이 크게 갈리는 책. 13:5 nazir → ναζιραῖον(음역) / ἡγιασμένον(풀이)의 갈림. 13:18 peli → θαυμαστόν. 13:25 lefaamo → '함께 다니기 시작' 계열로 누그러진 번역. 전부 배경.
- 랍비 전통: 미쉬나 나지르 1:2의 '삼손형 나실인(nezirut Shimshon)' — 평생 나실인의 별도 범주 논의. 본문 확정 아님,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샷 13:5 ↔ 민 6:1-21 (나실인 원규정 — 자원 서원·기간 한정 對 태로부터의 지명)
- 샷 13:17-18 ↔ 창 32:29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 압복 나루의 같은 문답)
- 샷 13:18 ↔ 사 9:6 (pele 기묘 — 같은 히브리어 어근, 형태 관찰)
- 샷 13:2 ↔ 창 11:30; 25:21; 29:31; 삼상 1:2 (aqarah — 사라·리브가·라헬·한나의 계보)
- 샷 13:5 ↔ 삼상 1:11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 한나의 서원, 같은 결)
- 샷 13:15-20 ↔ 샷 6:11-24 (기드온 — 사자 현현과 제물이 불로 사라지는 같은 양식)
- 샷 13:5(삭도) ↔ 샷 16:17 (나실인의 비밀이 풀리는 권 안의 도착점 — 배경)
- 샷 13:5(시작하리라) ↔ 샷 15:20; 16:31 (이십 년의 결산) ↔ 삼상 7:13 (매듭의 이월 — 배경)
- 샷 13:25(마하네단) ↔ 샷 18:11-12 (지명의 내력 — 단 지파 육백 명의 진영, 배경)
- 샷 13:22 ↔ 출 33:20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 공포의 전거, 배경)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자막 —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십 년. 화면은 어둡지 않다. 들에는 곡식이 자라고 마을은 평온하다 —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 카메라가 쉘펠라 구릉의 소라 땅, 단 지파의 한 집으로 내려간다. 빈 마당에 한 여인 —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빛이 바뀌고 한 형상이 선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인이 집으로 달려간다 —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는데 심히 두려워서 어디서 왔는지 묻지 못하였나이다. 남편의 기도 — 그가 다시 오게 하사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들녘, 여인이 혼자 앉아 있는데 형상이 다시 온다. 달려가 남편을 부르고, 마노아가 묻는다 — 그 아이를 어떻게 부르리까. 답은 같은 규정의 되풀이. 염소 새끼가 나온다 —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바위 위에 제물이 놓이고 불이 붙는다. 불꽃이 하늘로 오르는 동시에 형상이 불길에 휩싸여 올라간

다. 두 사람이 얼굴을 땅에 댄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 죽이려 하셨더라면 번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아기 울음. 이름은 삼손. 아이가 자라고 복이 내린다. 마지막 화면 —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 한 청년의 어깨 위로 바람 같은 것이 지나간다. 여호와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암전.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부르짖지 않았는데 — 태에서부터 빛으시는 구원"
- 초벌 부제: "부르짖음이 없는 유일한 바퀴(13:1) 위에서 사자가 불임의 여인에게 두 번 다 먼저 찾아와 태로부터의 나실인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yachel lehoshia)를 고지하고, 기묘자(peli)의 문답과 제단 불꽃의 상승을 지나, 이름 없는 아내의 세 겹 논증과 여호와와 영의 첫 움직임(lefaamo)으로 닫히는 삼손 이야기의 개막"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3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사이클 변형 + 탄생 고지 양식 + chalal 인클루지오 + ANE 불임-고지 모티프·이름 관념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13:1의 부르짖음 부재를 '하나님은 조건 없이 구원하신다'는 교리 명제로 일반화하지 않고, 사이클 공식 (3:9; 3:15; 4:3; 6:6; 10:10)과의 형식 비교 관찰로만 둬.
- 13:18의 peli를 사 9:6과 직결하는 기독교론 예표로 끌고 가지 않고, 같은 히브리어 어근이라는 형태 관찰로만 보존.
- 13:23의 아내의 논증을 특정 신학 강령으로 확장하지 않고, 두 인물의 발화 유형 대비(공포의 결론 對 사실의 썸)라는 본문 사실로만 기록.
- 나실인 3중 규정이 이후 장들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13장 안으로 끌어들여 단정하지 않고, 13장은 규정이 온전한 채 닫힌다는 사실과 규정 발화의 분포 관찰만 둬 — 이후 전개는 교차 참조의 배경 표기로만.
- 13:25의 lefaamo를 성령론 체계로 일반화하지 않고, 어근 paam의 그림(치다·두드리다·요동)이라는 사전 관찰로만 둬.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13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13:1)라는, 부르짖음이 빠진 유일한 사이클 공식 위에서, 여호와 의 사자가 임신하지 못하던(aqarah) 마노아의 아내에게 두 번 다 먼저 찾아와(13:3·9) 포도주·부정한 것·삭도의 3중 규정과 태로부터의 나실인(nezir Elohim),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yachel lehoshia)"(13:5)를 고지하고, "내 이름은 기묘자(peli)라"(13:18)의 문답과 제단 불꽃의 상승(13:20), 공포의 남편과 논증하는 아내의 대비(13:22-23)를 지나, 삼손의 출생과 "여호와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vattachel ruach YHWH lefaamo)"(13:25)로 닫히는 — 같은 어근 chalal의 '시작'이 약속과 응답으로 마주 보는 탄생 고지의 장이다.

**한 문단:** 자막처럼 한 절이 지나간다 — 다시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십 년. 그런데 화면이 이상하다.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 압제에 적응해 버린 평온한 들녘을 지나 카메라는 소라 땅의 한 집, 빈 마당에 선 여인에게 내려간다.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 결핍이 두 번 겹쳐 적힌 사람에게 사자가 먼저 온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이가 존재하기도 전에 규정이 먼저 도착한다 — 마시지 말며, 먹지 말지니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 그가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완성이 아니라 개시만 맡겨진 채로. 남편이 기도하고, 사자는 다시 여인에게 먼저 오고, 양육을 묻는 물음에는 같은 규정의 되풀이가 돌아온다. 식탁으로 차리려던 염소 새끼가 번제물이 되고, 이름을 묻는 물음에는 기묘자라는 한 단어가 돌아오고, 바위 위의 불꽃이 하늘로 오르는 동시에 그 형상이 불길에 휩싸여 올라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 두려움이 결론으로 건너뛸 때, 이름 없는 아내가 받은 것들을 차례로 셈한다.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아들이 태어나고 이름은 삼손 — 작은 해. 그리고 마지막 절, 마하네단의 들에서 여호와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다.

#### B·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전선 없는 무대(블레셋 미등장), 금지로만 존재하는 부재의 소품들(포도주·부정한 것·삭도), 결핍과 개시의 두 무더기에서 빠진 한 단어 — 부르짖음.                   |
| 2 첫 느낌·분위기    | 적응해 버린 사십 년의 갑갑함과 청함 없는 개시의 일방성. 아이보다 먼저 온 규정. 세 화자의 세 문장 유형(선포·의문·논증).                               |
| 3 시작과 끝       | 민족의 악행 → 한 사람 위 영의 움직임. '넘겨 주시니라'와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의 주어가 같은 여호와. 사십 년 對 첫 동작의 시간 대비.                     |
| 4 등장인물·사상     | 이름 없는 여인이 최다 동작(두 번의 수신·보고·논증·명명). 중심 사상은 지명 — 서원이 아니라 태로부터의 부름, 그리고 '시작'의 한정.                        |
| 5 장면 컷        | 바퀴 압축(1)/첫 방문(2~7)/재방문(8~14)/제의·인지(15~23)/출생·개시(24~25) 5컷. 질문(양육)과 답(금기 반박)의 어긋남, 떠남 이후의 알아봄.         |
| 6 의문·발견·정보    | chalal 인클루지오(yachel↔vattachel). 규정 발화의 역비례(짧은 금기 3회, 평생 금기 1회). peli→mafli laasot의 어근 사슬. 압복 문답과의 평행. |
| 7 동영상         |                                                                                                       |

| 단계         | 핵심 발견                                                                      |
|------------|----------------------------------------------------------------------------|
|            | 부르짖음 없는 평온 → 빈 마당의 고지 → 들녘의 재방문 → 바위 위의 불꽃 상승 → 공포와 셈하는 목소리 → 마하네단의 첫 움직임. |
| 8 초벌 제목·부제 | "부르짖지 않았는데 — 태에서부터 빛으시는 구원"                                                |
| 9 기도·내면    | 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셈하던 목소리 곁에 머문다 —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부르짖음 없는 바퀴, 요청보다 먼저 움직이는 손:** 사사기의 바퀴는 악행 — 압제 — 부르짖음 — 구원자의 공식으로 돌아왔다(3:9; 3:15; 4:3; 6:6; 10:10). 13:1에서 그 셋째 칸이 빈다. 사십 년 — 이 책의 가장 긴 압제 — 을 백성은 부르짖지 않고 지낸다. 그런데 2절이 곧바로 한 가정을 비춘다. 청원이 끊긴 곳에서 준비가 시작되고, 그 준비는 군대의 소집보다 깊은 차원 — 태(beten) — 으로 들어간다. 본문은 이 일방성에 아무 설명을 달지 않는다. 다만 '넘겨 주시니라'(1절)와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25절)의 주어를 같은 여호와로 두어, 심판의 손과 개시의 손이 하나임을 문장으로만 보여 준다.

2. **결 2 — 이름 없는 신학자, 두 번 다 여인에게:** 계시는 두 번 다 이름 없는 여인에게 먼저 온다(3·9절) — 남편의 기도가 "우리에게"였는데도. 그리고 장의 절정에서 두 사람이 같은 광경 앞에 선다. 남편은 공포의 결론으로 건너편다 — 반드시 죽으리로다. 아내는 받은 사실 세 개를 차례로 세운다 — 번제를 받으셨고, 이 모든 일을 보이셨고, 이런 말씀을 이르셨다(23절). 결론은 전제들로부터 온다: 죽이실 뜻이 아니다. 본문에서 가장 정확한 신학적 추론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 — 그것이 이 장이 인물을 그리는 방식이다.

3. **결 3 — chalal의 묶음, '시작'만 맡겨진 구원자:** 고지의 핵심 동사는 "구원하기 시작하리라(yachel lehoshia)"(5절)이고, 장의 마지막 동사는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vattachel)"(25절)이다 — 같은 어근 chalal. 약속된 '시작'이 영의 '시작'으로 첫 응답을 받으며 장이 닫힌다. 그런데 이 동사는 영광이면서 한정이다. 태에서부터 구별된 구원자에게 완성이 아니라 개시만 맡겨진다. 권 안의 결산은 이십 년(15:20; 16:31) — 압제 사십 년의 절반 — 이고, 블레셋의 매듭은 다음 시대로 이월된다(삼상 7:13, 배경). 탄생 고지가 구원자의 크기를 미리 말해 두는 정직함 — 그것이 이 장의 시제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민 6:1-21 — 나실인 원규정: 자원 서원과 기간 한정 — 13:5의 태로부터의 지명이 그 위에서 도드라짐.
- 창 32:29 —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 압복 나루의 같은 문답, 13:17-18의 평행.
- 사 9:6 — pele(기묘) — 13:18과 같은 히브리어 어근, 형태 관찰.
- 창 11:30; 25:21; 29:31; 삼상 1:2 — 사라·리브가·라헬·한나 — aqarah 계보의 자장 안에 선 13:2.
- 삼상 1:11 —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 한나의 서원, 같은 결의 다음 인물.
- 삿 6:11-24 — 기드온의 사자 현현과 제물의 불 — 같은 권 안의 평행 양식.
- 삿 16:17 — 삭도의 끝 — 13:5의 규정이 권 안에서 만나는 도착점, 배경.
- 출 33:20 —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 13:22 공포의 전거, 배경.
- 삿 18:11-12 — 마하네단 지명의 내력 — 13:25의 지리적 배경.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3:1에서 시작한다 — 부르짖음이 사라진 사십 년. 내게도 적응해 버려서 더는 청하지 않게 된 압제가 있는지 듣는다.
- **멈춤 1:** 13:5에서 멈춘다 — 태에서부터의 구별과 '시작하리라'의 한정. 가장 이른 부름과 가장 좁은 폭이 한 문장에 같이 있는 것을 본다.
- **멈춤 2:** 13:23에서 멈춘다 — 두려움이 결론으로 건너뛰는 저녁, 받은 것들을 차례로 셈하는 목소리. 수납된 제물, 보여진 일들, 들려진 말씀.
- **끝:** 13:25에서 멈춘다 — 영의 첫 두드림(lefamo). 거대한 결말이 아니라 작은 첫 움직임으로 닫히는 장의 끝에서, 시작된 것들의 목록을 진다.

## F · 자족성 점검

- [x] 바퀴 압축(1)·첫 방문(2~7)·재방문(8~14)·제의와 인지(15~23)·출생과 개시(24~25)의 다섯 컷 완결
- [x] 부르짖음이 빠진 사이클 공식의 형식 비교(3:9; 3:15; 4:3; 6:6; 10:10)
- [x] chalal 인클루시오(5절 yachel ↔ 25절 vattachel)와 '시작'의 한정
- [x] 두 번 다 여인에게 먼저라는 방문의 방향과 22~23절의 공포/논증 대비
- [x] 3중 규정의 분포(어머니 3회·아이 1회)와 13장 안에서 온전한 채 닫히는 목록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다. 권의 흐름은 미완과 진단(1~2장),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왕이 없으므로 벌어지는 부록(17~21장)으로 움직이는데, 13장은 그 나선의 마지막 바퀴가 열리는 입구다. 그런데 이 바퀴는 앞의 모든 바퀴와 다르다 — 부르짖음이 없다. 옷니엘에서 입다까지 구원의 공식은 백성의 외침으로 작동해 왔는데, 사십 년의 압제 아래에서 그 외침이 끊긴다. 압제가 일상이 되고 결핍이 익숙해진 백성.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3장은 은혜의 문법이 한 단 더 깊어지는 경첩이다 — 응답하시는 하나님에서 요청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움직임의 통로가 불임의 여인이라는 사실이 이 장을 사라·리브가·라헬·한나의 계보 위에 세운다. 막힌 태에서 구원의 인물이 나오는 — 사람의 가능성이 끝난 지점에서 약속이 출발하는 — 그 오랜 결이 사사기의 가장 어두운 구간에서 다시 반복된다. 동시에 권의 heart — 부르짖음마다 돌이키시는 탄식 섞인 공허 — 가 여기서는 부르짖음조차 없는 백성에게로 한 걸음 더 내려온다. 다만 그 공허는 정직하다. 태에서부터 빛으시는 구원자에게 맡겨진 폭은 '시작'까지다. 사사의 형식으로는 블레셋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 — 더 다른 구원이 필요하리라는 것 — 이 탄생 고지 안에 이미 적혀 있다.

##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르짖음 없는 압제(13:1)에서 태의 구별(13:5)로 / 환대의 식탁(13:15)에서 바위 제단의 불꽃(13:20)으로 / 공포의 결론(13:22)에서 논증의 안도(13:23)로 — 청하지 않은 백성을 위해 먼저 움직이시는 공허이 한 아이의 '시작'으로 응축되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3장은 '요청 없는 구원의 개시'를 발행하는 운동이다. 민족의 광각(1절)이 한 가정의 마당으로 내려오고, 고지가 보고로, 기도가 재방문으로, 식탁이 제단으로, 공포가 논증으로 번역되며 장이 진행된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처음으로 구원의 약속이 실제 움직임이 된다 — 영이 그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lefaamo). 그러나 13장이 끝나도 블레셋은 그대로 있다. 총들은 14장에서, 결산은 16장에서야 온다. 13장의 벡터는 전권을 '시작만 맡겨진 구원자의 이십 년'으로, 그 한계를 지나 '왕이 없으므로'(21:25)라는 진단으로 끌고 가는 마지막 바퀴의 첫 회전이다.

####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가정의 경사다 — 불임의 부부가 아들을 얻는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일방성이다. 바퀴마다 "부르짖으매 ... 일으키사"로 작동하던 구원의 문법이, 부르짖음이 끊긴 바퀴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온다 — 군대가 아니라 태로, 소집이 아니라 잉태로. 압제에 적응해 청하기를 그친 백성을 위해 아홉 달 전부터, 존재 이전부터 구원자가 빚어진다. 둘째, 한정의 정직함이다. 가장 이른 부름(태로부터)과 가장 좁은 폭('시작하리라')이 한 문장 안에 있다. 이 구원자는 끝내지 못할 것이다 — 그 사실이 탄생 고지에 미리 새겨져 있고, 그래서 13장은 삼손의 영광이 아니라 사사 제도 자체의 잠정성을 입구에서부터 말한다. 나선이 깊어질수록 선명해지는 것은 더 다른 왕의 필요하다. 셋째, 인지의 역전이다. 기도한 사람(마노아)은 끝까지 묻고 두려워하고, 침묵 속에 있던 사람(여인)은 두 번 받고 정확히 셈한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비례하지 않는 — 계시 앞에서 사람의 서열이 뒤집히는 구도가 이 장 바닥에 깔려 있다. 본문은 거기까지만 보여 주고 멈춘다.

####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무엇에 적응해 버렸는가 — 부르짖기를 그친 사십 년이 내게도 있는가. 그리고 내가 청하지 않았는데 이미 시작되어 있는 것들의 목록을, 두려움의 저녁에 차례로 셈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부르짖음이 끊긴 백성에게 먼저 도착한 발걸음을 보여 주고, 빈 마당과 들녘과 바위 위의 불꽃이라는 작은 장소들을 보여 준다. 구원의 개시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한 여인의 임신 소식이라는 것, 영의 첫 일하심이 정복이 아니라 한 청년안의 두드림(lefaamo)이라는 것 — 그 작음이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그리고 두려움이 결론으로 건너뛰는 밤에 받은 것들을 셈하던 이름 없는 목소리가 있다 —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공포보다 사실이 먼저라는 그 셈법, 청하지 않았는데 이미 와 있는 공황, 시작만 맡겨진 사람의 미완 — 그 사이 어딘가에서 독자를 부르는 불씨가 탄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청년의 첫 발걸음이 전장이 아니라 덩나로 내려간다 (14:1) — 블레셋 여인이 그의 눈에 들고, 잔치 한가운데 수수께끼 하나가 던져지며, 탄생 고지의 규정들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pele* — 기묘자.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1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림 단계로 이월.

**Q1. 부르짖음이 없는 바퀴(13:1) — 누가 이 구원을 청했는가?**

- 여태까지의 바퀴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다. 백성이 청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구원자가 준비된다는 사실이 접속사 없이 나란히 놓인다. 본문은 그 침묵의 간격에 아무 설명을 더하지 않는다. 보존.

**Q2. "구원하기 시작하리라"(13:5) — 왜 완성이 아니라 개시만 맡겨지는가?**

- 태에서부터 구별된 구원자에게 주어진 폭이 '시작'으로 한정된다. 시작과 완성의 경계가 어디인지, 왜 탄생 고지가 미완을 미리 말하는지 — 13장 안에서는 닫히지 않는다. 보존.

**Q3. 왜 두 번 다 여인에게 먼저인가(13:3-9)?**

- 마노아의 기도는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8절)였는데 재방문은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9절). 계시의 방향이 기도의 문구와 다르게 움직인다. 본문은 그 선택의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보존.

**Q4. "내 이름은 기묘자라"(13:18) — 이름을 감추는 응답은 거절인가 계시인가?**

- 창 32:29의 압복 나루와 같은 문답이다 —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한 단어가 돌아온다: peli. 이름의 거절이면서 동시에 정체의 묘사처럼 들리는 이 답을 어느 한쪽으로 누르지 않는다. 보존.

**Q5. 질문과 답의 어긋남(13:12 對 13~14) — 마노아는 무엇을 받은 것인가?**

-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라는 양육의 물음에, 답은 새 정보 없이 어머니의 금기 반복이다. 청한 것과 받은 것의 간격 — 그 간격 자체가 답인지 아닌지 본문은 평가하지 않는다. 보존.

**Q6. 온전한 채 닫히는 규정 목록 — 이 세 금기는 어디로 가는가?**

- 포도주·부정한 것·삭도. 13장 안에서는 아무것도 시험되지 않고 목록만 세워진 채 장이 닫힌다. 탄생 고지의 규정들이 한 인생 안에서 어떤 무게로 펼쳐질지는 다음 장들의 시간에 맡겨져 있다.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사기 14장

JDG-014 · 역사서 · 히브리어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 한 여자를 보고(vayyar)"(14:1)라는 동사로 열려, "그 여자가 내 눈에 옹으니"(14:3)라는 답이 권의 마지막 문장(21:25)과 같은 어휘로 발화되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14:4)이라는 서술자의 괄호가 욕망의 결까지 기회(toanah)로 삼으시는 섭리를 열어 두는 — 포도원의 사자, 주검의 꿀, 수수께끼와 눈물의 이레를 지나 영의 임함과 살인·약탈이 평가 없이 나란히 적히는(14:19) 혼인 잔치의 기록.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1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산지에서 블레셋 평야로 '내려가는' 길 — 딤나의 거리, 딤나의 포도원, 사자의 주검, 잔치의 집, 아스글론, 아버지의 집. 장면 전부가 이동 중이거나 남의 땅.
- 중심 사건의 위치: 사자를 찢는 일(5~6절)과 주검의 꿀(8~9절)이 둘 다 큰길 아닌 곁길, 부모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남.
- 소품: 꿀(주검 속 벌 떼 — 손으로 떠서 걸어가며 먹음), 베옷 삼십·겉옷 삼십(내기 물목 → 19절에서 죽은 자들의 옷으로 지불), 포도원(나실인의 동선에 깔린 포도나무 — 민 6:3-4의 그늘, 형태 관찰), 헐박 속의 불, 비유 속의 염소 새끼와 암송아지.
- 소재의 두 무더기: 단 것들(꿀·잔치·혼인·수수께끼 놀이) 對 찢는 것들(사자·헐박·불·살인) — 두 무더기가 한 몸매 붙어 있고, 14절의 수수께끼가 그 구조를 시로 만들.
- 형식 소재: 4절 — 서술자가 직접 끼어드는 괄호 문장("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 기회를 찾으심"). 등장인물 아무도 모르고 독자만 읽는 정보.
- nagad 동사망: 알리지 아니하고(6·9절) — 알려 달라(15·16절) — 알려 주매(17절) — 비밀과 수수께끼가 같은 동사로 짜임.
- 1절의 두 동사: 내려가서(vayyered) · 보고(vayyar) — 13:25("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직후의 공식 첫 동작이 시선.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3절의 온도 차 — 부모의 긴 수사 의문 對 삼손의 짧은 답("그 여자가 내 눈에 옹으니"). 설득할 생각이 없는 문장.
- "알리지 아니하셨더라"의 누적(6·9절) — 동행하는 길 위에 쌓이는 비밀. 9절은 드려 먹게 하는 친밀과 출처를 숨기는 은폐가 한 동작.
- 장르의 공기: 혼인 희극의 장치(첫눈, 반대하는 부모, 잔치, 내기)로 열려 헐박·눈물·살인이 스며들고, 신부가 들러리에게 넘어가는 결말로 닫힘.

- 의문문의 밀도 — 항변(3절), 요구(13절), 협박(15절), 추궁과 응수(16절), 답(18절)까지 의문문. 가장 안정된 문장은 서술자의 괄호(4절).
- 감각: 손으로 뜯은 꿀의 단맛과 주검의 그릇 — 부모는 모른 채 연루됨. 혼인 주간을 채우는 신부의 울음(17절) — 단맛과 울음의 병존.
- 오르내림의 리듬: yarad(1·5·7·10·19절) / alah(2·19절) — 19절은 한 절 안에서 내려갔다 올라옴. 배경.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 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 능동의 시선으로 열려 수동의 상실로 닫힘 — 1절의 주어는 삼손·동사는 '보다', 20절의 주어는 아내·동사는 수동형 '준 바 되다'.
- 마지막 문장에 삼손이 행위자로 없음 — 보는 자로 시작해 보지 못하는 자로 닫히는 액자.
- 13:24-25(축복과 영의 시작) 직후의 14:1 — 한 장 사이에 기대에서 균열로. 그리고 20절의 이전(移轉)은 15:1-2의 화근 — 시작과 끝이 모두 이음매.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삼손(첫 자기 발화를 가진 주인공), 아버지와 어머니(동행하되 핵심 사건마다 모름), 딤나의 여인(끝까지 무명 — 협박과 남편 사이에 끼임), 잔치의 삼십 명('친구'이자 내기 상대, 협박의 발신자), 성읍 사람들(18절의 목소리), 들리리(merea, 20절), 여호와(발화 없음 — 영의 임함 6·19절과 서술자의 괄호 4절로만).
- 중심 사상: 4절 — 아들의 욕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은 사건 위에 겹침. 본문은 선택을 칭찬하지 않으면서(부모의 항변을 길게 실음)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라고 적음 — 승인과 사용 사이를 가르지 않음.
- 앎의 분포가 곧 상황의 빠대: 독자만 4절을 알고, 부모는 모르고, 삼손의 앎은 공백이며, 아내는 몰랐다가 알게 되어 넘기고, 친구들은 흠친 앎으로 이김.
- 딤나의 여인: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15절)는 협박 아래의 울음(16~17절) — 본문은 그녀를 비난하는 문장을 쓰지 않음.
- 사물 — 옷: 놀이의 상품이 죽은 자의 옷으로 지불됨(19절). 꿀: 부모까지 모르는 채 연루시키는 침묵의 단맛(9절).
- 어휘의 액자: yashrah veenai(3절) ↔ hayashar beenav(21:25) — 권의 마지막 진단 어휘를 구원자가 먼저 발화. toanah(4절) — 욕망의 사건에 '기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는 서술자.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1~4절): 딤나의 시선 — 부모의 항변과 짧은 답 — 서술자의 괄호(toanah).
- 컷 2(5~9절): 포도원의 사자 — 영의 임함과 찢음(알리지 않음) — 주검의 꿀(알리지 않음).
- 컷 3(10~14절): 잔치와 삼십 명 — 옷을 건 수수께끼 — 사흘의 침묵.
- 컷 4(15~18절): 불의 협박 — 눈물의 이레와 발설 — 해 지기 전의 답 — 암송아지의 응수.
- 컷 5(19~20절): 영의 두 번째 임함 — 아스글론 삼십 명과 옷의 지불 — 노한 귀가 — 아내의 이전.
- 컷 대칭: 영의 임함(컷 2 사자 / 컷 5 사람), 꿀과 옷(수수께끼의 재료와 대가), 알리지 않음(컷 2)과 알려 줌(컷 4) — 무너짐의 압력이 눈물이었다는 사실이 16장을 예고.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vayyar*(וַיַּר) — 그가 보았다(1절). 16:1에 같은 꼴 — 형태 관찰만.
- *yashrah veenai*(וַיַּשְׂרָה וְעֵנַי) — 내 눈에 옳다(3절 직역). 21:25의 *hayashar beenav*와 같은 어근(*yashar*)·같은 명사(*ayin*) 조합.
- *toanah*(תּוֹנָה) — 기회·구실(4절). 구약 희귀어 — 서술자의 괄호 한가운데.
- *vattitslach alav ruach YHWH* —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6·19절). 동사 *tsalach* — 덮치다·돌진 하다의 결.
- *kefir arayot* — 젊은 사자(5절) / *shasa*(שָׂשָׂא) — 찢다 / *gedi izzim* — 염소 새끼(6절).
- *devash*(דְּבַשׁ) — 꿀(8~9·18절). / *kerem*(כֶּרֶם) — 포도원(5절).
- *mishteh*(מִשְׁתֶּה) — 잔치(10절). 어근 *shatah*(마시다) — 술이 도는 연회가 어근에 담김.
- *chidah*(חִידָה) — 수수께끼(12~19절 여덟 번). 왕상 10:1·시 78:2의 용례 — 배경.
- *sedinim* — 베옷 / *chalifot begadim* — 겹옷·갈아입을 옷(12~13절).
- *tsuq*(צוּק) — 죄어 누르다·강요하다(17절). 16:16에 같은 어근 — 형태 관찰만.
- *eglati*(עֵגְלָתִי) — 내 암송아지(18절). / *vayyichar appo* — 그의 노가 타올랐다(19절). / *merea*(מֵרֵעָ) — 친구·들 러리(20절).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봄(1~4) + 사자와 꿀(5~9) + 잔치와 수수께끼(10~14) + 험박과 발설(15~18) + 영과 칼과 이전(19~20) — 다 섯 단의 혼인 서사.
- 어휘의 액자: 14:3 ↔ 21:25 — 권의 마지막 시대 진단을 구원자가 먼저 산다.
- 시선의 권 단위 액자: 14:1(보고) → 16:1(보고) → 16:21(눈 뽑힘) — 시선으로 열린 서사가 시력의 상실로 닫힘. 형태 관찰.
- 수수께끼의 시학: 두 줄 시(14절)가 사자와 꿀을 가리키는 동시에 발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듯한 겹 — 답 (18절)도 의문문, 응수(18절 후반)도 수수께끼풍.
- 숫자 그물: 이레(12·15·17·18절)와 삼십(11·12·13·19절) — 잔치의 셈과 살인의 셈이 같은 숫자.
- *nagad* 동사명: 비밀(6·9절)과 수수께끼(12~19절)가 같은 동사로 묶임 — 알리지 않던 사람이 알려 주는 지 점(17절)이 플롯의 정점.
- 예고된 불: 14:15의 험박("불사르리라")이 15:6에서 실현 — 장 경계를 넘는 복선.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연회의 수수께끼 내기 — 상품을 건 수수께끼 시합이 고대 근동·지중해 연회 문화의 오락이자 명예 겨루 기. 14:12-13의 형식 배경.
- 7일 혼인 잔치 — 창 29:27("이 사람의 칠 일을 채우라")과 같은 결의 혼례 기간. 14:12·17의 배경.
- *merea*(신랑 친구·들러리) 제도 — 혼사의 동석자·중개자. 14:20과 15:2의 배경.
- 사체에서 벌이 생긴다는 고대 지중해 관념(부고니아 — 베르길리우스 농경시 4권 등 후대 문헌에 정리) — 14:8의 배경, 문헌 시기는 후대라는 한계 포함.
- 블레셋 — 해양 민족 계열, 기원전 12세기경 해안 평야 다섯 성읍 정착(아스글론 포함) —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4절)의 정치 배경.

- LXX: 14:15 일곱째 날 ↔ 넷째 날(τετάρτη), 14:11 보고(raah) ↔ 두려워하므로(yare 갈래), 사사기 A·B 본문 계열 — 본문비평 배경, 해석 아님.
- 랍비 전통: 탈무드 소타 9b — "삼손은 그의 눈을 따라갔으므로 눈을 잃었다"는 후대의 읽기. 본문 확정 아님,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샷 14:8-9 ↔ 민 6:6 (나실인의 사체 접촉 금지 — 세 규정 중 첫 군열, 서술자는 규정을 환기하지 않음)
- 샷 14장 ↔ 샷 13:4-5, 7 (태에서부터의 나실인 위임 — 직전 장의 전사)
- 샷 14:3 ↔ 샷 21:25 (내 눈에 옳으니 /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 같은 어휘)
- 샷 14:15 ↔ 샷 15:6 (불사르리라의 험박과 실현)
- 샷 14:1 ↔ 샷 16:1 (한 여인을 보고 — 같은 동사 raah, 그리고 16:21의 눈 뿔힘)
- 샷 14:16-17 ↔ 샷 16:15-17 (울며 조르는 말과 발설 — tsuq 어근의 재등장, 들릴라의 예행)
- 샷 14:2 ↔ 창 6:2 (보고 ... 아내로 삼는지라 — 보다-취하다 연쇄의 형태 배경)
- 샷 14:3 ↔ 신 7:3 (이방 혼인 금지 조항 — 부모 항변의 배경)
- 샷 14:12 ↔ 왕상 10:1; 시 78:2 (chidah 용례 — 배경)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산지에서 평야로 내려가는 길, 한낮의 빛. 청년이 딤나의 거리에서 걸음을 멈춘다 — 카메라가 눈을 클로즈업한다. 부모의 집, 긴 항변 —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짧은 답 —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으니. 화면이 멈추고 독자만 보는 자막 —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그의 부모가 알지 못하였더라. 포도원의 푸른 줄기 사이에서 포효, 덮치듯 임하는 영, 염소 새끼 찢듯 찢기는 사자 — 그는 말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고, 돌이켜 본 주검 속의 벌 떼와 꿀 — 손으로 떼서 걸어가며 먹고, 부모의 손에도 주어 준다 — 출처는 말하지 않는다. 잔치의 집, 등불과 술잔과 삼십 명의 웃음. 수수께끼 —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사흘의 침묵. 일곱째 날의 속삭임 —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신부의 울음이 이레를 채우고, 그가 말한다. 해 지기 전 —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응수 —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다시 덮치는 영, 아스글론의 삼십 명, 벗겨진 옷이 빛을 갉는다. 노여움으로 산지를 오르는 얼굴. 마지막 컷 — 신부는 그가 없는 곳에서 들러리 곁에 세워진다. 암전.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내 눈에 옳으니 — 욕망 결의 괄호 한 문장"
- 초벌 부제: "딤나에서 한 여자를 본(vayyar) 나실인이 '내 눈에 옳으니'(21:25와 같은 어휘)로 혼인을 밀어붙이고, 서술자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 블레셋을 치실 기회(toanah)'라는 괄호를 달아 두는 가운데, 사자와 꿀과 수수께끼와 눈물의 이레를 지나 영의 임함과 살인·약탈이 평가 없이 나란히 적히는 장"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0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다섯 단 혼인 서사 + 14:3↔21:25 어휘 액자 + nagad 동사망 + ANE 연회 수수께끼·혼례 관습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14:4("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를 '하나님이 죄를 시키신다'는 단정으로도 '단지 사람의 자유 선택일 뿐'이라는 단정으로도 누르지 않고, 서술자의 괄호 문장이라는 형식 사실과 toanah라는 어휘의 관찰로만 둬. 승인/사용의 물음은 미해결로 이월.
- 주검의 꿀(14:8-9)을 '타락한 나실인'이라는 도덕 강의로 바꾸지 않고, 민 6:6과의 형태 대조와 서술자의 침묵(규정을 환기하지 않음)이라는 관찰로만 기록.
- 영의 임함과 살인·약탈의 병기(14:19)를 신학적 정당화로도 비난으로도 닫지 않고, 본문이 평가 없이 나란히 두는 병렬 그 자체를 보존.
- 덤나 여인의 발설(14:17)을 '여인의 배신' 프레임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불의 협박(15절)과 이레의 울음이라는 본문 기록과 나란히 둬 — 본문 자체가 그녀를 비난하는 문장을 쓰지 않음.
- 14:1과 16:21을 잇는 인과응보 도식(눈을 따라갔으므로 눈을 잃었다)을 교리로 단정하지 않고, 동사 raah의 분포라는 형태 관찰로만 두며 랍비 전통(소타 9b)은 배경 표기로 분리.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14장은 "삼손이 덤나에 내려가서 ... 한 여자를 보고(vayyar)"(14:1)라는 시선으로 열려, "그 여자가 내 눈에 옹으니"(14:3 — 21:25와 같은 어휘)라는 짧은 답으로 혼인이 밀어붙여지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그의 부모가 알지 못하였더라"(14:4)라는 서술자의 괄호가 그 욕망 곁에 기회(toanah)라는 이름을 달아 두는 가운데, 포도원의 사자와 영의 첫 임함(14:5-6), 주검의 꿀과 두 번의 침묵(14:8-9), 잔치의 수수께끼(14:12-14), 불의 협박과 눈물의 이레와 발설(14:15-17), 그리고 영의 두 번째 임함과 아스글론의 삼십 명(14:19)을 지나 아내가 들러리에게 넘어가는 마지막 절(14:20)로 닫히는, 구원자와 시대의 증상이 한 몸이 되는 장이다.

**한 문단:** 산지에서 평야로 내려가는 길에서 한 청년이 걸음을 멈춘다. 보았다 — 그리고 그 시선이 곧장 요구가 된다.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부모의 항변은 길고 답은 짧다 — 그 여자가 내 눈에 옹으니. 독자만 읽는 자막이 화면에 얹힌다 —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그의 부모가 알지 못하였더라. 포도원 길에서 사자가 포효하고, 영이 덮치듯 임하고, 맨손이 사자를 찢는다 — 그는 말하지 않는다. 주검 속에서 꿀이 발견되고, 걸어가며 먹고, 부모에게도 먹인다 — 출처는 말하지 않는다. 잔치가 열리고 수수께끼가 던져진다 —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협박이 신부를 죄고, 울음에 이레를 채우고, 침묵하던 사람이 발설한다. 해 지기 전의 답과 암송아지의 응수 뒤에, 영이 다시 임하고 아스글론의 삼십 명이 쓰러지고 죽은 자들의 옷이 잔치의 빛을 갠다. 노한 사람은 올라가 버리고, 신부는 그가 없는 곳에서 들러리에게 넘어간다.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 — 독자만 아는 괄호 하나가 남는다.

## B ·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길 위의 무대 — 중심 사건(사자·꿀)이 결길에서. 주검 속의 꿀, 결제 수단이 되는 옷, 비유의 옷을 입은 동물들. 단 것과 찢는 것이 한 몸.                                 |
| 2 첫 느낌·분위기    | 긴 항변과 짧은 답의 온도 차. 쌓이는 비밀("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혼인 희극의 틀에 스며드는 협박과 피. 의문문의 밀도 속 가장 고요한 서술자의 괄호.                           |
| 3 시작과 끝       | 능동의 시선(1절)에서 수동의 상실(20절)로. 마지막 문장에 삼손이 없음 — 보는 자로 열려 보지 못하는 자로 닫히는 액자.                                            |
| 4 등장인물·사상     | 발화 없으신 여호와(영의 임함과 괄호로만). 무명의 담나 여인 — 협박과 남편 사이. 중심 사상은 14:4 — 욕망과 섭리가 같은 사건 위에 겹침.                                |
| 5 장면 컷        | 봄/사자와 꿀/잔치와 수수께끼/협박과 발설/영과 칼 — 5컷. 영의 임함이 컷 2·5에 대칭, 알리지 않음(컷 2)과 알려 줌(컷 4)이 마주 봄.                                |
| 6 의문·발견·정보    | yashrah veenai = 21:25의 어휘. raah의 분포(14:1→16:1→16:21). 자신을 가리키는 듯한 수수께끼의 시학. toanah와 tsalach의 어휘 관찰. LXX 넷째 날 갈래. |
| 7 동영상         | 멈춘 시선 → 독자만 보는 자막 → 결길의 사자 → 주검의 꿀 → 잔치와 수수께끼 → 울음의 이레 → 아스글론 → 그가 없는 잔치 집.                                       |
| 8 초별 제목·부제    | "내 눈에 옳으니 — 욕망 결의 괄호 한 문장"                                                                                        |
| 9 기도·내면       | '내 눈에 옳으니'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 나란한 단락 끝에 머문다 — 묻지 않고.                                                                |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vayyar,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생애:** 삼손 서사의 공식 첫 동작이 '보다'이고(14:1), 같은 동사가 16:1(가사의 여인)에서 되풀이되며, 그 서사의 끝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뽑는다(16:21). 시선으로 열린 이야기가 시력의 상실로 닫히는 권 단위의 액자 — 본문은 이 도식을 한 번도 설명하지 않고 동사의 분포로만 깔아 둔다. 14장 안에서도 같다. 1절의 보는 자가 20절에서는 자기 아내가 넘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곳에 있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이 갈라지는 이야기다.
- 결 2 — yashrah veenai와 toanah, 욕망 결의 괄호:**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으니"(14:3)는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와 같은 어근, 같은 명사다. 시대를 고치라고 세워진 구원자가 시대의 표어를 자기 입으로 먼저 발화한다. 그런데 바로 그 결에 서술자의 괄호가 있다 —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 블레셋 사람을 치실 기회(toanah)를 찾으심이였더라"(14:4). 본문은 욕망을 칭찬하지 않고 (부모의 항변을 길게 씀는다) 섭리를 철회하지도 않는다(괄호를 지우지 않는다). 승인인가 사용인가 — 그 물음을 가리지 않은 채 두 문장을 나란히 두는 것, 그것이 이 장의 가장 단단한 형식이다.
- 결 3 — chidah, 자기를 낸 수수께끼와 발설의 예행:**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14:14)는 사자와 꿀을 가리키는 동시에 발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처럼 들린다 — 찢는 힘의 사람에게서 단 시가 나온다. 그리고 이 장은 비밀의 동사(nagad)로 짜여 있다. 부모에게 두 번 알리지 않던 사람이(14:6·9) 이레의 울음과 죄어 누름(tsuq) 앞에서 알려 주고(14:17), 같은 어근의 조름이 16:16에서 돌아올 때는 마음을 다 알려 준다. 14장의 발설은 16장의 예행이다 — 본문은 그 평행을 동사 하나로 이어 둔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민 6:1-8 — 나실인 세 규정(포도주·삭도·사체) — 포도원 길과 주검의 꿀과 mishteh가 그 곁을 스치는 형태 배경.
- 샷 13:4-5, 7 — 태에서부터의 나실인 위임 — 14장 직전의 전사이자 균열의 측정 기준.
- 샷 21:25 —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 14:3의 어휘가 미리 당겨 오는 권의 도착점.
- 샷 15:6 — 불사름의 실현 — 14:15 협박이 장 경계를 넘어 닿는 곳.
- 샷 16:1, 4-21 — 가사의 여인과 들릴라 — raah의 재등장, tsuq의 재등장, 발설의 확장, 그리고 눈 뽑힘.
- 창 6:2 — 보고 ... 아내로 삼는지라 — 보다·취하다 연쇄의 형태 배경.
- 신 7:3 — 이방 혼인 금지 — 부모 항변(14:3)의 율법 배경.
- 왕상 10:1; 시 78:2 — chidah의 용례(어려운 문제·비밀) — 배경.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4:1의 vayyar에서 시작한다 — 내 생애의 방향을 정해 온 시선들이 무엇을 보아 왔는지 듣는다.
- 멈춤 1: 14:3-4에서 멈춘다 — '내 눈에 옳으니'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 나란한 단락. 내 눈에 옳아서 밀어붙인 길 곁에도 팔호가 있었는지 본다.
- 멈춤 2: 14:9에서 멈춘다 — 드러 먹게 하면서 출처를 말하지 않는 손. 친밀과 은폐가 겹친 내 동작들을 본다.
- 끝: 14:14와 14:19 사이에서 멈춘다 —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시와, 영의 임함 곁에 적힌 칼. 풀리지 않는 병렬을 풀지 않은 채 쫓는다.

#### F · 자족성 점검

- [x] 봄(1~4)·사자와 꿀(5~9)·잔치와 수수께끼(10~14)·협박과 발설(15~18)·영과 칼과 이전(19~20)의 다섯 단 완결
- [x] 14:3 ↔ 21:25 어휘 액자와 14:4 팔호(toanah)의 병치
- [x] nagad 동사망(알리지 않음 → 알려 줌)과 16장 예행의 평행
- [x] 영의 임함 2회(6·19절)와 행위의 결 사이 간격 — 평가 없는 병렬의 보존
- [x] 이레와 삼십의 숫자 그물, 불 협박(15절)의 장 경계 복선

---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미완과 진단(1~2장),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그리고 왕이 없으므로 벌어지는 부록(17~21장)으로 움직이는데, 14장은 그 나선의 깊은 구간 — 구원자와 시대의 증상이 한 몸이 되는 국면이다. 웃니엘에게는 흠이 기록되지 않았고, 기드온은 의심으로, 입다는 서원으로 금이 갓지만, 삼손에 이르면 사사 자신이 권의 마지막 진단("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을 자기 욕망의 언어로 발화한다(14:3).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13:5)이 첫 무대에서 사체의 꿀로 규정을 스치고, 부르짖음조차 없던 백성을 위해 일어나는 구원이 구원자의 자격 위에 설 수 없게 된 시대 — 그 한복판에 14:4의 팔호가 놓인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실 기회를 찾으신다. 사람의 욕망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하고, 사람의 균열이 하나님의 신실을 철회시키지 못한다. 구원이 사람의 됴됨이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실에 걸쳐 있다는 사실이, 가장 자

격 없어 보이는 구원자의 장에서 가장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 진실은 탄식을 품은 긍휼이다 — 부르짖음마다 돌이키시던 그 마음이, 이제는 부르짖지도 않는 백성을 위해 먼저 기회를 찾고 있다.

##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봄(14:1 vayyar)에서 잃음(14:20)으로 / '내 눈에 옳으니'(14:3)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14:4)으로 / 알리지 않음(14:6·9)에서 알려 줌(14:17)으로 — 구원자가 시대의 증상을 사는 동안에도 욕망의 결까지 기회(toanah)로 삼으시는 진실이 수면 아래에서 일하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4장은 '사람의 자격이 무너지는 자국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전진하는' 운동이다. 시선이 혼인으로, 혼인이 수수께끼로, 수수께끼가 협박과 발설로, 발설이 살인과 파혼으로 번역되는 표면의 연쇄는 전부 내리막이다. 그런데 그 내리막의 모든 마디에 독자만 아는 괄호가 걸려 있다 — 블레셋을 치실 기회. 15장의 여우와 불, 나귀 턱뼈의 천 명, 그리고 16장의 마지막 기둥까지, 이 욕망의 연쇄는 실제로 블레셋과의 충돌을 한 단계씩 끌어올린다. 14장의 벡터는 권 전체를 '구원자들의 한계에서 참왕의 필요로' 끌고 가는 하강 나선의 한 굽이이면서, 동시에 그 나선 아래에서 끊기지 않는 섭리의 전진이다.

##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청년의 무모한 혼인 소동이다 — 반한 눈, 반대하는 부모, 잔치, 내기, 깨진 혼사.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괄호의 주권이다. 이 장에서 여호와와는 한 마디도 발화하지 않으신다. 영의 임함 두 번과 서술자의 괄호 하나 — 그것이 전부다. 그런데 그 괄호가 장 전체의 사건을 떠받친다. 등장인물 중 아무도 모르는 계획이 독자에게만 열리고, 욕망과 협박과 살인이 뒤엉킨 표면 아래에서 그 계획은 한 치도 밀리지 않는다. 둘째, 자격과 진실의 분리다. 13장의 기대(태에서부터의 나실인)가 14장에서 곧장 균열로 넘어 가는데 — 사체의 꿀, 술잔치의 어근, 침묵의 누적 — 본문은 그 균열을 이유로 구원을 거두지 않는다. 사람의 자격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이 장에서 이야기는 끝났어야 한다. 셋째, 눈물의 예행이다. 침묵하던 사람이 이레의 울음 앞에서 무너지는 14장의 경사는, 같은 어근(tsuq)의 조름 앞에서 마음을 다 알려 주는 16장을 미리 보여 준다. 본문은 경고하지 않고 평행만 깔아 둔다. 넷째, 평가의 유보다. 영의 임함과 삼십 명의 죽음이 한 절에 나란한데(14:19) 서술자는 칭찬도 정죄도 적지 않는다. 그 침묵이 독자를 불편하게 두는 것 — 본문은 거기까지만 보여 주고 멈춘다.

## J·실존적 부름 — 불씨

내 눈에 옳아서 밀어붙인 길들이 있다 — 그 결에도, 내가 읽지 못한 괄호가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 그 시선은 어디로 내려가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삼손을 정죄하라고도 변호하라고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한 시선이 어떻게 요구가 되고, 요구가 어떻게 연쇄가 되는지를 보여 주고, 그 연쇄 끝에 아무도 모르는 괄호 하나를 달아 둔다. 욕망까지 쓰시는 섭리는 욕망의 면죄부가 아니다 — 본문은 부모의 항변을 지우지 않고, 협박당한 여인의 울음을 지우지 않고, 죽은 삼십 명의 옷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모든 무너짐이 하나님의 진실을 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 — 부르짖지 않는 백성을 위해 먼저 기회를 찾으시는 마음이 이 장의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 — 그 사실이 독자를 부른다. 자격이 아니라 진실에 걸린 구원, 내 눈의 옳음보다 깊은 곳에서 일하는 계획 — 그 간격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아내는 들러리에게 넘어갔고 삼손은 모른다 — 밀 거둘 때에 염소 새끼를 들고 처가로 내려간 사위가 닫힌 문 앞에 서고(15:1), 여우 삼백과 불과 나귀 턱뼈의 연쇄가 14:15의 협박을 현실로 끌어낸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toanah* — 기회.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1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 Q1.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14:4) — 승인인가 사용인가?

- 본문은 부모의 항변(신 7:3의 결)을 길게 실어 삼손의 선택을 칭찬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단락에서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라고 적는다. 욕망을 명하신 것인지, 욕망의 결까지 기회(*toanah*)로 삼으신 것인지 — 두 문장이 부딪치는 채로 나란히 있다. 어느 쪽으로도 닫지 않는다. 보존.

#### Q2. 삼손은 4절을 알았는가 — 서술자는 왜 부모의 무지만 적는가?

- "그의 부모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만 적고 삼손의 앞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자기 욕망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가 알았는지, 끝내 몰랐는지 — 본문의 공백을 공백인 채로 둔다. 보존.

#### Q3. 주검의 꼴(14:8-9) 앞에서 서술자는 왜 침묵하는가?

- 민 6:6은 나실인에게 사체를 가까이하지 말라 하고, 13장은 그의 나실인 위임을 길게 알렸다. 그런데 균열의 순간에 서술자는 규정을 한 번도 환기하지 않는다. 독자가 스스로 13장을 기억해 내게 하려는 배열인지 — 본문 안에서 닫히지 않는다. 보존.

#### Q4. '알리지 아니하던' 사람은 어디서 무너지는가(14:6-9 → 14:17)?

- 부모에게는 두 번 침묵했던 사람이 이레의 울음과 죄어 누름(*tsuq*) 앞에서 발설한다. 16:15-17에서 같은 어근의 조름이 돌아오고 그때는 마음을 다 알려 준다. 침묵과 발설의 이 경사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14장 안에서는 답하지 않는다. 보존.

#### Q5. 이 장에서 평서문으로 말하는 이는 누구인가?

- 항변도 협박도 추궁도 답도 의문문이다(3·13·15·16·18절). 등장인물의 말이 전부 물음의 옷을 입는 장에서 가장 안정된 평서문은 서술자의 괄호(4절)다. 의문문의 밀도와 서술자 문장의 고요 — 이 대비가 의도된 배열인지 열어 둔다. 보존.

#### Q6. 영의 임함과 살인·약탈의 병기(14:19) — 본문은 왜 평가하지 않는가?

-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매"와 "삼십 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가 한 절 안에 이어지는데 서술자는 칭찬도 정죄도 적지 않는다. 옷니엘·기드온의 임함과 다른 동사(*tsalach*)가 거듭되는 형태 사실만 기록하고, 이 병렬의 무게는 미해결로 이월한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사사기 15장

JDG-015 · 역사서 · 히브리어

밀 거둘 때에 염소 새끼를 들고 닫힌 문 앞에 선 남편(15:1-2)에서 여우 삼백의 꼬리에 묶인 왜 (15:4-5)로, 피하려던 불이 결국 그 여인과 아버지를 사르는 부메랑(15:6 — 14:15 험박의 성취)으로, "네가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15:11)며 구원자를 새 밧줄로 묶어 넘기는 유다 삼천 명으로 — 그리고 나귀 턱뼈로 천 명을 친 손(15:15-16)이 처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15:18) 엔학고레의 샘물을 받는, 보복의 연쇄 끝에서 첫 기도가 터지는 사사기의 굵이.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의 이동: 딘나의 집 문 앞(1~3) → 블레셋의 곡식 밭·포도원·감람나무 밭(4~5) → 에담 바위 틈(8) → 유다 레히의 별판(9~19). 첫 장면만 문턱이고 나머지는 전부 노천.
- 계절 명시: "밀 거둘 때에"(1절) — 들판이 가장 마르고 곡식 단이 밭에 쌓인 때. 불이 가장 잘 붙는 계절의 개막.
- 소품: 염소 새끼(gedi izzim — 화해의 선물), 여우 삼백과 왜(lappidim), 곡식 단·포도원·감람나무(한 해 양식의 목록 = 불의 목록), 새 밧줄 둘(avotim chadashim), 나귀의 새 턱뼈(lechi triyah — 갓 죽어 마르지 않은 뼈), 우묵한 곳(maqtesh)과 샘물.
- 소품의 행렬: 선물로 열려 물로 닫힘 — 그 사이가 불과 뼈.
- 소재의 두 무더기: 불의 어휘(왜·사르다·불사르니라·불탄 삼) 對 물의 어휘(목마름·터뜨림·쏟아남·마심) — 장이 불에서 물로 움직임. 불은 사람들 사이를, 물은 하나님과 한 사람 사이를.
- 형식 소재: '행하다(asah)'가 경첩 — 모든 폭력이 앞 사람의 행함을 인용("누가 행하였느냐"·"이같이 행하였은즉"·"행한 대로"). 3절의 사전 면책 선언("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 문턱의 어긋남: 삼손에게는 살아 있는 혼인("내 아내를 보고자"), 장인에게는 끝난 일("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 같은 사건의 두 기억.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일상극의 문턱(선물·거절·동생 제안)이 몇 절 만에 들판의 화재·처형·천 명의 살육으로 — 사적 모욕이 증폭되는 속도.
- "행한 대로"의 폐쇄 회로 — 모두가 응수라고 주장하고 누구도 시작점이라고 말하지 않음.
- 불의 변모: 험박의 불(14:15) → 왜의 불(15:4) → 사람을 사르는 불(15:6) → 비유의 불("불탄 삼", 15:14). 마지막 장면에만 불이 없고 물이 솟음.
- 심문의 밀도: "누가 행하였느냐"·"어찌하여"·"알지 못하느냐" — 질문이 많은데 전부 추궁. 18절의 부르짖음만 추궁이 아닌 간구.



- 마름의 감각: 마른 들판·마른 곡식 단·잘 타는 화 — 그 마름이 18절에서 몸 안의 목마름으로 들어옴.
- qara의 밀집(17~19절): 명명(라맛 레히) — 부르짖음(여호와께) — 명명(엔학고레). 외침과 이름 붙임이 같은 동사. 배경.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더라."
- 사적 방문(한 가정의 문 앞)으로 열려 공적 직함(민족사의 연대기)으로 닫힘 — 그러나 그 직함의 시대 이름은 압제자의 것('블레셋 사람의 때에').
- 마침 공식의 변화: 옷니엘·에훗·드보라·기드온 뒤의 "땅이 평온하였더라"가 입다(12:7)부터 사라지고, 삼손의 이십 년에도 평온 없음 — 권의 기류 변화, 관찰.
- 머리와 꼬리의 대칭: 사람에게 내민 선물은 문에 막히고(1~2절), 하늘에 올린 부르짖음은 샘이 됨(18~19절).
- 무대의 대칭: 사람이 잠근 닫힌 문 → 하나님이 터뜨리신 우묵한 곳.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삼손(전 장면 등장), 장인(거절과 동생 제안), 그 아내(14장에서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15장에서는 대사 없이 불에 삼켜짐 — 최대 희생자의 무언 퇴장), 동생(언급만), 블레셋 사람들(심문·불사름·진 침·함성), 유다 사람 삼천 명(자기 사사를 결박), 하나님(영으로 임하시고 우묵한 곳을 터뜨리심).
- 중심 사상 1 — 보복의 셈법: 각 단계가 자기를 '정당한 응수'로 설명(3절 면책 선언, 6절 심문 형식, 11절 통치 현실론). 본문은 누구의 셈도 평가하지 않고 셈이 쌓이는 과정만 보여 줌.
- 중심 사상 2 — 부르짖지 않는 백성: 11절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 압제를 '다스림'이라 부르며 현상 유지를 택한 동족이 구원자를 묶어 넘김. 13:1의 압제 보고에 부르짖음이 빠진 침묵의 실상.
- 18절 — 삼손의 입에서 '주'·'종'·'구원'이 처음 나옴. 가장 강한 순간 직후의 가장 약한 순간에 첫 기도.
- 16절 노래의 주어는 '내가'(여호와 없음), 18절 기도의 주어는 '주께서' — 같은 사건의 두 이름(내가 죽였도다 / 주께서 베푸셨사오나).
- 사물의 사상: 새 밧줄 둘 — 동족이 고른 가장 튼튼한 결박이 영 앞에서 "불탄 삼"이 됨. 턱뼈 — 준비된 무기가 아니라 별판에서 주운 사체의 뼈, 쓰고 나서 내던짐.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닫힌 문 — 밀 거둘 때·염소 새끼·거절·동생 제안·면책 선언.
- 컷 2 (4~8절): 불의 연쇄 — 여우 삼백과 화, 곡식 밭의 화재, 블레셋의 심문과 그 여인·아버지 불사름,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정강이와 넓적다리의 대살육, 에담 바위 뜸.
- 컷 3 (9~13절): 유다의 결박 — 블레셋의 진, 삼천 명의 추궁("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새 밧줄 둘.
- 컷 4 (14~17절): 레히 — 함성, 여호와와 영, 불탄 삼 같은 밧줄, 나귀의 새 턱뼈, 천 명, chamor 말놀이 승전가, 턱뼈 투척과 라맛 레히 명명.

- 컷 5 (18~20절): 엔학고레 — 심한 목마름, 첫 부르짖음, 터진 우묵한 곳, 회복, 샘의 명명, "블레셋 사람의 때에 ... 이십 년".
- 컷 사이의 증폭 사다리: 아내를 줌 → 방화 → 불사름 → 대살육 → 결박 → 천 명. 화살표마다 asah가 경첩. 각 단계가 앞 단계보다 커짐.
- 군대 부재: 이스라엘 쪽 전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 — 바락의 만 명·기드온의 삼백과 대비되는 동원 없는 단독 사사. 개인사가 민족사를 대신하는 구도.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gedi izzim*(גְּדֵי יִזְיִם) — 염소 새끼(1절). 13:15의 대접 제안, 창 38:17의 방문 선물과 같은 표현 — 배경.
- *shualim*(שְׁוָלִים) — 여우들(4절). 무리 습성 때문에 자칼 가능성도 병기 — 형태 관찰.
- *lappidim*(לִפְדִּים) — 해·햇불(4~5절). 기드온의 햇불(삿 7:16)과 같은 단어.
- *shoq al-yarekh*(שׁוֹק עַל-יָרֵךְ) — 정강이와 넓적다리(8절). 전면 타격의 관용 표현으로 읽히는 어구 — 형태 관찰.
- *avotim chadashim*(עֲבוֹתִים חֲדָשִׁים) — 새 밧줄 둘(13절). 16:11-12에서 들릴라의 손에 같은 소품이 재등장 — 배경.
- *ruach YHWH tsalach*(רוּחַ יְהוָה צָלַח) — 여호와와 영이 강하게 임하시매(14절). 13:25, 14:6, 14:19에 이은 네 번째 기록.
- *pishtim*(פִּשְׁתִּים) — 삼·아마(14절). "불탄 삼 같이"의 비유 재료.
- *lechi triyah*(לְחִי טְרִיָּה ... לְחִי) — 새 턱뼈(15절). triyah는 '갓 죽어 아직 촉촉한'의 결.
- *bilchi hachamor chamor chamoratayim*(בִּלְחֵי הַחֲמֹר חֲמֹר חֲמֹרָתַיִם) —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16절). chamor(나귀)=chamor(더미)의 동음 말놀이. 두 행짜리 승전 단가의 뼈대.
- *Ramat lechi*(רָמַת לְחִי) — 턱뼈의 언덕(17절). / *naqam*(נָקַם) — 원수를 갚다(7절, 16:28에서 재등장).
- *qara*(קָרָא) — 부르짖다·부르다·이름 붙이다(17·18·19절). 외침과 명명에 같은 동사.
- *teshua gedola*(תְּשׁוּעָה גְּדוֹלָה) — 큰 구원(18절). / *arelim*(אַרְלִים) — 할례 받지 못한 자들(18절).
- *maqtesh*(מַקְתֵּשׁ) — 우묵한 곳(19절). 절구 모양의 패인 지형을 가리키는 단어.
- *En-haqqore*(עֵין הַקּוֹרֵא) — 부르짖은 자의 샘(19절). qore는 자고새(삼상 26:20; 렘 17:11)이기도 함 — '자고새 샘' 위에 부르짖음의 뜻이 겹쳐 읽히는 이중성 논의, 배경.
- *bime Phelishtim*(בְּיַמֵּי פְּלִשְׁתִּים) — 블레셋 사람의 때에(20절).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닫힌 문(1~3) + 불의 연쇄(4~8) + 유다의 결박(9~13) + 레히의 턱뼈(14~17) + 엔학고레(18~20) — 다섯 단의 구조.
- 보복 인용 사슬: 모든 폭력이 앞 사람의 '행함(asah)'을 인용하며 자기를 정당화 — 6·7·10·11절에 경첩 동사 집중.
- 부메랑 성취: 14:15의 협박("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이 15:6("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에서 거의 같은 어휘로 성취 — 서술자는 논평 없이 두 문장을 떨어뜨려 놓음.
- '내가'의 노래(16절 — 여호와 부재) 對 '주께서'의 기도(18절) — 같은 사건의 두 이름.

- 부르짖음의 분포 역전: 앞 사이클들(3:9, 3:15, 4:3, 6:6-7, 10:10)의 '백성이 부르짖으매'가 삼손 사이클에는 없음 — 백성은 묶고(15:13) 구원자가 부르짖음(15:18; 16:28).
- 이중 명명(etiology): 라맛 레히(17절)·엔학고레(19절) — 사건이 지명으로 굳는 기원담 한 쌍.
- 이십 년의 이중 기록: 15:20과 16:31 — 같은 직함 문장이 권에서 두 번 닫히는 액자.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추수기 방화 = 경제 전쟁 — 곡식 단과 베지 않은 곡식은 한 해 양식이자 종자. 포도원·감람나무는 여러 해 짜리 자산(감람나무는 결실까지 수십 년).
- 햇불 묶은 여우 떼 — 로마 케레알리아 축제 기록(오비디우스, Fasti 4)의 유사 모티프 — 지중해 세계의 배경 자료.
- 갓 죽은 뼈가 마른 뼈보다 무겁고 덜 부서짐 — lechi triyah의 도구적 배경.
- 세펠라 지리 — 덩나·에담·레히가 블레셋 다섯 성읍과 유다 산지 사이의 저지대 완충 지대.
- 조롱 섞인 승전 단가 — 동음 말놀이를 품은 짧은 전승 노래 양식, 15:16의 형식 배경.
- LXX: En-haqqore → Πηγὴ τοῦ ἐπικαλουμένου(뜻 번역으로 말놀이 보존), chamor 말놀이 → 풀어쓰기 전승, 레히 → 음역(Λεχι)과 번역(Σιαγών) 병존 — 번역·본문비평 배경.
- 랍비 전통: 탈무드 소타 9b-10a가 삼손 내러티브를 다루며 사사직 수행을 논의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샷 15:6 ↔ 샷 14:15 (불사르리라 — 협박과 성취의 부메랑)
- 샷 15:20 ↔ 샷 13:5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 시작의 한정과 '블레셋 사람의 때에'의 호응)
- 샷 15:14 ↔ 샷 13:25; 14:6; 14:19 (여호와와 영의 임함 — 네 번째 기록)
- 샷 15:15 ↔ 민 6:6 (나실인의 시체 조항 — 14:8-9의 사자 주검에 이은 사체 재접촉, 배경)
- 샷 15:18 ↔ 샷 3:9; 3:15; 4:3; 6:6-7; 10:10 (부르짖음의 주어가 백성에서 구원자로 — 분포 관찰)
- 샷 15:19 ↔ 샷 2:18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시는 긍휼 — 단독자에게도)
- 샷 15:18-19 ↔ 출 17:1-7 (목마름과 터진 반석 — 같은 그림, 배경)
- 샷 15:13 ↔ 샷 16:11-12 (새 밧줄 — 같은 소품의 재등장, 배경)
- 샷 15:18 ↔ 샷 16:28 (qara — 첫 기도와 마지막 기도의 한 쌍)
- 샷 15:1 ↔ 창 38:17 (염소 새끼를 들고 여인에게 — 방문 장면의 문학적 평행, 배경)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밀 거두는 계절의 환한 들판. 염소 새끼를 안은 남자가 문 앞에 선다 —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문이 열리지 않는다 —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동생이 더 아름답지 아니하나. 굳은 얼굴 — 이번은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밤. 여우 삼백, 꼬리와 꼬리, 화에 불. 곡식 단이 타고 베지 않은 곡식이 타고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탄다. 새벽의 연기 —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다른 불이 오르고 그 여인과 아버지가 사라진다. 정강이와 넓적다리가 부서지고, 남자는 에담 바위 틈으로 내려간다. 유다 사람 삼천 명이 내려온다 —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새 밧줄 둘 —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레히. 함성. 밧줄이 불탄 삼 같이 떨어진다. 갓 죽은 나귀의 턱뼈 하나. 천 명. 노래 —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여. 턱뼈가 내던져지고 언덕은 라맛 레히가 된다. 승리자가 비틀거린다. 심히 목마르다. 처음으로 하늘을 향한 외침 —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배푸셨사오나. 우묵한 곳이 갈라지고 물이 솟는다. 마시고, 살아난다. 엔학고레 — 부르짖은 자의 샘. 자막 — 블레셋 사람의 때에 이십 년. 안전.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뭍는 백성, 부르짖는 구원자 — 여우 삼백과 엔학고레"
- 초벌 부제: "밀 거둘 때의 닫힌 문에서 여우 삼백의 불로, 14:15의 협박이 그대로 돌아오는 불사름으로, 구원자를 새 밧줄로 묶어 넘기는 유다 삼천 명으로 증폭되는 보복의 사슬 끝에서 — 나귀 턱뼈로 천 명을 친 손이 처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qara) 엔학고레의 물을 받는 사사기 15장"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0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다섯 단 구조 + 보복 인용 사슬 + 부메랑 성취 + 추수기 방화·세펠라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15:6의 부메랑(협박의 성취)을 '죄의 대가'라는 인과응보 교리로 단정하지 않고, 14:15와 15:6의 어휘 일치라는 본문 사실의 병치로만 둬.
- 15:11의 유다를 '믿음 없는 백성'으로 정죄하는 평가를 더하지 않고, 부르짖음의 분포(앞 사이클 對 삼손 사이클)라는 관찰로만 기록.
- 15:18-19의 응답을 '기도하면 즉시 응답된다'는 일반 공식으로 확장하지 않고, 이 본문 안에서 조건 문장이 없다는 사실의 관찰로 둬.
- 16절 노래의 '여호와 부재'를 삼손의 신앙 상태에 대한 단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내가와' '주께서'라는 두 주어의 간격이라는 형태 관찰로 보존.
- 나귀 턱뼈와 나실인 조항(민 6:6)의 긴장을 '서원 파기'로 판정하지 않고, 본문이 논평하지 않는 긴장으로 미해결 보존.
- 엔학고레를 회심 사건으로 명명하지 않고, 첫 부르짖음과 즉답이라는 서사 사실로만 둬.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15장은 밀 거둘 때에 염소 새끼를 들고 찾아간 문이 닫히는 장면(15:1-2)에서 여우 삼백의 꼬리에 묶인 해가 블레셋의 곡식 밭·포도원·감람나무를 사르는 방화(15:4-5)로, 14:15의 협박("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이 거의 같은 어휘로 성취되는 불사름(15:6)과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15:7)의 대살육

(15:8)으로,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15:11)며 구원자를 새 밧줄 둘로 묶어 넘기는 유다 삼천 명(15:12-13)으로 증폭되다가 — 여호와와 영이 임하여 밧줄이 불탄 삼 같이 떨어지고 (15:14) 나귀의 새 턱뼈로 천 명을 친(15:15-16) 그 손의 주인이 심히 목말라 처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자 (15:18)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을 주시는 엔학고레(15:19)로 닫히는, "블레셋 사람의 때에"(15:20)라는 한정 아래의 이십 년을 여는 장이다.

**한 문단:** 밀 거두는 계절, 한 남자가 염소 새끼를 안고 처가의 문 앞에 선다. 문은 열리지 않는다 —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작은 문턱의 거절이 들판의 화재가 되고, 화재가 처형이 되고, 처형이 대살육이 된다. 모두가 "행한 대로 행하였다"고 말한다 — 누구도 자기를 시작점이라 부르지 않는 보복의 폐쇄 회로. 그 회로 안으로 동족이 들어온다. 유다 삼천 명이 압제를 '다스림'이라 부르며 자기 사사를 새 밧줄로 묶어 넘긴다. 레히의 함성 가운데 영이 임하고, 밧줄은 불탄 삼이 되고, 별판에서 주운 턱뼈 하나로 천 명이 더미를 이룬다. 승전가가 울린다 —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 명을 죽였도다. 그런데 노래가 끝나자 승리자가 비틀거린다. 심히 목마르다. 그리고 그 목마름에서, 13장부터 한 번도 없던 일이 일어난다 — 그가 부르짖는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우묵한 곳이 터지고 물이 솟는다. 마시고, 살아난다. 샘의 이름은 엔학고레 — 부르짖은 자의 샘. 그리고 연대기 한 문장 — 블레셋 사람의 때에, 이십 년.

#### B·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밀 거두는 때의 노천 무대(문 앞→들판→바위 틈→레히), 선물로 열려 물로 닫히는 소품 행렬, 불의 어휘와 물의 어휘, asah(행하다) 경첩.                         |
| 2 첫 느낌·분위기    | 일상극에서 화재로 번지는 증폭 속도. 모두가 응수라고 주장하는 폐쇄 회로. 협박→도구→처형→비유로 변모하는 불. 추궁의 질문들 끝의 한 간구.                          |
| 3 시작과 끝       | 사적 방문으로 열려 공적 직함으로 닫힘 — 그러나 시대의 이름은 '블레셋 사람의 때에'. 평온 공식의 소멸. 막힌 문 對 터진 샘.                                |
| 4 등장인물·사상     | 대사 없이 불에 삼켜지는 최대 희생자(그 아내). 보복의 셈법과 부르짖지 않는 백성. '내가'의 노래와 '주께서'의 기도. 새 밧줄과 주운 턱뼈.                        |
| 5 장면 컷        | 닫힌 문/불의 연쇄/유다의 결박/레히의 턱뼈/엔학고레 5컷. 증폭의 사다리. 군대 없는 단독 사사 — 개인사가 민족사를 대신함.                                  |
| 6 의문·발견·정보    | 14:15 협박의 부메랑 성취(15:6). 부르짖음 분포의 역전(백성은 묶고 구원자가 부르짖음). chamor 말놀이. qara의 외침·명명 이중 기능. 사체의 턱뼈와 민 6:6의 긴장. |
| 7 동영상         | 염소 새끼와 닫힌 문 → 불의 들판 → 바위 틈과 새 밧줄 → 턱뼈의 더미와 노래 → 목마름 부르짖음과 솟는 물 → '이십 년' 자막.                              |
| 8 초별 제목·부제    | "묶는 백성, 부르짖는 구원자 — 여우 삼백과 엔학고레"                                                                          |
| 9 기도·내면       | 목마름이라는 가장 낮은 필요가 기도의 문이 되는 것을 보고, 샘 곁에 머문다.                                                              |

####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asah, 보복이 보복을 인용하는 사슬:**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6절),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7절), "그가 우리에게 행한 것 같이"(10절),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11절). 15장의 모든 폭력은 앞 사람의 행위를 인용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한다. 면책은 미리 선언되고(3절), 끝은 자기 손에 쥐어지고(7절 "후에야 말리라"), 각 단계는 앞 단계보다 커진다 — 한 가정의 모욕이 들판의 화재로, 화재가 처형으로, 처형이 천 명의



더미로. 서술자는 어느 썸에도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 썸들이 쌓여 가는 들판을 보여 줄 뿐이다. 그리고 그 사슬은 사슬 안의 논리로는 끊기지 않는다 — 끊기는 지점은 인용이 아닌 발화, 18절의 간구다.

**2. 절 2 — 불의 부메랑, 피하려던 것이 회피의 경로로 도착함:** 14:15에서 블레셋은 그 여인을 협박했다 —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여인은 그 불을 피하려고 수수께끼를 누설했다. 그런데 15:6 —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피하려던 바로 그 불이, 피하려던 행동이 만든 길을 타고 도착한다. 협박의 문장과 성취의 문장이 거의 같은 어휘라는 사실이 이 아이러니의 전부이고, 서술자는 한 마디도 보태지 않는다. 불 자체도 장 안에서 모습을 바꾼다 — 협박의 불(14:15), 화의 불(15:4), 사람을 사르는 불(15:6), 그리고 결박을 푸는 비유의 불("불탄 삼", 15:14). 같은 원소가 위협·무기·처형·해방의 그림을 차례로 통과한 뒤에야, 마지막 장면은 불 없이 물로 닫힌다.

**3. 절 3 — qara, 천 명을 친 손의 첫 부르짖음:** 사사기의 사이클 공식은 '백성이 부르짖으매 구원자를 세우셨다'였다. 삼손 사이클에는 그 부르짖음이 없다 — 백성은 부르짖는 대신 구원자를 묶는다(15:13). 그리고 이 시대에 처음 부르짖는 사람은 사사 자신이다(15:18). 그 직전의 승전가(16절)는 '내가'의 노래였고 여호와가 없었다. 목마름이 오자 같은 입이 '주께서'로 바뀐다 — 같은 사건이 '내가 죽었도다'에서 '주께서 베푸셨사오나'로 다시 이름 붙는다. 그리고 응답에는 조건 문장이 없다 — 우묵한 곳이 터지고 물이 솟는다. 외침과 명명이 같은 동사(qara)인 히브리어 안에서, 그 부르짖음은 엔학고레라는 지명이 되어 땅에 남는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샷 14:15 —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 15:6에서 거의 같은 어휘로 성취되는 협박의 부메랑.
- 샷 13:5 —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 '시작'의 한정어 15:20의 '블레셋 사람의 때에'와 호응.
- 샷 13:25; 14:6; 14:19 — 여호와의 영의 임함 — 15:14는 네 번째 기록.
- 민 6:6 — 나실인의 시체 조항 — 사자 주검의 꿀(14:8-9)에 이은 사체의 턱뼈, 본문이 논평하지 않는 긴장.
- 샷 3:9; 3:15; 4:3; 6:6-7; 10:10 — '백성이 부르짖으매'의 사이클 공식 — 삼손 사이클에서의 부재와 역전.
- 샷 2:18 —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시는 궁핍 — 단독자의 외침에도 응답되는 결.
- 출 17:1-7 — 광야의 목마름과 터진 반석 — 같은 그림의 배경.
- 샷 16:11-12 — 들릴라의 새 밧줄 — 15:13과 같은 소품의 재등장.
- 샷 16:28 —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 15:18과 한 쌍을 이루는 두 번째 기도, naqam의 귀환.
- 창 38:17 — 염소 새끼를 들고 여인에게 가는 방문 — 문학적 평행, 배경.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5:1의 문턱에서 시작한다 — 내 안에서는 살아 있는데 상대 쪽에서는 끝나 있는 일이 내게도 있는지 듣는다.
- **멈춤 1:** 15:11에서 멈춘다 —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압제를 현상 유지의 언어로 부르는 입이 내 안에도 있는지 본다.
- **멈춤 2:** 15:16과 15:18 사이에서 멈춘다 — '내가'의 노래와 '주께서'의 기도. 같은 사건을 내가 어느 주어로 이름 붙이는지.
- **끝:** 15:19에서 멈춘다 —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살아났더라. 물 한 모금 크기의 회복 곁에 머문다.

#### F · 자족성 점검

- [x] 닫힌 문(1~3)·불의 연쇄(4~8)·유다의 결박(9~13)·레히의 턱뼈(14~17)·엔학고레(18~20)의 다섯 단 완결



- [x] asah 인용 사슬과 증폭의 사다리(모욕→화재→처형→대살육→결박→천 명)
- [x] 14:15 협박과 15:6 성취의 어휘 대응(부메랑)
- [x] 부르짖음 분포의 역전(백성의 결박 對 구원자의 qara)과 chamor 말놀이 승전가
- [x] '블레셋 사람의 때에'의 한정과 평온 공식의 부재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21:25)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미완과 진단(1~2장),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왕이 없으므로의 부록(17~21장)으로 움직이는데, 15장은 그 나선의 마지막 사사 사이클 한가운데 — 공식 자체가 뒤집힌 국면이다. 앞 사이클들은 백성의 부르짖음으로 열렸다. 삼손 사이클은 부르짖음 없이 열렸고(13:1), 15장에 와서 그 침묵의 실상이 몸을 입는다 — 압제를 '다스림'이라 부르는 유다, 구원자를 새 밧줄로 묶어 넘기는 삼천 명. 백성이 부르짖지 않는 시대에 부르짖는 유일한 사람이 사사 자신이라는 역설 — 그것이 이 장의 구속사적 위치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권의 heart가 드러난다. 2:18은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뜻을 돌이키셨음이라"라고 적었다. 15:18-19는 그 공허이 공동체의 부르짖음만이 아니라 단독자의 — 그것도 보복의 셈법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의 — 목마른 외침에도 조건 없이 응답됨을 보여 준다. 다만 구원은 '시작'에 머문다(13:5). 압제는 끝나지 않은 채 이십 년이 흐르고(15:20), 그 미완이 권을 참왕의 질문 쪽으로 민다.

##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달힐 문(15:1-2)에서 터진 셈(15:19)으로 / '행한 대로'의 인용 사슬에서 간구의 단문(15:18)으로 / 묶는 백성(15:13)에게서 부르짖는 구원자(15:18)에게로 — 보복의 폐쇄 회로가 목마름의 기도에서 끊기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5장은 '내가'의 셈에서 '주께서'의 고백으로 옮겨가는 운동이다. 사적 모욕이 증폭을 거듭해 천 명의 더미에 이르는 동안 그 셈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멈춘 지점은 승리의 정점이 아니라 그 직후의 목마름이었다.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이 벡터는 하강 나선의 안쪽 굽이다 — 구원자가 동족에게 묶이는 데까지 내려간 시대, 그러나 그 바닥에서도 부르짖음 하나에 셈이 터지는 공허. 15장이 끝나도 압제의 이름은 그대로 남아 있고(블레셋 사람의 때에), 같은 '이십 년' 문장이 16:31에서 한 번 더 달힐 때까지 — 가사의 성문과 소렉 골짜기와 다곤 신전까지 — 이 운동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보복극이다 — 여우와 불, 밧줄과 턱뼈, 더미와 노래.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진단이다. 유다 삼천 명의 문장("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은 압제에 적응을 마친 백성의 자화상이다. 부르짖음이 사라진 공동체는 구원을 소란으로 여기고, 구원자를 위험 요소로 결박한다 — 사사기가 권 전체로 그려 온 하강이 여기서 동족의 손과 새 밧줄이라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입는다. 둘째, 도구의 결이다. 구원은 준비된 무기가 아니라 별판에서 주운 사체의 뼈로 온다. 쓰고 나면 내던져지고, 들고 다니지 않는다. 사람이 고른 가장 튼튼한 결박(새 밧줄 둘)은 영 앞에서 불탄 삼이 되고, 아무도 고르지 않은 뼈 하나가 천 명을 감당한다 — 강한 것과 쓰임 받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배열이 이 장의 바닥에 깔려 있다. 셋째, 공허의 폭이다. 첫 기도는 회개의 문장이 아니다 — 목마름의 호소다. 그런데 응답에 조건 심사가 없다. 우묵한 곳이 터지고 물이 솟고, 그 사람은 살아난다. 부르짖음이 들리는 한 돌이키시는 2:18의 결이, 부르짖을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사실 — 본문은 거기까지만 보여 주고 멈춘다.

나는 지금 '행한 대로'의 썸 안에서 돌고 있는가, 아니면 목마름을 그대로 아뢰는 입을 가졌는가 — 그리고 내 시대의 구원을 나는 소란이라 부르는가, 부르짖음이라 부르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보복의 썸을 꾸짖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썸이 쌓아 올린 들판 — 탄 곡식과 더미들 — 을 보여 주고, 그 한복판에서 비틀거리는 승리자를 보여 준다. 천 명을 친 손이 물 한 모금 앞에서 무력해지는 장면은 강함의 끝이 어디인지를 논증 없이 드러낸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나온 첫 외침에 썸이 응답한다 — 자격 심사 없이, 조건 문장 없이. 엔학고레라는 이름이 땅에 남은 것은 그 응답이 일회의 사건이 아니라 돌아와 마실 수 있는 처소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묶는 백성과 부르짖는 단독자 사이, '내가'의 노래와 '주께서'의 기도 사이 — 독자가 자기 위치를 물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간격이, 이 장이 남기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엔학고레의 물을 마시고 살아난 사사가 가사로 내려간다(16:1) —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 일곱 가닥 머리털, 그리고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이 이십 년의 두 번째 기록(16:31)을 기다리고 있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qara* — 부르짖다, 그리고 이름 붙이다.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1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 Q1.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15:3) — 화자의 면책 선언을 서술자는 어떻게 보는가?

- 삼손은 행동 전에 자기 무죄를 미리 선언한다. 서술자는 동의도 반박도 적지 않는다. 14:4("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 알지 못하였더라")의 진술이 15장까지 닿는지도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화자의 자기 이해와 서술자의 침묵 사이 — 보존.

#### Q2.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15:7) — 그 '후에야'는 오는가?

- 보복의 끝을 자기 손에 쥐겠다는 문장인데, 16:28에서 같은 어근(*naqam*)이 다시 나온다 —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갚음의 썸이 이 장 안에서 닫히는지, 닫히지 않는 썸인지 — 본문은 판정하지 않는다. 보존.

#### Q3. 유다 삼천 명(15:11-13) — 왜 부르짖지 않고 묶는가?

- 앞 사이클들의 백성은 압제 아래서 부르짖었는데, 이 시대의 유다는 압제를 '다스림'이라 부르며 구원자를 결박해 넘긴다. 본문은 그들을 책망하는 문장을 한 군데도 두지 않는다 — 보여 주기만 한다. 그 침묵이 어떤 무게인지, 닫지 않고 보존.

#### Q4. '내가'의 노래(15:16)와 '주께서'의 기도(15:18) —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 14절은 "여호와와 영이 강하게 임하시매"라고 적었는데 본인의 승전가에는 여호와가 없다. 그리고 목마름이 오자 같은 입에서 '주께서 베푸신 큰 구원'이 나온다. 두 발화 사이에 놓인 것이 목마름뿐인지 —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Q5. 엔학고레(15:18-19) — 왜 가장 낮은 필요가 첫 부르짖음의 통로인가?**

- 천 명을 친 위업도, 동족의 배신도 그를 기도하게 하지 못했는데, 물 한 모금의 결핍이 처음으로 그 입을 하 늘로 돌린다. 목마름이라는 몸의 필요와 부르짖음이라는 영의 동작이 한 절 안에서 만나는 이 배치 — 닫 지 않는다. 보존.

**Q6. "블레셋 사람의 때에 ... 이십 년"(15:20) — 압제가 끝나지 않은 사사직은 무엇인가?**

- 13:5의 예고는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까지였고, 15:20의 연대기는 압제자의 이름으로 한정된 시간을 적는 다. 평온 공식 없이 닫히는 사사직 — 그 미완이 권 전체의 어디로 흐르는지, 16장과 그 너머로 이월. 보존.
-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사기 16장

JDG-016 · 역사서 · 히브리어

가사의 성문짝을 어깨에 메고 산꼭대기로 오른 절정의 힘(16:3) 끝에, 삼손 서사에서 "사랑하매(ahav)"가 쓰인 유일한 여인 들릴라(16:4)와 은 천백 개씩의 거래(16:5)가 놓이고 — 점점 진실에 다가가는 세 번의 거짓과 죽을 지경의 들볶임(vatiqtsar nafsho, 16:16)을 지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16:20)에 닿는, 그리고 다시 자라는 머리털 한 줄(16:22)과 둘째 기도 "나를 생각하옵소서(zokhreni)"(16:28) 위에서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로 닫히는 — 사사 시대 나선의 바닥.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셋: 밤의 가사(성문·매복, 1~3절) — 소렉 골짜기 들릴라의 방(같은 방 네 번, 4~22절) — 다곤 신전(두 기둥·지붕 위 삼천, 23~31절).
- 가사 액자: 16:1 제 발로 들어가 성문을 메고 나온 성읍 — 16:21 눈을 잃고 끌려 내려가 멧돌을 돌리는 성읍. 같은 지명이 장의 머리와 꼬리에.
- 동선의 대조: 성문을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오르는 등(3절) ↔ 가사로 끌려 내려가는 몸(21절).
- 소품 — 묶는 것 넷: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7절), 새 밧줄(11절), 베틀의 낱실과 바디(13~14절), 낫 줄(21절). 앞의 셋은 끊어지고 마지막만 끊어지지 않음.
- 소품 — 삭도(morah, 19절: 13:5의 금지 어휘가 처음으로 머리에 닿음), 무릎(베개가 된, 19절), 은 천백 개씩(5절), 멧돌(21절), 두 기둥(26·29절), 머리털(유일하게 자라는 소품, 22절).
- 형식 골격: 질문 — 답 — 결박 — "들이닥쳤느니라" — 끊음의 틀이 네 번 회전. 네 번째만 마지막 칸이 사라짐.
- 동사의 비대칭: "사랑하매(ahav)"는 삼손 서사에서 16:4 한 번 —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한다는 문장은 본문에 없음.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6:20의 서늘함 — 떠나심 자체보다 "전과 같이"라는 익숙함의 어법. 힘이 떠난 아침이 여느 아침과 같게 느껴진 감각의 공백.
-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네 번(9·12·14·20절) — 셋은 게임의 신호, 넷째만 진짜.
- 거대한 적이 아니라 날마다의 조름(16절)이 무너뜨림 — 물이 돌을 뚫는 침식의 속도.
- 조명의 하강: 밤의 가사 → 골짜기의 실내 → 옥중 → 신전. 마지막만 균중으로 환해지는데 그 빛이 조롱의 빛("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25절).
- 감각이 하나씩 꺼짐: 보던 눈이 어두워지고, 떨치던 몸이 매이고, 내달리던 발이 멧돌의 원을 돌.

- "마음을 다 알려 주어(higgid et kol libbo)"가 17~18절에 세 차례 — 넘어간 것이 비밀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문장.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더라."
- 보는 것으로 열려 장사로 닫힘. 적지로 들어가는 걸음으로 열려 고향으로 옮겨지는 시신으로 닫힘.
-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 13:25에서 영이 비로소 움직이신 마하네 단이 그 사이.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원.
- "사사로 이십 년" 결산이 15:20과 16:31 두 번 — 한 번은 승리 결, 한 번은 무덤 결.
- 혼자 가던 사람(14장)이 죽고 나서야 가족의 손에 — 한 사람의 밤으로 열려 온 집의 장사로 닫히는 무대.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삼손, 가사의 기생(무명), 들릴라(삼손 서사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적힌 여인), 블레셋 방백들(seranim, 다셋), 매복자들, 머리털 미는 사람, 손을 붙든 소년(26절), 지붕 위 삼천, 다곤(신),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 중심 사상: 힘의 출처 —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5절)가 장 전체의 심문. 세 번의 회피 끝에 17절에서 첫 자기 발화("모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 — 고백과 누설이 같은 문장.
- 두 기도의 비교: 15:18(목마름 — "주께서 ...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 16:28(zokhreni — "나를 생각 하옵소서 ...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전히 "나의 원수"이나, 처음으로 힘이 구해지는 것이 됨.
- 사랑의 어법: 15절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 4절의 동사를 들릴라가 지렛대로 되돌림. 14:16 답나 아내의 같은 어법에 이은 두 번째.
- 은의 동선: 5절 약속 → 18절 운반. 그 사이 장면에는 보이지 않음 — 조름의 동력이 화면 밖에서 흐름.
- sar mealav(20절): 임함의 동사들(14:6·19, 15:14 tsalach)이 쌓인 서사에 처음 적히는 떠남의 동사.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가사의 밤 — 기생의 집, 매복, "새벽이 되거든 죽이리라", 성 문짝·문설주·빗장을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 컷 2 (4~14절): 소렉 골짜기 — 사랑(4), 거래(5), 세 번의 게임: 활줄 일곱(7~9) · 새 밧줄(10~12) · 베틀과 머리털 일곱 가닥(13~14).
- 컷 3 (15~22절): 조름과 번뇌(15~16) — 진심의 누설(17) — 은의 도착(18) — 무릎 위의 잠과 삭도(19) — '전과 같이'와 떠나심(20) — 눈·눈 줄·맷돌(21) — 자라는 머리털(22).
- 컷 4 (23~31절): 다곤 찬가(23~24) — 구경거리(25) — 소년과 두 기둥(26~27) — 둘째 기도(28) —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29~30) — 장사와 이십 년(31).
- 컷 2~3은 같은 틀의 네 회전: 네 번째만 답이 진심이 되고 끊음이 사라짐. 컷 4 내부 대칭: 다곤의 찬가 ↔ 여호와를 향한 간구가 같은 지붕 아래.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ahav(אהב) — 사랑하다(4절). 삼손 서사 유일 사용. 들릴라 쪽의 사랑 진술은 부재.
- Delilah(דלילה) — 어근 dalal(약해지다)·layla(밤)와 잇는 제안들이 병존, 확정 아님 — 배경. LXX B Δαλιδα / A Δαλιλα.

- *seranim*(סְרָנִים) — 블레셋 다섯 방백 전용 칭호(5절). / *elefumeah kesef* — 은 천백(5절). 17:2와 같은 액수 — 형태 관찰만.
- *yetarim lachim* —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7절, lach='물기 있는'). / *avotim chadashim* — 새 밧줄(11절). / *masekhet* — 날실, *yated* — 바디(13~14절).
- *machlefot*(מַחֲלֵפֹת) — 머리털 가닥(13·19절). 성경 전체에서 이 장에만 등장.
- *vatiqtsar nafsho lamut*(16절) — 영혼이 죽기까지 쫓아졌다. 10:16의 같은 동사 *qatsar* — 형태 관찰만.
- *higgid et kol libbo*(17·18절) — 마음을 다 알려 주다, 세 차례 반복. / *morah* — 삭도(19절, 13:5와 동일 어휘). / *nezir Elohim* — 하나님의 나실인(17절, 13:5·7 그대로).
- *sar mealav*(20절) — 그에게서 떠나셨다. / *lo yada* — 깨닫지 못하였더라.
- *nechushtayim* — 놋 줄(쌍수, 21절). / *rechayim* — 맺돌(쌍수 — 위쪽·아래쪽, 21절).
- *Dagon*(23, דָּגוֹן 절). / *lesachek* — 재주 부리다·웃기다(25절). / *zokhreni* — 나를 생각하옵소서, *chazqeni na* — 나를 강하게 하소서(28절). / *tamot nafshi im Plishtim* — 내 영혼이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30절): 16절의 그 *nefesh*가 30절에서 죽음을 청함.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가사 인클루지오: 16:1(들어감)과 16:21(끌려 내려감) — 같은 성읍의 두 얼굴이 장을 감쌌.
- '보다' 모티프의 완성: 14:1 "답나에서 ... 여인을 보고"로 시작한 생애 — 16:1 "기생을 보고" — 16:21 눈 뽑힘. 보는 자에서 못 보는 자로.
- 세 거짓의 점진: 활줄(거짓) → 밧줄(거짓, 15:13에서 이미 끊어 본 줄) → 베틀+머리털 일곱 가닥(반쯤 진실 — 머리털이 입에 오름) → 전부(17절). 거짓이 진실의 둘레를 좁혀 감.
- 같은 틀 네 회전: 질문—답—결박—외침—끊음. 네 번째만 끊음이 사라지는 변형 — 반복 자체가 덧의 형식.
- *qatsar nafsho* 평행: 10:16(하나님 — 이스라엘의 곤고를 견디지 못하심) ↔ 16:16(삼손 — 들볶임에 죽기까지 쫓아짐). 권 안에서 이 표현은 두 곳뿐.
- 두 기도의 틀: 15:18과 16:28이 삼손의 발화 가운데 기도 둘 — 목마름의 항변과 *zokhreni*의 간구.
- 16:22의 복선: 맺돌 장면 한가운데 놓인 한 줄 — 약속 없는 미완의 시제("자라기 시작하나라").
- 결산의 산수(30절):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 서술자가 직접 셈하는 드문 문장. / "사사로 이십 년" 공식의 중복(15:20·16:31).
- 은 천백의 실: 16:5 ↔ 17:2 — 삼손의 끝과 부록의 시작이 같은 액수로 껴임.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다곤 — 블레셋 오경의 주신. *dagan*(곡식) 어근의 곡물 신 제안이 유력, *dag*(물고기) 옛 제안 병존. 마리·우가릿 문서의 서셈 신. 16:23 배경.
- 블레셋 신전 구조 — 텔 카실레 발굴 신전들의 두 중심 기둥 평면: 한 사람이 양팔로 두 기둥에 닿을 수 있는 간격. 16:26·29의 건축 배경.
- 맺돌 노동 — 포로·노예에게 부과되던 제분 노동, 정복당한 자의 굴욕 표지. 16:21 배경.
- 삭발 — 고대 근동의 복속·수치 표지 관행. 16:19 배경.
- 성문 — 방어의 핵심 구조물(문짝·문설주·빋장 일체). 성문 잃은 성은 열린 성. 16:3 배경.



- LXX: 16:13-14의 베틀 본문을 LXX가 길게 보존(MT의 필사 누락 논의 — parablepsis) — 본문비평 배경. 들릴라 음역의 사본 차이.
- 랍비 전통: 탈무드 소타 9b-10a — '눈을 따라갔으므로 눈으로 갚음받았다'는 측정 대 측정의 논의. 본문 확정 아님,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샷 16:17 ↔ 샷 13:5·7 (모태의 나실인·삭도 금지 — 천사의 말이 삼손의 자기 발화로 돌아옴; "구원하기 시작하리라"의 출발선)
- 샷 16:21 ↔ 샷 14:1 ('보다'로 시작한 생애가 눈 뽑힘으로 — 모티프의 완성)
- 샷 16:16 ↔ 샷 10:16 (vatiqtsar nafsho — 같은 동사의 평행, 형태 관찰)
- 샷 16:28 ↔ 샷 15:18 (두 기도 — 목마름의 항변과 zokhreni의 간구)
- 샷 16:21 ↔ 샷 9:53 (권 안의 두 멧돌 —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진 위짖과 삼손이 돌리는 두 짖)
- 샷 16:5 ↔ 샷 17:2 (은 천백 — 편집의 실, 배경)
- 샷 16:17 ↔ 민 6:1-8 (나실인 규례 — 힘 조항은 규례에 없음, 배경)
- 샷 16:23 ↔ 삼상 5:1-4 (법궤 앞에 엎드러지는 다곤 — 후속 장면, 배경)
- 샷 16장 ↔ 히 11:32 (삼손이 믿음의 목록에 — 배경)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밤의 가사. 매복의 숨소리 — 새벽이 되거든 죽이리라. 한밤중, 거대한 그림자가 성문 앞에 서서 문짝 둘과 문설주와 빗장을 통째로 빼어 어깨에 멘다. 오르막을,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화면이 바뀐다 — 소렉 골짜기, 한 여인의 방. 자막: 삼손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다섯 방백이 문을 넘고 은 천백이라는 말이 낮게 오간다. 같은 방이 네 번 비취진다. 젖은 활줄 일곱 — 들이닥쳤느니라 — 불탄 삼 오라기처럼 끊어진다. 새 밧줄 — 들이닥쳤느니라 — 실처럼 끊어진다. 베틀에 짜인 머리털 일곱 가닥 — 들이닥쳤느니라 — 바디째 뽑힌다. 넷째 밤은 다르다.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 날마다, 날마다. 꺾여 나간 얼굴이 입을 연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라. 무릎 위의 잠, 삭도, 떨어지는 일곱 더미. 들이닥쳤느니라 — 네 번째.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 화면은 알고 그 사람만 모른다. 눈이 어두워지고 늦 줄 두 짖이 채워지고 멧돌이 돈다. 원, 원, 또 원 — 그 위로 한 줄: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 신전. 우리의 신이 원수를 넘겨 주었다 — 삼천의 합창, 재주를 부리게 하라. 소년의 손이 그의 손을 기둥으로 이끈다. 손바닥이 돌의 결을 더듬는다.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 이번만 강하게 하소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몸이 굽혀지고 지붕이 내려앉는다. 마지막 컷 — 가족이 시신을 메고 오르막을 간다.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노아의 장지. 자막: 사사로 이십 년. 암전.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 무릎 위의 삭도와 다시 자라는 머리털"
- 초벌 부제: "성문을 메고 오르던 절정의 힘이 소렉 골짜기의 사랑(ahav)과 은 천백의 거래 앞에서 세 번의 거짓으로 버티다 무릎 위에서 잘려 나가고, '전과 같이'의 서늘함(16:20)을 지나 다시 자라는 머리털(16:22)과 zokhreni의 둘째 기도(16:28) 위에서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로 — 사사 시대의 나선이 바닥에 닿는 장"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5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가사 인클루지오 + 같은 틀 네 회전 + qatsar 평행 + 다곤·두 기둥 신전·맷돌 노동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16:20(떠나신 줄 깨닫지 못함)을 '은혜를 잃지 않으려면 ~하라'는 경고 설교로 일반화하지 않고, '전과 같이'라는 어법과 lo yada의 본문 사실로만 기록.
- 16:16과 10:16의 qatsar 평행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된다'는 교리로 끌고 가지 않고, 같은 동사가 두 곳에 쓰였다는 형태 관찰로만 보존.
- 16:22(자라는 머리털)를 '회복의 약속'으로 단정하지 않고, 약속 없이 놓인 미완 시제의 복선이라는 서술 관찰로 둬 — 머리털과 힘의 관계 자체는 미해결 질문으로 이월.
- 16:28의 둘째 기도를 '회개의 모범'으로도 '사적 복수심의 한계'로도 누르지 않고, 15:18과의 비교(처음으로 힘을 구하는 간구)라는 본문 사실로만 기록.
- 16:30의 죽음을 자기희생 신학이나 순교론으로 격상하지 않고, 서술자의 산수(죽인 자의 비교)와 13:5의 '시작'이 닫히는 방식이라는 관찰로 둬. 히 11:32는 배경 참조로만.
- 들릴라를 '유혹하는 여인'의 전형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이름의 유일성·거래의 액수·질문의 반복이라는 본문 사실로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16장은 갇힌 가사의 성문짜를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오르는 절정의 힘(16:3) 위에서 열려, 삼손 서사에서 "사랑하매(ahav)"가 쓰인 유일한 여인 들릴라(16:4)와 "각각 은 천백"의 거래(16:5)를 지나, 점점 진실의 돌레를 좁혀 가는 세 번의 거짓(활줄 일곱·새 밧줄·베틀의 날실, 16:6-14)과 죽기까지 짧아진 영혼(vatiqtsar nafsho lamut, 16:16) 끝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16:17)이라는 마지막 비밀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16:20)의 서늘함과 눈·눈 줄·맷돌(16:21), 그리고 다시 자라는 머리털 한 줄(16:22)을 지나, 다곤의 찬가가 울리는 신전에서 둘째 기도 "나를 생각하옵소서(zokhreni)"(16:28)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16:30)로 사사 시대의 나선을 바닥까지 데려가는, 삼손 서사와 사사 사이클 본체의 종결이다.

**한 문단:** 밤의 가사에서 매복이 숨죽이는데, 그 성의 문짜와 문설주와 빗장이 통째로 뽑혀 한 사람의 어깨에 얹힌다. 막을 수 없는 힘 — 그 절정 직후에 본문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동사를 적는다.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 다섯 방백이 은 천백씩을 들고 올라오고, 같은 방에서 같은 틀이 네 번 돈다. 묻고, 답하고, 묶고, "들이닥쳤느니라" — 세 번은 끊어진다. 활줄도 밧줄도 베틀의 바디도. 그러나 네 번째 회전에서 끊는 칸이 사라진다. 날

마다의 조름에 영혼이 죽기까지 쫓아진 사람이 마음을 다 알려 준다 — 삭도, 나실인, 모태. 무릎 위의 잠, 떨어지는 일곱 더미. 그리고 권에서 가장 서늘한 문장 —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보는 것으로 살아온 눈이 뻗히고, 성문을 메던 어깨가 멧돌의 원을 돈다. 그 원운동 한가운데 서 술자가 한 줄을 심는다 —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곤의 신전, 삼천의 웃음, 소년의 손에 이끌린 손이 두 기둥에 닿는다.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 이번만. 집이 무너지고, 가족이 시신을 메고 고향의 오르막을 오른다.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 영이 처음 움직이던 그 사이로. 사사로 이십 년.

## B ·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가사—소렉 골짜기—다곤 신전의 세 무대. 끊어지는 줄 셋과 끊어지지 않는 낫 줄, 베개가 된 무릎, 유일한 하게 자라는 소품인 머리털.                   |
| 2 첫 느낌·분위기    | '전과 같이'의 서늘함(16:20). 네 번 외침 가운데 진짜인 한 번. 날마다의 조름이라는 침식. 환한 신전이 가장 어두운 역광.                     |
| 3 시작과 끝       | 보는 것(16:1)으로 열려 장사(16:31)로 닫힘.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 13:25의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원. "이십 년" 결산의 중복.              |
| 4 등장인물·사상     | 이름을 받은 유일한 여인 들릴라. 중심 사상은 힘의 출처 — 고백과 누설이 같은 문장(16:17), 처음으로 힘을 구하는 간구(16:28).                |
| 5 장면 컷        | 성문(1~3)/게임(4~14)/몰락(15~22)/신전(23~31) 4컷. 같은 틀 네 회전, 네 번째만 끊음이 사라짐. 다곤 찬가와 여호와 간구의 대칭.         |
| 6 의문·발견·정보    | 은 천백의 실(16:5↔17:2). qatsar 평행(10:16↔16:16). 서술자의 산수(16:30). machlefot는 이 장에만. 텔 카실레의 두 기둥 신전. |
| 7 동영상         | 성문의 오르막 → 네 번의 같은 외침 → 무릎 위의 삭도 → 멧돌의 원과 자라는 머리털 → 두 기둥 사이의 간구 → 가족이 메고 오르는 시신.               |
| 8 초벌 제목·부제    |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 무릎 위의 삭도와 다시 자라는 머리털"                                                      |
| 9 기도·내면       | '전과 같이'라는 익숙함과 소리 없이 자라던 머리털 곁에 — 묻지 않고 머문다.                                                  |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ahav, 한쪽으로만 흐르는 동사와 좁혀지는 거짓:** 삼손 서사에서 '사랑하다'는 16:4 단 한 번, 삼손에게서 들릴라로만 흐른다. 들릴라 쪽에는 거래의 액수(은 천백 개씩 × 다섯)와 같은 질문의 반복이 놓인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삼손의 거짓이 점점 진실에 다가간다 — 활줄 일곱(거짓 속에 벌써 '일곱'이 섞임), 새 밧줄(이미 끊어 본 줄), 베틀과 머리털 일곱 가닥(비밀의 물건이 입에 오름). 비밀을 지키는 게임이 사실은 비밀을 건네주는 계단이었다는 것 — 본문은 그 점진을 네 번의 같은 틀로 보여 준다.
- 결 2 — sar mealav, 떠나심을 모르는 익숙함:** 14장부터 힘은 늘 임하는 것이었다 —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가 세 번(14:6·19, 15:14). 그 한결같은 16:20에서 뒤집힌다.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서운 것은 떠나심이 아니라 깨닫지 못함이고, 깨닫지 못함의 토양은 '전과 같이'라는 익숙함이다. 임재가 당연해진 사람에게 떠난 아침은 여느 아침과 같게 느껴졌다 — 본문은 그 공백을 설명 없이 lo yada 한 마디로 적는다.

3. **결 3 — zokhreni, 바닥에서 처음 구해지는 힘**: 15:18의 첫 기도는 승리 직후의 목마름이었다 —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16:28의 둘째 기도는 눈을 잃은 어둠 속이다 — "나를 생각하옵소서 ...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평생 그냥 쓰던 힘이 처음으로 구하는 힘이 된다. 간구의 목적어는 여전히 사적이지만("나의 두 눈을 뵈"), 힘의 출처를 향해 손을 내미는 첫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다. 그 사이에 서술자가 미리 심어 둔 한 줄 —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16:22) — 가 뱃돌의 끝없는 원운동 속에서 미완의 시제로 자라고 있었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샷 13:5·7 — 모태의 나실인, 삭도 금지,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 16:17의 자기 발화와 16:30의 종결이 닿는 출발선.
- 샷 14:1 — "답나에서 ... 여인을 보고" — '보다'로 시작한 생애가 16:21의 눈 뿔힘으로 닫히는 모티프.
- 샷 10:16 — vatiqtsar nafsho — 16:16과 같은 동사의 평행, 형태 관찰.
- 샷 15:18 — 첫 기도(목마름) — 16:28 둘째 기도의 비교쌍.
- 샷 9:53 — 아비멜렉의 뱃돌 — 권 안의 다른 뱃돌, 다른 자세.
- 샷 17:2 — 미가의 은 천백 — 16:5와 같은 액수, 부록으로 건너가는 편집의 실.
- 민 6:1-8 — 나실인 규례 — 힘 조항의 부재, 배경.
- 삼상 5:1-4 — 법궤 앞에 엎드러지는 다곤 — 다곤 구도의 후속 장면, 배경.
- 히 11:32 — 삼손이 믿음의 목록에 — 몰락 서사와 호명의 간격, 배경.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6:3에서 시작한다 — 성문을 메고 오르는 절정. 막을 것이 없어 보이는 힘의 한복판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따라간다.
- **멈춤 1**: 16:16에서 멈춘다 — 날마다의 조름, 죽기까지 짧아지는 영혼. 나를 짊어 가는 것이 거대한 적인지 날마다의 무엇인지 본다.
- **멈춤 2**: 16:20에서 멈춘다 — '전과 같이'. 늘 되던 것이 오늘도 되리라는 내 익숙함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 본다.
- **끝**: 16:22와 16:28 사이에서 멈춘다 — 뱃돌 곁에서 소리 없이 자라던 머리털과, 바닥에서 처음으로 출처를 부르는 간구. 끝난 것 같은 국면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같이 진다.

#### F · 자족성 점검

- [x] 성문(1~3)·게임(4~14)·몰락(15~22)·신전(23~31)의 네 컷 완결
- [x] 같은 틀 네 회전과 네 번째 변형(끊음의 소멸)
- [x] ahav의 유일 사용과 비대칭, 은 천백의 거래 구조
- [x] sar mealav와 lo yada — 16:20의 서늘함의 본문 사실
- [x] 두 기도(15:18↔16:28)의 비교와 16:22 복선의 자리매김 없는 보존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미완과 진단(1~2장),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그리고 왕이 없

으므로 벌어지는 부록(17~21장)으로 움직이는데, 16장은 그 나선 본체가 닫히는 바닥이다. 옷니엘에서 출발한 사이클이 돌수록 일그러져 — 기드온의 에봇, 아비멜렉의 칼, 입다의 서원을 지나 — 부르짖지도 않는 세대(13:1)에 보내진 가장 강한 사사가 가장 깊이 무너지는 곳에서 멈춘다. 13:5의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시작'인 채로,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라는 죽음의 방식으로 닫힌다. 구원자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시작만 남기고 떠나는 것 — 그 미완이 사사라는 제도 전체의 결산이고, 17장부터의 어둠("왕이 없으므로")을 여는 문이다. 그리고 권의 heart — 부르짖음마다 돌이키시는 탄식 섞인 공회 — 가 이 장에서는 가장 낮은 형태로 일한다. 부르짖지 않던 사람이 눈을 잃고서야 부르짖고(16:28), 그 간구가 응답된다. 10:16에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견디지 못하시던 그 마음(vatiqtsar nafsho)의 동사가 16:16의 삼손에게도 적혀 있다는 형태 사실이, 이 바닥에도 공회의 결이 흐르고 있음을 본문의 결론만 내비친다.

##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문을 메고 오르는 절정(16:3)에서 맷돌의 원(16:21)으로 / 임하던 힘(14:6-19, 15:14)에서 구하는 힘(16:28 chazqeni)으로 / 떠나신 줄 모르는 익숙함(16:20)에서 "나를 생각하옵소서"(zokhreni)로 — 가장 강한 사사가 바닥에 닿으며 사사 시대 전체가 닫히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6장은 '그냥 주어지던 힘'이 '구해지는 힘'으로 바뀌는 운동이다. 절정의 자만(성문)에서 일상의 침식(조름)으로, 침식에서 누설로, 누설에서 어둠(눈·눈 줄·맷돌)으로 내려가는 하강이 장의 표면 동선인데, 그 바닥에서 두 가지가 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 소리 없이 자라는 머리털(16:22)과 처음으로 출처를 향하는 간구(16:28). 그러나 그 상승이 영웅의 복귀로 이어지지 않는다.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 죽음을 통과하는 승리, 살았을 때보다 많은 죽음의 샘(16:30)으로 13:5의 '시작'이 마쳐진다. 이 벡터는 권 전체를 21:25의 진단("왕이 없으므로")으로, 그리고 사사보다 큰 구원자의 필요라는 물음으로 밀고 간다.

##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영웅의 몰락담이다 — 여인, 은, 배신, 체포, 복수.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익숙함의 해부다. 삼손을 무너뜨린 것은 블레셋의 군대가 아니라 날마다의 조름이었고(16:16), 그를 눈멀게 한 것은 삭도가 아니라 '전과 같이'라는 가정이었다(16:20). 임재가 당연해질 때 떠남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 — 본문은 이 무서운 사실을 교훈 없이, lo yada 한 마디로 보여 준다. 둘째, 신들의 법정이다. 다곤의 찬가(16:23-24)가 무대를 '우리의 신 대 그들의 신'의 구도로 격상시키는데, 그 구도가 뒤집히는 방식이 뜻밖이다 — 군대도 기적의 영웅도 아닌, 눈을 잃고 구경거리가 된 한 사람의 간구를 통해 다곤의 지붕이 내려앉는다. 가장 낮아진 사람이 가장 큰 역전의 통로가 되는 배열이 본문 바닥에 깔려 있다. 셋째, 미완의 보존이다. 서술자는 맷돌 장면 한가운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16:22)를 심어 두고 아무 약속도 덧붙이지 않는다. 끝난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자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만 — 그것이 무엇으로 자랄지는 신전 장면이 보여 줄 때까지 — 한 줄로 보존된다. 본문은 거기까지만 보여 주고 멈춘다.

##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의 '전과 같이'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 — 늘 되던 것이 오늘도 되리라는 익숙함 속에서, 나는 무엇이 떠나도 모르는 채 아침을 맞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 맷돌 곁에서, 소리 없이 자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성문을 메던 어깨가 맷돌을 도는 모습을 보여 주고, 그 하강의 마디마다 작은 것들을 짚어 준다 — 날마다의 조름, 무릎 위의 잠, '전과 같이'라는 한 마디. 무너짐이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익숙함의 누적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독자가 자기 일상을 들여다보게



하는 문이 된다. 그리고 본문은 바닥에서 두 가지를 보여 준다 — 약속 없이 자라는 머리털과, 평생 처음으로 출처를 향해 내미는 손("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떠나신 줄 몰랐던 사람의 마지막 말이 "나를 생각하옵소서(zokhreni)"였다는 것 — 잊은 쪽은 그였는데 기억을 구하는 간구가 응답된다는 것 — 그 간격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가장 강한 사사가 무덤에 눕고 사사의 시대가 닫혔다 — 에브라임 산지의 한 집에서 은 천백이 다시 오가고(17:2), 신상이 부여지고,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는 후렴이 시작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zokhreni* — 나를 생각하옵소서.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1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 Q1. 사랑(ahav, 16:4)의 비대칭 — 서술자는 왜 한쪽의 사랑만 적는가?

- 삼손 서사에서 '사랑하다'는 이 한 번이고, 그 동사는 삼손에게서 들릴라로만 흐른다. 들릴라의 마음에 대해 본문은 침묵한다. 그 침묵이 거래(5절)를 더 차갑게 만드는데, 서술자가 이 비대칭을 어디까지 의도했는지는 담하지 않는다. 보존.

#### Q2. 16:20 — 어떻게 떠나신 줄 모를 수 있는가?

-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 머리털이 밀린 무게의 차이도, 힘이 빠져나간 몸의 감각도 본문은 묘사하지 않는다. lo yada(깨닫지 못하였더라) 한 마디뿐이다. 임재가 날씨처럼 당연해지는 과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 Q3. qatsar nafsho의 평행(10:16 ↔ 16:16) — 우연인가 설계인가?

- 이스라엘의 곤고를 견디다 못하신 하나님과, 여인의 조름에 죽기까지 쫓아진 삼손 — 권 안에서 이 표현이 쓰인 두 곳이다. 같은 동사가 두 어깨에 얹힌 배열이 편집의 설계인지, 관용 표현의 재사용인지는 본문이 답하지 않는다. 평행의 사실만 보존.

#### Q4. 둘째 기도(16:28) — '나의 두 눈의 원수'라는 동기와 응답된 힘의 관계는?

- 간구는 처음으로 힘의 출처를 향하지만("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목적어는 여전히 사적이다("나의 두 눈을 뺄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서 힘이 응답된다. 동기의 순도와 응답의 관계를 본문은 평가하지 않는다. 보존.

#### Q5. 머리털과 힘(16:22) —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 민 6장의 나실인 규례에도, 13장의 천사의 말에도 힘 조항은 없다 — 삭도 금지뿐이다. 그런데 머리털이 밀리자 힘이 떠나고, 땃돌 곁에서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 머리털 자체가 힘인지, 서원의 표지인지, 자라는 것이 머리털인지 다른 무엇인지 — 본문은 한 줄만 적고 침묵한다. 보존.



**Q6. "사사로이 십 년"의 증복(15:20·16:31)과 히 11:32 — 이 생애의 결산은 무엇인가?**

- 같은 공식이 승리 결과 무덤 곁에 두 번 적힌다. 그리고 신약은 이 사람을 믿음의 목록에 부른다(히 11:32 — 배경). 몰락의 서사와 믿음의 호명 사이의 간격을 어느 쪽으로도 누르지 않고, 두 기록을 나란히 둔 채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사기 17장

JDG-017 · 역사서 · 히브리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의 미가(Mikhaeyehu)가 어머니의 은 천백을 훔쳤다 돌려드리고, 저주가 즉석에서 축복으로 바뀌며, 그 은으로 "여호와께"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봉헌되는(17:3) 한 가정 — 에봇·드라빔·아들 제사장으로 성소가 완비된 직후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17:6)는 후렴이 처음 올리고, 떠도는 레위인이 연봉 은 열에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17:13)는 셈법으로 닫히는, 전쟁터 아닌 안방의 부록 개막.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1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에브라임 산지의 한 가옥 — 성문·신전·전쟁터에서 안방으로 줄어드는 무대. 등장인물 다섯 안팎, 군중·군대 없음.
- 무대의 부재 셋: 사사 없음 · 적 없음 · 여호와의 발화 없음(0회). 사람들이 '여호와'를 부르지만 그 이름의 주인은 등장하지 않음.
- 소품: 은 천백(2~3절) — 은 이백(4절) — 연봉 은 열(10절). 한 장의 소품이 은으로 셈해짐. 새긴 신상·부어 만든 신상·에봇·드라빔(4~5절), 의복 한 벌과 먹을 것(10절).
- 소재의 두 무더기: 종교 어휘(여호와·거룩히 드림·제사장·복) 對 거래 어휘(잃음·가짐·은 열·고용·연봉) — 두 무더기가 한 문장 안에서 섞임.
- 형식: 사사 사이클 공식(범죄·압제·부르짖음·구원)이 꺼지고, 시대 진단 문장(17:6)이 끼어드는 부록의 새 문제.
- 이름의 반박: Mikhaeyehu('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의 사람 집에 여호와의 형상을 자처하는 신상이 들어섬.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도둑이 아들로 밝혀지는 순간 저주가 즉석 축복으로 뒤집힘(2절) — 회개 절차 없는 전환. 말이 진실의 도구가 아니라 내 편을 지키는 주문으로 쓰이는 가벼움.
- '여호와'가 세 번(2·3·13절) 불리는데 전부 사람의 입에서 — 불릴수록 비어 가는 이름, 상표만 남은 병의 공허.
- 16장의 핑음 뒤에 오는 안방의 고요 — 칼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장. 평화가 아니라 무너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고요.
- 1인칭 소유격의 밀도: 내 아들 — 내 손에서 — 나를 위하여 — 내 제사장 — 내게 복. 신앙의 문법이 1인칭 소유로 굴절됨.

- 은 천백의 메아리 — 들릴라의 매수 액수(16:5)와 같은 숫자. 삼손을 판 돈과 신상을 만든 돈이 같은 동전 소리.
- 발화 분포: 미가·어머니·레위인 — 전부 사람. 여호와와의 발화 0회. 배경.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 13절: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 잃어버린 은의 결핍으로 열려 보장된 복의 확보로 닫힘 — 확보의 근거가 회개나 제단이 아니라 인사(채용).
- 어미의 이동: "있더니"(담담한 소개) → "아노라"(확신의 종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장에서 사람만 혼자 다 알았다고 말하며 막이 내림.
- 무대의 축소: 모자의 대화(2인)에서 미가의 독백(1인)으로 — 답하는 음성 없는 혼잣말로 닫힘.
- 2절 기원("복 받기를 원하노라")과 13절 확신("복 주실 줄을 아노라") — 복의 문법이 소원에서 보장으로 승격되는 수미.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미가(도둑→신당 주인), 이름 없는 어머니(저주→축복→봉헌), 대사 없는 은장색(4절), 제사장 됐다가 언급이 사라지는 아들(5절), 이름 없는 레위인 청년(7절~). 절반이 무명.
- 부재자들: 왕·사사·발화하시는 하나님 — 무대 밖 부재가 장의 제목 노릇을 함.
- 중심 사상: 종교의 사유화 — 성소가 '미가의 집'에, 신당이 '그 사람에게', 제사장이 '내 것'으로. 예배의 어휘는 다 있는데 주어가 전부 '나'.
- 위임 공식의 전용: 5·12절 "세워 제사장으로 삼다" = mille yad('손을 채우다'), 출 28:41·29:9의 성막 위임 공식이 안방에서 두 번 사사로이 집행됨.
- 호칭의 역전: 청년(naar)에게 '아버지'(10절) — 그러나 11절에서 그가 '아들 중 하나 같이' 됨. 호칭과 실상의 어긋남, 고용이 권위의 말을 거꾸로 채움.
- 은의 동선: 잃은 천백 → 돌아온 천백 → 봉헌 선언된 천백 → 집행된 이백. 서원과 집행의 간격(구백의 침묵).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은의 왕복 — 도둑질 고백, 즉석 축복, 봉헌 선언, 은 이백으로 만들어져 미가의 집에 놓이는 두 신상.
- 컷 2 (5~6절): 가정 성소의 완비 — 신당·에봇·드라빔·아들 제사장, 그리고 멈춰 서는 내레이션(17:6 후렴 첫 등장).
- 컷 3 (7~12절): 떠도는 레위인 — 유다 베들레헴 출발, 연봉 계약("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은 열·의복·먹을 것"), 만족, 두 번째 위임.
- 컷 4 (13절): 미가의 독백 —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 후렴의 위치: 장의 맨 앞·뒤가 아니라 한가운데(신당 완비 직후) — 독자가 컷 3을 6절의 안경을 쓰고 읽게 되는 배열.

- 컷 1·컷 3의 평행: 은이 신상을 만들고(1~4), 은이 제사장을 삼(7~12) — 거래가 거룩을 만들어 내는 이중 구조.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Mikhayehu*(מִיכַיְהוּ) —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1·4절). 5절부터 *Mikhah*(מִיכָה) 단축형 — 신명 요소 '야후'가 떨어진 형태. 신상이 들어선 뒤의 철자 변화, 형태 관찰만.
- *elef umeah kesef*(אַלְף וָאַחַד כֶּסֶף) — 은 천백(2절). 삿 16:5의 들릴라 매수 액수와 동일 어구 — 성경 전체에서 이 두 곳뿐.
- *alah*(אֱלֹהִים) — 저주·맹세의 발화(2절). / *barukh beni laYHWH* —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2절).
- *haqdesh hiqdashti*(הִקְדַּשְׁתִּי הַקֹּדֶשׁ) — 부정사 절대형+정동사의 강조 겹침(3절). 가장 힘준 봉헌 문법이 신상 제작에 사용됨.
- *pesel umassekhah*(פֶּסֶל וּמַסֶּכֶּה) — 새긴 상과 부은 상(3~4절). 신 27:15가 저주 대상으로 명시한 짝.
- *tsoreff*(צוֹרֵף) — 은장색(4절). / *bet elohim*(בֵּית אֱלֹהִים) — 신당, 직역 '하나님(들)의 집'(5절).
- *efod*(עֹפֹד) · *terafim*(תְּרָפִים) — 5절. 드라빔은 창 31:19의 가정 수호신상과 같은 단어.
- *vayemalle et-yad*(וַיַּמְלֵא אֶת־יָד) — '손을 채우다' = 제사장 위임 공식(출 28:41; 29:9). 5절과 12절, 두 번 사용.
- *ish hayyashar beenav yaaseh*(אִישׁ הַיָּשָׁר בְּעֵינָיו יַעֲשֶׂה) — 사람마다 그 눈에 곧은 대로 행하였더라(6절). 삿 14:3 삼손의 "내 눈에 옳으니(yashrah veenay)"와 같은 어휘.
- *naar*(נָעַר) — 청년(7절). / *gur*(גֹּוֹר) — 거류하다(7~9절). / *av vekhohen*(אָב וְכֹהֵן) — 아버지와 제사장(10절). / *aseret kesef* — 은 열(10절).
- *vayoele*(וַיֹּאמֶר) — 만족하게 생각하다(11절). / *attah yadati*(אַתָּה יָדַעְתָּ) — 이제 내가 아노라(13절).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은의 왕복(1~4) + 성소 완비와 후렴(5~6) + 레위인 계약(7~12) + 복의 독백(13) — 네 단의 부록 개막 구조.
- 후렴 분포: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4회(17:6; 18:1; 19:1; 21:25), 완전형("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은 17:6과 21:25 — 부록 전체가 후렴의 괄호 안.
- 숫자의 실: 은 천백 = 16:5의 들릴라 매수 액수 — 본편과 부록을 꿰매는 편집의 표시.
- 이름의 단축: Mikhayehu(1·4절) → Mikhah(5절~) — 신상 제작 이후 이름에서 신명 요소가 빠지는 철자 변화.
- 위임 공식 mille yad의 이중 전용(5·12절) — 정통의 형식을 정확히 알면서 사사로이 집행하는 구조.
- 1인칭 소유격 사슬(내 아들·내 손·내 제사장·내게 복)과 여호와 발화 0회 — 말의 분포 자체가 사유화의 문체.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누지(Nuzi) 문서 — 가정 수호신상 소유가 상속·가장권 주장과 결부된 관행. 드라빔의 배경(창 31:19과 같은 결).
- 철기시대 1기 산지 가옥 고고학 — 집 안 제의 공간과 소형 신상 출토 사례들. 17:5 신당의 물질문화 배경.
- 금속 신상 제작의 두 공정 — 목심에 은을 입히는 새김과 거푸집 주조. pesel·massekhah 짝의 기술 배경.
- 사적 제의 후원 관행 — 유력자가 제의 인력을 고용·부양하는 근동의 후원 구조. 17:10 연봉 계약의 형식 배경.

- LXX: 사사기는 A·B 두 본문 전승 — 17장도 두 역문 병존. terafim → θεραπαινι 음역(번역 포기의 흔적), pesel → γλυπτόν / massekhah → χωνευτόν 구별 번역. 배경.
- 랍비 전통: 탈무드 산헤드린 103b가 미가의 신상을 우상숭배의 끈질김의 사례로 논의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 샷 17:3 ↔ 출 20:3-4 (1·2계명 — '여호와께' 신상을 바치는 한 문장 안에서 둘이 같이 무너지는 배경)
- 샷 17:3-4 ↔ 신 27:15 (pesel umassekhah를 만드는 자는 저주를 — 어머니의 축복이 그 저주의 짝과 마주봄)
- 샷 17:6 ↔ 신 12:8 (각기 소견대로 — 땅에 들어가면 금지될 일이 시대의 일상이 됨)
- 샷 17:5 ↔ 샷 8:27 (기드온의 에봇 — 지도자의 에봇이 일반 가정으로 내려오는 계보)
- 샷 17:2 ↔ 샷 16:5 (은 천백 — 들릴라의 매수 액수와 동일, 두 이야기를 묶는 동전)
- 샷 17:7-8 ↔ 수 21장 (레위 성읍 48개의 이상 — 직무지 잃고 떠도는 레위인의 음화)
- 샷 17:5 드라빔 ↔ 창 31:19 (라헬의 드라빔 — 가정 신상의 내력)
- 샷 17:6 ↔ 샷 14:3 (삼손의 '내 눈에 옳으니' — 개인의 말버릇이 시대 진단의 어휘로)
- 샷 17:13 ↔ 샷 18장 (복의 담보로 삼은 신상과 제사장이 통째로 빼앗기는 다음 장)
- 샷 17:6 ↔ 샷 21:25 (후림의 완전형 — 권의 마지막 문장, 부록의 괄호가 닫히는 도착점)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에브라임 산지, 어둑한 방. 늙은 여인이 빈 궤 앞에서 저주를 쏟아 내고, 문가의 남자가 그 말을 다 듣고 서 있다. 자막 — 미가여후,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여인의 얼굴에서 저주가 지워지고 곧바로 축복이 덧칠된다 —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은 천백이 돌아가고, 가장 힘준 봉헌의 말이 발음된다 — 여호와께 거룩히, 거룩히 드리노라, 신상을 만들기 위하여. 은장색의 작업대 — 불, 거푸집, 두들기는 소리. 은 이백이 형상이 된다. 두 신상이 미가의 집에 놓이고, 카메라가 집을 훑는다 — 신당, 에봇, 드라빔, 위임받는 아들. 화면 정지, 내레이션 —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남쪽 길, 붓집 진 청년이 유다 베들레헬을 떠나 산지를 오른다 — 레위인, 거류할 곳을 찾는 사람. 문 앞의 마주 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 은 열, 의복 한 벌, 먹을 것. 청년이 문지방을 넘고, 아들 중 하나 같이 된다. 두 번째 위임. 마지막 컷, 신당 앞의 혼잣말 —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답하는 음성은 없다. 암전.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 그 이름의 집에 들어선 신상"
- 초벌 부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의 사람이 어머니의 은 천백 — 들릴라의 매수 액수와 같은 숫자 — 으로 '여호와께' 신상을 봉헌하고, 에봇·드라빔·고용된 레위인으로 가정 성소를 완비한 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로 닫히는 — '왕이 없으므로'의 후림이 처음 울리는 부록의 개막"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4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네 단 개막 구조 + 후림 4회 분포 + mille yad 위임 공식 + 누지 드라빔·가정 제의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17:3의 '여호와께 신상을'을 혼합주의 비판 설교로 일반화하지 않고, 1·2계명의 어휘(출 20:3-4)·신 27:15의 pesel umassekhah 짝과의 형태 대응 관찰로만 둬.
- 17:6("왕이 없으므로")을 군주제 옹호 또는 무정부 비판의 정치론으로 끌고 가지 않고, 후렴의 분포(4회·완전형 2회)와 신 12:8과의 어구 일치라는 본문 사실로만 기록.
- Mikhayehu → Mikhah의 이름 단축을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단정으로 바꾸지 않고, 철자 변화의 형태 관찰로만 보존.
- 17:13의 복 확신을 기복 신앙 비판의 표본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attah yadati의 독백에 응답이 없다는 발화 구조와 18장으로 이월되는 서사 사실로만 둬.
- 레위인의 연봉 계약을 성직 매매 논쟁이나 현대 사역자 처우 문제로 적용하지 않고, 떠도는 레위인(수 21장의 음화)과 근동 후원 관행이라는 배경 관찰로만 둬.
- 은 천백의 16:5 일치를 알레고리로 풀지 않고, 동일 어구가 성경에서 두 곳뿐이라는 형태 사실과 편집 배열의 관찰로만 기록.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17장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의 미가(Mikhayehu)가 어머니의 은 천백 — 들릴라의 매수 액수(16:5)와 동일한 숫자 — 을 흠꼴다가 돌려드리고, 저주가 즉석 축복으로 뒤집히며(17:2), 그 은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17:3)는 가장 힘준 봉헌의 문법 아래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되어(17:4, 실제 집행은 이백), 신당·에봇·드라빔·아들 제사장으로 가정 성소가 완비된 직후(17:5)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17:6)는 부록의 후렴이 처음 올리고, 직무지를 잃고 떠돌던 레위인이 연봉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에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고용되어(17:10)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17:13)는 응답 없는 독백으로 닫히는, 부록의 개막이다.

**한 문단:** 에브라임 산지의 어둡한 방에서 늙은 여인이 잃어버린 은을 두고 저주를 쏟아 내는데, 문가에 선 도둑이 아들이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 그러자 저주가 지워진 위에 곧바로 축복이 덧칠된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돌아온 천백이 가장 경건한 문법으로 봉헌되고, 그 목적어가 신상이다. 은장색의 불을 지나 두 형상이 미가의 집에 놓이고, 신당과 에봇과 드라빔과 위임받는 아들로 가정 성소가 완비된다. 그때 화면이 멈추고 내레이션이 들어온다 —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남쪽 길에서 붓집 진 레위인 청년이 올라온다. 거류할 곳을 찾는 사람에게 미가가 제안한다 —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 아버지라 불린 청년이 아들 같이 되고, 위임의 손짓



이 두 번째로 집행된다. 마지막 화면, 미가가 신당 앞에서 만족한 혼잣말을 한다 —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 독백에 답하는 음성은 없다.

## B ·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전쟁터에서 안방으로 줄어드는 무대. 사사·적·하나님의 발화가 모두 부재. 은으로 썬해지는 소품들과 종교·거래 어휘의 혼합.                      |
| 2 첫 느낌·분위기    | 즉석에서 뒤집히는 저주와 축복, 불릴수록 비어 가는 '여호와', 평음보다 무거운 안방의 고요, 1인칭 소유격의 밀도.                         |
| 3 시작과 끝       | 잃어버린 은의 결핍에서 보장된 복의 확보로. 모자의 대화에서 응답 없는 독백으로. 기원("원하노라")이 확신("아노라")으로 승격.                 |
| 4 등장인물·사상     | 절반이 무명인 출연진, 부재자(왕·사사·하나님)가 제목 노릇. 중심 사상은 사유화 — 제의의 기물이 한 가정의 소유물 목록으로.                   |
| 5 장면 컷        | 은의 왕복(1~4)/성소 완비와 후렴(5~6)/레위인 계약(7~12)/복의 독백(13) 4컷. 후렴이 한가운데 끼여 컷 3을 진단의 안경으로 읽게 함.      |
| 6 의문·발견·정보    | 은 천백 = 16:5(성경에서 두 곳뿐). 후렴 4회·완전형 2회의 괄호. mille yad 위임 공식의 이중 전용. Mikhayechu → Mikhah 단축. |
| 7 동영상         | 저주가 축복으로 덧칠되는 얼굴 → 은장색의 불 → 완비되는 신당 → 멈추는 내레이션 → 문지방을 넘는 레위인 → 답 없는 독백.                   |
| 8 초벌 제목·부제    |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 그 이름의 집에 들어선 신상"                                                           |
| 9 기도·내면       | 봉헌의 선언과 집행의 숫자 사이, 사람의 확신과 하나님의 침묵 사이 — 묻지 않고 그 침묵 곁에 머문다.                                |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Mikhayechu, 이름이 집을 반박하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는 비교를 거절하는 물음이다(출 15:11의 mi-khamokha와 같은 어근의 결). 그 물음을 이름으로 지닌 사람의 집에 여호와의 '같은 것' — 형상 — 이 은으로 만들어져 들어선다. 그리고 본문의 철자가 따라 움직인다. 신상이 제작되기 전(1·4절)에는 Mikhayechu, 신당이 완비되는 5절부터는 신명 요소가 떨어진 Mikhah. 한 사람의 이름 표기 안에 이 장의 사건 전체가 압축되어 있는 셈이다. 형태 관찰로만 두지만, 이 책의 서술자가 철자 하나로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지를 증언하는 결이다.

2. **결 2 — 은 천백, 두 이야기를 꿰매는 동전**: elef umeah kesef라는 어구는 성경 전체에서 16:5와 17:2, 단 두 곳에 나온다.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비밀값으로 제시한 액수와, 미가의 어머니가 잃었다가 신상으로 바꾼 은이 같은 숫자다. 영웅의 몰락을 산 돈과 우상의 제작에 들어간 돈이 같은 화폐 단위로 이어지며, 본편의 마지막 이야기와 부록의 첫 이야기가 동전 한 꿰미로 묶인다. 사사들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만든 셈법이 안방으로 들어왔을 뿐이라는 편집의 신호다.

3. **결 3 — "여호와께 신상을", 경건한 문법의 빛나간 집행**: 3절의 봉헌은 부정사 절대형을 겹친 가장 힘준 문법(haqdesh hiqdashti)으로 발화되는데, 그 목적이 신 27:15가 저주의 대상으로 명시한 바로 그 짝 — pesel umassekhah — 의 제작이다.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우상을 바쳤고, 1계명과 2계명이 한 문장 안에서 같이 무너지는 5절과 12절의 위임도 마찬가지다 — '손을 채우다'(mille yad)라는 성막의 공식 어휘가

안방에서 두 번 사사로이 집행된다. 정통의 형식을 모르는 무지가 아니라, 형식을 정확히 알면서 내 것으로 전용하는 구도 — 그것이 17:6의 진단("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이 가리키는 실상이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출 20:3-4 — 다른 신 금지와 형상 금지 — 17:3에서 두 계명이 한 문장 안에서 같이 무너지는 배경.
- 신 27:15 — "새긴 상이나 부은 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 어머니의 축복이 정확히 그 저주의 짝과 마주 봄.
- 신 12:8 —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 땅에 들어가면 금지될 일이 17:6에서 시대의 일상으로.
- 삿 8:27 — 기드온의 에봇이 울무가 됨 — 지도자의 에봇이 한 세대 뒤 일반 가정의 비품으로 내려오는 계보.
- 삿 16:5 — 들릴라의 은 천백 — 17:2와 동일 어구, 본편과 부록을 묶는 동전.
- 수 21장 — 레위 성읍 48개의 이상 — 직무지를 잃고 떠도는 17:7의 레위인이 그 이상의 무너진 실상.
- 창 31:19 — 라헬의 드라빔 — 가정 수호신상의 족장 시대 내력.
- 삿 14:3 — 삼손의 "내 눈에 옳으니" — 한 사람의 어휘가 17:6에서 시대 전체의 진단으로.
- 삿 18장 · 21:25 — 빼앗기는 신상과 후렴의 완전형 재등장 — 17장의 독백과 진단이 향하는 다음 장과 권의 도착점.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7:2에서 시작한다 — 저주가 즉석에서 축복으로 뒤집히는 말. 내 말이 진실을 다루는 도구인지, 내 편을 지키는 주문인지 듣는다.
- 멈춤 1: 17:3에서 멈춘다 — 가장 경건한 문법으로 집행되는 가장 빛나간 봉헌. 내 헌신의 언어와 그 내용물 사이를 본다.
- 멈춤 2: 17:6에서 멈춘다 —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눈에 곧은 대로. 내 눈보다 높은 기준이 내 하루 어디에 있는지 본다.
- 끝: 17:13에서 멈춘다 — 부품을 다 갖춘 확신과 응답 없는 침묵. 보장으로 계산된 복과 인격으로 만나는 하나님 사이에서, 질문인 채로 멈춘다.

#### F · 자족성 점검

- [x] 은의 왕복(1~4)·성소 완비와 후렴(5~6)·레위인 계약(7~12)·복의 독백(13)의 네 단 완결
- [x] 은 천백의 16:5 일치와 봉헌의 산수(천백 서원·이백 집행)
- [x] 후렴의 첫 등장(17:6)과 부록 4회 분포·완전형 2회의 괄호 구조
- [x] mille yad 위임 공식의 이중 전용(5·12절)과 호칭의 역전(아버지→아들 같이)
- [x] Mikhayehu → Mikhah 철자 변화와 여호와 발화 0회의 발화 구조

---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미완과 진단(1~2장),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부록(17~21장)으로 움직이는데, 17장은 셋째 국면의 개막 — 웃니엘에서 삼손까지 내려온 나선이 바닥에 닿은 뒤, 서사가 전쟁터를 떠

나 안방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이제 압제하는 적도 일으켜지는 구원자도 없다. 부르짖음이 없는 시대 — 하나님께 외치는 대신 하나님을 제작하고 고용하는 시대가 다섯 장에 걸쳐 보고되기 시작하고, 그 첫 사례가 미가의 집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출 20:3)로 출발한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 한가운데서 '여호와께' 우상을 바치는 데까지 내려와 있고, 모세가 미리 경고한 "각기 소견대로"(신 12:8)가 일상이 되어 있다. 그러나 권의 heart — 부르짖음마다 돌이키시는 탄식 섞인 공홀 — 의 시선에서 이 장의 후렴은 정죄가 아니라 진단이다. 왕이 없으므로 — 이 문장은 각 사람의 눈보다 높은 기준, 마음까지 다스리는 통치의 부재를 짚으며, 부록의 어둠 전체를 참왕을 향한 갈망의 음화(陰晝)로 만든다. 17장은 그 음화의 첫 장이다.

##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사 사이클의 전쟁터에서 부록의 안방으로 / 잃어버린 은(17:2)에서 빼앗길 신상(18장)으로 / 비교를 거절하는 이름(Mikhayehu)에서 신명이 빠진 단축형(Mikah)으로 — 기준 없는 시대의 한 가정에서 종교가 소유물이 되어 가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7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보험'으로 바뀌는 과정을 한 가정의 장부로 기록하는 운동이다. 은이 신상을 만들고(컷 1), 신상이 성소를 부르고(컷 2), 성소가 제사장을 고용하고(컷 3), 제사장이 복의 담보가 된다(컷 4) — 단계마다 거래가 거룩을 제작해 가는 상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응답 없는 독백을 향해 내려가는 하강이다. 그리고 이 벡터는 17장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13절의 보장은 18장에서 단 지파 육백 명이 그 신당의 비품을 통째로 실어 가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후렴은 19장의 더 깊은 어둠을 지나 21:25에서 권의 마지막 문장으로 되돌아온다. 17장의 벡터는 부록 전체를 '각자의 눈'에서 '참왕의 필요'로 끌고 가는 긴 운동의 첫 구간이다.

##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평온한 가정극이다 — 도둑이 자수하고, 모자가 화해하고, 청년이 일터를 얻고, 집주인이 만족한다.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도 울지 않는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세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기준의 붕괴다. 저주와 축복이 기본으로 뒤집히고, 서원과 집행이 산수로 어긋나고, 성막의 위임 공식이 안방에서 사사로이 집행된다. 무너질 때 굉음을 내는 것들 — 성벽, 신전 — 이 아니라 소리 없이 내려앉는 것 — 분별 — 이 무너지고 있어, 16장의 굉음보다 17장의 고요가 더 깊은 붕괴를 전한다. 둘째, 이름과 실상의 분리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세 번 불리지만 그 이름의 주인은 한 번도 발화하지 않으시고,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의 사람은 여호와와 '같은 것'을 제작하며, '아버지와 제사장'이라 불린 청년은 연봉 받는 아들이 된다. 정통의 어휘가 전부 남아 있는데 내용물만 바뀌어 있는 — 상표와 내용물의 분리가 이 장 바닥에 깔린 두 번째 흐름이다. 셋째, 그 모든 소음 아래의 침묵이다. 서술자는 한 번도 인물들을 꾸짖지 않고, 하나님도 개입하지 않으신다. 다만 6절의 진단 한 문장과 13절의 응답 없는 독백으로, 이 시대가 어떤 통치를 잃었는지를 —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 비워 둔 채 보여 준다. 본문은 거기까지만 보여 주고 멈춘다.

##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어떤 말로 하나님을 부르며, 그 말의 내용물은 무엇인가 — 내 봉헌의 선언과 집행의 숫자 사이, 내 확신의 독백과 그분의 응답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내 눈에 곧은 것 위에, 그보다 높은 기준이 서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미가를 정죄하는 문장을 하나도 쓰지 않는다. 다만 한 가정의 장부를 펼쳐 보여 준다 — 천백과 이백의 간격, 아버지라 불리는 아들, 부품을 다 갖춘 성소, 그리고 응답 없는 독백.

미가는 위선자가 아니라 확신자였고, 그 확신의 문법은 놀랍도록 경건했다. 바로 그 지점이 독자를 부른다 — 빛나감이 불경한 언어가 아니라 경건한 언어로 집행될 수 있다는 사실, 자기 소견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옳아 보인다는 사실 앞에서, '내 눈에 곧은 것'을 비춰 줄 더 높은 빛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후렴이 남긴다 — 왕이 없으므로. 이 결핍의 문장은 부록의 어둠을 지나 한 왕을, 마음까지 다스리는 통치를 기다리는 갈망이 된다. 그 갈망이 독자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하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미가의 만족한 독백이 끝나기 무섭게, 기업을 얻지 못한 단 지파가 정탐꾼 다섯을 보내고(18:2) — 그들이 이 신당 앞에 멈춰 서면서, 복의 담보로 쌓아 둔 모든 것이 약탈 목록이 되는 다음 장이 열린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ikhayehu* —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1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 Q1.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17:3)와 신상 — 이 모자는 왜 모순을 느끼지 못하는가?

- 가장 힘준 봉헌의 문법(haqdesh hiqdashti)이 가장 금지된 내용(pesel umassekhah)과 한 동사구에 겹쳐 있는데, 본문 속 인물들에게는 아무 갈등의 표정이 없다. 악의가 아니라 확신으로 우상을 만드는 마음의 구조가 무엇인지, 본문은 진단(17:6)만 두고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 Q2. 천백을 서원하고 이백만(17:3-4) — 나머지 구백은 어디로 갔는가?

- 봉헌 선언은 천백인데 은장색에게 간 것은 이백이다. 본문은 차액의 행방을 침묵한다. 이 간격이 의도된 폭로인지 단순한 서사의 생략인지, 관찰만으로는 알지 못한다. 보존.

#### Q3. 은 천백(17:2 = 16:5) — 편집의 실인가, 우연의 일치인가?

- 들릴라의 매수 액수와 미가 모친의 은이 같은 숫자이고, 이 어구는 성경에서 이 두 곳뿐이다. 본편과 부록을 묶는 의도된 배열인지는 본문이 명시하지 않는다. 형태 사실만 기록하고 보존.

#### Q4.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17:6) — 왕이 있으면 해결되는가?

- 후렴은 왕의 부재를 진단하지만, 정경의 다음 권들은 왕들의 시대가 또 다른 실패의 기록임을 보여 준다. 이 후렴이 가리키는 '왕'의 폭 — 보좌의 왕인지, 각 사람의 눈보다 높은 기준인지, 그 너머인지 — 를 어느 쪽으로도 누르지 않고 보존.

#### Q5. 아버지라 불린 청년이 아들이 되는 것(17:10-11) — 이 호칭의 혼란은 무엇을 비추는가?

- 젊은이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라는 권위의 호칭이 주어지지만, 그는 연봉을 받는 피고용인이며 '아들 중 하나 같이' 된다. 호칭과 실상의 어긋남이 이 가정만의 것인지 시대 전체의 것인지, 본문은 한 집의 사례만 보여 준다. 보존.

**Q6.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17:13) — 이 확신의 쉼법은 어디서 무너지는가?**

- 정통의 부품(레위 혈통·위임 공식·봉헌 문법)을 다 갖추면 복이 보장된다는 계산에, 본문은 어떤 응답도 두지 않는다. 18장에서 신상과 제사장이 통째로 옮겨지는 서사가 이 독백의 다음 화면이라는 사실만 기록하고, 평가는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사기 18장

JDG-018 · 역사서 · 히브리어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18:1)라는 후렴 아래, 기업 없는 단 지파의 다섯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서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18:3), 흠친 에봇 앞에서 "평안히 가라"(18:6)는 즉답을 받고, 한가하고 걱정 없는 라이스(18:7)를 찍어 두고 돌아와 — 문 어귀의 육백 명, "마음에 기뻐하여" 옮겨가는 제사장(18:20), "내가 만든 신들을 빼앗아 갔으니"(18:24)의 자기모순을 지나 — 끝에서야 모세의 손자 요나단(18:30)이라는 이름이 공개되는, 한 가정의 사이비가 한 지파의 공식 종교가 되는 북상.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1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한 곳이 아니라 길 — 소라·에스다울(남) →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두 번 경유) → 라이스/단(북). 무대 자체가 이동하는 이주극.
- 개막의 이중 결핍: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왕 없음) +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땅 없음) — 빈 곳 두 개가 겹친 출발(18:1).
- 소품: 에봇·드라빔·새긴 신상·부어 만든 신상의 네 개 묶음 — 14·17·18·20절에서 영수증처럼 거듭 낭독되는 도난 품목.
- 무기를 지닌 육백 명(11·16·17절), 21절의 행렬 대형 — 아이들·가축·값진 것을 앞세우고 무장한 자들이 뒤를 막는, 추격을 예상한 짐 싸기.
- 불과 재건: 라이스를 사르는 불(27절)과 그 위에 다시 서는 성읍·새 이름(28~29절).
- 소재의 흐름: 구하는 것들(땅·길·신탁)에서 빼앗는 것들(신상·제사장·성읍)로 — 경계선 없이 미끄러지는 이동.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5절과 6절 사이의 서늘함 — 신탁 요청에 머뭇거림 없는 즉답("평안히 가라"). 묻는 형식만 있고 듣는 시간이 없음.
- 7절의 평화 묘사(염려 없이·평온·안전·부족함 없음)가 27절에서 거의 같은 꼴로 재등장 — 처음엔 정탐 보고, 두 번째엔 비문(碑文).
- 전투 없는 정복극 — 무기는 내내 무대에 있는데 맞부딪치는 상대가 없음. 미가는 힘에 놀려 회군, 라이스는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 의문문의 밀도 — 3절 세 개, 9·14·18·19·23·24절. 답을 기다리는 질문이 거의 없고 재촉·회유·압박·항변의 질문들.
- 여호와의 직접 발화 0회 — 제사장(6절)과 정탐꾼(10절)이 그 이름으로 말할 뿐, 화자로서의 하나님은 침묵. 발화 구조 관찰.



- 21절 행렬의 감각 — 뿔뿔하지 못한 출발을 대형이 먼저 고백함.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 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 그 때까지 기업을 분배 받지 못하였음이라."
-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 결핍 두 개(왕·땅)로 열려 성소 두 개(실로·단)의 병존으로 닫힘 — 마지막 문장에 평가 없음, 병렬만 있음.
- 지리 종단: 남쪽 소라·에스다울에서 북쪽 끝 단까지 — 출발 지명은 삼손의 고향 마을들(13:2)과 동일.
- 1절의 결핍("분배 받지 못하였음")이 28~29절에서 채워지나(성읍 건설·개명), 경로가 약탈·칼날·불 — 채워졌으나 닫히지 않는 결말.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다섯 정탐꾼("용맹스런", 2절), 무기를 지닌 육백 명, 레위 청년(30절까지 무명 — 마지막에 요나단·게르숨의 아들·모세의 손자로 공개), 미가(신상의 주인 → 빈손), 라이스 백성(이름도 대사도 없이 묘사로만 존재).
- 중심 구도: 힘이 곧 정당성 — "노한 자들이 너희를 칠까"(25절),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26절). 옳음이 아니라 강함으로 닫히는 분쟁.
- 라이스 선정의 조건: 약함·몹·도울 자 없음(7·28절) — 정복 대상의 자격이 무방비뿐.
- 정탐 서사의 틀 차용: "올라가자 ... 매우 좋더라"(9절),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10절) — 민 13~14장의 정복 언어가 사사로운 북상에 재사용됨.
- 19~20절: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는 회유와 "마음에 기뻐하여" — 이 장에서 기록되는 거의 유일한 속마음이 영전의 기쁨. 침묵("네 손을 입에 대라")을 대가로 받은 이직.
- 24절: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 신과 사람이 같은 동사의 목적어로 병렬, 만들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는 신이라는 자기모순이 소유주의 입에서 발화됨.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절): 파송과 신탁 — 이중 결핍, 다섯 용사, 음성을 알아듣는 유숙, "평안히 가라"의 즉답.
- 컷 2 (7~10절): 라이스 정탐과 보고 — 무방비의 평화 확인,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의 재촉.
- 컷 3 (11~13절): 출정 — 육백의 행군, 마하네단(13:25와 같은 지명), 미가의 집 재방문.
- 컷 4 (14~20절): 약탈과 이직 — 문 어귀의 육백, 자루에 담기는 품목, 항의와 회유, "마음에 기뻐하여".
- 컷 5 (21~26절): 추격과 회군 — 앞세운 아이들과 가족,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힘의 위협, 빈손의 귀가.
- 컷 6 (27~31절): 학살과 정착 — 칼날과 불, ein matsil, 재건·개명, 호적 공개(모세의 손자), 실로와 단의 병존.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ein melek beYisrael* (אין מֶלֶךְ בְּיִשְׂרָאֵל) —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7:6·18:1·19:1·21:25의 후렴, 18:1은 짧은 형태.
- *mevaqqesh lo nachalah* (מְבַקֵּשׁ לוֹ נַחֲלָה) — 자기를 위하여 기업을 구하는 중(분사형, 진행 상태).
- *gol* (קוּל) — 음성(3절 "알아듣고") / 목소리(25절 "들리게 하지 말라") — 같은 단어의 수미 호응.

- *lekhu leshalom ... nokhach YHWH darkekhem* — 평안히 가라, 너희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6절). 즉답 신탁의 전문.
- *shoqet uvoteach*(שֹׁקֶט וּבֹטֵחַ) — 한가하고 안심하는(7절·27절, 두 번 적힌 묘사).
- *Layish*(לַיִשׁ) — 지명, 보통명사로 '사자'. 신 33:22("단은 사자의 새끼")와의 어휘 배경.
- *efod uterafim · pesel umassekhah* — 에봇과 드라빔,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 14·17·18·20절의 품목 묶음.
- *Machaneh-Dan*(מַחֲנֵה דָן) — 단의 진영(12절). 13:25에서 여호와와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한 지명과 동일.
- *sim yadkha al pikha* — 네 손을 입에 대라(19절) / *vayitav lev hakkohen* —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20절).
- *elohai asher asiti*(אֱלֹהֵי אֲשֶׁר־אֲשִׁיתִי) — 내가 만든 나의 신들(24절) / *mah li od* —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나.
- *anashim marei nefesh* — 마음이 쓰라린 자들(25절, '노한 자들'의 원래 그림) / *ein matsil*(אֵין מַטִּיל) — 구원할 자가 없음(28절).
- *Yehonatan ben Gershom* —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30절) / *ad yom gelot haarets* — 그 땅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 *beit haelohim beShiloh* — 실로의 하나님의 집(31절).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파송(1~6) + 정탐 보고(7~10) + 출정(11~13) + 약탈·이직(14~20) + 추격·회군(21~26) + 학살·정착·계보(27~31)의 여섯 단 구성.
- 신원의 지연 공개: '레위 소년'(17:7) → '그 청년'·'그 제사장'(18장 내내) → 요나단, 게르솜의 아들, 모세의 손자(18:30) — 충격을 끝까지 아껴 두는 편집.
- 품목 목록의 반복(14·17·18·20절)과 라이스 묘사의 반복(7·27절) — 도난과 학살을 각각 두 번 이상 낭독하는 문체.
- 의문문 수사: 재촉(9절)·회유(19절)·압박(25절)·항변(24절) — 답을 기다리지 않는 질문들의 연쇄.
- 18:1의 이중 "그 때에"(bayyamim hahem) — 왕의 부재와 땅의 부재에 한 번씩 붙는 시간 표지.
- 마하네단 어원담(12절 "오늘까지") — 본문 안의 지명 유래 각주.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드라빔 — 가정 수호신상이 가문의 상속권·가장권과 결부되던 근동 관습(누지 문서의 가정 신상 조항). 미가의 절규(24절)의 배경.
- 정복 성읍에 조상의 이름을 붙이는 개명 관습 — 라이스 → 단(29절)의 배경.
- 북부 가나안의 지정학 — 시돈 등 해안 세력권과의 종속·교류가 도시의 안전망이었고, 라이스는 그 망 바깥("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 7·28절).
- 라이스/단 = 텔 단(Tel Dan) 유적 동정 — 위치·지층은 고고학 배경 자료로만.
- MT 18:30의 매달린 눈(י) — 므낫세/모세 표기 전승, LXX 사본들의 분기(Μωυσῆ/Μαυασση), 바바 바트라 109b의 서기관 전승 논의 — 본문비평 배경.
- 18:7 후반부의 난해 어구 — LXX A·B의 상이한 처리, 본문 전승의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샏 18:1 ↔ 샏 1:34 (아모리 족속이 단을 산지로 몰아넣음 — 기업 상실의 전사)

- 샷 18장 ↔ 수 19:40-47 (단의 제비뽑기와 "정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라는 완곡한 한 줄 — 18장이 그 전 모)
- 샷 18:2-12 ↔ 샷 13:2-25 (소라·에스다울·마하네단 — 삼손의 고향과 그가 처음 감동된 지명)
- 샷 18:9-10 ↔ 민 13~14장 (정탐 보고의 정복 언어 —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배경)
- 샷 18:31 ↔ 수 18:1 (실로의 회막 — 합법 성소의 좌표)
- 샷 18:30 ↔ 왕상 12:29-30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단에 — 성소의 후일담, 배경)
- 샷 18:29(라이스) ↔ 신 33:22 (단은 사자의 새끼 — 어휘 배경)
- 샷 18장 ↔ 샷 17장 (미가의 신상·레위 고용 — 전제) · 샷 21:25 (권의 달는 후렴)
- 샷 18:30 "사로잡히는 날까지" ↔ 삼상 4장 (실로·법궤의 상실 — 해석 후보 배경) · 암 8:14 (단의 신 맹세 — 먼 메아리, 배경)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남쪽의 두 마을, 소라와 에스다울. 자막 —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다섯 사람이 길을 떠난다. 에브라임 산지의 한 집, 저녁의 유숙 — 마당 건너에서 들려오는 귀에 익은 음성에 고개가 돌아간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었느냐. 신당 안, 흙친 은으로 만든 신상 앞의 매끄러운 즉답 —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북쪽 골짜기의 성읍 라이스 — 잠기지 않는 문, 파수꾼 없는 평온. 다섯이 돌아가 재촉한다 — 올라가자,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무기를 지닌 육백의 행군, 마하네단의 진영. 다시 미가의 집 — 육백이 문 어귀를 채우고,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자루에 담긴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한 집과 한 지파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의 얼굴에 번지는 기쁨.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것을 앞세운 행렬, 등 뒤의 외침 —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멈춰 서서 세어 보는 눈 —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행렬은 북으로 —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 칼날, 불,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재 위의 새 성벽, 새 이름 — 단. 신상이 서고, 자막이 호적을 펼친다 — 요나단, 게르숨의 아들, 모세의 손자,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마지막 화면, 지도 위의 두 점 — 실로의 하나님의 집과 단의 새긴 신상. 암전.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내가 만든 신들 — 모세의 손자가 우상 앞에 서기까지"
- 초벌 부제: "왕 없음과 기업 없음의 이중 결핍(18:1) 위에서 음성 하나를 알아들은 우연(18:3)이 값싼 신탁(18:6)과 약탈(18:14-20)과 학살(18:27)을 지나 한 지파의 성소가 되고, 끝에서야 펼쳐지는 호적(18:30)이 그 성소 앞의 제사장을 모세의 손자로 밝히는 — 실로와 단이 한 지도에 병존하는 채로 닫히는 부록의 둘째 사례"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4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여섯 단 구성 + 신원 지연 공개 + 정탐 서사 차용 + 누지 드라빔·개명 관습·텔 단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18:6의 신탁("평안히 가라")을 거짓 예언 단죄나 참 신탁 인정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본문에 여호와와의 직접 발화가 없다는 서술 사실과 즉답의 형식 관찰로만 둬.
- 라이스 학살(18:27-28)을 정복 신학의 정당화로도 현대 윤리의 고발로도 끌고 가지 않고, '약하고 멀고 도울 자 없음'이 선정 조건이었다는 본문 사실과 7절·27절의 반복 배치 관찰로만 기록.
- 18:30의 모세의 손자를 '계보 무용론'의 교리로 일반화하지 않고, 신원 지연 공개라는 문학 장치와 매달린 눈(1)의 본문비평 전승으로만 보존.
- 단 성소와 왕상 12장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연결을 인과 단정이 아니라 같은 지명 위의 후일담이라는 교차 참조 배경으로만 둬.
- "왕이 없었고"의 후렴을 군주제 옹호 논증으로 확정하지 않고, 권의 부록이 반복 배치하는 시대 표지의 형식 관찰로 둬 — 후렴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는 열린 질문으로 이월.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18장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 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18:1)라는 이중 결핍 위에서, 소라와 에스다울의 다섯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서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18:3)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18:6)는 즉답을 받아 — 한가하고 걱정 없는 라이스(18:7)를 찍어 두고 돌아와 육백 명과 함께 복상하며, 문 어귀를 막고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거두고(18:14-17), "어느 것이 낫겠느냐"(18:19)는 회유에 "마음에 기뻐하여"(18:20) 따라 나선 제사장장과 함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18:24)는 미가의 항변을 힘으로 누르고(18:25-26), 구원할 자 없는 백성을 칼날로 치고 성읍을 불사른 뒤(18:27-28) 단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는데(18:29-30) — 그 성소의 제사장인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다는 호적이 끝에서야 공개되고(18:30),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18:31) 그 신상이 단에 있었다는 병존의 문장으로 닫히는, 한 가정의 사이비가 한 지파의 공식 종교가 되는 복상의 기록이다.

**한 문단:** 남쪽의 두 마을에서 다섯 사람이 길을 떠난다 — 왕 없는 나라, 땅 없는 지파. 에브라임 산지의 한 집에서 귀에 익은 음성이 들리고, 흠친 은으로 만든 신상 앞에서 즉답이 나온다 — 평안히 가라. 북쪽 골짜기에는 문을 잠그지 않는 성읍이 있다 — 염려 없이 거주하며, 부족한 것이 없으며, 도울 자가 멀다. 올라가자,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무기를 지닌 육백이 행군하고, 그 행렬이 미가의 집 문 어귀를 채운다. 품목이 영수증처럼 낭독된다 — 에봇,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한 집의 제사장장과 한 지파의 제사장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 마음에 기뻐하여. 아이들과 가축을 앞세운 행렬의 등 뒤에서 외침이 따라붙는다 — 내가 만든 신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네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 말라. 미가는 상대가 강한 것을 보고 빈손으로 돌아간다. 행렬은 북으로 —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던 백성 위로 칼날과 불이 지나가고, 구원할 자가 없었다. 재 위에 새 성벽이 오르고 새 이름이 붙는다 — 단. 신상이 서고, 그제

야 본문이 호적을 펼친다 — 요나단, 게르숨의 아들, 모세의 손자. 그리고 마지막 한 줄 —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신상이 단에 있었더라.

## B·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길 위로 이동하는 무대(남→북 종단), 이중 결핍의 개막, 영수증처럼 거듭 낭독되는 도난 품목, 추격을 예상한 행렬 대형.                                         |
| 2 첫 느낌·분위기    | 듣는 시간 없는 즉답의 서늘함, 두 번 적혀 비문이 되는 평화의 묘사(18:7-27), 대결 없는 일방통행, 답을 기다리지 않는 질문들, 여호와와의 직접 발화 0회.                 |
| 3 시작과 끝       | 결핍 두 개(왕·땅)로 열려 성소 두 개(실로·단)의 병존으로 닫힘 — 평가 없는 병렬. 출발 지명은 삼손의 고향 마을들.                                         |
| 4 등장인물·사상     | 30절까지 무명인 제사장, 목소리를 받지 못한 라이스 백성, 힘이 곧 정당성이 되는 분쟁 해결(18:25-26), 정탐 서사의 정복 언어 차용.                             |
| 5 장면 컷        | 파송/정탐/출정/약탈/추격/정착의 6컷. 신원의 지연 공개 — 충격을 끝까지 아껴 두는 편집.                                                         |
| 6 의문·발견·정보    | 수 19:47 한 줄의 전모, qoi의 수미 호응(알아들은 음성 → 막힌 목소리), elohai asher asiti의 자기모순, 매달린 눈(1)의 본문비평 전승, 누지 드라빔·개명 관습 배경. |
| 7 동영상         | 귀에 익은 음성 → 잠기지 않는 문 → 문 어귀의 육백 → 자루에 담기는 품목 → 등 뒤의 외침 → 칼날과 불 → 호적 자막 → 지도 위의 두 점.                           |
| 8 초별 제목·부제    | "내가 만든 신들 — 모세의 손자가 우상 앞에 서기까지"                                                                              |
| 9 기도·내면       | 주님의 이름을 쓰는 목소리들과 주님의 음성 사이 — 그 침묵 곁에 머문다.                                                                    |

##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1:34에서 18장까지, 긴 인과의 결산:** 권의 머리에서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고(1:34), 여호수아서는 그 후일을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수 19:47)라는 완곡한 한 줄로만 남겼다. 18장은 그 한 줄의 전모다 — 기업을 점유하지 못한 지파가 북쪽의 가장 약한 성읍을 찾아내고, 가는 길에 한 가정의 사이비 성소를 통째로 들어 올린다. 미완의 정복(1장)이 사이비 종교(17장)와 만나 약탈의 복상(18장)이 되는 — 권 머리의 진단이 권 꼬리의 부록에서 결산되는 구조다. 결핍은 채워졌다. 그러나 채움의 경로가 그 채움의 내용을 결정해 버렸다.

2. **결 2 — shoqet uvoteach, 두 번 적힌 평화:** 라이스의 묘사 — 한가하고 안심하며, 부족한 것이 없으며, 도울 자가 멀다 — 는 7절의 정탐 보고에 한 번, 27절의 학살 기록에 한 번, 거의 같은 꼴로 두 번 적힌다. 첫 번째는 정복 가능성의 근거였고 두 번째는 쓰러진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같은 문장이 자격 심사서가 되었다가 비문이 되는 이 반복은, 정복 대상의 유일한 조건이 '약함'이었다는 사실을 본문 스스로 두 번 낭독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곁에 ein matsil —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 가 놓인다. 구원자를 낳은 지파(삼손의 단, 13:5)가 구원자 없는 백성을 만드는 쪽에 선 채로.

3. **결 3 — 지연된 호적, 모세의 손자:** 17:7부터 이 사람은 '레위 소년'이었고 18장 내내 '그 청년' '그 제사장'이었다. 신상이 세워지고 성소가 완성된 30절에서야 본문이 호적을 펼친다 — 요나단, 게르숨의 아들, 모세의 손자. 율법을 받아 내려온 이름의 가장 가까운 후손이 우상의 제사장으로 봉직했고, 그 직분은 세습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어졌다. 마소라 서기관들이 그 이름 위에 눈(1) 한 글자를 띄워 달아 '므낏세'로



도 읽히게 한 전승은, 이 문장이 후대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록이었다는 흔적이다. 계보는 경건을 보증하지 않는다 — 본문은 그 명제를 말하지 않고, 호적 하나를 가장 늦게 펼치는 것으로 보여 준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샷 1:34 — 산지로 밀려난 단 — 18:1의 기업 없음이 시작된 곳.
- 수 19:40-47 — 제비뽑기의 기업과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라는 완곡어 — 18장이 펼치는 전모의 요약본.
- 샷 13:2-25 — 소라·에스다울·마하네단 — 삼손의 고향과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명이 약탈 행군의 경로로 재등장.
- 민 13~14장 — 정탐과 보고의 정복 언어 — 18:9-10이 빌려 쓰는 틀, 배경.
- 수 18:1 — 실로의 회막 — 18:31의 '하나님의 집'이 서 있는 좌표.
- 왕상 12:29-30 —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단에 — 이 성소의 후일담, 배경.
- 샷 21:25 —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 18:1의 짧은 후렴이 향하는 권의 닫는 문장.
- 삼상 4장 — 실로와 법궤의 상실 — "사로잡히는 날까지"(18:30)의 해석 후보 가운데 하나, 배경.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8:1의 이중 결핍에서 시작한다 — 내 삶에서 '왕 없음'과 '땅 없음'이 겹쳐 있는 영역이 있는지 듣는다.
- 멈춤 1: 18:5-6에서 멈춘다 — 묻는 형식은 갖췄는데 들을 마음이 없는 물음. 도장만 받으러 가는 기도가 내게 있는지 본다.
- 멈춤 2: 18:19-20에서 멈춘다 — "어느 것이 낫겠느냐"와 "마음에 기뻐하여". 더 큰 무대의 제안 앞에서 내 기쁨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본다.
- 끝: 18:24와 18:31 사이에서 멈춘다 —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절규와, 실로에 내내 있던 하나님의 집. 빼앗길 수 있는 것에 걸어 둔 전부와, 빼앗기지 않는 곳의 거리(距離)를 같이 걷다.

#### F · 자족성 점검

- [x] 파송(1~6)·정탐(7~10)·출정(11~13)·약탈(14~20)·추격(21~26)·정착(27~31)의 여섯 단 완결
- [x] 품목 목록 반복(14·17·18·20절)과 라이스 묘사 반복(7·27절)의 문체 장치
- [x] 신원 지연 공개(17:7 무명 → 18:30 호적)의 편집 구조
- [x] qol(음성/목소리)의 수미 호응 — 알아들은 음성(3절)과 막힌 목소리(25절)
- [x] 1:34 → 수 19:47 → 18장 → 왕상 12장으로 이어지는 전사·후일담의 좌표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미완과 진단(1~2장),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그리고 부록(17~21장)으로 움직이는데, 18장은 부록의 둘째 사례 — 17장이 한 집 크기로 보여 준 사이비 종교가 한 지파 크기로 확산되는 경로다. 사사 시대의 종교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를 본문은 수치로 말하지 않고 동선으로 보여 준다: 흠친 은이 신상이 되고(17장), 그 신상이 통째로 들려 복상하여 지파의 공식 성소가 되고(18장), 그 성소는 훗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놓이는 바로 그 단이 된다(왕상 12:29-30, 배경).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이 장은 구원자들의 권이 스스로의 바닥을 진열하는 구간이다 — 구원자를 낳은 지파가 구원할 자 없는 백성을 만들고, 율법 수여자의 손자가 우상 앞에 봉직하고, 합법 성소(실로)와 우상 성소(단)가 한 지도 위에 병존한다. 그리고 그 모든 일 동안 여호와와는 한 번도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 침묵은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부르짖음이 없는 시대의 기록이다 — 3~16장의 사이클마다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가 부록에는 없다. 아무도 부르짖지 않는 동안의 풍경, 그것이 18장의 좌표이며, 그 풍경 전체가 "왕이 없었고"라는 후렴을 통해 참왕의 필요를 가리킨다.

##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 집의 신당에서 한 지파의 성소로 / 알아들은 음성(18:3)에서 막아 버린 목소리(18:25)로 / 기업을 구하는 결핍에서 약탈로 채운 정착으로 — 기준 없는 시대에 사이비가 단을 밟아 올라가며 확산되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8장은 '구하다'가 '빼앗다'로 미끄러지는 운동이다. 기업을 구하던 지파가 신상을 빼앗고 제사장을 빼앗고 성읍을 빼앗는다 — 그 사이 어디에도 경계선이 그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장의 무서움이다. 신탁의 형식, 정탐의 형식, 제사장의 직분, 성소의 외형 — 모든 형식이 살아서 작동하는데, 그 형식들이 물어야 할 기준만 비어 있다. 그래서 모든 갈림길이 힘으로 닫힌다 — 미가는 상대가 강한 것을 보고 돌아가고, 라이스는 도울 자가 없어 쓰러진다. 권 전체의 하강 나선에서 보면 이 운동은 19장으로 곧장 이어진다 — 종교가 이렇게 무너진 시대에 사람은 어떻게 다뤄지는지, 또 한 레위인의 여행이 권의 가장 어두운 밤을 연다.

##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지파의 이주 성공담이다 — 땅을 얻고, 성읍을 세우고, 성소까지 갖췄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세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종교의 공동화(空洞化)다. 이 장에는 종교의 부속이 전부 등장한다 — 신탁, 예복, 드라빔, 신상, 제사장, 성소. 그런데 들음이 없는 신탁(5~6절), 빼앗기는 신(24절), 침묵을 대가로 영전하는 제사장(19~20절)이다. 형식의 완비와 내용의 공백이 한 장 안에 겹쳐 있다. 둘째, 힘의 논리가 기준의 빈 곳을 채운다. "네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 말라"(25절)와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26절) — 누가 옳은가를 묻는 재판정이 없는 시대에, 분쟁은 세어 보는 눈으로 끝난다. 라이스 선정의 조건이 '약함'뿐이었다는 사실도 같은 결이다. 셋째, 이름의 무게다. 본문은 끝에서야 호적을 펼쳐 이 모든 일의 한가운데 있던 무명의 청년이 모세의 손자였음을 밝힌다. 가장 위대한 계보조차 기준 없는 시대 앞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 — 본문은 그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매달린 눈 한 글자의 떨림과 함께 기록으로만 남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조용히 좌표를 찍는다 —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다. 내내, 거기에.

##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의 물음은 듣기 위한 물음인가, 도장을 받기 위한 물음인가 — 그리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가운데, 빼앗기면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절규하게 될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단죄의 방청석에 앉히지 않는다. 다만 묻는 형식만 남은 신탁과, 더 큰 무대 앞에서 기뻐한 마음과, 만든 신을 빼앗기고 빈손이 된 사람과, 잠기지 않은 문 안에서 평온하던 백성을 차례로 보여 준다. 그 가운데 어느 얼굴이 내 것과 겹치는지는 독자마다 다를 것이다 — 즉답을 받고 안심하는 다섯이었던 날도, 침묵을 대가로 영전한 청년이었던 날도, 빼앗길 수 있는 것에 전부를 걸어 둔 미가였던 날도 있었을 테니. 본문이 마지막에 놓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거리(距離)다 —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

을 동안에. 빼앗기지 않는 곳이 내내 거기 있었다는 사실과, 아무도 그리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종교가 이렇게 무너진 시대에 사람은 어떻게 다뤄지는가 — 또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고(19:1), 그 여행이 기브아의 밤, 권에서 가장 어두운 장으로 들어간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ein matsil* —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1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 Q1.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18:6) —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가?

- 제사장은 여호와와 이름으로 즉답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여호와께서 실제로 말씀하셨다는 서술이 없다. 일이 형통했다는 결과가 신탁의 참됨을 증명하는가, 형통과 참은 다른 것인가 — 본문은 판정하지 않는다. 보존.

#### Q2. "그 때까지 기업을 분배 받지 못하였음이라"(18:1) — 이 결핍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 여호수아 19장의 제비뽑기는 단에게 기업을 정해 주었고, 사사기 1:34은 아모리 족속이 그들을 산지로 몰아냈다고 적는다. 분배는 있었고 점유가 없었던 셈인데 — 본문은 '받지 못하였음이라'라고만 적고 누구의 실패인지 말하지 않는다. 보존.

#### Q3. 라이스의 조건(18:7·28) — 약하고 멀고 도울 자 없음이 정복의 자격이 되는가?

- 정탐 보고가 확인하는 것은 그 땅의 죄악이 아니라 무방비뿐이다. 본문은 이 선정을 칭찬도 단죄도 하지 않고, 다만 같은 평화의 묘사를 학살 기록 곁에 한 번 더 적는다. 그 반복이 무엇을 하는지 — 닫지 않고 보존.

#### Q4. "내가 만든 신들을 빼앗아 갔으니"(18:24) — 미가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 만들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는 신이라는 모순이 소유주의 항변 속에서 스스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의 물음에는 진짜 상실의 무게가 실려 있다. 그가 잃은 것이 우상인지, 우상에 걸어 두었던 다른 무엇인지 — 보존.

#### Q5. 모세의 손자(18:30) — 본문은 왜 이름을 끝까지 미루었는가?

- 17:7부터 무명으로 다니던 사람의 호적이 모든 일이 끝난 뒤에야 펼쳐진다. 이 지연이 보호인지 고발인지, 서기관들이 눈(1) 한 글자를 띄워 단 것은 무엇을 차마 할 수 없었던 흔적인지 — 본문비평 사실만 쥐고 보존.

#### Q6.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18:31) — 그 동안 실로의 하나님은?

- 합법 성소가 서 있는 동안 단의 신상도 서 있었다. 이 장에서 여호와와는 한 번도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 침묵이 방임인지 오래 참음인지 다른 무엇인지 — 권의 끝(21:25)과 사무엘서의 실로 기사까지 열어 둔 채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사사기 19장

JDG-019 · 역사서 · 히브리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 때에"(19:1)라는 부록의 후렴으로 다시 열려, 에브라임 산지의 한 레위인과 유다 베들레헴의 첩, 장인의 거둬진 환대(19:3-9)와 '이방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19:12) 하여 든 동족의 성에서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아이러니(19:15), 한 노인의 환대(19:16-21)와 기브아의 만행(19:22-26)을 지나 — 답을 주지 않고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19:30)로 닫히는, 사사도 구원자도 부르짖음도 응답도 기록되지 않는 침묵의 장.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1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한 곳이 아니라 길 — 에브라임 산지의 집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북으로 올라와 여부스를 지나 기브아로, 마지막에 한 노인의 집으로. 집을 찾아 헤매는 동선이 무대 전체.
- 막의 자막: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 때에"(1절) — 17:6·18:1·21:25와 사슬을 이루는 부록의 셋째 후렴.
- 환대 쪽 소품(앞): 빵·포도주·식탁, 나귀 두 마리와 안장, 종, "마음을 즐겁게 하라"의 반복.
- 차가운 소품(뒤): 비어 있는 성문 광장(15절), 에워싸인 문, 새벽의 문지방, 칼(maakhelet, 29절 — 창 22:10과 같은 단어), 열두 덩이(netachim).
- 소재의 온도: 앞쪽은 따뜻한 소재(음식·머물·만류·환대), 뒤쪽은 차가운 소재(거절·어둠·폭력·죽음·분할) — 한 장 안의 가파른 낙차.
- 호명의 결: 이름이 거의 없음 — 레위인·첩·노인 모두 '그 사람'·'그 여인'으로만. 가장 많은 일을 겪는 사람(첩)이 한 마디도 하지 않음.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부분의 길게 늘어지는 환대의 따뜻함(가정극 같은 장인의 집) — 그 따뜻함이 길수록 더 무겁게 읽힘.
- 침묵의 공기 — 하나님의 음성도, 부르짖음도, 응답도 없음. 사사도 구원자도 일어나지 않음.
- 본문의 무논평 — "악하더라"는 직접 판결이 거의 없이 일어난 일을 건조하게 기록. 평가는 독자에게 남김.
- 저물어 가는 빛(9·11절) — 늦은 출발, 어두워지는 길, 환대의 등불 아래에서 가장 추운 일이 벌어지는 명암의 역전.
- 두 어조의 결합 — 1~10절 환대 이야기, 11~30절 소돔 이야기가 '유숙하다(lin)'라는 한 동사로 이어짐.
- 문과 문턱의 감각 — 들이는 문, 에워싸인 문, 새벽의 문지방. 따뜻함과 추움이 다 문에서 갈림.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한 레위 사람이 있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 30절: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 나라."
- 후렴(빈 곳의 표지)으로 열려 명령(미결의 부름)으로 닫힘 — 답이 아니라 물음의 시작으로 끝남.
- 규모의 폭발: 한 가정의 사사로운 발단에서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라는 민족 전체의 시간 척도로.
- 무대의 확장: 한 집(실내)에서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29절)로 — 그 확장의 매개가 가장 참혹한 것이라는 어둠.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한 레위인(에브라임 거류,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 첩(이름 없음·목소리 없음), 장인("그 여자의 아버지", 거둬 붙드는 환대), 종과 나귀, 영접하지 않은 기브아 본토인(15절), 거류자 노인(16절, 에브라임 출신 외인), 불량배 무리(bene beliyaal, 22절). 그리고 이 장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분 — 여호와(발화·개입·구원자 일으키심이 없음).
- 중심 사상: 환대와 그 붕괴의 대비 — 앞은 과할 만큼의 환대, 뒤는 동족 성의 거절과 한 집을 에워싼 폭력. 본문은 어느 쪽도 직접 논평하지 않음.
- 두 결정이 가르는 운명: 떠나는 시각의 늦어짐(10절), 묵을 곳의 선택(12절, '이방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본문은 옳고 그름을 판정하지 않고 결정과 귀결을 순서대로 기록.
- 아이러니: 이방(여부스)을 피해 든 동족의 성(기브아)에서 영접받지 못함(15절) → 정복의 역전, 가나안의 죄가 이스라엘 안에서.
- 환대를 지킨 사람: 그 성의 본토인이 아니라 거류자(ger)인 노인 —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20절). 레 19:33-34의 거류민 사랑 율법과 겹치는 역전.
- 절제된 비참: 첩의 죽음을 사실로만 기록(25-26절), 묘사를 늘이지 않음.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있더라"(26절)와 문지방의 두 손(27절)이라는 정지화면 한 컷.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절): 후렴과 발단 —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의 레위인과 베들레헴의 첩, 첩이 친정으로 떠남(떠난 이유는 사본에서 갈림).
- 컷 2 (3~9절): 베들레헴의 환대 — 첩을 데리러 감, 장인의 거둬된 만류와 식탁, "마음을 즐겁게 하라"의 반복, 늘어지는 며칠과 늦어지는 떠남.
- 컷 3 (10~15절): 귀로의 선택 — 늦은 출발(10), 여부스를 지나침("이방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12), 기브아의 광장에 앉음(15),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아이러니.
- 컷 4 (16~21절): 노인의 환대 — 밭에서 돌아온 거류자 노인(16)이 길손을 거두어 들임,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20), 밭 씻김과 식탁(21).
- 컷 5 (22~30절): 만행과 응답 — 불량배 무리가 집을 에워쌌(22), 본문의 비참을 사실로만(25-26), 문지방의 두 손(27), 시신을 열두 덩이로 나누어 사방에 보냄(29),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하라"(30). 본문의 절제 — 가장 어두운 대목을 가장 짧고 건조하게.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en melek*(<sup>אֵין מֶלֶךְ</sup>) — 왕이 없다(1절). 17:6·18:1·21:25와 사슬을 이루는 후렴.

- *pilegesh*(פִּלְגֶּשׁ) — 첩(1·2·9·10·24·25·27·29절). 그 여인의 거의 유일한 호칭, 이름 없음.
- *zanah*(זָנָה) — 행음하다(2절 MT). LXX 사본은 '그에게 노하다'로 읽음 — 떠난 이유의 번역 갈래, 미해결.
- *lin*(לִין) — 유숙하다·밤을 지내다(4·6·7·9·10·11·13·15·20절). 어디서 밤을 보낼 것인가가 장의 축.
- *yitav lev*(יִטַּב לֵב) — 마음을 즐겁게 하라(6·9절). 환대의 어구가 22절에서 폭력의 문맥으로 옮겨짐.
- *Yevus*(יְבוּס) — 여부스, 옛 예루살렘(11절). '이방의 성'이라 하여 지나침. / *Givah*(גִּיבָה) — 기브아, 베냐민의 성(12절).
- *ger*(גֵּר) — 거류자·외인(16절). 노인이 기브아의 본토인이 아니라 에브라임 출신 거류자라는 표기.
- *bene beliyaal*(בְּנֵי בְלִיַּאל) — 무익·파괴의 자식들, '불량배'(22절). 창 19장 소돔의 무리, 삼상 2:12의 어휘권.
- *maakhelet*(מַאֲחֵלֶת) — 칼(29절). 창 22:10에서 아브라함이 든 칼과 같은 단어. / *netachim*(נִתְּחִים) — 토막·덩이.
- *shevet*(שֵׁבֶט) — 지파(2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 *uru*(עֲרֹךְ) — '깨어 상의하라'의 겹 — 생각하고 상의하라(30절).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후렘(1) + 환대(3~9) + 귀로의 선택(10~15) + 노인의 환대(16~21) + 만행과 응답(22~30) — 환대에서 그 붕괴로 떨어지는 부록 비극의 구조.
- 19:1의 후렘과 21:25의 후렘(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의 액자 — 부록 전체를 묶는 네 표지(17:6·18:1·19:1·21:25)의 셋째·넷째.
- 창 19장 소돔과의 의도적 평행: 광장의 길손 → 한 사람의 영접 → 집을 에워싼 무리의 같은 요구 → 집주인의 만류. 무대만 가나안(소돔)에서 이스라엘 동족의 성(기브아)으로 역전.
- '유숙하다(*lin*)'가 환대 이야기(1~10)와 소돔 이야기(11~30)를 한 동사로 잇는 경첩.
- '마음을 즐겁게 하라(*yitav lev*)'가 식탁(6·9절)에서 폭력의 무리(22절)로 처소를 옮기는 어구의 역전.
- 본문의 무평가: 정죄도 칭찬도 거의 없이 사실만 기록, 30절에서 충격과 부름("생각하고 상의하라")만 남김.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나그네 환대 — 길손을 거두는 일이 고대 근동의 강한 사회 의무. 길손이 성문 광장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처지(15절)는 그 의무가 깨졌다는 표지. 창 19장 롯의 환대와 닿는 배경.
- 성문 광장(*rechov*) — 재판·거래·길손의 임시 거처가 되던 공공 공간. 영접받지 못한 길손이 머무는 곳(15·17절)의 배경.
- 시신을 토막 내어 사방에 보냄 — 짐승·물건을 분할해 보내 소집·맹약·동원을 알리던 형태. 삼상 11:7(사울이 소를 토막 내어 보낸 소집)과 평행하는 형태(29절).
- 거류자(*ger*)와 본토인의 구분 — 노인은 에브라임 출신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외인. 환대를 베푸는 이가 본토인이 아니라 거류자였다는 점(16절). 레 19:33-34의 율법 배경.
- 기브아·여부스의 지리 — 수 18:28에서 둘이 베냐민 지파 성읍 목록에 함께 놓임. 12절 귀로 선택의 배경.
- LXX: 2절의 '행음/노함' 갈래, 18절의 목적지('여호와와 그의 집/내 집') 갈래 — 본문비평·번역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샏 19:22-24 ↔ 창 19:1-11 (소돔의 광장·영접·에워쌌·요구·만류 — 같은 골격, 무대만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동족 성으로 역전)



- 샷 19:1 ↔ 샷 17:6 · 18:1 · 21:25 (왕이 없을 그 때에 — 부록을 묶는 네 후렴의 사슬)
- 샷 19:29 ↔ 삼상 11:7 (토막 내어 사방에 보내 소집 — 형태가 닿는 평행)
- 샷 19:30 ↔ 샷 20-21장 (생각하고 상의하라 — 회중의 소집과 내전으로 이어지는 후속)
- 샷 19장 ↔ 호 9:9 · 10:9 ('기브아의 날' — 후대 선지자가 죄의 깊이의 기준으로 인용)
- 샷 19:16-20 ↔ 레 19:33-34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함께 사는 자를 사랑하라 — 환대 의무의 율법)
- 샷 19:29 ↔ 창 22:10 (maakhelet — 같은 단어의 칼, 전혀 다른 일에 쓰임)
- 샷 19:12 ↔ 수 18:28 (기브아·여부스가 베냐민 성읍 목록에 함께 — 귀로 선택의 지리)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자막 —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 산지의 한 집. 한 사람이 남쪽으로 떠난다, 떠나간 첩을 데리러 베들레헬으로. 장인의 집, 등불 켜진 실내, 빵과 포도주, 거둬 붙드는 손 —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룻밤 더.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간다. 마침내 떠나는데 해가 이미 기울었다. 멀리 한 성의 운곽 — 여부스. 종이 손짓한다, 여기서 묵으시지요. 고개를 젖는다 — 이방의 성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다, 기브아로. 동족의 성, 성문 안 광장. 짐을 내려놓고 앉는데 아무도 문을 열지 않는다. 광장에 길손만 앉아 있다. 발에서 한 노인이 돌아온다 — 그 성의 거류자, 외인. 묻고, 듣고, 거두어 들인다 —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마시오. 다시 등불 켜진 실내, 발을 씻고 먹는다. 그 밤, 문이 흔들린다. 어둠의 무리가 에워쌌다. 카메라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 문 밖에 머문다. 새벽 미명. 한 사람이 문을 연다. 문지방 위의 두 손. 더 비추지 않는다. 마지막 컷, 칼이 들리고 사자들이 사방으로 떠난다. 받아 든 손들, 멈춰 선 얼굴들. 자막 —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생각하고, 상의하라. 잠전.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왕이 없을 그 때에 — 아무도 문을 열지 않은 동족의 성"
- 초벌 부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 때에'(19:1)라는 후렴이 우상의 영역(17~18장)에서 인간성의 영역으로 번지고, 장인의 거둬들인 환대(19:3-9)와 '이방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19:12) 하여 든 동족의 성의 거절(19:15), 거류자 노인의 환대(19:16-21)와 기브아의 만행(19:22-26)을 지나, 본문이 답을 주지 않고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하라'(19:30)로 던져 놓는 — 사사도 구원자도 없는 침묵의 비극"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6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창 19장 소돔 평행 + 삼상 11:7 분할 형태 + 후렴 사슬 + ANE 환대·거류자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기브아의 만행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첵·레위인·무리 누구에게도 본문 밖의 도덕적 판결을 얹지 않음. 본문이 절제한 만큼만 사실로 기록하고, 카메라를 문 밖에 두는 본문의 절제 자체를 관찰로 보존.
- 2절의 떠난 이유(행음/노함)를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사본 전승이 갈리는 미해결로 둬. 그 여인의 목소리 없음을 함부로 채우지 않고 비워 둔 채 보존.
- 창 19장과의 평행을 '소돔=동성에 죄'라는 특정 교리 증명으로 끌고 가지 않고, 두 본문이 같은 골격이며 무대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동쪽 성으로 역전되었다는 형태·구조 관찰로만 둬.
- 19장의 비극을 '왕정 옹호 프로파간다'나 '레위인 비판' 같은 단일 편집 의도로 환원하지 않고, '왕이 없을 그 때에'의 후렴 사슬과 부록 비극의 구조 사실로만 기록.
- 30절의 "생각하고 상의하라"를 빠른 교훈·적용으로 단지 않고, 본문이 답 대신 부름으로 끝난다는 결의 관찰과 20~21장으로 열린 이월로만 둬. 애도를 먼저, 설명을 뒤로.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19장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 때에"(19:1)라는 부록의 후렴으로 다시 열려, 에브라임 산지의 한 레위인과 유다 베들레헬의 첵, 장인의 거둬진 환대와 "마음을 즐겁게 하라"의 반복(19:3-9), 늦어진 출발과 "우리가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19:12) 하여 든 동족의 성에서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아이러니(19:15), 한 거류자 노인의 환대(19:16-21)와 기브아의 만행(19:22-26)을 지나 —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19:30)는 미결의 부름으로 닫히는, 사사도 구원자도 부르짖음도 응답도 하늘의 음성도 기록되지 않은 부록 비극의 둘째 매듭이다.

**한 문단:** 에브라임 산지의 한 집. 같은 후렴이 다시 자막처럼 걸린다 — 왕이 없을 그 때에. 한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가 떠나간 첵을 데려온다. 장인의 집은 환대로 넘친다 — 빵과 포도주, 거둬 붙드는 손, 하룻밤 더. 며칠이 늘어지고, 마침내 떠날 때엔 해가 기울어 있다. 종이 여부스에서 묵자 하나 레위인은 이방의 성을 피해 동족의 성 기브아로 향한다. 그러나 그 동족의 성은 광장에 길손을 버려둔다 — 아무도 문을 열지 않는다. 발에서 돌아온 한 노인, 그 성의 본토인이 아니라 거류자인 외인이 문을 연다. 다시 등불 켜진 실내. 그러나 그 밤, 무익의 자식들이 집을 에워싼다. 여기서 본문은 카메라를 가까이 두지 않는다. 일어난 일을 가장 짧고 건조한 문장으로 적고, 새벽 미명의 문지방에 놓인 두 손이라는 한 컷만 남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사자들이 이스라엘 사방으로 떠난다. 받아 든 손들과 멈춰 선 얼굴들 위로 마지막 자막이 흐른다 —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생각하고 상의하라. 이 장에서 하늘은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

#### B ·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같은 후렴으로 열리는 무대, 집을 찾아 해매는 동선, 환대의 빵에서 칼로 떨어지는 소품의 낙차, 이름이 지워진 인물들. |
| 2 첫 느낌·분위기    | 길게 늘어지는 환대의 따뜻함, 부르짖음도 응답도 없는 하늘의 침묵, 저물어 가는 빛, 안과 밖을 가르는 문턱.      |
| 3 시작과 끝       | 후렴(빈 곳)으로 열려 명령(미결의 부름)으로 닫힘. 한 가정의 발단에서 민족 전체의 시간 척도로.            |

| 단계         | 핵심 발견                                                                                  |
|------------|----------------------------------------------------------------------------------------|
| 4 등장인물·사상  | 여호와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 환대와 그 붕괴의 대비. 환대를 지킨 이는 본토인이 아니라 거류자. 본문의 무논평.                      |
| 5 장면 컷     | 후렴·발단(1~2)/환대(3~9)/귀로의 선택(10~15)/노인의 환대(16~21)/만행과 응답(22~30)의 5컷. 비참은 절제로 기록.          |
| 6 의문·발견·정보 | 창 19장 소돔과의 의도적 평행(무대만 역전). 삼상 11:7의 분할 형태. 후렴 사슬(17:6·18:1·19:1·21:25). LXX의 떠남 이유 갈래. |
| 7 동영상      | 환대의 등불 → 늦어지는 떠남 → 빈 광장 → 거류자의 문 → 문 밖에 머무는 카메라 → 문지방의 두 손 → 사방으로 던져진 충격.              |
| 8 초벌 제목·부제 | "왕이 없을 그 때에 — 아무도 문을 열지 않은 동족의 성"                                                      |
| 9 기도·내면    | 본문이 멈춘 곳에서 함께 멈추어, 이름 없이 목소리 없이 문지방에 놓인 한 사람을 들고 머문다. 애도를 먼저.                          |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옮겨 오는 후렴, 신상에서 사람으로:**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는 부록을 묶는 사슬이다 — 17:6·18:1·19:1·21:25. 앞의 두 마디(17·18장)는 미가의 신상과 단 지파의 우상, 곧 예배의 붕괴를 표지했다. 19:1의 셋째 마디는 같은 후렴을 도덕의 영역으로 옮겨 온다. 질서의 부재가 신을 잘못 섬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데까지 번진다. 본문은 그 이동을 설명하지 않고, 같은 문장을 다른 무대에 다시 걸어 둘 뿐이다. 우상의 붕괴와 인간성의 붕괴가 한 후렴 아래 묶여 있다는 그 배치가, 권의 마지막 마디(21:25)를 향해 가는 긴 하강의 한 매듭이다.
- 결 2 — 소돔의 골격, 이스라엘의 무대:** 19장의 만행 장면은 창세기 19장 소돔 장면과 골격이 거의 같다 — 광장의 길손, 한 사람의 영접, 그날 밤 집을 에워싼 무리의 같은 요구, 집주인의 만류. 그러나 결정적으로 무대가 다르다. 창 19장은 가나안의 성 소돔이고, 샏 19장은 이스라엘 동족 베냐민의 성 기브아다. 여호수아서가 몰아내려 했던 가나안의 죄가,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똑같이 일어난다. 정복의 역전이다. 본문은 이 평행을 어휘와 구조에 의도적으로 짜 두면서도, '그러므로 이러이러하다'는 판결을 달지 않는다. 두 본문이 같은 골격이라는 형태를 독자가 스스로 마주하게 둘 뿐이다.
- 결 3 — 답 대신 부름, 정죄 대신 애도:** 이 장은 누구도 명시적으로 정죄하지 않는다. 레위인의 결정도, 동족의 무관심도, 무리의 폭력도 — "악하더라"는 직접 논평이 거의 없다. 대신 본문은 가장 어두운 대목을 가장 짧게 적고, 카메라를 문 밖에 두고, 문지방의 두 손이라는 정지화면 하나만 남긴다. 그리고 30절에서 온 이스라엘의 시간 척도로 충격을 기록한 뒤, 판결이 아니라 "생각하고 상의하라(uru)"는 부름으로 끝난다. 비참을 전시하지 않으면서도 지우지 않는 이 절제가, 빠른 교훈을 거부하고 독자를 애도와 헤아림으로 부른다. 사사기 1장이 못함과 안 함을 지파별로 정직히 적던 그 진단의 손이, 여기서는 가장 어두운 일을 정직히 기록하는 데까지 와 있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창 19:1-11 — 소돔의 광장·영접·에워쌌·요구·만류 — 같은 골격, 무대만 이스라엘 동족의 성으로 역전.
- 샏 17:6 · 18:1 · 21:25 — "왕이 없을 그 때에" — 부록을 묶는 네 후렴의 사슬, 19:1은 셋째 마디.
- 삼상 11:7 — 사울이 소를 토막 내어 사방에 보내 소집함 — 19:29 분할의 형태가 닿는 평행.
- 호 9:9; 10:9 — '기브아의 날' — 후대 선지자가 죄의 깊이의 기준으로 인용.

- 레 19:33-34 —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하라 — 환대 의무의 율법 배경, 거류자 노인의 역전과 겹침.
- 수 18:28 — 기브아·여부스가 베냐민 성읍 목록에 함께 — 12절 귀로 선택의 지리.
- 창 22:10 — maakhelet(칼) — 같은 단어가 전혀 다른 일에 쓰인 어휘의 대비.
- 샏 20-21장 — 회중의 소집과 내전 — 19:30의 '상의하라'가 여는 후속.
- 샏 2:18 —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일으키심 — 이 장에 그 부르짖음도 구원자도 없다는 부재의 배경.
- 샏 21:25 —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 19:1과 액자를 이루는 권의 도착점.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9:1의 후렴에서 시작한다 — 내 둘레의 어떤 질서가 비어 있을 때, 그 빈 곳이 예배에서 사람을 대하는 일로까지 변하지는 않는지 듣는다.
- **멈춤 1:** 19:15의 빈 광장에서 멈춘다 — 이방보다 안전하리라 여긴 동족의 성에서 아무도 문을 열지 않던 그 광장. 누가 문을 닫고 있는지 본다.
- **멈춤 2:** 19:16-20의 거류자 노인에서 멈춘다 — 환대를 지킨 이가 본토인이 아니라 외인이었다는 것. 내가 지키는 의무가 안에서 왔는지 밖에서 왔는지 본다.
- **끝:** 19:30의 "생각하고 상의하라"에서 멈춘다 — 비참 앞에서 빠른 설명 대신 함께 멈추어 헤아리는 일. 애도를 먼저 두고, 답을 서두르지 않는다.

#### F · 자족성 점검

- [x] 후렴(1)·환대(3~9)·귀로의 선택(10~15)·노인의 환대(16~21)·만행과 응답(22~30)의 다섯 단 완결
- [x] 창 19장 소돔과의 의도적 평행(무대만 역전)과 삼상 11:7 분할의 형태
- [x] 이방을 피해 든 동족의 성의 거절(15절)과 거류자 노인의 환대(16~21절)의 대비
- [x] 본문의 절제 — 비참을 묘사로 늘이지 않고 문지방의 두 손이라는 한 것으로
- [x] 19:1의 후렴과 21:25의 액자, 그리고 답 대신 부름으로 끝나는 30절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다 (book-telos). 권의 흐름은 미완과 진단(1~2장),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부록(17~21장)으로 움직이는데, 19장은 부록의 둘째 비극이다. 17~18장이 우상(미가의 신상·단 지파)의 붕괴라면, 19~21장은 도덕(인간성)의 붕괴다 — '왕이 없으므로'가 신상의 영역에서 사람의 영역으로 변진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사사들의 시대가 삼손에서 끝난 뒤(13~16장) 부록이 보여 주는 것은 더 이상 외적의 압제가 아니라 내부의 무너짐이다. 압제 앞에서는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 부르짖음마다 구원자가 일어났는데(2:18), 이 장에는 압제도, 부르짖음도, 일어나는 구원자도, 하늘의 음성도 없다. 그 모든 부재가 한데 모여, 권의 heart — 거둬 배반하는 백성의 곤고를 차마 보지 못하시는 궁핍(2:18·10:16) — 가 가장 들리지 않는 침묵의 국면을 만든다. 그런데 바로 그 침묵이, 사람 구원자가 아니라 마음까지 다스릴 참왕이 있어야 한다는 권 전체의 intent를 가장 크게 외친다. 사사가 없는 장, 구원자가 없는 장, 음성이 없는 장 — 그 빈 곳의 크기만큼 참왕의 필요가 또렷해진다. 19장은 그 필요를 가장 어렵게 새겨 두는 좌표다.

후렴(19:1 en melek)에서 부름(19:30 uru)으로 / 한 집의 사사로운 일에서 이스라엘 사방의 충격으로 / 환대의 등불(19:3-9)에서 문지방의 어둠(19:26-27)으로 — 상처를 지우지 않는 정직한 애도가, 답을 서두르지 않는 침묵 속에서 참왕의 필요를 외치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9장은 '왕이 없는 시대'의 무너짐을 예배의 영역에서 사람의 영역으로 옮겨 새기고, 그 결과를 정죄가 아니라 미결의 부름으로 온 회중에게 던지는 운동이다. 환대(3~9절)가 늦어진 출발(10절)과 귀로의 선택(12절)을 지나 빈 광장(15절)으로, 거류자의 환대(16~21절)가 한 집을 에워싼 어둠(22~26절)으로, 한 집의 일이 사방으로 던져진 충격(29절)으로 화면이 넓어지며 어두워진다. 그러나 1장이 끝나도 아무도 울지 않았듯, 19장이 끝나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 해결의 시도는 20장의 소집에서야 시작되고, 그 시도조차 또 다른 비극(내전)으로 이어진다. 19장의 벡터는 전권을 '미완의 진단(1~2장)에서 사사 사이클의 하강(3~16장)으로, 그리고 부록의 우상과 도덕의 붕괴(17~21장)에서 왕이 없으므로(21:25)라는 고백으로' 끌고 가는 긴 하강 나선의 가장 어두운 구간이며, 그 나선 전체가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는 쪽으로 움직인다.

####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끄적한 사건의 보고다 — 한 밤, 한 성, 한 사람의 죽음.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정직한 애도다. 본문은 이 비참을 미화하지도, 선정적으로 늘이지도, 서둘러 교훈으로 닫지도 않는다. 일어난 일을 절제된 문장으로 적고, 카메라를 문 밖에 두고, 문지방의 두 손이라는 한 컷만 남긴다. 상처를 전시하지 않으면서도 지우지 않는 이 문체 자체가, 비참을 끝으로 삼지 않으시는 분의 결을 닮아 있다. 둘째, 부재의 외침이다. 이 장에는 사사도 구원자도 없고, 부르짖음도 응답도 없고, 하늘의 음성도 없다. 사사기의 다른 장에서는 압제 앞에 부르짖음이 있었고 구원자가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부르짖음조차 없다. 응답의 부재가 아니라 부르짖음의 부재 — 그 침묵의 크기가 곧 참왕이 있어야 할 빈 곳의 크기다. 셋째, 환대의 한계다. 장의 앞은 환대가 넘치고, 거류자 노인은 문을 연다. 그러나 그 선한 환대조차 질서가 무너진 성 안에서 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 개인의 선의가 공동체의 붕괴를 메우지 못한다는 것 — 본문은 그 한계를 풀어 주지 않고, 30절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함께 헤아리라고만 한다. 본문은 거기까지만 보여 주고 멈춘다.

####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누구의 문을 닫고 있는가 — 안전하리라 여긴 처소에서 광장에 버려진 한 사람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비참 앞에서 나는 빠른 설명으로 닫으려 하는가, 아니면 함께 멈추어 애도하며 헤아리려 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 정죄가 아니라 애도와, 참왕을 향한 갈망으로의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손쉬운 교훈을 주지 않는다. 다만 같은 후렴 아래에서 무너지는 한 시대를 보여 주고, 이방을 피해 든 동족의 성이 길손에게 문을 닫는 광장을 보여 주고, 환대를 지킨 한 외인의 문을 보여 주고, 카메라를 문 밖에 둔 채 문지방의 두 손이라는 한 컷만 남긴다. 비참을 전시하지 않는 이 절제 — 그 절제가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누구의 문을 닫고 있는지 정직히 돌아보는 일, 안전을 핑계로 지나친 광장이 없는지 살피는 일, 그리고 비참 앞에서 설명을 서두르는 대신 함께 멈추어 애도하는 일. 사사도 구원자도 음성도 없는 이 장의 침묵이, 마음까지 다스릴 참왕을 향한 가장 깊은 갈망을 길어 올린다. "생각하고 상의하라"는 마지막 부름에 자기 침묵을 보태어, 답을 서두르지 않고 애도를 먼저 드리는 것 — 그 멈춤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사방으로 던져진 충격 앞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미스바에 모인다 — "생각하고 상의하라"(19:30)는 부름이 이제 한 곳에 모인 사십만 보병의 소집(20:2)으로, 그리고 동족을 치는 내전으로 이어진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uru* — 생각하고 상의하라.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1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폭력 본문이므로 답을 더욱 서두르지 않는다.

#### Q1. 19:1의 후렴은 왜 우상의 영역(17~18장)을 지나 인간성의 영역으로 옮겨 오는가?

- 같은 "왕이 없을 그 때에"가 17:6-18:1에서 신상의 붕괴를 표지하다가, 19:1에서 도덕의 붕괴를 연다. 질서의 부재가 예배의 영역에서 사람의 영역으로 번지는 그 이동의 의미를, 21:25의 마지막 후렴까지 읽으며 이월. 보존.

#### Q2. 창 19장 소돔과의 평행은 왜 무대만 동족의 성으로 바꾸어 반복되는가?

- 광장·영접·에워쌌·요구·만류의 골격이 거의 같은데, 무대가 가나안(소돔)에서 이스라엘 베냐민의 성(기브아)으로 역전된다. 정복으로 몰아내려던 죄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이 역전을, 특정 교리의 증명으로 닫지 않고 형태 사실로 보존.

#### Q3. 이방(여부스)을 피해 든 동족의 성(기브아)에서 거절당한 아이러니를 본문은 왜 설명 없이 두는가?

- "이방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12절)라는 선택이 동족의 성으로 향하게 하고, 그 동족이 영접하지 않는다(15절). 이방보다 안전하리라 여긴 곳에서 당한 일 — 본문은 그 아이러니를 12절과 22절을 같은 동선에 놓아 만들 뿐, 논평하지 않는다. 보존.

#### Q4. 환대를 지킨 이가 본토인이 아니라 거류자(ger)인 까닭을 본문은 왜 부각하는가?

- 그 성의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에서 와 거류하는 외인(16절)이 문을 연다. 레 19:33-34의 거류민 사랑 율법과 겹치는 역전 — 환대의 의무를 외인이 지키고 본토인이 깨뜨린다. 그 대비의 의미를 단정하지 않고 보존.

#### Q5. 본문은 왜 정죄 대신 충격과 "생각하고 상의하라"(19:30)를 남기는가?

- 누구도 명시적으로 정죄하지 않으면서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는 충격만 기록하고, 판결 대신 회중에게 함께 해야리라(*uru*)는 부름으로 끝난다. 정죄를 엮는 순간 본문이 비워 둔 공백을 메우게 되기에, 그 미결을 미결대로 보존.

#### Q6. 이 장에 사사도 구원자도, 부르짖음도 응답도, 하늘의 음성도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 사사기의 다른 장은 백성이 부르짖으면 구원자가 일어났는데(2:18), 이 장에는 부르짖음조차 없다. 응답의 부재가 아니라 부르짖음의 부재 — 그 침묵이 이 장의 가장 깊은 어둠이다. 그 부재가 무엇을 외치는지, 권의 도착점(21:25)과 참왕의 필요까지 읽으며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비참 앞에서는 애도를 먼저, 설명을 뒤로 둔다.



# 사사기 20장

JDG-020 · 역사서 · 히브리어

우상과 만행에는 흠여졌던 지파들이 이 일에는 "한 사람같이"(20:8·11) 미스바에 모이고, 형제를 보호하려던 베냐민이 죄와 한편이 되며(20:12-14), 여호와께 거듭 묻되 첫째·둘째 날 거듭 패한 뒤 셋째 날 금식과 번제와 언약궤 앞의 비느하스 뒤에야 이기는(20:18-28) — 명분의 옳음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 동족상잔의 비참을, 어느 편의 의로움도 판정하지 않고 본문의 물음에 머물러 관찰한 장.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2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두 곳: 미스바 —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길르앗에서까지 나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모인 마당(1절). 기브아 앞의 들판 — 사흘에 걸친 동족 전장.
- 채워짐의 대비: 19장의 만행에는 어느 지파도 모이지 않았으나, 20장에서는 남북의 끝과 강 건너에서까지 사람이 다 나와 무대가 가득 참.
- 소품: 토막 난 몸(19:29의 잘린 증거), 칼(herev, 2·17·35절), 왼손잡이 칠백의 물매(16절), 번제·화목제(26절), 언약궤(aron, 27절), 성에서 오르는 연기 신호(38·40절).
- 소품의 동선: 회중의 마당엔 잘린 몸, 전장엔 칼과 물매, 셋째 날엔 제단과 궤, 성 위엔 연기 — 비극과 예배 사이를 오가는 소품.
- 소재의 점층: 묻고·올라가고·맞붙고가 세 번. 세 번이 같지 않고 한 켜씩(울음→금식→번제·화목제·궤) 더 해짐.
- 형식 소재: 1·8·11절의 *keish echad*("한 사람같이") 세 번, 18·23·27절의 신탁 문의 세 번 — 같은 형식인데 물음의 결이 누가 먼저냐→다시 나갈까→그칠까로 무너져 감.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비장한 출정의 공기가 21절에서 무너짐 — 옳다 믿고 올라간 쪽이 이만 이천을 잃고, 23절에서 다시 만 팔천을 잃음. 묻고·응답받고·졌다가 한 화면에 공존.
- 쓰러진 수를 세는 후렴: 이만 이천(21) → 만 팔천(25) → 셋째 날 베냐민의 거의 전멸과 육백의 도피(47). 어느 쪽을 세든 형제의 주검을 셈.
- 명암: 미스바의 모임은 밝고, 들판은 두 번 어두워졌다가, 셋째 날에 가장 밝게 탐 — 그 가장 밝은 불이 형제의 성을 사르는 불.
- 군사 기록의 문체 속 점층: 첫째 날 그냥 물음(18) → 둘째 날 울며 물음(23) → 셋째 날 울며 금식하고 번제·화목제·궤 뒤의 물음(26-28). 백성이 한 켜씩 낮아짐.
- 두 자세: 칼을 빼고 선 진(2절)과 저물도록 앉아 우는 벤엘(26절). 같은 사람들의 선 칼과 앉은 울음, 그 사이의 금식.

- 응답과 약속의 다름: 첫째·둘째 날의 응답은 짧고(18:23), 승리의 약속("넘겨 주리라", 28)은 셋째 날뿐. 발화의 길이가 그 차이를 보임. 배경.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 온 이스라엘의 집결로 열려 한 지파의 성읍 소각으로 닫힘 — 첫 절의 주어는 '모든 이스라엘'(베냐민도 그 안), 마지막 절의 대상은 베냐민.
- 어미의 이동: 집결의 동사("모였으니")에서 소각의 동사("불살랐더라")로 — 함께의 모임에서 함께가 사라진 소각으로.
- 1절 "여호와와 앞에 모였으니" ↔ 48절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 예배의 마당에서 시작된 일이 불타는 성읍으로 끝남. 본문은 그 사이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음. 림몬 바위의 육백(47)이 다음 장으로 이월.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모든 이스라엘 회중(사십만, 1-2·17절), 레위인(자기 책임을 줄여 증언, 4-7절), 베냐민 자손(형제 내어 주기를 거절, 이만 육천에 원손잡이 칠백, 13-16절), 기브아의 불량배(bene beliyaal, 19장 만행의 장본인, 13절), 여호와(세 번의 물음에 응답, 18:23·28절), 비느하스(언약궤 앞에 선 제사장, 28절).
- 중심 사상 1: 형제 보호가 죄와의 연대가 되는 매듭 — 회중의 정당한 요구(13절, 악을 제하라)를 베냐민이 거절하고 형제와 싸우려 모임(14절). 보호하려는 사랑과 죄를 덮는 비호가 한 동작에서 갈라지지 않음. 본문은 거절을 평하지 않음.
- 중심 사상 2: 레위인 증언의 미해결 — 4-7절의 진술에 19:25의 자기 행위(첩을 무리에게 내어 줌)가 빠짐. 본문은 그 진술을 바로잡지도 거짓이라 적지도 않고 말한 대로 보존.
- 양식의 부재: 사사 사이클(악→압제→부르짖음→구원자)이 없음. 외부 압제자도 부르짖음도 사사도 없고, 내부 분쟁과 거듭된 실탁 문의만 있음.
- 정의의 절차와 동족상잔의 거리: 13절의 요구는 신 13장의 절차(악을 행한 자를 제하라)와 닮은 정당한 절차인데, 그 거부가 14절에서 형제 전체를 치는 전쟁으로 변질.
- 셋째 날의 제단: 번제(온전히 태움)·화목제(함께 나눔)·언약궤·비느하스(26-28절) — 19장에 없던 예배의 소품이 셋째 날에야 등장. 형제를 치기 직전에 화목의 제사가 드러짐.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1절): 집결과 증언 —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회중이 여호와 앞에 모이고(1-2), 레위인이 책임을 줄여 증언하고(4-7), "한 사람같이" 일어나 기브아를 치기로 결의(8-11).
- 컷 2 (12~17절): 요구와 거절 — 불량배를 내어 달라는 요구(12-13)를 베냐민이 거절하고 형제와 싸우려 모임(14), 베냐민 이만 육천·원손잡이 칠백(15-16), 이스라엘 사십만(17).
- 컷 3 (18~28절): 거듭 묻고 거듭 패함 — 첫째 날 묻고 올라갔다 이만 이천 전사(18-21), 둘째 날 울며 묻고 올라갔다 만 팔천 전사(22-25), 셋째 날 뻔엘에서 울며 금식하고 번제·화목제 드리고 궤 앞에 비느하스가 선 뒤 승리의 약속(26-28).

- 컷 4 (29~48절): 매복과 함락 — 기브아 주위에 복병(29), 성을 비운 척 유인(31-32), 연기 신호와 빈 성 공격(37-40), 베냐민 붕괴와 림몬 바위로 육백 도피(45-47), 남은 성읍 소각(48).
- 컷 3 내부의 하강 사다리: 문되 패함(18-21) → 울며 문되 또 패함(22-25) → 가장 낮아진 뒤의 약속(26-28). 수 8장(아간 이후의 아이 성 매복 승리)과 닮되, 두 번 진 이유를 본문이 밝히지 않는 차이.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keish echad*(כֶּיֶשׁ אֶחָד) — 한 사람같이(1·8·11절). 단합 어구가 형제를 향해 세 번 반복됨.
- *Mitspah*(מִצְפָּה) — 미스바, 망대·집결지. / *qahal*(קָהָל) — 회중·총회, 종교 모임에도 쓰이는 단어(1-2절).
- *nevalah*(נְעָלָה) — 망령된 일·수치스러운 짓(6절). 레위인이 기브아의 일을 부르는 말.
- *bene beliyaal*(בְּנֵי בְלִיַּאל) — 불량배·무뢰한(13절). 어근 *beliyaal*은 '파멸'의 결, 19장의 그 무리.
- *ach*(אָח) — 형제(13·23·28절). 싸울 상대를 형제라 부르는 어휘.
- *shaal beElohim*(שָׁאַל בְּאֱלֹהִים) — 하나님께 묻다(18절). 신탁 문의, 삿 1:1과 같은 형식.
- *bakhah*(בָּכָה) — 울다(23·26절). / *tsom*(צוֹם) — 금식(26절).
- *olah*(עֹלָה) 변제 · *shelamim*(שְׁלָמִים) 화목제(26절) — 온전히 태움과 함께 나눔. / *aron*(אֲרוֹן) — 언약궤(27절).
- *Pinchas*(פִּנְחָס) — 비느하스(28절). 민 25장의 그 제사장, 사건의 연대 단서.
- *orev*(אֲרֵב) — 매복·복병(29절). 수 8장과 같은 어휘. / *Sela Rimmon*(סֶלָה רִמְמוֹן) — 림몬 바위(47절), 육백이 도피한 곳.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집결과 증언(1-11) + 요구와 거절(12-17) + 거듭 묻고 거듭 패함(18-28) + 매복과 함락(29-48) — 집결에서 소각으로 기우는 4컷 구조.
- 세 겹의 신탁 문의(18·23·27)와 세 번의 *keish echad*(1·8·11) — 단합과 물음이 점층하며 결과만 갈림.
- 하강 사다리: 문되 패함(이만 이천) → 울며 문되 패함(만 팔천) → 금식·변제·화목제·궤 뒤의 승리. 본문은 두 패배의 이유를 밝히지 않음.
- 수 8장과의 어두운 평행: 매복(*orev*)·연기 신호·협공의 전술이 거의 같은 어휘. 아이 성(가나안)을 향하던 전술이 기브아(형제)를 향함.
- 삿 1:1 ↔ 20:18: 같은 신탁 문의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베냐민(형제)과의 전쟁으로 — 형식 보존, 대상 역전.
- 육백의 잔존(47) — 거의 전멸의 끝에 남은 자 모티프, 21장 베냐민 재건으로 이월.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부족 동맹의 소집 — 공동의 위해 앞에서 맹약 공동체가 한곳에 집결해 결의하는 근동 부족 사회의 관행. 20:1의 배경.
-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 남북의 끝을 묶어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관용 표현, 길르앗을 더해 요단 동편까지 포함. 20:1의 배경.
- 매복 전술(*orev*)과 연기 신호 — 성을 비운 척 유인해 복병이 빈 성을 치는 고대 전투법, 수 8장과 같은 어휘권. 20:29-40의 배경.
- 전쟁 전 신탁 문의 — 출전·진행·시기를 두고 신적 응답을 구한 뒤 움직이는 고대 군례. 20:18·23·27-28의 배경.

- 성읍의 가증한 일에 대한 처분 규례(신 13:12-18) — 악을 제하라는 13절 요구와 48절 소각의 율법 배경. 배경.
- LXX: 20:33의 매복 지점 명칭(마아레 게바/게바의 서쪽), 31·39절 전사자 수의 사본 갈림 — 본문비평·전승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샷 20장 ↔ 샷 19장 (레위인의 첩과 기브아의 만행 — 20장이 응답하는 직전 사건)
- 샷 20:29-37 ↔ 수 8:1-29 (아이 성 매복 전술 — 같은 어휘, 적이 가나안에서 형제로)
- 샷 20:18 ↔ 샷 1:1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 정복의 물음이 내전의 물음으로)
- 샷 20:28 ↔ 민 25:6-13 (비느하스의 열심과 평화의 언약 — 그 비느하스)
- 샷 20:12-13 ↔ 수 22:9-34 (전쟁 직전의 사절 파송 — 형제 사이 확인 절차의 대비)
- 샷 20장 ↔ 샷 21:1-25 (미스바의 맹세와 베냐민 재건 — 내전의 직접 후속과 권의 종결)
- 샷 20장 ↔ 호 9:9; 10:9 (기브아의 날들 — 후대가 깊은 부패의 표지로 회상)
- 샷 20:48 ↔ 신 13:12-18 (성읍의 가증한 일에 대한 처분 규례 — 율법 배경)
- 샷 20장 ↔ 창 49:27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 — 지파 예언과의 거리, 배경)
- 샷 20:16 ↔ 샷 3:15 (왼손잡이의 모티프 — 에훗과 베냐민 정예의 어휘 닿음, 배경)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미스바의 들, 정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 브엘세바에서, 단에서, 길르앗에서. 자막 — 그 회중이 일제히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한 사람이 일어선다 —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죽게 하였노라. 군중이 외친다 — 우리가 한 사람같이 일어나리라. 사절이 베냐민으로 간다 — 불량배를 내어 달라, 악을 제하자. 그러나 성문이 닫히고 베냐민이 칼을 들고 형제 앞에 선다. 첫째 날, 사십만이 올라가는데 이만 이천이 들에 엎드려진다. 백성이 다시 올라가 저녁까지 운다 — 다시 나가 형제와 싸우리이까. 둘째 날, 만 팔천이 또 쓰러진다. 카메라가 벤엘로 오른다 — 온 백성이 앉아 저물도록 울며 금식하고, 번제의 불과 화목제의 연기가 오르고, 궤 앞에 비느하스가 선다. 그제야 음성이 내려온다 —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셋째 날, 복병이 기브아 주위에 엎드리고 본대가 성을 비운 척 물러선다. 베냐민이 쫓아 나오고, 성에서 검은 연기가 솟는다 — 신호. 빈 성으로 복병이 쏟아지고 협공이 닫힌다. 베냐민이 무너지고, 육백이 광야로 달려 립몬 바위에 숨는다. 마지막 컷, 사람도 가축도 없는 성읍 위로 연기가 오른다 —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화면에 남는 것은 승전가가 아니라 연기와 멀리 바위에 웅크린 여섯 백 명이다. 암전.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한 사람같이 — 묻되 거둬 패한 형제의 전쟁"
- 초벌 부제: "우상과 만행에는 흠여졌던 지파가 이 일에는 '한 사람같이'(20:8·11) 미스바에 모이고, 형제 보호가 죄와의 연대가 된 베냐민의 거절(20:14) 위에서, 여호와께 거둬 묻되 첫째·둘째 날 거둬 패한 뒤 셋째 날의 금식과 번제와 언약궤 앞 비느하스 뒤에야 이기는(20:18-28) — 명분의 정당함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 어느 편의 의로움도 판정되지 않은 동족상잔의 비참"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7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세 전투의 점층 구조 + 수 8장 매복 전술의 어두운 반복 + 샷 1:1과 20:18의 같은 물음 형식 + 부족 집결·신탁 군례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한 사람같이'의 단합(1·8·11절)을 거룩한 연합의 모범으로도, 맹목적 군중심리의 정죄로도 단정하지 않고, 흠어졌던 지파가 이 일에는 모였다는 대비의 형식 사실과 keish echad의 어휘 관찰로만 둬. 어느 편의 의로움도 판정하지 않음.
- 레위인의 증언(4·7절)과 19:25의 간격을 거짓 증언의 정죄로 닫지 않고, 자기 책임이 진술에서 빠졌다는 본문 비교의 사실과 본문의 무평가로 보존.
- 베냐민의 거절(14절)을 형제 의리의 미덕으로도, 죄와의 야합의 악으로도 일방으로 단정하지 않고, 정당한 요구의 거부가 전쟁으로 변졌다는 절차상의 사실로만 기록. 보호와 비호의 갈라지지 않음을 미해결로 둬.
- 두 번의 패배(21·25절)를 죄의 응징이나 믿음 부족의 증명으로 닫지 않고, 묻고 응답받았으나 졌다는 본문의 침묵을 침묵대로 보존. 셋째 날의 예배와 승리 사이의 인과도 단정하지 않음.
- 매복 전술(29·37절)을 정당한 전략의 예시나 비겁의 정죄로 평하지 않고, 수 8장의 정복 전술이 동족에게 쓰였다는 어휘·구조의 평행 관찰로만 둬. 동족상잔의 비참 자체에 머물.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20장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20:1)라는 온 지파의 집결로 열려, 우상과 만행에는 흠어졌던 그들이 이 일에는 "한 사람같이"(20:8·11) 일어나고, 레위인이 자기 책임을 줄여 증언하며(20:4-7), 기브아의 불량배를 내어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베냐민이 거절하고 형제와 싸우기를 택하는(20:12-14) 위에서 — 여호와께 거듭 묻되 첫째 날 이만 이천, 둘째 날 만 팔천이 쓰러지고(20:18-25) 셋째 날 울며 금식하고 변제·화목제를 드리고 언약궤 앞에 비느하스가 선 뒤에야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20:28)는 약속을 받아, 수 8장의 매복 전술이 동족의 성에 쓰여 베냐민이 거의 전멸하고 육백 명만 림몬 바위로 도피한 채 성읍이 다 불타는(20:29-48), 어느 편의 의로움도 판정되지 않은 동족상잔의 비참한 기록이다.

**한 문단:** 미스바의 마당, 사방에서 사람이 가득 찬다. 19장의 만행에는 모이지 않던 지파들이 이 일에는 남북의 끝과 강 건너에서까지 다 나와 여호와 앞에 선다. 한 사람이 일어나 증언하는데, 자기가 첩을 내어 준 그 밤의 손은 진술에서 빠진다. 군중이 한목소리로 외친다 — 한 사람같이 일어나리라. 사절이 베냐민으로 가 불량배를 내어 달라 하나, 베냐민은 형제를 지키려다 그 죄를 끌어안고 칼을 든다. 첫째 날, 묻고 올라갔으나 이만 이천이 들에 엎드려진다. 둘째 날, 울며 다시 묻고 올라갔으나 만 팔천이 또 쓰러진다. 셋째 날, 온 백성이 벤엘



에 앉아 저물도록 울며 금식하고, 변제의 불과 화목제의 연기가 오르고, 궤 앞에 비느하스가 선다. 그제야 음성 이 온다 —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매복이 기브아를 에워싸고, 성을 비운 척 유인하고, 연기 신호와 함께 빈 성을 친다. 베냐민이 무너지고, 육백이 림몬 바위로 달아나고, 성읍은 다 불탄다. 화면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승전가가 아니라 연기와 멀리 웅크린 여섯 백 명이다. 그리고 본문은 누가 옳았는지 말해 주지 않는다.

## B ·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미스바의 가득 찬 마당과 기브아 앞의 들판, 잘린 몸·칼·물매·변제·궤·연기라는 소품, 세 겹으로 포개진 문고·올라가고·맞붙고와 세 번 박힌 '한 사람같이'.          |
| 2 첫 느낌·분위기    | 21절에서 무너지는 비장함. 쓰러진 수를 세는 후렴. 셋째 날의 가장 밝은 불이 형제의 성을 사르는 불. 선 칼과 앉은 울음 사이의 금식.                     |
| 3 시작과 끝       | 온 이스라엘의 집결로 열려 한 지파의 성읍 조각으로 단합 — 모임의 동사에서 조각의 동사로. 림몬 바위의 육백이 다음 장으로 이월.                         |
| 4 등장인물·사상     | 형제 보호가 죄와의 연대가 되는 베냐민의 거절. 책임을 줄인 레위인의 증언. 셋째 날에야 등장하는 변제·화목제·궤. 사사 사이클 양식의 부재.                   |
| 5 장면 컷        | 집결·증언(1~11)/요구·거절(12~17)/거듭 묻고 거듭 패함(18~28)/매복·함락(29~48) 4컷. 컷 3 내부는 묻되 패함→울며 묻되 패함→가장 낮아진 뒤의 약속. |
| 6 의문·발견·정보    | 수 8장 매복 전술의 어두운 반복. 삿 1:1과 20:18의 같은 물음(가나안→형제). 묻되 거듭 패하는 침묵. 비느하스(민 25장)의 등장.                   |
| 7 동영상         | 사방에서 모인 회중 → 거듭된 물음과 패배와 저물도록의 울음 → 셋째 날의 매복과 연기와 함락 → 바위에 남은 여섯 백 명.                             |
| 8 초벌 제목·부제    | "한 사람같이 — 묻되 거듭 패한 형제의 전쟁"                                                                        |
| 9 기도·내면       | '한 사람같이'가 형제를 치는 데로 모이는 것 — 어느 편이 옳은지 조르지 않고, 내 안의 그 결을 들고 머문다.                                   |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흩어졌던 지파가 하필 이 일에 하나가 되는 아이러니:** 우상 숭배에도, 19장의 만행 자체에도 어느 지파는 모이지 않았다. 그런데 형제를 치는 이 일에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길르앗에서까지 다 나온다(20:1). "한 사람같이"가 세 번 반복된다(20:1·8·11). 단합 자체는 본문이 청송도 정죄도 하지 않는다. 다만 그 단합이 향하는 대상이 형제라는 사실을 적어 둔다. 모이지 않아야 할 때 흩어지고 모이지 말아야 할 곳에 모이는 — 그 어긋남을 본문은 판정 없이 보여 준다.

2. **결 2 — 묻되 거듭 패하는 신비, 인과를 비운 본문:**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여호와께 묻고 응답을 받고 올라갔다. 그런데 이만 이천이, 다시 만 팔천이 쓰러졌다(20:18-25). 수 8장에서는 아이 성 앞의 패배가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본문이 밝혔으나, 여기서는 두 패배의 이유가 적히지 않는다. 셋째 날 가장 낮아진 뒤에야 승리가 왔지만, 본문은 "낮아져서 이겼다"고 잊지 않는다. 묻는 것과 이기는 것이 같지 않다는 간격을, 본문은 설명 없이 둔다. 명분의 정당함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 그 무거움을 본문은 비참한 채로 적는다.

3. **결 3 — 정복의 전술이 형제에게로, 비참의 정직한 기록:** 매복(orev)으로 성을 비운 척 유인하고 연기 신호로 빈 성을 치는 전술이 수 8장과 거의 같은 어휘로 반복된다(20:29-40). 한 번은 가나안의 아이 성을, 한 번은 동



족의 기브아를 향했다. 같은 손이 같은 전술로 형제를 친다. 그리고 그 끝은 한 지파의 거의 전멸과 육백의 도피다(20:47). 본문은 이 비참을 감추지 않는다. 잘된 보고만 남기지 않고, 두 번의 패배와 형제의 주검과 불타는 성읍을 다 적는다. 비참을 정직하게 기록하는 일 자체가, 이 권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가리킨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샏 19장 — 레위인의 첩과 기브아의 만행 — 20장이 응답하는 직전 사건.
- 수 8:1-29 — 아이 성 매복 전술 — 같은 어휘, 적이 가나안에서 형제로.
- 샏 1:1 —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 같은 물음이 정복에서 내전으로(20:18).
- 민 25:6-13 — 비느하스의 열심과 평화의 언약 — 20:28의 그 제사장.
- 수 22:9-34 — 전쟁 직전의 사절 파송 — 형제 사이 확인 절차의 대비.
- 신 13:12-18 — 성읍의 가증한 일에 대한 처분 규례 — 20:48 소각의 율법 배경.
- 호 9:9; 10:9 — 기브아의 날들 — 후대가 깊은 부패의 표지로 회상.
- 창 49:27 —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 — 지파 예언과의 거리, 배경.
- 샏 21:1-25 — 미스바의 맹세와 베냐민 재건 — 내전의 직접 후속과 권의 종결.
- 샏 21:25 — "왕이 없으므로" — 부록 전체와 액자를 이루는 권의 도착점.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20:1·8의 '한 사람같이'에서 시작한다 — 내가 흩어져 있던 일은 무엇이고, 하필 어디에 하나가 되어 모였는지 본다.
- **멈춤 1:** 20:14에서 멈춘다 — 형제를 지키려다 그 죄를 끌어안는 거절. 보호와 비호가 갈라지지 않는 매듭을 친다.
- **멈춤 2:** 20:21·25에서 멈춘다 — 묻고 응답받았는데도 진 두 번. 옳은 명분과 패배가 한 화면에 같이 있다.
- **끝:** 20:26에서 멈춘다 — 두 번 진 뒤 저물도록 울며 금식하고 앓은 백성. 내가 거듭 패하고도 다시 앉아 올 곳을 본다.

#### F · 자족성 점검

- [x] 집결·증언(1~11)·요구·거절(12~17)·거듭 묻고 거듭 패함(18~28)·매복·함락(29~48)의 네 컷 완결
- [x] 세 번의 '한 사람같이'와 세 겹의 신탁 문의, 하강 사다리(문되 패함→울며 문되 패함→낮아진 뒤의 약속)
- [x] 레위인 증언과 19:25의 간격, 베냐민 거절의 미해결
- [x] 수 8장 매복 전술의 어두운 반복과 샏 1:1·20:18의 물음 평행
- [x] 두 패배의 비워 둔 인과와 어느 편도 판정하지 않는 보존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미완과 진단(1~2장),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부록(17~21장)으로 움직이는데, 20장은 부록의 내전 — 적이 더는 가나안이 아니라 형제인 국면이다. 1장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1:1)였다면, 20장은 같은 신탁 문의의 대상이 "베냐민 자손"(20:18)으로 바뀌어 있다. 권의 머리에서 꼬리까지, 싸울 상대가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 왔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부르짖음마다 구원자

를 일으키시던 사이클이 끝난 뒤 부록은 구원자 없이 사람의 손에 맡겨진 정의가 어디까지 어두워지는지를 보여 준다. 거듭 묻고 거듭 패하는 전쟁, 의로운 명분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무게, 형제의 거의 전멸 — 이 비참이 권의 heart, 곧 백성의 곤고를 차마 보지 못하시는 공홀이 향하는 자국이다. 마음까지 다스릴 참왕이 없으므로, '한 사람같이'의 단합조차 형제의 피로 단한다. 20장은 그 부재가 동족의 피로 증언되는 국면이며, 21:25의 도착점을 향해 가는 마지막 어둠의 구간이다.

##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집결(20:1 미스바)에서 소각(20:48 불타는 성읍)으로 / 가나안의 물음(1:1)에서 형제의 물음(20:18)으로 / 묻되 거듭 패하다가(20:21-25) 가장 낮아진 뒤의 승리로(20:26-28) — 비참을 정직하게 적는 일이 참왕의 필요를 가리키고 다음 장의 한탄을 준비하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20장은 왕 없는 시대의 무질서가 동족의 피로 터지는 국면을 측량하고, 그 비참을 권의 끝자락에 걸어 두는 운동이다. 미스바의 집결(1-11절)이 베나민의 거절(12-17절)로, 거절이 세 번의 전투(18-48절)로 번지며 화면이 가득 참에서 텅 빈으로, 모임에서 소각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20장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 21장이 곧바로 열려, 거의 사라진 베나민을 두고 백성이 다시 울고 또 다른 비참을 더한다. 20장의 벡터는 부록 전체를 '내부의 만행에서 동족상잔으로, 동족상잔에서 한 지파의 끊어짐을 메우려는 또 한 번의 비참으로, 그 끝의 왕이 없으므로(21:25)라는 고백으로' 끌고 가는 마지막 하강의 구간이며, 그 하강 전체가 마음까지 다스릴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는 쪽으로 움직인다.

##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부족 동맹의 군사 기록이다 — 누가 몇 명, 어디서 진을 치고, 어떻게 매복했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정직한 비참의 보존이다. 본문은 이긴 보고만 남기지 않는다. 두 번의 패배와 쌓인 주검, 형제의 거의 전멸, 불타는 성읍을 다 적는다. 어느 편이 의로웠는지를 메우지 않고, 동족상잔의 무게 자체를 비워 둔 채 기록한다. 이 정직이 곧 사람의 손에 맡겨진 정의의 한계를 증언한다. 둘째, 단합의 어긋남이다. 흩어졌던 지파가 하필 형제를 치는 데 "한 사람같이" 모인다(20:1·8·11). 하나 됨 자체는 선해 보이는데, 그 향함이 형제다. 모일 일에 흩어지고 흩어질 일에 모이는 — 마음을 다스릴 중심이 없을 때 단합조차 비극이 된다. 셋째, 묻되 패하는 신비다. 거듭 신탁을 묻고 응답을 받았으나 거듭 졌다(20:18-25). 본문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묻는 것과 이기게 하시는 것이 같지 않다는 간격을, 어느 해석으로도 닫지 않고 둔다. 명분의 옳음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 그 무거움이, 마음까지 다스릴 왕의 부재를 가장 어렵게 가리킨다. 본문은 거기까지만 보여 주고 멈춘다.

##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무엇에는 흩어지고 무엇에는 '한 사람같이' 모이는가 — 모일 일에 침묵하고 형제를 치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내 옳은 명분은 정말 그 무게를 감당할 만큼 정직한가, 아니면 책임을 줄인 증언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어느 편을 들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흩어졌던 지파가 형제를 치는 데 모이는 마당을 보여 주고, 자기 책임을 줄인 채 상대의 죄만 세운 증언을 보여 주고, 거듭 묻되 거듭 패하는 전쟁을 보여 주고, 두 번 진 뒤 저물도록 울며 앉은 백성을 보여 준다. 두 패배의 이유를 비워 둔 이 권의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 단합이 향하는 곳을 살펴보는 일, 내 명분의 증언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정직히 보는 일, 그리고 거듭 패하고도 다시 그 앞에 앉아 우는 동작을 잃지 않는

일. 명분조차 형제의 피로 달히는 이 비참을 끝으로 삼지 않으시는 분, 곤고를 차마 보지 못하시는 긍휼이 향하는 그 끝에서, 마음까지 다스릴 참왕이 호명된다 — 그 부재의 가장 어두운 자국에 자기 이름을 비취 보는 것, 그 간격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성읍은 불탔고 육백 명만 립문 바위에 남았다 — 백성이 미스바의 맹세를 들고 다시 울며, 끊어진 한 지파를 메우려고 또 한 번의 비참을 더하고, 권은 "왕이 없으므로"(21:25)로 닫힌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keish echad* — 한 사람같이.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2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 Q1. 20:1·8·11 — 흠어졌던 지파가 왜 하필 이 일에 "한 사람같이" 모이는가?

- 우상 숭배와 19장의 만행 자체에는 어느 지파도 모이지 않았는데, 형제를 치는 이 일에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강 건너에서까지 다 나온다. 단합이 향하는 대상의 아이러니를 어느 편의 옳고 그름으로도 닫지 않고, 모임의 사실과 그 향함만 보존.

#### Q2. 20:18·23 — 묻고 응답받았는데 왜 거듭 패하는가?

- 첫째 날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18절), 둘째 날 "올라가서 치라"(23절) 응답을 받고 올라갔으나 이만 이천과 만 팔천을 잃는다. 본문은 패배의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 죄도, 시험도, 정련도 적지 않는다. 묻되 거듭 패하는 신비를 어느 해석으로도 메우지 않고 보존.

#### Q3. 20:14 — 베냐민의 거절은 형제 보호인가 죄와의 연대인가?

- 회중의 요구(13절, 악을 제하라)는 정당한 절차에 닿는데, 베냐민은 그 불량배를 내어 주는 대신 형제와 싸우기를 택한다. 핏줄을 지키려는 마음과 그 핏줄의 악을 끌어안는 일이 한 동작에서 갈라지지 않는다. 본문은 거절을 평하지 않는다. 보호와 비호의 매듭을 미해결로 둔다.

#### Q4. 20:26-28 — 셋째 날의 금식·번제·화목제·궤는 승리의 조건이었는가?

- 두 번 진 뒤 가장 낮아진 셋째 날에 예배의 소품이 더해지고 승리의 약속이 온다. 그렇다면 첫 두 패배가 이 낮아짐의 부재 때문이었다고 읽고 싶어지나, 본문은 그 인과를 명시하지 않는다. 예배와 승리를 같은 날에 두되 "그래서"로 잇지 않은 빈 곳을 비워 둔 채 보존.

#### Q5. 20:4-7 ↔ 19:25 — 레위인의 증언에서 빠진 것을 본문은 왜 바로잡지 않는가?

-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의 죄를 또렷이 세우되, 첩을 무리에게 내어 준 자기 행위(19:25)는 진술에서 뺀다. 본문은 그 진술을 거짓이라 적지도, 바로잡지도 않고 말한 대로 적어 둔다. 증언의 결함과 본문의 침묵을 함께 짚 채 보존.

#### Q6. 20:29-37 ↔ 수 8장 — 가나안을 향하던 매복 전술이 형제에게 쓰일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 성을 비운 척 유인하고 연기 신호로 빈 성을 치는 전술이 거의 같은 어휘로 반복되는데, 한 번은 정복(아이성)이고 한 번은 동족(기브아)이다. 전술의 동일함과 대상의 뒤바뀜이 무엇을 드러내는지는 단정하지 않고, 두 본문을 나란히 두고 권을 더 읽으며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사사기 21장

JDG-021 · 역사서 · 히브리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21:1)는 전쟁 중의 맹세가 전후의 난제가 되고,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오늘날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21:3) 자기들이 멸한 형제를 두고 통곡하며 —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 사백 명(21:8-14)과 실로의 춤추는 딸들(21:19-23)이라는 두 미봉책으로 서원의 문자는 지키되 정신은 무너진 채,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는 한 줄로 권 전체가 닫히는 사사기의 종결.

## 관찰된 사실

### 사사기 2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의 이동: 미스바(이미 지나간, 1절의 회상) → 벤엘의 통곡 성소(2-4절) → 야베스 길르앗의 진멸(8-11절) → 실로의 절기 포도원(19-21절). 우는 곳에서 춤추는 곳으로,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진멸.
- 소품: 입에서 나온 맹세(shevuah, 1절 — 형태 없으나 가장 무거움), 제단과 번제·화목제(4절), 야베스를 치는 칼(10절), 처녀 사백 명(12절), 실로의 포도원과 춤(21절), 모자란 이백이라는 빈 수(16·23절).
- 소품의 어긋남: 거룩한 제물(4절)과 약탈된 처녀(21절)가 같은 장에 공존 — 짝이 맞지 않는 소품.
- 소재의 기울기: 앞쪽은 무너지는 어휘(맹세에 간함·형제 없어짐·통곡), 가운데는 매우는 어휘(처녀를 데려옴·또 데려옴), 마지막 한 단어가 다른 무게로 떨어짐("왕이 없으므로").
- 형식 소재: 1절의 회상 완료형("맹세하였더라")으로 이미 묶인 매듭에서 시작. 문제·해법의 두 번 반복(7→8-14절 / 16→19-23절). 25절은 어느 해법에도 속하지 않는 별도의 표제 문장.
- 주저앉음(2절): "하나님 앞에서 저녁까지 거기 앉아서" 읊 — 1장의 일어난 출정("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과 대비되는 마지막 장의 통곡.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방향이 어긋난 슬픔: 자기들이 멸한 형제를 두고 "어찌하여"를 하나님께 물음(3절) — 슬픔은 진짜이나 책임을 비껴감.
- "왕이 없으므로"의 후렴이 마지막에 가장 무겁게 떨어짐(25절) — 영웅의 개선이 아니라 진단 한 줄로 닫히는 권.
- 어두운 화면과 담담한 내레이션의 간극: 통곡·진멸·약탈혼을 행정 보고처럼 절차만 적음.
- 하나님의 음성 부재: 20장에서는 백성이 묻고 답하셨으나(20:18·23·28), 21장에서는 울며 물어도(3절) 응답이 적히지 않음 — 스스로 해법을 지음(7·16절).
- 두 소리: 벤엘의 울음(2절)과 실로의 춤(21절) — 우는 소리로 열려 춤 한가운데의 약탈로 닫힘. 통곡도 춤도 어긋난 질감.

- 안으로 들어온 기준: "자기 눈에 바른 것(hayyashar be'enav)" — 신 12:8이 금한 표현이 정반대로 실현됨. 배경.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 25절: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 입으로 묶은 맹세로 열려 권 전체의 진단으로 닫힘 — 한 사건에서 책의 표제로.
- 어미의 이동: 단호한 금지("주지 아니하리라")에서 멀리서 보는 회고("행하였더라")로 — 시점이 안에서 밖으로 물러남.
- 권의 액자: 샷 1:1("여호와께 여쭙어" — 묻는 백성) ↔ 21:25("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 각자의 눈). 물음이 사라진 곳이 권의 도착점.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이스라엘 회중(집단 주인공 — 묻고·울고·해법을 지음), 백성의 어른들(16절 — "어찌하면 좋을까"), 베냐민의 남은 자 육백 명(7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진멸·처녀 사백, 8-12절), 실로의 딸들(춤추다 붙들림, 21절), 그리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 중심 사상: 맹세와 그 부작용 — 전쟁 중 격분의 맹세(1절)가 전후에 형제의 존속을 막는 매듭이 됨. 입다의 서원(11장)과 잇닿는 '경솔한 맹세'의 결.
- 두 맹세의 회로: 맹세 1(딸을 주지 않음, 1절)과 맹세 2(불참자 진멸, 5절). 야베스가 맹세 2에 걸려 진멸되고, 그 처녀로 맹세 1의 구멍을 메움 — 한 비극의 제재로 다른 비극의 부족분을 채움.
- 3절의 어긋난 물음: "어찌하여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 그 지파를 친 칼은 그들의 칼(20장). 본문은 책망도 정당화도 없이 기록만 함(1장 아도니 베섹 무평가와 같은 결).
- 사물로서의 숫자: 베냐민 육백(7절) – 야베스 처녀 사백(12절) = 이백 부족(16절) → 두 번째 미봉책을 부름. 숫자 하나가 또 다른 폭력을 끌어옴.
- 22절의 변명: "우리가 준 게 아니라 그들이 빼앗은 것" — 서원의 문자(주지 않음)는 지키되 정신은 무너뜨리는 논리. nacham(뉘우침, 6절)이 또 다른 폭력으로 흘러감.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맹세와 통곡 — 미스바의 맹세 회상(1), 벤엘의 통곡과 "어찌하여"(2-3), 제단과 제사(4), 두 번째 맹세 환기(5), 형제를 위한 뉘우침과 곤경(6-7).
- 컷 2 (8~14절): 첫 번째 미봉책 — 불참자 점검(8-9), 야베스로 보낸 만 이천 명(10), 진멸 지침(11), 처녀 사백을 실로로(12), 화친과 인계(13-14), "오히려 부족하였더라."
- 컷 3 (15~23절): 두 번째 미봉책 — 거둬진 뉘우침과 곤경(15-16), 기업 보존(17), 직접 줄 수 없음(18), 실로 절기 안내(19), 춤추는 딸들을 붙들라(20-21), 향의 시의 변명(22), 베냐민이 그대로 행함(23).
- 컷 4 (24~25절): 닫는 한 줄 — 각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감(24), 권 전체의 후렴 완성(25).
- 컷 2와 컷 3의 동형 반복: 곤경 → 모색 → 여성 확보 → 인계. 두 번째에서 형태가 전쟁의 부산물에서 절기의 직접 약탈로 옮겨 옴. 25절은 모든 컷 위에 뜬 권의 표제.



##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shevuah*(שְׁבוּעָה) / *nishba*(נִשְׁבָּע) — 맹세·서약(1·5·7·18절). 입에 낸 후 무를 수 없는 매듭.
- *natan*(נָתַן) — 주다(1절 "주지 아니하리라"). 22절에서 "우리가 준 게 아니다"로 비틀어 우회됨.
- *Bet-El*(בֵּית־אֵל) — 벰엘, '하나님의 집'(2절). 통곡의 성소이자 제단의 자리.
- *nacham*(נָחַם) — 누우치다·마음을 돌이키다(6·15절). 형제를 친 뒤의 돌이킴이 또 다른 폭력으로 흘러감.
- *Yavesh-Gilad*(יָבֵשׁ גִּלְעָד) — 야베스 길르앗(8절). 소집 불참으로 진멸, 처녀 사백만 남음.
- *betulah*(בְּתוּלָה) — 처녀(12절). / *Shiloh*(שִׁילוֹ) — 실로(12·19절), 당시 성소의 위치.
- *chag YHWH*(חַג־יְהוָה) — 여호와와 절기(19절). 약탈이 일어나는 거룩한 절기의 시점.
- *mecholot*(מְחוֹלוֹת) — 윤무·춤(21절). 절기에 처녀들이 포도원에서 추는 관습.
- *chataf*(חָטַף) — 붙들다·납아채다(21절). '주다'를 부정한 맹세를 '빼앗게 함'으로 우회하는 가르마.
- *en melek*(אֵין מֶלֶךְ) — 왕이 없으므로(25절). 권의 후렴(17:6·18:1·19:1)이 완성되는 첫머리.
- *ish hayyashar be'enav*(אִישׁ הַיָּשָׁר בְּעֵינָיו) — 사람마다 자기 눈에 바른 것(25절). 신 12:8이 금한 표현의 정반대 실현.

##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회상의 맹세(1) + 통곡과 곤경(2-7) + 첫 미봉책(8-14) + 둘째 미봉책(15-23) + 닫는 한 줄(24-25) — 무너짐에서 미봉으로, 미봉에서 진단으로 가라앉는 종결 구조.
- 후렴의 완성: 17:6(온전) · 18:1(짧음) · 19:1(짧음) · 21:25(온전) — 17:6과 21:25가 부록(17~21장)을 감싸는 작은 액자.
- 큰 액자: 1:1("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 여호와께 여쭙어")과 21:25("왕이 없으므로 ...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권 전체를 감쌌.
- 입다 서원(11:30-40)과의 평행: 전쟁 전/중 경솔히 입에 낸 서약이 가장 가까운 관계(딸/형제 지파)를 옳아 맴 — 권의 처음과 끝에 놓인 같은 결.
- 문제·해법의 동형 반복: 곤경(7·16) → 여성 확보(12·21) → 인제 — 전쟁의 부산물에서 절기의 직접 약탈로 형태가 이동.
- 다음 책으로의 다리: 25절의 *yashar*(바른)가 룻기(룻 1:1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의 헤세드와 위치상 맞물림 — 어둠으로 닫힌 책 다음의 빛.

##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서원·맹세의 구속력 — 입 밖에 낸 서약을 무를 수 없는 것으로 보는 통념(민 30장의 서원 규정과 닿음). 1·5·7절의 배경.
- 소집 불참 진멸(헤렘) 제재 — 부족 연합 동원령의 강제력. 야베스 길르앗이 거기 걸림(5·8-11절).
- 절기의 처녀 윤무(*mecholot*) — 추수·절기 때 포도원·타작마당에서 미혼 여성이 춤추는 관습. 21절의 배경.
- 신부 약탈혼(*bride capture*) — 정상적 혼인 협상을 우회해 여성을 취하는 고대의 한 형태. 21-23절의 배경.
- 지파 멸절의 위기와 존속 — 한 지파의 소멸이 부족 연합 전체의 정체성에 닿는 문제로 인식됨. 3·17절의 배경.
- LXX: 22절의 까다로운 변명 구문을 매끄럽게 다듬어 옮김, 19절 절기 위치의 지명 형태 차이, 야베스 음역의 철자 차이 — 본문비평·번역 배경.

##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샷 21:25 ↔ 샷 17:6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 부록을 감싸는 작은 액자)
- 샷 21:25 ↔ 샷 18:1 · 19:1 (후렴의 짧은 형태 — 점층의 중간 지점)
- 샷 21:25 ↔ 샷 1:1 (각자의 눈 / 묻는 백성 — 권 전체의 큰 액자)
- 샷 21:1 ↔ 샷 11:30-40 (미스바의 맹세 / 입다의 서원 — '경솔한 맹세'의 평행)
- 샷 21장 ↔ 샷 20장 (베냐민 내전 — 이 장의 직접 전사, 육백 명 생존)
- 샷 21:1 ↔ 민 30:2 (서원의 구속력 —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 샷 21:25 ↔ 신 12:8 (자기 눈에 바른 것 — 율법이 금한 표현의 정반대 실현)
- 샷 21:8-14 ↔ 삼상 11장 (야베스 길르앗 — 사울이 그 성읍을 구원함, 베냐민과의 인연이 닿는 후속)
- 샷 21:25 ↔ 삼상 8:5-7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 빈 왕좌가 향하는 갈망)
- 샷 21:25 ↔ 룻 1:1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 같은 시대, 헤세드의 빛으로 열리는 다음 책)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벤엘, 저물 무렵. 회중이 제단 앞 땅바닥에 주저앉아 운다. 한 목소리 — 어찌하여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막 — 그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였더라,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회의로 전환. 어른들이 손가락을 꼽는다 — 살아남은 형제 육백, 줄 딸은 없다. 누군가 묻는다 — 미스바에 불참한 자가 누구냐. 야베스 길르앗. 칼을 든 만 이천이 떠나고, 한 성읍이 불타고, 처녀 사백만 세워진다. 실로로 끌려오고, 림몬 바위의 육백이 내려오고, 화친이 맺어지고, 사백이 건네진다. 자막 — 오히려 부족하였더라. 다시 회의 — 실로에 절기가 있다.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추는 딸들을 각기 하나씩 붙들어 가라. 향의가 오면 — 우리가 준 게 아니다. 전환. 실로의 포도원, 절기의 음악, 딸들의 운무. 그 춤 한가운데로 그늘에서 사람들이 뛰어든다. 음악이 멎는다. 마지막 컷, 각자 흩어진다 — 자기 기업으로, 자기 가족에게로. 카메라가 멀리 물러나며 텅 빈 들판을 비춘다. 화면에 남는 한 문장 —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암전. 더 이상 자막이 없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왕이 없으므로 — 두 미봉책과 닫는 한 줄"
- 초벌 부제: "전쟁 중의 맹세('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21:1)가 전후의 난제가 되고, 자기들이 멸한 형제를 두고 '어찌하여'를 묻는 통곡(21:3) 위에서, 야베스 길르앗(21:8-14)과 실로의 춤추는 딸들(21:19-23)이라는 두 미봉책으로 서원의 문자는 지키되 정신은 무너진 채 —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21:25)라는 한 줄로 사사기 전권을 닫는 어두운 종결"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2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후렴의 점층·완성 구조 + 입다 서원과의 평행 + 부록·전권의 이중 액자 + 서원·진멸·약탈혼 ANE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전체 회고)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21:3의 어긋난 통곡("어찌하여 한 지파가")을 위선의 증거나 회개의 모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슬픔의 진정성과 책임의 비껴감을 함께 낀 발화 사실로만 보존. 1장 아도니 베섹 무평가와 같은 결.
- 두 미봉책(야베스 진멸·실로 약탈)을 정죄의 설교로 닫지 않고, '한 비극을 다른 비극으로 메운다'는 구조 관찰과 22절 변명의 어휘(문자/정신의 분리)로만 기록.
- 입다 서원과의 평행을 '경솔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같은 어휘권(shevuah)이 권의 처음과 끝에 놓인 형태 관찰로만 둬.
- 21:25의 "왕이 없으므로"를 군주제 옹호나 특정 신학 명제의 증명으로 끌고 가지 않고, 후렴의 완성과 1:1과의 액자라는 구조 사실, 그리고 다음 책으로 미는 빈 곳으로만 보존.
- 어두운 결말을 미화도 정죄도 하지 않음 — 본문이 미화하지 않고 정직하게 적는 그 문체 자체를 관찰 대상으로 두고, 정조의 평가는 비워 둬.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사사기 21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21:1)는 전쟁 중의 맹세로 열려,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오늘날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21:3) 자기들이 멸한 형제를 두고 통곡하며 — 소집에 불참한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처녀 사백 명을 베냐민에게 주고(21:8-14), 부족한 이백은 실로의 절기에 춤추는 딸들을 붙들게 함으로써(21:19-23) 서원의 문자는 지키되 정신은 무너뜨린 두 미봉책을 지나,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는 한 줄로 권 전체를 닫는 어두운 종결이다.

**한 문단:** 베엘, 저물 무렵. 회중이 제단 앞에 주저앉아 운다 — 어찌하여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 한 지파를 친 칼은 그들의 칼이었다. 자막처럼 깔리는 옛 맹세 — 미스바에서,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른들이 손가락을 꼽는다. 살아남은 형제 육백, 줄 딸은 없다. 그래서 불참한 야베스 길르앗을 친다 — 한 성읍이 불타고, 처녀 사백 명만 남는다. 그래도 이백이 모자란다. 그래서 실로의 절기를 노린다 — 포도원에 숨었다가, 춤추는 딸들을 각기 하나씩 붙들어 가라. 향의가 오거든 돌려대라, 우리가 준 게 아니라고. 거룩한 절기의 음악 위로 약탈이 겹치고, 음악이 멎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진다 — 각기 자기 기업으로. 카메라가 멀리 물러나며 텅 빈 들판을 비춘다. 화면에 남는 한 문장 —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영웅의 개선이 아니라 이 어두운 한 줄로 닫힌다. 그리고 아무도 그 빈 왕좌에 앉지 않는다.

#### B·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통곡의 베엘에서 춤추는 실로로 옮겨 가는 무대, 그 사이의 야베스 진멸, 입에서 나온 맹세라는 무거운 소품 — 무너짐에서 미봉으로 기우는 소재. |

| 단계         | 핵심 발견                                                                               |
|------------|-------------------------------------------------------------------------------------|
| 2 첫 느낌·분위기 | 방향이 어긋난 슬픔. 마지막에 가장 무겁게 떨어지는 후렴. 어두운 화면과 담담한 내레이션의 간극. 하늘의 침묵 속에 스스로 짓는 해법.         |
| 3 시작과 끝    | 입으로 묶은 맹세로 열려 권의 진단으로 닫힘. 1:1(묻는 백성)과 21:25(각자의 눈)의 큰 액자 — 물음이 사라진 도착점.             |
| 4 등장인물·사상  |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맹세와 그 부작용 — 입다 서원(11장)과 잇닿는 경솔한 맹세. 책임을 비껴가는 통곡.                  |
| 5 장면 컷     | 맹세와 통곡(1~7)/야베스(8~14)/실로(15~23)/닫는 한 줄(24~25) 4컷. 컷 2·3의 동형 반복 — 전쟁의 부산물에서 절기의 약탈로. |
| 6 의문·발견·정보 | 후렴의 점층·완성(17:6·18:1·19:1·21:25). 입다 서원과과의 평행. 22절의 문자/정신 분리. 신 12:8과의 정반대 실현.       |
| 7 동영상      | 주저앉은 통곡 → 야베스의 불 → 실로의 춤과 약탈 → 각자 흩어짐 → 텅 빈 들판 위의 한 문장.                             |
| 8 초별 제목·부제 | "왕이 없으므로 — 두 미봉책과 닫는 한 줄"                                                           |
| 9 기도·내면    | 진짜 아픔이면서 책임은 비껴가는 물음 — 어긋남을 조르지 않고 들고 머문다.                                          |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경솔한 맹세의 연쇄, 입다에서 미스바까지:** 이 권의 거의 처음(11장)에서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입에 낸 서원에 자기 딸을 묶었다. 권의 맨 끝(21장)에서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입에 낸 맹세에 형제 한 지파의 존속을 묶었다. 두 자리 모두 격분이나 다급함 속의 한마디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옳아맨다. 그리고 두 자리 모두 그 매듭을 푸는 길이 또 다른 폭력으로 향한다 — 입다의 딸, 야베스의 처녀, 실로의 딸들. 본문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어휘권(shevuah)을 권의 머리와 꼬리에 두고, 한마디 말의 무게가 어디까지 번지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2. **결 2 — 멸한 형제를 두고 우는 모순, 그리고 본문의 침묵:** 21장 3절에서 백성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라고 운다. 그 지파를 친 칼은 그들 자신의 것이었다. 자기가 행한 일의 결과를 하늘에 '왜'라고 묻는 이 어긋난 슬픔을, 본문은 책망하지도 미화하지도 않는다. 1장에서 적장의 인과 고백을 평가 없이 두었던 그 손길이, 권의 마지막 장에서도 같다. 처음과 끝이 같은 방식으로 침묵하며 독자를 관찰자로 세운다 — 슬픔의 진정성과 책임의 비껴감을 함께 진 채로.

3. **결 3 — 후렴의 완성, "왕이 없으므로"가 도달하는 곳:**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부록에 네 번(17:6·18:1·19:1·21:25) 울리는데, 마지막에서야 가장 무겁게, 완성된 형태로 떨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권의 마지막 문장이다. 신명기 12장 8절이 "각기 소견대로 행하지 말라"고 금했던 그 상태가, 권의 끝에 정반대로 실현된 모습으로 온다. 사사기는 승리로 닫히지 않는다 — 진단으로, 그것도 빈 왕좌를 가리키는 진단으로 닫힌다. 닫힘이 아니라 비움이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샛 17:6 — "왕이 없으므로 ...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 부록을 감싸는 작은 액자의 여는 쪽.
- 샛 1:1 — "여호와께 여쭙어" — 권 전체 큰 액자의 여는 쪽, 묻는 백성.
- 샛 11:30-40 — 입다의 서원과 그 딸 — 경솔한 맹세의 평행.
- 샛 20장 — 베냐민 내전 — 이 장의 직접 전사, 육백 명 생존.

- 민 30:2 — 서원의 구속력 —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 신 12:8 — "각기 소견대로 행하지 말라" — 21:25에서 정반대로 실현된 표현.
- 삼상 11장 — 사울이 야베스 길르앗을 구원함 — 야베스와 베냐민의 인연이 닿는 후속.
- 삼상 8:5-7 —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 — 빈 왕좌가 향하는 갈망의 도착.
- 룻 1:1 —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 같은 시대, 헤세드의 빛으로 열리는 다음 책.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21:1의 맹세에서 시작한다 — 내가 격분이나 다급함 속에 입에 낸 단호한 한마디가 지금 누구의 길을 막고 있는지 듣는다.
- **멈춤 1:** 21:3에서 멈춘다 — 진짜 아픔이면서 자기 손을 비껴가는 물음. 그 어긋남을 정죄 없이 들여다본다.
- **멈춤 2:** 21:22에서 멈춘다 — "우리가 준 게 아니다." 문자를 지키며 정신을 비켜 가는 변명이 내 안에도 있는지 본다.
- **끝:** 21:25에서 멈춘다 — 왕이 없으므로. 내 안의 빈 왕좌는 무엇이며, 어떤 어두운 한 줄 다음에 어떤 빛을 기다리고 있는지 듣고 머문다.

#### F · 자족성 점검

- [x] 맹세와 통곡(1~7)·야베스(8~14)·실로(15~23)·달는 한 줄(24~25)의 네 컷 완결
- [x] 두 미봉책의 동형 반복과 22절 변명의 문자/정신 분리
- [x] 21:3의 어긋난 통곡과 본문의 무평가
- [x] 입다 서원(11장)과의 평행 및 후렴(17:6·21:25)의 액자
- [x] 21:25가 1:1과 마주 보는 권 전체의 큰 액자, 다음 책으로 미는 빈 곳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사사기의 spine은 '부르짖음마다 구원자를 일으키시되, 그 한계의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바로 이 장의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정복의 미완과 진단(1~2장), 웃니엘에서 삼손에 이르는 사사 사이클의 하강 나선(3~16장), 그리고 부록(17~21장)으로 움직여 왔는데, 21장은 그 하강이 바닥에 닿은 도착점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1장이 여호수아 이후의 빈 지휘소를 측량한 진단서였다면, 21장은 그 진단의 마지막 페이지 — 빈 왕좌를 가리키는 표제다. 여기서 본문은 영웅을 세워 책을 닫지 않는다. 삼손도 입다도 기드온도 끝내 답이 되지 못한 채, 권은 한 줄의 진단으로 멈춘다. 그리고 권의 heart — 백성의 곤고를 차마 보지 못하지는 공홀(삿 10:16의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 은 21장에서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어둠을 끝으로 삼지 않으시는 손길이 한 가지 방식으로 남는다 — 한 지파가 끝내 보존된다는 사실, 그리고 책이 닫히지 않고 비워진 채로 끝난다는 사실. 그 빈 곳이 룻기의 헤세드와 사무엘의 왕을 향해, 다윗과 그 자손에게 약속된 영원한 보좌(삼하 7장)를 향해, 끝내 참왕(눅 1:32-33)을 향해 열려 있는 긴 호의 한 매듭이다.

####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맹세(21:1)에서 진단(21:25)으로 / 통곡(21:2)에서 흠어짐(21:24)으로 / 영웅의 시대(3~16장)에서 빈 왕좌(21:25)로 — 정직하게 기록된 어둠이 해답이 아니라 갈망으로 책을 닫고, 그 빈 곳이 참왕을 향한 다음 책의 문을 여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21장은 사사기 전권의 하강 나선이 도달한 바닥을 한 문장으로 봉인하고, 그 봉인 위에 빈 곳 하나를 남겨 두는 운동이다. 미스바의 맹세(1절)가 통곡의 곤경(2-7절)으로, 곤경이 두 미봉책(8-23절)으로, 미봉책이 흠어짐과 진단(24-25절)으로 흐르며 화면이 성소에서 포도원으로, 통곡에서 약탈로, 함께 모인 회중에서 각자의 눈으로 좁아진다. 그런데 권은 닫히는 게 아니라 비워진 채로 끝난다 — 누구도 그 빈 왕좌에 앉지 않는다. 1장이 빈 지휘소 아래의 물음으로 열렸듯, 21장은 빈 왕좌 위의 진단으로 닫히며, 두 빈 곳이 권의 처음과 끝에서 마주 본다. 그 사이를 채울 분은 이 책 안에 없고, 운동의 화살표는 책 밖을 가리킨다 — 같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방 여인의 헤세드가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룻기로, 그리고 백성이 "왕을 세워 달라" 부르짖는 사무엘로.

####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점점 어두워지는 실패와 미봉의 기록이다 — 어긋난 통곡, 한 성읍의 진멸, 절기의 약탈, 둘러대는 변명.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두 가지가 끝까지 움직인다. 첫째, 정직이다. 본문은 이 어둠을 미화하지 않는다. 거룩한 제단(4절)과 약탈된 처녀(21절)를 같은 장에 나란히 두고, 그 어느 것도 끔찍하다고 외치거나 정당하다고 변호하지 않는다. 그저 절차를 담담히 적는다. 권 전체가 잘된 일만 골라 남기지 않고, 못함과 무너짐과 미봉을 다 측량해 둔다 — 1장에서 보았던 그 결, 상처 부위를 정확히 짚는 손이 마지막 페이지까지 같다. 이 정직한 어둠의 기록 자체가, 사람의 구원자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곳을 또렷이 드러낸다. 둘째, 보존이다. 멸절될 뻔한 한 지파가 끝내 살아남는다. 그 살아남는 방식이 미봉책이라는 사실까지 본문은 숨기지 않지만, 베냐민은 사라지지 않는다 — 그리고 그 지파에서 훗날 첫 왕 사울이, 더 멀리 사도 바울이 난다. 어둠이 끝이 아니라는 표지가, 진단의 한 줄 바로 곁에 조용히 남아 있다. 본문은 거기까지만 보여 주고 멈춘다.

####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어떤 빈 왕좌 앞에서 있는가 —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흠어진 곳에서, 내 어두운 한 줄 다음에 올 빛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 측량은 정직한가 — 잘된 일만 적고 무너진 곳은 미봉으로 덮어 둔 것은 아닌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교훈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 손을 비껴간 통곡을 보여 주고, 문자를 지키며 정신을 비켜 가는 변명을 보여 주고, 영웅 없이 빈 왕좌만 남기고 닫히는 책 한 권을 보여 준다. 어둠을 미화하지 않고 정직하게 적는 이 권의 문체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자기 어긋남을 정죄로 덮지 않고 그대로 들여다보는 일, 미봉으로 가린 무너짐을 다시 측량해 보는 일, 그리고 그 모든 어두운 한 줄 다음에도 아직 비어 있는 왕좌를 향해 갈망을 깨워 두는 일. 사사기는 해답이 아니라 갈망으로 끝난다 — 그 빈 곳에 자기 갈망을 포개어 보는 것, 다음 책의 빛을 기다리는 그 비어 있음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권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사사기는 빈 왕좌 위의 진단으로 닫혔다 — 같은 사사 시대의 흥년에, 한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며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 1:16)라고 말하는 곳에서, 헤세드가 어둠을 뚫고 다윗의 계보를 향해 빛을 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en melekh* — 왕이 없으므로.



## 미해결 질문

### 사사기 2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 Q1. 21:3 — 자기들이 멸한 형제를 두고 "어찌하여"를 묻는 슬픔은 무엇인가?

- 그 한 지파를 친 칼은 그들 자신의 칼(20장)이었다. 통곡은 진짜이나 그 슬픔이 자기 손을 비껴간다. 본문은 이 물음을 책망도 정당화도 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다. 진정성과 비껴감을 함께 전 채, 본문의 침묵을 침묵대로 보존.

#### Q2. 21:1의 맹세 — 입에 낸 한마디가 어떻게 전후의 난제가 되는가?

- 전쟁의 격분 속에 "딸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묵은 맹세가, 전쟁이 끝나자 형제의 존속을 막는 매듭이 된다. 입다의 서원(11장)에서도 입에 낸 서약이 자기 딸을 묶었다. 경솔한 맹세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옴아매는 결을 단정 없이 보존.

#### Q3. 두 미봉책(21:8-14·19-23) — 한 비극으로 다른 비극을 메우는 회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야베스의 진멸(맹세 2의 제재)이 맹세 1의 부족분을 채우고, 모자란 이백은 실로의 약탈로 메워진다. 비극이 비극을 부르는 절차가 담담하게 적혀 있다. 정죄로 닫지 않고 구조 사실로만 기록. 보존.

#### Q4. 21:22의 변명 — "우리가 준 게 아니다"는 맹세를 지킨 것인가 무너뜨린 것인가?

- 아무도 '주지' 않았으니 맹세의 문자는 지켜졌다. 그러나 결과는 약탈혼이다. 문자를 지키려는 정성이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 장면을 본문은 옳다고도 그르다고도 하지 않는다. 그 침묵을 비워 둔 채 보존.

#### Q5. 21:25의 "왕이 없으므로" — 이것은 어두운 진단인가, 빈 곳의 갈망인가?

- 한쪽으로는 '그래서 무너졌다'는 진단이고, 다른 쪽으로는 '왕이 있었다면'이라는 빈 곳의 표시다. 17:6과 21:25가 부록을 감싸고, 그 큰 형태는 1:1과 마주 본다. 영웅이 아니라 갈망으로 닫히는 이 한 줄을 어느 쪽으로도 닫지 않고 보존.

#### Q6. 사사기 전권 — 문던 백성(1:1)과 각자의 눈(21:25)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 권의 첫 동작은 여호와께 묻는 것이고, 마지막 문장은 각자의 소견이다. 그 사이에 사사 사이클의 하강과 부록의 붕괴가 있었다. 물음의 형식이 보존되는 동안 무엇이 비워졌는지, 그리고 그 빈 곳이 롯기·사무엘의 참왕을 향한 갈망으로 어떻게 열리는지 — 다음 책을 읽으며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사사기 전권의 관찰도 여기서 닫는다.